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현대불교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전단 백등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한국홈페이지 : www.chandan.com
한글홈페이지 : 전악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9월 21일(음력 8월 18일) 수요일 (주간) 제 544 호

'생명나눔' 열풍 분다

법장 스님 법구 기증 사회적 반향… 400여명 동참, 계속 확산

조계종 총무원장 인곡당 법장 대종사(사진)의 법구가 종립 동국대 일산병원에 기증된 후 '생명나눔' 열풍이 불고 있다.

법장 스님 원적 후 조계사 앞마당에서 장기기증 서약 동참 창구를 개설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총 324명이 '생명나눔'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법장 스님은 생전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을 역임하며 난치병 환자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한 장기기증운동을 이끌었다. 스님은 지난 1994년 3월 24일 누구보다 먼저 사후에 각막, 장기, 시신을 기증하기로 서약했다.

하지만 스님 서약이 그대로 이행되기에는 어려움도 있었다. 일부 문도스님들이 '불경스럽다'며 반대를 했던 것이다. 문도들과 장의위원회는 수차례 숙의를 거쳐 법장 스님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 스님의 실천행을 완성하는 것이라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종정 법전 스님의 하교가 결정적이었다.

총무원장 권한대행 현고, 문중을 대표한 수경, 장의위원회를 대표한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12일 법전 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법전 스님은 "성직자는 공인이므로 사회를 향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장 총무원장의 법구



기증을 계기로 승가정신을 되찾고 종도가 화합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법장 스님의 법구는 12일 오후 3시 30분 경 간단한 이운의식을 거친 뒤 동국대 일산병원으로 이운됐다.

이날 오후 6시 30부터 정형외과 태석기, 흉부외과 김응중, 병리과 박성신, 진단검사의학과 채석래 교수 등이 법구를 부검하기 시작했다.

스님의 법구를 부검한 '인곡당 총무원장 법신 수증 위원회'는 "부검 결과 뼈는 이식이 가능하지만 각막은 6시간이 지났고 심장판막도 부정맥이 있어 스님의 생전 뜻대로 이식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식이 가능한 뼈는 병원의 골 은행(Bone Bank)에 보관해 필요한 분들께 기증할 것이며, 법신은 의학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용으로 영구히 보존해 후학 양성에 밑거름이 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장 스님 법구 시신 소식이 알려지자 기획실장 법안, 문화부장 탁연, 불교신문 주간 정범 스님 등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과 김태동 前 청와대불자회장 등이 '생명나눔'에 동참했다. 15일 수덕사에서 봉행된 단혼재 후 설정 · 수경 스님 등 문도들도 장기기증을 서약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법장 스님 원적 이후 장기기증 열풍에 동참한 사람은 400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불교계에선 큰스님이 입적하면 다비를 하는 것이 전통 관행이었다. 다비한 뒤 나온 사리로 큰스님 잣대를 재기도 한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법장 스님 법구 기증을 계기로 불교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장례문화의 새로운 변화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인곡당 법장 대종사 종단장 장의위원회는 "평생을 생명운동에 매진해왔던 법장 스님 법구가 다시 새로운 생명의 싹이 되고, 우리 사회 내에서 보다 광범위한 생명나눔운동으로 활성화 되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남동우 · 유철주 · 김강진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인곡당 법장 대종사 영결식이 9월 15일 조계사에서 3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스님이 법구를 기증함에 따라 다비식 없는 최초의 종단장으로 거행됐다. 사진=고영배 기자

법장 대종사 11일 원적

15일 조계사서 종단장, 3만여명 애도
대종사 ·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조계종 총무원장 인곡(仁谷)당 법장(法長) 대종사가 9월 11일 오전 3시 50분 경 원적에 들었다. 세수 64세, 법랍 45년.

관련기사 2 · 3 · 4 · 15면

조계종은 11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스님께서 더욱 건강한 몸으로 종단 발전에 진력하고자 신병을 치료하던 중 열반에 드셨다"며 "전 종도와 더불어 깊은 애도를 드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법장 대종사는 11일 새벽 입적하기 전 시자 진광 스님 요청에 따라 평소 대중 법문 때 마다 신도들에게 즐겨 말씀했던 "나에게 바랑이 하나 있는데(我有一鉢囊) 입도 없고 밑도 없다(無口亦無底) 담아도 담아도 넘치지 않고(受受而不濫) 주어도 주어도 비지 않는다(出出而不空)"는 글귀를 시자스님 노트 뒷장에 친필로 남겼다.

빈소는 조계사 대웅전을 비롯해 전국 교구본사별로 설치됐다. 외국을 순방중인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해 김병준 정책실장이 조문을 오는 등 수많은 사부대중이 빈소를 찾아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고인의 투철한 애종심과 활발한 사회 활동 등을 기려 종단에서는 대종사 법계를 품서했으며, 정부에서는 제일 높은 등급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영결식은 15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 인곡당법장대종사종단장(葬)'으로 거행됐다. 고인의 생전 서약에 따라 법구가 종립 동국대 일산병원에 기증됨에 따라 종단장 최초로 다비식 없이 엄수됐다.

3만여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거행된 영결식에서 장의위원회 위원장 현고 스님은 영결사를 통해 "스님의 원력으로 인해 종단의 위상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으며 불교발전의 기틀이 마련돼 가고 있었다"고 애도했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원로회의 부의장 보성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종단의 갈등과 대립을 통합하고 원융과 화합으로 종풍을 드높이고 불조가 전승한 법등을 빛내기 위해 정진하던 그 모습이 산승의 눈에도 밟힌다"고 추모했다.

이 외에도 용주사 주지 정락,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혜국, 전국 비구니회 회장 명성,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권한대행 등 불교계와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이명박 서울특별시장 등 정관계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조사를 낭독했다.

2면으로 이어짐

법장 스님, 보험금 나눔운동 1호

보험료 1천만원 승려노후복지기금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인곡당 법장 대종사 원적으로 발생한 보험금 전액이 승려노후복지기금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법장 스님은 2004년 4월 23일 녹십자 생명의 '자비보시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은 조계종 대행 회사인 KBLP(Korea Buddhist Life Planing, 대표이사 강정기)와 녹십자생명이 승려노후복지를 위해 진행한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의 한 상품.

법장 스님은 보험 계약시 매월 10여만 원을 보험금으로 납입하면서 사망시 수익자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법장 스님 원적으로 1000만원의 보험금이 사회복지재단으로 지급돼 승려노후복지기금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법장 스님은 생전 '종단 안정과 수행 풍토 조성을 위해 자비의 보험금 나눔 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 운동을 바탕으로 의료요양시설을 갖춘 기거센터(실버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해 왔다. 남동우 기자

호외발행 법장 대종사 원적 속보를 알리기 위해 9월 12일자로 호외를 발행했습니다. | 추석 연휴관계로 지역에 따라 배달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동화사 계율수행 대법회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율장정신'
법주 : 각묵 스님(9월 24일 오후 3시)

'할'



그림 · 조태호

철우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지금까지 이런 선화는 없었다"
묵연스님의 선화 전시회 및
묵연스님의 시화 명상집 출판 기념회



불교TV "시가 있는 찻집"과 "시와 사랑"에 출연하여 불자님들의 뜨거운 성원을 받았던 바로 그 묵연스님이 170평의 대 전시관에서 첫 전시회를 가집니다.

길이 5cm, 지름 8mm의 오직 한 붓으로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는 선에서부터 다른 모든 선의 표현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묵연스님만의 독보적 기법은 선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보이며 보는 이로 하여금 오묘한 자신의 내면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붓으로 그렸다고는 믿기 어려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일필휘지의 일원상



● 장소 : 갤러리 라메르
(인사동 사거리에서 공평아트 방향 중간에 위치)
● 일시 : 2005년 10월 5일 오후 2시부터 2005년 10월 11일 오전 12시까지
● 문의 : 011-9366-1129

“남북 화해 기여, 자비실천 큰 교훈”



■노무현 대통령 조의 메시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원적에 들자 외국을 순방중인 노무현 대통령(사진)이 9월 11일 조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노 대통령은 조의메시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대종사의 입적을 애도한다”며 “대종사께서는 한국 불교의 선맥을 정립하고 정법 수호에 앞장서 오셨다”며 원적을 애도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을 방문하는 등 남북 화해와 협력에도 크게 기여하셨다”며 “특히 동체대비사상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자비하심을 생활속에서 실천해 오신 것은 중생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다”고 고인의 업적을 기렸다. 남동우 기자

총무원장 선거 11월9일 전에 해야

총무부장이 권한대행…선관위 21일 회의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 인곡당 법장 대종사 원적으로 32대 총무원장 선출 일정과 방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총무원장은 총무부장 현고 스님이 대행하고 있다. 총무원법 제10조 1항에 “총무원장 유고시 총무원장 권한 대행 순위는 총무부장, 기획실장, 재무부장, 문화부장, 사회부장, 호법부장 순서에 의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 현고 스님은 9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총무원장 선거법 제28조 1,2항에 따르면 총무원장 궐위시 30일 이내 선거를 치르며, 임기(4년)는 새로 시작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총무원장 선거법 제12조 2항에는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따라서 총무원장이 궐위되자마자 선거일을 공고해야만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 한 관계자는 “1999년 정대 스님이 총무원장에 당선될 때 ‘총무원장 선거는 궐위시로부터 30일 이내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 선거를 실시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준한다면 궐위된 후 30일 이내인 10월 10일 이전 총무원장 선거일이 공고되고 11월 9일 이전 선거가 치러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1일 회의를 열어 선거일정 및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총무원장은 선거인단이 선출하며 원로회의 인준을 거쳐 취임한다. 선거인단은 중앙종회의원 81명과 교구별 선거인단 240명 등 총 321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조계종은 최근 금권선거 등 현행 선거제도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었다. 총무원장 선거의 경우 △현행제도 보완 △선거인단 축소 △추대 △총무원장 권한 축소 등 4가지로 축소한 다음 공개토론회를 열고,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167회 임시종회에서 관련 종헌종법 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장 스님의 갑작스런 원적으로 선거법 개정 가능성은 희박하게 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 스님은 “9월 22~3일 종단 중진스님들을 모시고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순직 총무원장 청담·경산 이어 세번째

법장 스님처럼 조계종 총무원장 재임중 순직한 사례는 청담·경산 스님이 있다. 법장 스님은 세번째.

한국불교의 정화를 주도했던 청담 스님은 비구승단인 조계종의 종권 다툼이 그치지 않았던 1971년 11월 두번째 총무원장직을 수행하던 중 입적했다.

불교정화가 마무리될 무렵 조계종 내부의 종권 다툼이 시작되자 1969년 조계종을 탈퇴하기도 했던 청담 스님은 1970년 고희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시 총무원장직을 맡았다. 도제양성·역경·포교 3대 사업을 일으켜 청정승단의 가풍을 회복하려 했지만 끝내 노령으로 쇠약해진 육신의 굴레를 벗었다. 법랍 45세였다.

1979년 입적한 경산 스님은 정화불사의 원력보살이자 수행력과 경륜을 두루 갖춰 내외의 신임이 두터웠다. 동국학원 이사장과 종교단체 대표를 여러 차례 오랫동안 역임했다. 입적하기 전 역시 두번째 총무원장에 취임했다.

사실상 ‘원로’ 스님이었던 스님이 실무직인 원장직에 취임할 형편이 아니었지만 조계사와 개운사로 나뉘어 다투는 종단의 불화사태를 중재할 적임자로 스님이 나서게 된 탓이다. 경산 스님은 입적하는 날에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총무원장으로서 종무회의를 주재했을 정도로 종단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 법랍 44세였다. 조용수 기자

종자연, 종교자유 공익소송 추진

사상 최초로 학내 종교자유를 위한 공익소송이 추진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준비위원장 박광서, 이하 종자연)은 류상태 前 대광고 교목실장과 대광고 재학 당시 종교자유 운동을 펼쳤던 강의석씨 등으로 소송인단을 구성해 학내 종교자유를 위한 집단 공익소송을 추진한다고 9월 14일 밝혔다.

종자연 박광서 준비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개선의지가 부족하고 학내종교자유 신장을 위한 제도가 미비해 소송을 추진하게 됐다”며 “소송을 통해 학내 종교자유에 관한 사회적 합의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자연은 9월 30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해 10월 7일 공식적으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소송인단에 참여하는 사람은 서울시 소재 중고등학교를 졸업한지 2년 이내인 피해당사자로서 학교 재학 중 종교자유 침해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유철주 기자

현대불교 신행수기 공모 동참하세요

원고지 30매 … 마감 12월 17일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접수처 :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마감 : 2005년 12월 17일 ■당선작 발표 : 2006년 1월 1일자 본지 및 붓다뉴스
- ■문의전화 : (02)2004-8239 ■이메일 접수 : bypark@buddhapia.com
- ■시상 부문
  - · 대상(유마상) · 우수상(본지 사장상)
  - · 특별상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상, 태고종 총무원장상, 천태종 총무원장상, 관음종 총무원장상, 총화종 총무원장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신수회장상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부상-행운의 금(최고 10돈) 열쇠를 드립니다.

달라이라마·틱낫한·北 조불련…

세계 각국서 조문 보내

달라이 라마를 대신해 쵸펠라 달라이 라마 동북아 대사는 영결식에서 “스님의 입적과 함께 저희 티베트인들은 불법을 함께하는 진실한 친구를 잃어버렸다”며 아쉬워했다.

틱낫한 스님도 “유럽 및 미주의 플럼빌리지 선센터 사부대중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께 삼가 묵념을 올린다”고 조문을 보내왔다.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는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 북녘 전체 불교도들의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중국불교협회도 “법장 큰스님께서 중·한 양국 인민 및 불교계의 우정과 중·한 양국불교의 황금유대관계의 공고·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일한불교교류협회 미야바야시 쇼겐(宮林昭彦) 회장도 “대종사는 오늘날의 세계 정세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하고 방향성을 시사하며 인류구제에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대항했다”고 회고했다.

이 외에 마힌다 라자팍사 스리랑카 수상, 엽소문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장,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북·남)·해외 공동행사 해외측 준비위원회, 가야나 간타나 테라 방글라데시 마하만달 복지기구 부회장, 담바쟈브 캄바 라마 몽고 울란바토르 다쉬코일링 사원, 불광산종위회, 림삼콜 주한캄보디아 대사, 자곱 토빙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캐논 찰스 깁스 종교연합선도기구 전무이사 등도 조문을 보내왔다. 남동우 기자

1면에서 계속

법장 대종사 위패와 유품 등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한 바퀴 돈 뒤, 수많은 사부대중의 오열을 뒤로 한 채 출가본사인 수덕사로 향했다.

한편 햇볕이 쨍쨍하게 내려 비치는 데도 불구하고 영결식 도중 무지개가 뜨자 참석한 신도들은 “스님이 무지개로 화했다”며 감격해 했다.

법장 스님은 1960년 수덕사에서 원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뒤 제방선원에서 5안거를 성만했다. 중앙종회의원 4선, 수덕사 주지, 동국학원 이사,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한국불교선학연구원 이사장,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등을 역임했고 종정표창, 교정대상(자비상) 국민훈장(목련장) 등을 받았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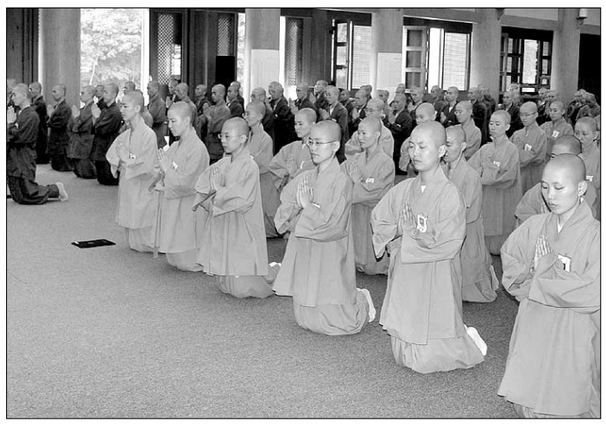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조계종은 9월12일 직지사 만덕전에서 제29기 행자교육원을 회향하고 사미 86·사미니 85명등 171명의 예비스님을 배출했다.

조계종 예비스님 171명 배출

제29기 행자교육원 회향

제29기 조계종 행자교육원(원장 성웅)이 9월 12일 예비 스님 171명(사미86·사미니 85명)을 배출했다.

29기 행자교육원은 8월 21일 179명의 행자가 입교한 가운데 직지사에서 23일간 경학과 율학, 예경의식과 실수, 위의, 행해, 습의 등 교육을 실시했으며, 11일 실시된 5급 승가고시에는 28기 탈락자 3명을 포함 175명이 응시해서 171명이 합격했다.

이날 회향식에서 교육원장 청화 스님은 “고매한 품성과 지혜를 갖추어 중생을 교화하고 사회를 밝히는데 힘쓰는 승려로서의 위의를 갖추어 나가라”고 당부했다.

170여명의 행자들은 발원문을 통해 “한 시간도 게으르거나 후회 없는 수행자가 되어 부처님 복덕 빛내고 만중생 살려가는 여래의 법왕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배지선 기자

“과거사위 불교인사 선임을”

10·27 법난규명위 요청

조계종 10·27 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추진위원회(위원장 법타, 이하 조계종 법난진상규명위)는 9월 13일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 이해동 위원장을 만나 10·27 법난의 원활한 조사를 위해 불교계 인사를 위원으로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

조계종 법난진상규명위 이근우 위원은 “법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사가 과거사위 위원에 참여해야 명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 이해동 위원장은 “법난과 관련해서는 불교계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해동 위원장은 또 “불교계 입장을 확인한 만큼 진상규명위 차원에서 불교계 인사 선임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유철주 기자

7년 연속 e트러스트 인증

불교상품전문 마하몰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www.mahamall.co.kr)이 7년 연속 eTrust인증 우수전문몰로 선정됐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eTrust 인증제도’의 8월 심사결과 이같이 선정됐다고 9월 15일 발표했다.

eTrust인증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인증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시스템 성능 및 안정성, 주문·결제·배송 프로세스, 개인정보 보호정책, 고객 서비스 및 사후관리 등의 심사 항목에서 합격점을 받아야 한다. 강지연 기자

大韓佛教曹溪宗 總務院長 仁谷堂 法長 大宗師
宗團葬 奉行에 대한 人事말씀

歸依三寶하옵고

지난 9월 11일 涅槃하신 大韓佛教曹溪宗 總務院長 仁谷堂 法長大宗師의 宗團葬을 엄숙히 奉行하였습니다.

먼길에 직접 찾아와 주신 종단의 원로대덕 큰스님들과 제방의 큰스님들, 각국 조문단, 정부 인사 및 사회 각계 각층 인사들, 그리고 사부대중께 삼배의 예를 올립니다.

또한 조화·조전 등으로 조의를 표해주신 각계 인사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큰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수행정진에 매진하겠습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人事올림이 도리인 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 올림을 널리 惠諒하여 주시길 앙망합니다.

佛紀 2549年 9月 15日

仁谷堂 法長 大宗師 追慕齋 日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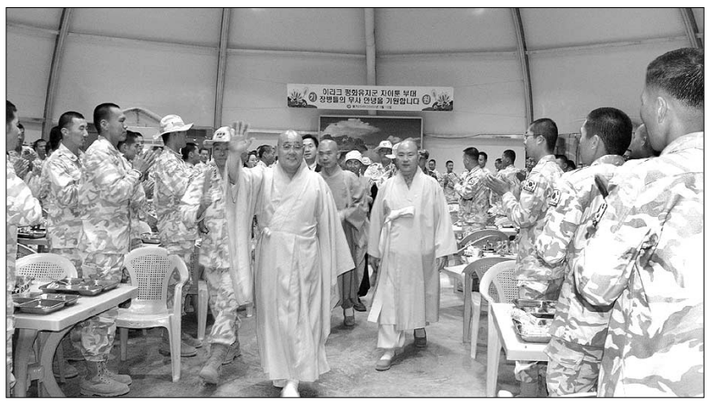
	장 소	일 시	연락처
초재	수덕사	9월 17일(음 8월 14일) 10:00	041)337-6565
2재	조계사	9월 24일(음 8월 21일) 10:00	02)732-2183,2115
3재	화계사	10월 1일(음 8월 28일) 10:00	02)902-2663
4재	법룡사(비구니회관)	10월 8일(음 9월 6일) 10:00	02)3411-8103
5재	수덕사	10월 15일(음 9월 13일) 10:00	041)337-6565
6재	도선사	10월 22일(음 9월 20일) 10:00	02)993-3161~3
49재	조계사	10월 29일(음 9월 27일) 10:00	02)732-2183,2115

■ 문의 :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 02)2011-1701
수덕사 ☎ 041)337-6565 · 조계사 ☎ 02)732-2183, 2115

大韓佛教曹溪宗 總務院長 仁谷堂 法長大宗師 宗團葬 葬儀委員會

원융화합 종단안정…국경없는 보살행 괄목

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대종사 적
재임시 업적과 사회활동


법장 스님은 원적시까지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쳤고, 그 영역은 국내외를 넘나들었다. 사진은 스님이 5월12일 이라크 아르빌 자이툰 부대를 방문한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각종 제도 개선사업 추진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아니 이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당선자로서의 기쁨은 다하고 숱한 번민과 고뇌만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총무원장이 짊어져야 할 몫이라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종단과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고뇌를 받아들이겠습니다."

2003년 2월 24일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인곡(仁谷)당 법장(法長) 대종사는 '숱한 번민과 고뇌만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길을 마다않고 갔다.

스님은 1941년 6월 15일 충청남도 서산군 음암면 성암리에서 부친 김기홍 거사와 모친 가성 보살 사이에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속명은 계호(界鎬). 수행납자인 사촌형의 모습에 매료돼 현 덕숭총림 방장 원담 스님을 은사로 60년 출가해 65년 덕숭사 정혜사 능인선원 등에서 5안거를 성만했다.

80년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에 당선된 이래 스님은 82년 총무원 사회부장 등 요직을 역임하면서 불교의 사회참여와 복지활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법장 스님은 총무원장 취임 100일을 맞아 제31대 총무원 종책기조 및 중점종책과제를 발표했다. '함께 하는 종단, 신뢰받는 종단'을 구현하기 위해 4대 종책 기조 아래 31개의 구체적 사업을 제시했다. 4대 종책 기조가 바로 △수행종풍 진작으로 거듭나는 종단 △참여 속에 함께하는 원융종단 △종도와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종단 △미래를 지향하는 효율적인 종단 실현이다.

법장 스님은 4대 종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조계종 최초로 '비구니 부장'을 임명, 비구니 스님들의 지위 선양과 능력 발휘에 관심을 보였다. 스님은 "비구니 스님이 과반수가 넘고 여성의 역할이 커지는 사회흐름에 따라 비구니 스님을 부장에 임명했다"며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스님은 또 취약한 승려노후복지를 위해 '자비의 보험금 나눔 운동'을 펼쳐 약정금 20억여 원을 확보했다. 10개 교구본사에 실비양로시설 설립을 정부 지원을 받아 진행시켰고, 세랍 65세 이상 스님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승려노후복지 대책팀을 구성했다.

종단의 근간을 새롭게 다지기 위해 승가교육제도개선 사업도 추진했다. '승가교육개선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승가교육개선안을 마련한 다음 현대적인 승가교육체계의 단초를 마련했다.

2004년에는 승풍 진작과 종단 위계질서 확립 차원에서 그 동안 끊겼던 대종사 법계 품서를 거행했다. 종지종풍 선양을 위해 종도 도의 국사 다례재를 봉행했을 뿐 아니라 〈조계종사〉 고증 세편을 발간해 종단사 정립 전기를 마련했다. 종단의 실질적인 화합과 중앙과 교구본사 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처음으로 교구별 간담회를 진행했다.

승려노후복지·교육체계 개선 큰 원력
北·美·이라크 방문 '평화 메신저' 역할

소년소녀가장 돕기 1사찰 1가정 결연 후원 운동을 전개할 때다.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과 국장들이 종로구청 내 소년소녀가장과 결연할 때, 스님은 당신부터 결연 소년소녀가장에게 대학 진학 시까지 장학금 지원을 약속했다.

불사 능력 탁월

법장 스님은 총무원장에 당선되기 전부터 '행정의 달인'이라고 불렸다.

1992년 수덕사 주지로 부임한 이후 수덕사 종합불사 계획을 수립해 가람을 정비하고 수행환경을 보전했다. 95년에는 수덕사 성보박물관을 건립해 경허·만공 스님의 유품을 비롯한 성보문화재 1000여점을 전시했다.

총무원장 당선 후 스님이 가장 힘을 쏟아 추진했던 불사는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한국불교 미래를 개척해 나갈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는 공주 마곡사 인근에 3년간 국고 122억원, 자부담 122억원 등 총 244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돼 대지 9000여평 건물 4000여평으로 조성된다.

스님은 부처님 뜻을 펴기 위해 국내외를 가리지 않았다.

금강산 신계사를 복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현지에서 대웅보전 낙성식을 봉행했다. 복원불사는 2007년까지 만세루, 3층 석탑, 요사채 복원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남아시아 국민들을 위해 '자비의 탁발'로 20여억 원을 모금한 것은 종단 초유의 일. 2004년 5월에는 불교국가인 스리랑카에 '조계종 마을'을 건립했고, 고아원과 양로원을 포함한 현대식 종합복지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법장 스님은 조계종의 총본산 격인 조계사와 총무원 성역화 사업을 이끌었다. 2004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차 준공식을 완료했으며, 한달 뒤에는 전체 공사를 회향하는 준공식이 열릴 예정이었다. 총본산성역화불사기금 10억여 원도 모금해 향후 성역화 불사의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

2005년 여름에는 박물관 수장고 공사를 완료해 '불교중앙박물관' 개관 기반을 확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 공사 문제로 고초를 겪었다. 입찰부터 법장 스님과 친분 있는 사람이 관여된 비리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월간중앙' 사태 등 원적전까지 힘든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국내외 사회활동 활발

법장 스님은 생전 '1달에 1만㎞'를 다닌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원적에 들기 4개월 전인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이라크 미국 북한 대만 사할린 일본 등 6곳을 순방했다.

이와 관련 법장 스님의 사형인 설정 스님(前 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은 "종단 외부 문제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종단 일이나 잘 처리하라고 당부하면 법장 스님은 '승속이 따로 없다. 우리 종교계를 대표해 불교계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고 회고했다.

법장 스님의 이라크 방문 시 여러 가지 견해가 상반됐다. 민간 지도층 인사 최초로 방문하는 것이었지만 이라크 자이툰 부대 성격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법장 스님은 "순수하게 종교인으로서 이역만리 타국에서 이라크인들의 재건과 평화를 위해 노고가 큰 우리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최초로 미국을 방문한 법장 스님이 백악관과 국무성 고위 관리들을 차례로 만나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6자 회담 재개를 설득한 일은 국가적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스님은 방문 중 미국 고위 관리들을 통해 이러한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8.15 민족통일대축전 남측 명예대표로 방북해 남북간 화합의 마당을 마련한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다. 현직 총무원장으로는 최초로 방북했을 뿐 아니라 안경호 북측대표를 만나 북핵문제를 평화적인 대화로 풀어갈 것 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법장 스님은 이외에도 대만을 방문해 포광산쓰(佛光山寺) 싱윈(星雲) 대사와 만나 한국-대만 불교우호교류 협력방안을 이끌어 냈다. 또 강제 징용된 한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사할린을 방문, 한국불교에 살아있는 자비심을 심었다.

'함께 하는 종단, 신뢰받는 종단'을 만들기 위해 국내외를 마다하지 않고 바쁜 걸음을 했던 법장 스님은, 2005년 9월 11일 오전 3시 50분 경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입도 없고 밑도 없는' 바랑에 담고 원적에 들었다.

남동우 기자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 헌신

조계종 총무원장 인곡당 법장 대종사는 역대 총무원장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했다.

"항상 모든 것을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는 소신으로 스님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유자재한 대화를 펼쳤으며 불교의 대중화, 사회화를 위해 헌신했다.

그래서 상좌스님들은 '말씀보다 행동이 우선하는 분'이었다고 회고한다.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에 선출되기 전부터 조계종 전국본사주지연합회 회장과 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을 비롯해 충남 지방경찰청 경승실장, 한국유권자운동연합 공동대표, WFB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지부 총재, 동국학원 재단이사, 대한불교청년회 부총재 등 불교계 안팎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였다.

장기기증 문화 싹틔우고 사형제 폐지 운동 앞장

특히 스님은 종단 내적으로도 종단개혁과 정화를 위한 실천정신으로 언제나 선봉에 섰다. 스님은 1994년 개혁회의위원, 1999년 법규위원으로서 종단개혁에 일익을 담당했다. 1998년부터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의 친목모임인 전국교구본사주지연합회 회장을 맡으면서 북한산터널 관통 반대운동, 98년 종단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스님은 1994년 3월 불교계 장기기증 단체인 '생명나눔실천회'를 창립해 사회복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뒤에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로 이름이 바뀌면서 장기기증 운동은 물론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화장유언 서약을 통한 사업과 어려운 환자 돕기 운동도 펼쳐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복지단체로 성장했다.

스님은 한국불교의 선맥(禪脈)을 정립하고 정법을 수호하여 인류를 구하고, 부처님의 정법을 역사와 사회에 여법하게 구현하여 청정·화합수행의 선풍을 이루고자 1999년 '한국불교선학연구원'을 설립해 선풍진작에도 앞장섰다.

1986년부터 홍성교도소 종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재소자 교정교화운동을 펼쳐왔다. 2001년 6월 스님은 사회복지 증진과 교정의 사회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정대상 자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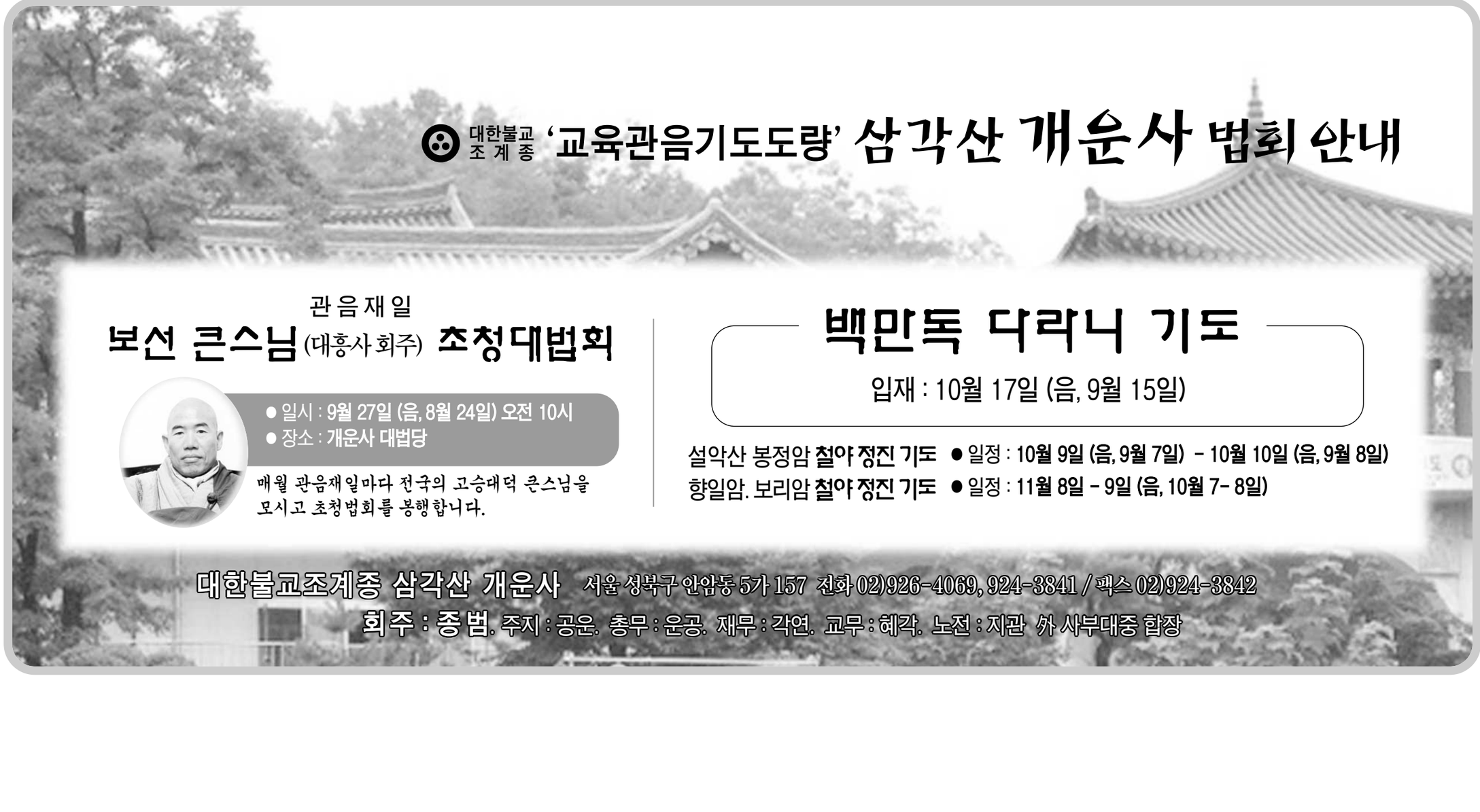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법장 스님은 오갈 데 없는 아이들 17명을 수덕사에서 돌봐왔고,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장학사업도 펼쳐 많은 인재를 배출했다.

이밖에도 스님은 1994년 사형제도 폐지운동에 앞장섰고, 북한 동포의 식량부족과 기아문제, 탈북자 대책, 국제난민 문제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법장 스님은 "남다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회를 위해 조그만 무엇인가라도 행하고 실천하는 삶,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 불교는 인류의 행복을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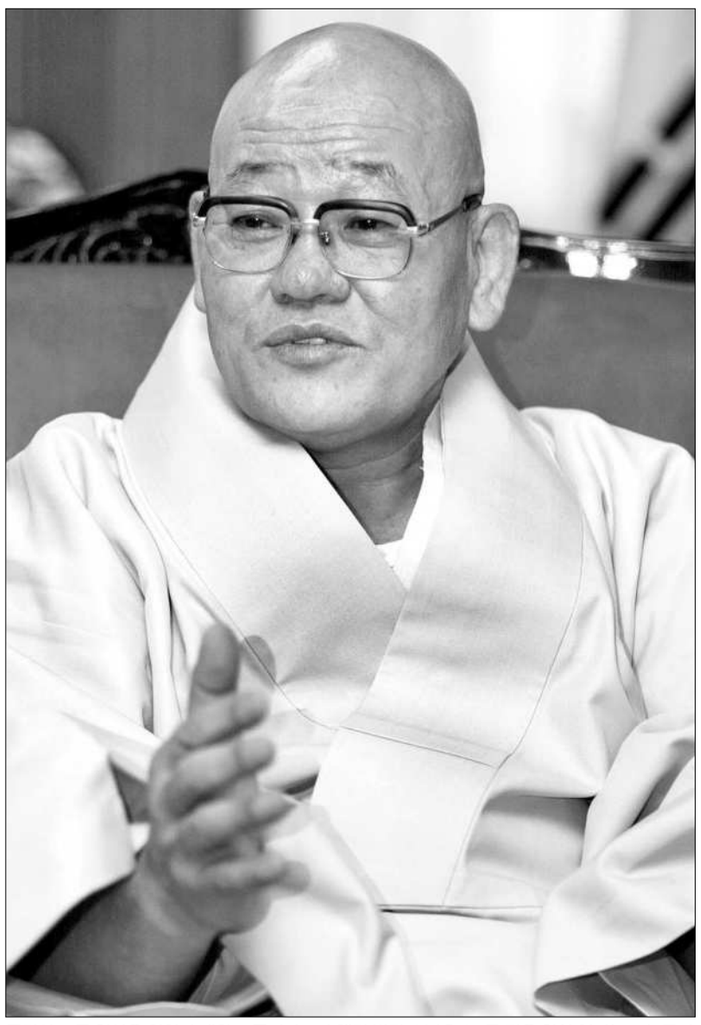
김원우 기자


1995년 3월, 생명나눔실천회 창립후 첫 신장이식을 마친 환자를 위로하는 법장 스님.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으로 생명나눔 운동에 앞장섰다. 사진제공=생명나눔실천본부



평생 고통 모으러 다닌 수행자

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대종사 적
원력과 가르침



종단의 모든 현안을 원칙과 대화로 풀어가고자 했던 법장 스님은 '모든 것을 항상 열어놓고 누구와 만나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소신을 종단행정이나 평소 생활에서 구현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법장 스님의 45년 수행생활은 스님 스스로가 원했듯이 대중과 함께 한 삶이었다. 사람을 좋아했던 성품 그대로 누구에게나 따뜻함을 잃지 않는 인자한 수행자 법장 스님. 법장 스님은 선 수행자로서, 종단의 최고 행정 전문가로서 선풍을 진작시키고 불교의 사회화 · 대중화 · 현대화를 이루기 위해 오롯이 대승보살의 실천적 삶을 살아온 이 시대의 '원력보살'이었다.

총무원장 소임을 맡은 지 6개월쯤 지난 2003년 여름, 법장 스님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람들이 원장스님 원장스님 하지만 난 그저 고통을 모으러 다니는 나그네일 뿐이지요" 라고 말했었다.

이 말 한마디는 법장 스님이 스스로 어떤 삶을 원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고등학교 재학시절, 출가한 사촌형에게서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당당하고 여유로운 수행자의 모습'을 보고 출가했던 법장 스님. 법장 스님이 평생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사람'이었다.

법장 스님은 늘 대중과 함께 하길 원했다. 수덕사 주지시절 불우한 아이들을 데려다 키운 것이나, 교도소 재소자 교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나, 생명나눔실천회를 설립하고 생명살리기 운동에 나선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사람을 소중히 여겼던 스님의 철학은 자연스럽게 인재양성으로 이어졌다. 수덕사 주지 당시 20년을 넘게 전국 선방의 대중공양을 해 온 스님은 총무원장이 돼서도 이를 거르지 않았다.

또 역대 총무원장 중 승가교육에 대해 가장 깊은 관심을 쏟으면서 승가교육체계 확립에 심혈을 기울였을 뿐 아니라 청소년 대학생 등 인재를 키우는데 전력을 다했다.

법장 스님은"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사"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었다.

법장 스님은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과 격의없이 만나길 좋아했다. 언제 어디서든 자신을 만나러 온 사람은 그냥 돌려보내는 법이 거의 없었다. 2년6개월의 총무원장 재임기간 중에 사람들을 만난 횟수는 역대 총무원장 중 최고다.

숨 돌릴 틈 없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법장 스님은 신도단체 대표나 신행단체 불자들을 모두 만났다. 수덕사 주지 시절엔 한 달에 1만㎞를 다녔을 정도로 분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교분을 쌓았던 것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을 정도다.

불교 세계화 · 대중화 앞장선 '원력보살'
체면 · 격식 안 따지고 수많은 이들과 대화

체면과 격식을 차리지 않는 성품이었지만 어른을 공경하는데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깍듯했다.남달리 '승려노후복지'를 강조했던 것도 바로 이런 성품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모든 것을 항상 열어 놓고 있어야 한다'는 소신은 총무원장이 돼서도 변함이 없었다. 총무원 출입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감없이 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로 법장 스님은 언제나 마음을 열어놓으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자상한 성격 때문에 때로는 "총무원장 격에 맞지 않게 작은 일에도 나선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법장 스님은 "모두가 부처님 일인데 크고 작고가 어디에 있겠느냐"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소탈하고 꾸밈없는 성격 역시 이따금씩 '종단 정치'에서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했다. 능란한 정치보다는 원칙과 대화로 풀어나가려는 법장 스님의 스타일은 때로는 '종단 정치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법장 스님은 늘 "나는 정치인이 아니라 수행자"라며 여유를 잃지 않았다.

'눈길을 가는 나그네여, 조심해서 발을 디뎌라. 오늘 네가 가는 그 행적이 뒷사람이 따르는 이정표가 되리니'.

법장 스님이 가장 즐겨 읽던 서산 대사의 시구다. 어디에도 걸림이 없었던 자유자재한 수행자였던 춘성 스님과, 평생 일꾼들과 똑같이 일했으면서도 뛰어난 수행력을 보였던 노스님(은사 원담 스님의 은사인 벽초 스님)을 사표로 삼았던 법장 스님.

선의 본산인 수덕사 주지를 맡고 나서도 법장 스님의 수행정진은 계속됐다.

매일같이 정진을 거르지 않으며, 새벽예불은 반드시 올리고, 도량청소에 빠지지 않으며, 대중들과 함께 공양하고, 사하촌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다섯 가지 계율을 스스로 정하고 이를 지켰다.

평소 법장 스님은 '신심 · 원력 · 무사심(無私心)'을 수행자가 지녀야 할 기본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후학들에게는 늘 "신심이 없으면 속인과 다를 바가 없으니, 일체의 사심을 버리고 수행에 정진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력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인곡당 법장대종사 영결 이모저모

"법장 큰스님, 예슬이가 왔어요!"

◯…법장 스님과 결연을 맺었던 최예슬(13 · 서울 효제초6)양도 9월 12일 빈소를 찾았다.

9월 11일 오전 뉴스를 보고 법장 스님의 원적 소식을 접한 예슬이는 엄마와 함께 조계사 빈소를 찾아 법장 스님께 마지막 인사를 올렸다. 예슬양은 "토요일 저녁에 법장 스님이 사주신 안경이 고장 나서 어쩐지 느낌이 안 좋았다"며 "할아버지처럼 잘해 주셔서 커서 꼭 은혜에 보답하려 했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황우석교수 "곁에서 모셔야 하는데"

◯…9월 11일 오전 법장 스님의 빈소를 방문했던 서울대 황우석 석좌교수는 오후 4시경 다시 빈소를 찾았다.

전날 전등사에서 법장스님의 쾌유를 기원하는 불공을 드렸다는 황교수는 법장 스님에게 '심산(深山)'이라는 법명을 받기도 했다. "삶의 방향과 연구의 뿌리를 제시해주신 분이 바로 법장 큰스님"이라는 황 교수는 15일 미국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조계사를 방문해 영결식에도 참석했다.

중앙승가대 학인 200여명 단체조문

◯…12일 법장 스님의 조계사 분향소에 단체로는 가장 많은 200여명의 스님이 한꺼번에 들어섰다. 학교법인 승가학원의 이사장이었던 법장 스님을 조문하기위해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을 비롯한 교직원, 학인들이 급히 전세버스로 조계사에 도착했다.

종범 스님은 평소 승가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중앙승가대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위해 노력해왔던 법장 스님의 갑작스러운 원적에 말을 잇지 못했다.



법장 대종사의 영결식이 봉행된 9월 15일 오후 수덕사에서 단혼재가 봉행됐다. 사진은 법장 대종사의 유품을 태우는 장면. 수덕사=박재완 기자

2만여 추도인파 조계사 일대 가득 메워

◯…9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영결식에는 역대 종단장 가운데 가장 많은 2만여 사부대중이 운집.

식이 시작된 이후에도 조계사 일주문과 우정공원 출입구까지 추모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고, 미처 조계사 경내 앞마당에 들어가지 못한 시민들은 우정공원에 마련된 추모사진 등을 보며 법장 스님의 원적을 애도했다.

영결식 조사만 20명

◯…법장 스님의 폭넓은 인맥관계는 이번 영결식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조계종단과 정부, 신행단체 관계자 등 무려 20명에 달하는 각계 인사들이 법장 스님의 원적을 추모하는 조사를 했다. 장의위원장을 맡은 현고 스님과 최예슬양은 조사를 읽어 내려가던 도중 연신 울먹여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법장 스님의 육성 법문이 흘러나올 때는 신도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생전 모시던 사서실 직원들 눈물

◯…법장 스님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모셨던 사서실 직원들은 조계사 일주문 밖에서 영결식을 지켜봤다. 특히 매일 법장 스님을 모셨던 재가자 사서 김선임씨는 영결식이 진행되는 동안 연신 눈물을 흘려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상스러운 해 무지개 나타나

◯…영결식이 진행되는 동안 태양 주위로 선명한 무지개 원이 나타나 영결식장의 사부대중이 술렁이기도. 구름한점 없는 하늘에 30여분 간 계속 피어난 무지개는 영결식이 끝나자마자 소멸됐다. 상서로 광경을 지켜본 한 불자는 "큰 스님이 돌아가셔서 무지개가 하늘에 나타난 것 같다"고 감격해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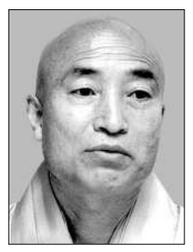
정리=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인 · 터 · 뷰 ——— 내가 본 법장 대종사

법장 스님의 갑작스런 입적을 누구보다 애통해 한 이는 사형 설정 스님과 맏상좌 정묵 스님 이다. 설정 스님은 생전의 법장 스님을 "강직한 성품으로 평생 무소유를 실천한 분"으로, 24년을 가까이서 모셨던 맏상좌 정묵 스님도 "부모보다 더한 정을 주셨던 분"이었다며 슬픔을 가누지 못했다.

신념 · 소신 뚜렷한 열정가

사형 설정 스님



▲법장 스님의 출가시절은?

-개인적으로 법장 스님과 나는 은사 원담 스님 문하로 5년차를 두고 출가했다. 젊은 시절부터 사제로 오래 기간 애틋한 정을 나눴던 관계다.

어린시절 스님은 지금과는 달리 약하고 말랐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부지런할 수가 없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오셨을 무렵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셨던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수행에 소홀해질 수 있는데 한번도 예불이나 참선에 빠지는 법이 없었다.

▲평소 법장 스님의 성품은?

-나름의 신념과 소신이 뚜렷하신 분이었다. 일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셔서 잠은 서너 시간 이상을 주무시지 않으셨다. 인간관계에서도 남녀노소, 부자거나 가난한 이나 높고 낮은 이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만나셨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라도 만나는 모습을 주변에서 지켜보면 저절로 존경심이 났다. 승속가리지 않고 자신을 만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최선을 다해 대하셨다.

▲법장 스님은 어떤 분이었나?

-평생 통장이 없을 정도로 일생을 무소유로 살아왔다. 유품정리를 해보니까 남은 건 평소 쓰시던 유품과 병원에서 지인들이 병원비에 보태라고 준 위문금 약간이 전부다. 언제나 남에게 주기를 좋아했고 수중에 들어온 것은 남김없이 베풀었다.

사회복지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어 어려운 이들을 그냥 두고 보지 못했다. 법장 스님은 수덕사 인근에서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수도 없이 절에 데려다 길렀다.

(수덕사 수좌)

타인에게 관대 자신에겐 엄격

맏상좌 정묵 스님



▲법장 스님의 병세는 어떠했나?

-14년전 충남병원에서 수술을 한 번 하신 적이 있다. 2달 정도 치료를 했는데 완치되지는 않으셨다. 이번에는 막혔던 심장의 혈관 2곳을 뚫는 수술이었다.

입원 후 수술하실 때, 그리고 마지막 입적 전까지 도신 스님하고 내가 모셨다. 마음이 아파서 수술실에는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대신 시자가 들어갔다.

▲입적 전 남긴 말씀은 없었나?

-수술 전 큰스님은 한라산을 가시고 싶어 하셨다. 종단 소임자들과 재가 종무원, 조계사 식구들과 꼭 한라산에 한번 가자고 하셨다.

수술실에서 시자를 통해 모든 여러 가지(수덕사 토굴방문열쇠 등)를 내게 전하셨다. 지금 입고 있는 장삼도 병원에서 스님이 물려주신 옷이다.

24년째 한번도 스님을 벗어나 살아온 적이 없는데 가슴이 찢기는 듯한 슬픔을 가눌 길이 없다.

▲법장 스님과의 인연은?

-은사스님을 처음 뵌 것은 열살 무렵 친척 스님의 손을 잡고 수덕사로 갔을 때다. 따스한 손길로 나를 거두어 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이런 자리에 서게 됐다. 큰스님은 제게 엄격한 스승이자 자애로운 어버이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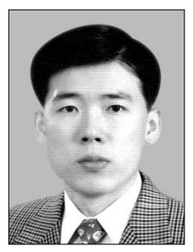
▲평소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은?

-당신의 수행에는 엄격하시고 남에게는 관대하여, 열고 닫는 법이 자유자재하셨다. 특히 출가자에게는 원력을 세우며, 수행을 할 때는 뜻을 산과 같이 세우고 마음은 큰 바다와 같이 쓰라고 하셨다. 스님의 유지를 따르기 위해 문도들 모두 신명을 바쳐 스님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이다.

(선본사 주지)

인류 문명의 새 패러다임 禪 강조

재가 제자 한중광씨



▲법장 스님은 선사상 중흥에도 남다르셨는데.

-간화선의 전통을 계승한 한국선(韓國禪)의 본찰인 수덕사 주지로 오래 계시면서 경허-만공 선사의 선사상을 기치로, 선을 펴시고자 혼신의 힘을 쏟으셨다. '무불선원 · 선학연구원 · 선학대학원' 모두 한국 선을 중흥시키고자 애쓰신 스님의 업적이다.

다만, 후학들이 스님의 뜻을 잘못 받들어 현재 무불선원 선학연구원이 침체되어 있어 스님께 죄송스러울 뿐이다.

▲스님의 선에 대한 원력은?

-스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인류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선(禪)을 주창하셨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정신과 물질이 조화를 이루고, 종교와 종교가 회통될 뿐만 아니라, 인종과 인종이 화합하는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이 바로 선이라는 것을 역설하신 것이다.

▲스님과의 인연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송담 스님을 뵙고 선문에 들어, <간화선의 사상체계>라는 제목으로 박사 논문을 준비하다가 법장 스님을 뵙고 경허 스님의 선(禪)을 공부하게 되었다.

간혹 우스개소리로 상대를 편하게 하시던 스님은 멋을 아시고 때로는 즐기시면서 누구라도 금방 친해지는 친화력을 갖고 계셨다.

스님께서는 경허 스님에 대한 말씀과 법어집도 주시며 격려하셨는데 실제 공부해보니 너무 대단해 내 학문의 전환점이 되었다. 스님의 법은이 없었다면, 선의 본지풍광(本地風光)인 경허 선에 단박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법장 스님의 원대한 서원과 지중한 법은을 잊을 수가 없다.

(성균관대 강사)

정리=조용수 기자

복지의 온풍 솔~솔~

'사회복지법인 혜원' 금산사 텃밭에 배추 재배



부산 기장 금산사에서 열린 '배추모종심기'에 참가한 복지법인 혜원의 자원봉사자들과 금산사 주지 무유 스님(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독거노인 · 소년소녀가장에 김장 나누고 생활도 돌봐

9월 12일, '사회복지법인 혜원(이사장 원허)'의 자원봉사자 30명은 부산 기장 금산사 뒤 텃밭에서 배추 모종을 심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허리 펼 사이 없이 작업이 이어지는데도 12월 초순경 직접 심은 배추를 수확해 김장을 담궈 무의탁 노인들과 소년소녀가장에게 나눠줄 생각에 고단함은 대수롭지 않는 눈치다.

9년째 자체적으로 배추를 수확해 김장을 담궜던 금산사(주지 무유)는 '사회복지법인 혜원'의 봉사자들이 씨뿌리기와 모종 심기를 도와주고 김장까지 도맡아주겠다고 나서자 큰 짐을 덜었다.

이날 자원봉사자들의 씨 뿌리기는 앞으로 '사회복지법인 혜원'이 사회의 그늘진 곳곳에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게 될 복지의 씨앗 뿌리기를 본격화하겠다는 다짐의 자리여서 의미를 더했다. 2004년 5월 31일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혜원'은 그동안 두 차례 소년소녀가장 돕기 음악회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열어왔다.

이제 '사회복지법인 혜원'은 복지의 씨앗 뿌리기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가까운 이웃의 어른과 청소년부터 알뜰하게 챙기며 앞서가는 노인복지, 청소년 복지의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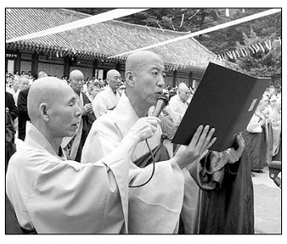
앞으로 '사회복지법인 혜원'은 그동안 병원 봉사, 경로잔치 등을 열어왔던 혜원정사의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펼쳐왔던 반찬서비스, 목욕 봉사 외에도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 등을 통해 경험을 쌓은 후, 향후에는 복지관 위탁 등 보다 적극적인 복지 사업을 추진해가겠다는 포부다.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원허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길이 고스란히 복지에 들어있다"며 "앞으로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행복을 가꿀 수 있는 생동하는 복지 시스템을 갖추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051)868-0138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쌍둥이 비로자나불 친견법회

해인사 12월 18일까지


해인사 비로자나불 친견법회에서 주지 현응 스님이 고불문을 낭독하고 있다.

국내 최고(最古)의 목불로 확인된 해인사 쌍둥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9월 10일 해인사 보경당에서 일반에 모습을 드러냈다.

해인사 보경당 앞마당에서 봉행된 비로자나 부처님 100일 친견법회에는 심의조 합천군수를 비롯한 1500여 사부대중이 운집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개금불사를 앞두고 옻칠한 상태의 두 비로자나불 좌상은 지권인(왼쪽 집게손가락을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감싸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 근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친견하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지난 6월 개금과정에서 내부 명문으로 중화3년(883년)에 제작되었다는 연기문이 발견된 법보전의 비로자나 부처님은 우측에 모셔졌고, 문화재 전문가의 내부 벽면 명문 해석에 의해 법보전 부처님과 동시대에 함께 제작된 것으로 판명된 대적광전의 비로자나 부처님은 좌측에 모셔졌다. 명문에 의하면 두 비로자나불은 대각간 위홍과 진성여왕의 서원이 담긴 불상으로 크기와 손가락 길이 등 전체적인 모습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쌍둥이 불상이다.

해인사는 12월 18일까지 공개를 마친뒤 비로전을 지어 두 부처님을 나란히 모실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가을 산사 음악축제 풍성

고창 선운사 · 옥천 대성사 등 20여 곳 잇따라

종교화합 등 주제 다양

고창 선운사, 옥천 대성사, 인천 흥륜사, 대구 갓바위 등 전국 곳곳에서 가을 산사음악회가 잇달아 열린다. (표 참조)

2003년과 2004년 '대중 속으로'를 주제로 산사음악회를 개최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옥천 대성사(주지 혜죔)는 올해 '종교화합과 선남선녀'를 주제로 9월 30일 오후 7시 경내에서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옥천성당과 공동 주최하는 대성사 산사음악회는 불교와 가톨릭 연합합창단의 공연 등으로 종교화합의 메아리를 전하게 된다.

특히 이날 산사음악회 마지막에는 '선남선녀 만남의 시간'을 마련해 음악회에 참석한 선남선녀들이 '만남의 의미'를 새기는 자리도 준비된다.

24일에는 세 곳에서 산사음악회가 열린다. 상사화 축제와 함께 열리는 고창 선운사(주지 범여) 산사음악회는 가수 송창식 김태곤씨, 대금연주가 이삼 스님 등이 신나는 음악의 향연을 펼친다.

청도 청계사(주지 혜봉)는 혜봉 스님과 함께 사는 초 · 중생 14명으로 구성된 물레방아 사물놀이패의 공연을 선보이는 창건 10주년 기념 음악회를 오후 7시에 연다.

강지연 기자

사찰 및 주제	일자	연락처
서울 백련사 산사음악회	9월 23일	(02)303-4114
대구 갓바위축제 음악회	23일	(053)427-5114
고창 선운사 상사화축제와 함께하는 산사음악회	24일	(063)561-1422
인천 흥륜사 '클래식과 산사의 만남'	24일	(032)832-1133
청도 청계사 창건 10주년 기념 음악회	24일	(054)371-4657
가평 구원사 '하나란 아름다운 느낌' 산사음악회	25일	(031)582-0734
평창 월정사 오대산불교문화축제 '마음 찾아 떠나는 시간여행' 선(禪)음악회	30일 ~10월 2일	(033)332-6664~5
옥천 대성사와 옥천성당 '종교화합과 선남선녀' 산사음악회	9월 30일	(043)732-5560
대구 은적사 '고산성당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	10월 1일	(063)466-4525~7
봉화 청량사 산사음악회 '생명-당신을 존경합니다'	1일	(054)672-1446
부산 범어사 음악회	1일	(051)508-3122~7
순천 송광사 불교문화축제 산사음악회	2일	(061)755-0108
서산 부석사 정진선원 상량기념음악회	8일	(041)662-3824
영주 부석사 화엄축제	8일	(054)633-3258
서울 도선사 산사음악회	8일	(02)993-3161~3
제천 무암사 산사음악회 '부처님 자비광명으로 온 세상 밝게'	8일	(043)652-0897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난치병어린이돕기 '참좋은 가을음악회'	10일	(053)474-8228
양평 사나사 산사음악회	15일	(031)772-5182
해남 미황사 작은 음악회	15일	(061)533-3521
영천 만불사 달맞이 산사음악회	17일	(054)335-0101
공주 갑사 창건 1585주년 기념음악회	22일	(041)857-8981
서울 심곡암 단풍축제 산사음악회	30일	(02)914-8860

충청불교계 힘모아 보존할 것

'호남고속철 계룡산 훼손 저지 불교연대' 발족

불교성지 계룡산을 지키기 위해 불교계와 지역 시민단체가 팔을 걷어 붙인다.

'호남고속철 계룡산 훼손 저지 불교연대'(상임대표 장곡, 이하 계룡산 불교연대)는 9월 20일 대전 백제불교회관에서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계룡산 보호 활동에 나선다.

계룡산 불교연대 상임대표 장곡 스님(공주 갑사 주지)은 "이미 상당히 훼손된 계룡산 국립공원이 더 망가져서는 안된다"며 "지역 불교계와 시민단체가 함께 호남고속철도의 계룡산 관통을 저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계룡산 수호 활동 동참을 선언한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도 "북한산, 천성산에 이어 계룡산마저 파괴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며 "충청지역 불교계를 적극 도와 계룡산을 보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룡산 불교연대는 발족 직후부터 지역 사찰에 계룡산 관통 저지 현수막을 내걸고 불자들을 상대로 한 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계룡산 불교연대에는 장곡 스님을 비롯해 요명 스님(동학사 주지), 지성 스님(신원사 주지), 지철 스님(대성사 주지, 대전불교환경연대 대표) 등을 비롯한 50여명의 스님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며, 공주 마곡사 주지 진각 스님이 고문을 맡아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정토회, 통일체육축전 개최

9월 25일 서울교대 운동장

남북한 동포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동한마당이 펼쳐진다.

정토회 좋은벗들(대표 유수)은 9월 25일 서울교대 대운동장에서 '제3차 통일체육축전'을 개최한다.

'화해 · 공존 · 나눔으로 일구는 아름다운 통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통일체육축전은 △화해의 장: 한가위 맞이 합동차례와 평화대동제 △공존의 장: 체육대회와 장기자랑 경연대회 △나눔의 장: 내고향 맛자랑과 전통놀이 체험마당 등으로 꾸며진다.

좋은벗들 대표 유수 스님은 "통일축전은 남북한 동포들이 함께 어울리는 통일명절"이라며 "특히 이번 축전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꾸려가고 있는 북한동포들이 직접 준비하고 있는 행사"라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유철주 기자

불광사 친환경공양미운동 동참



인드라망생명공동체가 벌이고 있는 친환경공양미 운동에 서울 불광사도 동참했다.

서울 불광사(회주 지홍)와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는 9월 11일 불광사에서 친환경공양미운동 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서울 봉은사와 부산 홍법사에 이은 세 번째 동참이다.

10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은 "최근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공양미에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다"며 "사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친환경 쌀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도 "정성스럽게 재배한 친환경 공양미와 농산물을 부처님 전에 올림으로써 사찰이 환경 · 생태 운동의 모범을 보이고 또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훈련병 4000명 골수기증

생명나눔, 논산훈련소서



"나누는 삶, 함께하고 싶습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사무총장 이혜숙, 이하 생명나눔)가 9월 11일 논산훈련소에서 진행한 골수기증 캠페인에 훈련생들이 검게 그을린 팔을 걷어 동참했다(사진).

생명나눔은 이날 일요법회 중 논산훈련소 박동진 지도법사의 협조를 받아 4000명의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골수 기증의 필요성과 생명나눔의 활동 취지를 설명했다.

설명회 이후 543명의 훈련병이 골수기증 희망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유전적합형' 분석 3cc 채혈을 마치고 골수기증희망자로 등록했다.

김강진 기자

능인정사 '자비의 쌀' 전달

서울 능인정사(주지 법경)가 한가위 '자비의 쌀 나누기'에 앞장서 훈훈한 '한가위 인심'을 전했다.

명절 때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의 쌀'을 지원하고 있는 능인정사 주지 법경 스님은 9월 14일 한가위 맞이 '자비의 쌀'을 배포해 넉넉한 마음을 함께했다.

법경 스님이 쌀을 전달한 대상자는 자양1 · 2 · 3동, 노유 1 · 2동 생활보호 대상자 등 광진구 일대의 소외계층이다. 스님은 이들에게 쌀 20㎏ 한 포대와 식품대금 2만을 각각 전달했다.

법경 스님은 "살기 힘들수록 조금씩 보태는 마음을 모아 어려운 이들에게 보내야 할 것"이라며 "나눔 회향 정신이 널리 퍼져 나가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圓 大韓佛敎曹溪宗 總務院長 仁谷堂 法長 大宗師 宗團葬 寂

한국불교와 종단발전을 위해 한 생을 다하신 큰스님의 원적을 애도하며
부디 극락왕생하시어 못다 이룬 원을 다하시길 기원드립니다.

禪宗首寺刹 奉 恩 寺

주지 설담 원혜

사부대중 일동

■ 서울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전화 02)511-6070~4 / 팩스 544-2141

물의 상생 정신 표현

원주 성불유치원 '119소방동요대회' 으뜸상 수상



성불유치원 원아들이 119소방동요대회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조계종 성불원 성불유치원(원장 현각)이 9월 7일 '강원도119소방동요대회'에서 대상을 받아 화제다. 그것도 종교색을 띠어서는 안되는 소방안전 캠페인을 목적으로 한 정부기관 주최 행사에서 불교사상을 절묘하게 접목시켜 갈채를 받았다.

소방동요대회는 어린이 소방안전교육 방법의 다양화와 효과 증진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소방방재청이 주최하고 각 시·도 소방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며, 시·도 예선을 거쳐 본선대회가 치러진다.

성불유치원이 이번 대회에서 원주시 대표로 참가, 소방동요인 '생명의 물'을 불러 강원도내 유아부 10개 팀, 초등부 10개 팀 등 20개 참가 팀 가운데 대상을 받았다.

연꽃 퍼포먼스 인기 강한 메시지 인상적

특히 이번 대회에서 성불유치원은 원아들이 무대에 입장하면서 합장 반배와 함께 '성불'을 외치며 인사를 한 뒤, 공연 중 연꽃 장식을 한 컵등을 들고 노래를 불러 박수갈채를 받았다.

대회 특성상 '종교적인 내용은 금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오히려 성불유치원은 소방동요인 '생명의 물'과 불교의 '자비와 상생' 정신을 상징하는 연꽃을 접목시킴으로써 심사위원들로부터 "생명의 물에서 피어나는 연꽃을 상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생명과 안전의식 고취의 강한 메시지를 주었다"는 평가와 함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성불유치원의 119소방동요대회 참가는 처음부터 의도된 것은 아니었다. 아이들에게 불심을 키워주고 협동심을 길러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상하다 우연히 소방경연대회가 열린다는 얘기를 듣고는 대회참가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뜻밖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성불유치원 원장 현각 스님은 "강원도 지역에 100여 개가 넘는 유치원이 있는데, 불교유치원이 이들 유치원을 대표해 전국 대회에 나간다는 것만으로도 어린이 포교와 불교이미지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26명의 성불유치원 원아들은 강원도 대표로 10월 21일 울산KBS방송국에서 열리는 '제7회 전국119소방경연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성불유치원은 이 기회에 아예 성불원 산하의 복지관과 어린이집 등지에서도 공연을 하고, 반응이 좋을 경우 다른 복지시설과 유치원·어린이집 등지에서도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자비심으로 어린 생명에 희망을

영남불교대 경산도량 난치병 돕기 음악제



경북 경산 남천둔치에서는 '꺼져가는 어린 생명에 희망을 주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하며 나 자신의 자비심을 일깨우는 행사'가 9월 10일 마련됐다.

영남불교대학 경산도량(주지 대륜)이 '난치병 어린이 돕기 참 좋은 가을음악제'를 봉행한 것(사진). 지난해 결식아동돕기에 이어 2회째 개최하는 음악제는 2000여 경산 시민들이 모이는 대성황을 이뤘다.

오후 7시부터 열린 음악제는 MBC 장인환 아나운서의 사회로 1부를 시작하고 TBC 이도현 아나운서의 사회로 2부의 막을 내리는 화합의 무대로 꾸며졌다.

첫 무대는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영남불교대학 칠곡도량 단소반 어린이들이 장식했다. 이어지는 무대는 영남불교대학 사물놀이 연구회의 난타 공연. 프로에 가까운 역량을 발휘해 음악제의 분위기를 띄웠고, 영남불교대학 문화관(관장 박향란)에서 선보인 아리랑 수건춤은 엄마와 딸이 함께 나와 선보인 따뜻한 무대였다.

그 외 대학생불자들의 재즈댄스, 가릉빈가 중창단과 경산도량 금강합창단, 남성중창단, 국악 관현악단의 공연이 이어졌다.

영남불교대학 경산도량은 최대한 많은 수익금을 난치병 어린이 돕기에 전달하기 위해 외부 프로 가수의 초청을 자제하면서 최대한 불자들의 봉사로 음악제를 준비했다. 그러나 어느 음악제보다도 풍성하고 화려한 무대를 연출했다는 평이다.

특히 음악제를 앞두고 펼쳐진 회주 우학스님의 작품전과 경산병원의 무료건강검진, 컵등시연회, 무료 가훈 써 주기, 페이스페인팅, 수지침 등의 다양한 행사는 좋은 반응을 보였다.

배지선 기자

두송복지관 10주년 기념식

사회복지법인 '늘기쁜 마을'이 운영하는 두송종합복지관(관장 지현)이 9월 9일 개관 10주년 기념식을 봉행했다.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 회장 혜총 스님, 박재영 사하구청장, 이해수 부산시의원을 비롯 1천 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개관 10주년 기념식은 1부 기념식과 2부 문화행사로 나눠 진행됐다.

국내 사회복지분야 최초로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두송종합복지관은 이날 10년 동안 복지관 활동에 적극 동참해온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임직원들에게 감사패와 표창패 등을 전달했다.

관장 지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10년 동안 함께 해온 자원봉사자, 후원자,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더욱 더 정성을 다해 복지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기자재 이용 불교강좌 인기



청주 관음사(주지 현진)가 9월 6일 개설한 불교교양대학이 다양한 기자재를 이용한 교육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관음사 불교교양대학은 3개월 과정으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각각 기초교리와 금강경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100여명의 신도가 수강하고 있다(사진).

교육과정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멀티미디어 영상 시설을 이용한 강의. 딱딱해지기 쉬운 경전 공부를 다양한 영상으로 쉽게 풀어 내 수강생들의 학구열을 자극하고 있다.

관음사 주지 현진 스님은 "신도들이 쉽게 불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좀 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청주 제일의 불교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혜철 대전 충북지사장

대전 호국약천사 교육관 건립



대전 유성 자운대 내 의무부대 법당인 호국약천사는 9월 10일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일면 스님, 건립위원장 요명 스님(동학사 주지), 운봉 스님(대전사암연합회장), 국군간호사관학교장 이재순 준장과 군장병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관 건립 및 법당 확장불사 낙성식(사진)을 봉행했다.

이번에 건립된 호국약천사 교육관은 60여 평 규모로, 법당이 협소해 신행에 불편을 겪었던 의무부대 장병과 교육생, 간호생도, 병원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회는 충청지역 스님들이 돌아가며 맡게 된다.

군종특별교구장 일면 스님은 "호국약천사가 최고의 부대법당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혜철 대전 충북지사장

대원정사 6m 지장대불 조성



양주 대원정사(주지 해련)가 대웅전과 약사전, 지장대불을 새로 조성하고 9월 4일 4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특히 이날 모습을 드러낸 지장대불은 6m 규모의 석불로 지장도량으로서의 대원정사 이미지를 확고히 하게 된다. 이에따라 대원정사는 지장대불 조성을 계기로 참배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이다.

대원정사는 불우학생에게 장학금을 후원하고 지역 어르신 경로잔치를 여는 등 활발한 지역포교 활동을 벌여왔다.

주지 해련 스님은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도량으로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법주사 대웅보전 4년만에 새모습

10월7일 낙성법회, 삼존불 복원불사도 추진

법주사 대웅보전이 완전해체돼 복원에 들어간 지 4년 만에 새 모습을 드러냈다.

보은 법주사(주지 도공)는 10월 7일 오후 1시 대웅보전 해체보수 낙성 대법회 및 이를 기념하는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법주사 대웅보전(보물 915호)은 무량사 극락전, 화엄사 각황전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불전 중 하나로, 신라 진흥왕 14년에 창건돼 조선 인조2년에 벽암대사가 중창한 목조 2층 170평 규모의 웅장한 법당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 해체복원불사에 들어갔었다.

대웅보전 특설무대에서 펼쳐질 낙성대법회는 이날 낮 12시 식전행사인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오후 1시 낙성대법회와 식후행사로 진행된다. 이어 오후 2시 30분부터는 대웅보전 낙성식 기념 보살계 수계식이 진행되며, 오후 7시에는 낙성식 축하 10만등 점등식도 열린다.

한편 법주사는 대웅보전 낙성과 함께 대웅보전내 삼존부처님(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석가모니불) 복원불사도 추진한다. 삼존부처님 복원불사는 개금 및 복장(다라니경, 불경, 법주사 소장 경판 인경본 등) 봉안불사로 진행된다.

법주사 주지 도공 스님은 "대웅보전 복원불사와 삼존부처님 복원불사는 마땅히 해야 할 부처님의 일"이라며 "불사가 원만히 성취되도록 다함께 정성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우리 아이에게 무얼 먹일까?'

대구 룸비니 유치원 선재 스님 사찰요리 특강



"음식은 성품을 만들어 줍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먹여야 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9월 12일 대구 은적사 부설 룸비니 유치원 대강당에는 선재 스님(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의 사찰요리특강이 펼쳐졌다(사진). '우리아이들 먹거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특강에는 약 150여 명의 학부모와 신도, 지역민들이 모였다.

스님의 한마디를 놓칠세라 수첩에 빼곡히 메모를 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얼굴에는 긴장의 빛이 역력하다.

스님은 생체리듬에 맞춰 먹을 것, 자연에 거스르지 말고 계절음식을 먹을 것, 골고루 먹을 것을 강조했다. 또, 의복과 마음가짐을 갖춘 여법한 식습관을 길러줄 것도 당부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자격부터 음식의 효능까지 조목조목 설명한 선재스님의 사찰요리 특강은 연밥과 어린이를 위한 두부김밥 실습까지 3시간 동안 이어졌다.

배지선 기자

圓 大韓佛敎曹溪宗 總務院長 仁谷堂 法長 大宗師 宗團葬 寂

한국불교와 종단발전을 위해 한 생을 다하신 큰스님의 원적을 애도하며

부디 극락왕생하시어 못다 이룬 원을 다하시길 기원드립니다.

三 角 山 道 詵 寺

주지 선묵 혜자

사부대중 일동

■ 서울 강북구 우이동 264 / 전화 02)993-3161~3

‘신도시’에서 ‘전법도시’로 변신

경기 파주·김포·부천

파주 떠오르는 통일도시 불심도 부상

김포 ‘중앙승가대’ 시너지 확대에 노력

부천 화합과 특성화 지역포교 키워드


김포 용화사 불교대학 수료자들이 지난 6월 성지순례차 방문한 화성 용주사 효행박물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 파주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철도가 지나고 있는 남북교통의 요충지 파주. 경기북부 지역 대부분이 그렇듯이 파주 불교를 얘기하면서 군 포교를 빼놓을 수는 없다. 파주의 사찰은 50여 곳. 이들 사찰들은 거의 모두가 법회 및 후원 등을 통한 군 포교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군 포교에 집중해 온 파주불교가 최근 몇 년 새 새로운 상황을 맞고 있다. 현재 파주 인구는 26만명 정도. 그런데 교하 신도시가 들어서고 출판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다, 남북협력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경에는 50만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에 발맞춰 사암련 차원에서는 시내에 도심포교당과 불교유치원, 노인복지센터 마련 등 포교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또 보광사 약천사 약수암 등 파주를 대표하는 사찰들도 다양한 신행 및 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할 채비를 하고 있다.

신도입문교육의 장인 실천불교학교와 경전학교, 일요법회, 템플스테이 등을 운영해 온 보광사는 이들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고, 약천사는 시민들이 편안히 기도하고 수행할 수 있는 요사채 건립에 들어가는 한편 사찰을 지역민들의 쉼터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 노인요양시설 ‘거북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약수암은 장애인시설 설립 등 종합복지도량의 면모를 갖추고 지역민들을 맞겠다는 각오다.

 # 김포 김포는 한국불교의 최고의 승가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가 자리잡고 있는 곳이다. 중앙승가대가 김포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절대적이다. 하지만 중앙승가대를 빼놓으면 김포 불교에서 얘기할만한 것은 별로 없다.

김포의 사찰 수는 40여 곳 정도. 도시가 형성되면서 10여 년 전과 비교해 2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김포 인구가 22만명임을 감안하면 사찰 수가 적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김포불교는 좀처럼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찰 대부분이 농촌 지역에 위치해 있어 포교 여건이 여의치 않고, 무속신앙이 널리 퍼져 있어 정법 포교를 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용화사 금정사 정각사 여래사 청룡사 광은사 문수사 등은 포교 프로그램 또는 법회를 통해 나름대로의 위치를 확보해나가고 있다.

중앙승가대도 불교대학과 일요법회를 통해 지역 불교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포불교가 침체를 벗고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사찰들 간의 불협화음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김포불교는 사암연합회와 승가협의회로 양분돼 있는 상태.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는 계속해 규모가 커지며 발전하고 있는 도시의 급성장과는 달리 불교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 부천 부천불교는 꽤 활발하다. 사찰들의 움직임도 그렇고, 사암연합회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지역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위상은 다른 지역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편이다. “다방 수보다 교회가 많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독교세가 수적 우세를 점하고 있지만 질적으로 보면 오히려 불교세가 앞선다.

이렇게 부천불교가 지역에서 높은 위상을 갖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부천사암연합회장 영담 스님을 중심으로 지역 스님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있고, 또 하나는 나름대로 특징을 갖춘 사찰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천불교를 대표하는 석왕사는 복지관, 문화체육시설, 생활시설, 장묘시설 등 17개 부설기관을 운영하면서 일요가족법회, 어린이·중고등부·청년회 법회와 불교대학, 기초교리 강좌 등으로 불자들의 신행을 돕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강좌를 통해 지역민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석왕사와 인접해 있는 향림사는 기초교리, 일요법회 등 각종 신행 프로그램과 합창단 등의 신행단체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소림사와 보륜사는 불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해 새싹 포교에 나서고 있다. 또 대덕사는 불교 복지기관과 장애인시설 등지에서의 복지활동으로 불교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한명우 기자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봉사활동

성인 스님 (부천 대덕사 주지 · 남부경찰서 경승위원장)



성인 스님은, 대중을 위한 봉사가 곧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단 하루도 봉사활동을 거르지 않으며 26년간 부천불교 포교에 앞장서왔다. 특히, 부천청소년선도위원으로 20년 넘게 한 달에 두 번씩 청소년 선도순찰을 해 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 13년간 남부경찰서 경승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경찰 포교에도 기여했다. 부천 해병전우회 불자들을 이끌고 있으며, 평생 봉사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교육·신행 중심도량으로 중창

허정 스님 (파주 약천사 주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 포교원 연수부장 · 총무원 사회국장 · 조계사 주지를 역임한 이력에서 알 수 있듯이 허정 스님은 뛰어난 식견과 안목으로 파주불교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10여 년 전 대웅전만 남아있던 곳에서 약천사를 중창하고 불교대학과 사경 · 주력 등을 통해 교육과 신행활성화에 매진해 왔다. ‘주지는 절을 지켜야 한다’는 소신으로 법회나 기도시간에 빠지지 않는다.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해 약천사를 지역민의 쉼터로 가꾸겠다는 원력을 갖고 있다.

사암련 이끌며 불교위상 높여

영담 스님 (부천 석왕사 주지 · 부천사암련 회장)



부천불교를 이끌고 있는 리더. 부천에서 영담 스님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20년 동안 사암련 회장을 맡아 불교의 위상을 높여놓았다. 부천의 스님들은 “절대로 자신을 내세우는 법이 없고, 모든 사찰을 잘 아우르며 화합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복지관과 체육문화시설 여섯 곳, 협동조합 등 17개의 부설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과 동국대 이사를 맡고 있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파주 불교 복지의 대명사

혜각 스님 (파주 약수암 주지)



혜각 스님은 파주 불교 복지의 대명사로 불린다. 17년 전부터 노인요양시설인 ‘거북마을’과 영탑추모공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무료건강체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내년에는 장애인보호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파주경찰서 경승실장, 파주공무원불자연합회 지도법사, 태고종 경기북부종무원 종회의장 등을 맡아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안거땐 꼭 방부들여

명훈 스님 (김포 금정사 주지)



가장 좋은 포교는 수행이라는 소신이 확고하다. 스님이 스님다워야 대중의 귀감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가장 훌륭한 포교방편이라고. 그래서 명훈 스님은 아무리 바빠도 하안거 때는 방부를 들인다.

김포에서만 34년, 금정사 주지를 맡은 지는 15년. 지난 세월동안 사암련 회장과 청소년 · 군인법회를 통해 지역 포교에 매진했다. 지금은 인터넷 포교를 위해 사찰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다.

합창단 등 신행단체 활성화

법공 스님 (부천 향림사 주지)



‘부처님 일은 신나게’. 법공 스님은 늘 즐거운 마음으로 신도들을 대한다. 절의 주인은 신도고, 그 주인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절은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학교’가 돼야 한다고 여기고 신도들에게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1993년 향림사에 온 이래 일요법회 등 각종 법회와 합창단, 거사림회 등 각종 신행단체를 활성화시켰으며, 보다 넓은 신행공간 확보와 복지법인 설립을 구상하고 있다.

밭일 즐기며 검소·소박·소탈…

일문 스님 (파주 보광사 주지 ·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대중과 격의없이 어울리며, 밭일을 즐기는 스님. 이런 모습을 보면 일문 스님이 파주불교를 대표하는 보광사 주지이자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최근에도 3일 동안 밭일을 하고 사찰 주변 잡풀을 베느라 손이 부었을 정도. 96년 구입한 준중형 자동차를 아직도 타고 다닐 정도로 검소해 신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실천불교승가회 집행위원장도 맡고 있다.

1999년 보광사 주지 부임이래 파주불교를 원만히 이끌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스님간 의사소통 창구역할

법신 스님 (파주 청강암 주지)



34년 전 파주에 뿌리를 내린 법신 스님은 20여년 동안 파주불교사암련 총무를 맡아 지역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현재는 파주불교사암련 부회장 겸 총무이자 파주경찰서 경승, 태고종 북부종무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친근감 있는 성격으로 지역 스님들의 의사소통 창구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파주불교 발전을 위해 시내 포교당 마련 등 파주불교 발전을 위한 기획에 여념이 없다.

포교·사회·환경활동 왕성

지관 스님 (김포 용화사 주지)



김포에서 제일 바쁜 스님이다. 각종 포교 활동은 물론이고 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불교의 위상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관 스님은 야생조류보호협회 고문, 김포경실련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김포시청과 김포경찰서불자회를 창립하고 지도법사를 맡아 지역 신행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또 2001년부터 중앙승가대 포교학과 외래교수로서 후학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용화사를 김포 제1의 포교도량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아래 명상문화센터 건립 등을 추진 중이다.

탱화로 전국대회 네차례 입상

일선 스님 (김포 용문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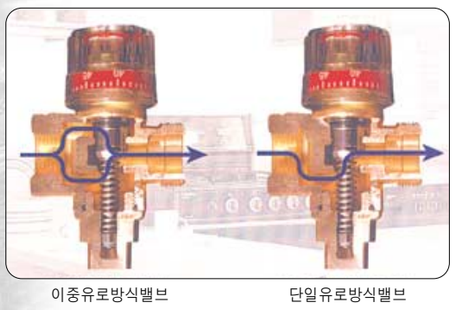


일선 스님은 3년 전 용문사에 들어와 도량을 정비하고 일요법회 등을 열며 기반을 다졌다. 그리고 체계적인 도심포교에 나선다는 계획 아래 앞날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미래가 기대되는 의지가 굳은 스님이다. 10년 간 선방에서 수행하다 중앙승가대에 입학해 공부한 뒤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에서 불교미술을 공부 중이다.

탱화 등으로 2004예술대제전 특선 등 전국대회에서 네 차례 입상한 경력을 갖고 있다.

EPS VALVE 는?

기존 단일 유로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는 이중유로방식을 채택하여 수로의 개폐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소음을 없애고 효율을 높여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절감시킴


이중유로방식밸브 단일유로방식밸브

"치솟는 난방비용 이제 마음껏 쓰세요"

난방비의 획기적인 절감 및 균일난방 효과로 현재보다 따뜻하게 쓰면서도

난방비는 최저 20% 최고 50%까지 절감됩니다.(최저 15% 법적보장)

1. 에너지 관리공단 인증.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제품
2. 개별 / 중앙 / 지역난방 어느 곳이든 설치가능
(전국사찰, 개별보일러, 태양열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
3. 저렴하고 간편한 설치 시공 (난방상태 점검, 설치, 사용까지 반나절이면 충분합니다.)
4. 반영구적 수명 (외부 동력이 필요치 않은 제품으로 반영구적 제품수명 유지)

(주)이플러스세이버 TEL. 02)470-0400

수온감지식 온도조절밸브 난방시스템

(난방은 수에 의한 완벽한 비례제어식 유량조절밸브)

여러분과 함께하는 기업 (주)이플러스세이버는 최소 50%이상의 난방비 절감을 목표로 꾸준히 노력해 가겠습니다.

각 지역 대리점 및 설비업체 모집중

교육원 출범 · 비구니회 구성 · 재단법인 추진

법상종 종단 중흥 나섰다

법상종(총무원장 해월)이 교육원을 출범시켜 승려 교육체계를 확립하고 비구니회를 구성하는 등 종단 중흥에 나섰다.

다가오는 '서해안 시대'에 맞는 종단위상 찾기에 부심하는 법상종은 인재양성 방안을 세워 단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법상종은 먼저 종단차원에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추기 위해 10월 말 교육원을 출범시킨다. 교육원 출범은 정통 '교종 종단'을 표방하고 있는 법상종의 위상 찾기라는 의미를 띠고 있다.

법상종은 평택 총무원에서 부정기적으로 치렀던 승려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뒤, 승가고시를 거쳐 법계제도를 정비해간다는 복안을 세우고 있다. 이번 법계제도 정비는 종단개혁의 의미도 갖고 있다. 법상종은 승려교육 체계를 갖추기 위해 시범적으로 8월 24~26일 안성 쌍미륵사에서 종도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또 비구니 조직을 활성화해 종단사업의 주축을 담당케 한다는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법상종은 올 3월 열린 임시종회에서 전국비구니회 구성을 결의한 데 이어 10월부터 전국비구니회 조직을 본격 가동시킨다. 전국비구니회는 그동안 미진했던 종단 노인복지사업과 청소년 포교를 분담한다.

법상종은 종단운영의 합리화, 투명화를 위한 '로드맵'도 실천 중이다. 첫 번째 단계로 법상종은 지난해 12월 종단 사단법인화를 매듭지었고, 두 번째 단계인 10월부터는 재단법인화도 추진한다.

법상종은 사단법인화를 통해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종단운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면, 재단법인화로 종단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틀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재단법인화는 연말 이후 가시화될 종단 수익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종단 재정 마련과 이미지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사업과 수익사업 추진도 가시화하고 있다. 가장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것은 노인복지 관련사업. 먼저 평택 무봉사 4만평 부지에 320평 규모 건물 두동과 부속건물이 납골당 사업을 위해 건립됐으며, 다음 단계로 무의탁 노인 수용시설, 청소년 수련관, 고시원 등도 세워질 예정이다.

법상종은 해월 총무원장의 잔여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지는 10월부터 이와 같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한다. 또한 법상종은 내년 봄 총무원청사를 무봉사로 옮겨 개원한다. 강유신 기자



법상종 종도연수 교육이 8월 24~26일 안성 쌍미륵사에서 열렸다.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현고 스님(맨 왼쪽)이 9월14일 울릉군에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울릉도 '나비' 이재민에 자비를

조계 · 진각종, 구호물품 · 지원비 전달

조계종과 진각종이 제14호 태풍 '나비'의 영향으로 인명과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울릉도의 수해복구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울릉도에는 9월 6~7일 437.1mm의 빗물이 쏟아지면서 주택 165동이 전파 또는 침수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현고 스님은 9월14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 앞에서 재경울릉군 향우회 김기수 회장에게 압력전기밥솥 200개(30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울릉도 구호물품 전달은 9월 11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마지막으로 유시한 것이다.

구호물품은 전달식 직후 트럭을 이용해 포항을 거쳐 배편으로 울릉군청에 전달됐다.

총무원장 권한대행 현고 스님은 "이번 울릉군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물품 전달은 입적하신 법장 대종사께서 입원가료중 울릉도 주민의 피해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했던 것이었다"며 "스님께서는 울릉도 주민들이 조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구호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진각종(통리원장 회정)도 9월 9일 포항교구청을 통해 1차 수해복구지원비 1000만원을 울릉도에 전달했다. 또 9월 12일에는 서울, 대구, 포항 등 7개 교구청과 심인당에서도 자발적으로 수재민 돕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진각종은 공문을 통해 "태풍 나비의 영향으로 진각종조 회당 대종사 탄생지인 울릉도가 대규모 피해를 입었다"며 "어느 때보다 진각종도들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울릉도 일부지역은 태풍 '나비'의 영향으로 현재 통신, 상수도 공급, 교통이 두절된 상태다. 김원우 기자

8차 한 · 중 · 일 우호교류 한국대회

10월 24~25일 부산 범어사 일대서

제 8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 한국대회가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범어사와 삼광사 일대에서 개최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는 9월 8일 종단협 회의실에서 제 4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장소 및 행사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10월 24일 오후 4시 롯데호텔에서 3국 교류위원단 본회의를 시작으로 열리는 제 8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 한국대회는 오후 6시 30분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환영만찬회가 열린다.

이어 10월 25일 오전 10시 부산 범어사에서 3국 불교대표자들과 불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평화기원법회가, 오후 2시부터는 부산 롯데호텔 컨벤션홀에서 '인류사회의 발전과 3국 불교의 역할' 이란 주제로 국제학술강연회가 개최된다.

또 한국불교 및 전통문화공연이 25일 오후 5시 30분 부산 삼광사 지관전에서 열린다.

마지막으로 한중일대회는 10월 25일 낮 12시 롯데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문화관광부 장관 오찬회를 끝으로 회향된다. 김원우 기자



송광사 대흥사 신도임원 연수교육이 9월10~11일 대흥사 보현전에서 열렸다.

송광사 · 대흥사 신도임원 연수교육

조계종 송광사(21교구) 대흥사(22교구) 신도임원 및 지역불교지도자 연수교육이 지난 9월 10~11일 양일간 대흥사 보현전에서 열렸다.

본,말사 신도 임원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연수교육은 강의와 주제토론,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이 펼쳐졌다.

연수교육에 앞서 입제식에서 대흥사 회주 보선 스님은 "신도임원은 지역불교를 이끄는 선봉장으로 수행정진에 게으르지 말고 공부하는 포교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조계종 신도국장 원철 스님은 '조계종의 정체성이란 무엇인가?'란 주제의 강의에서 '조계종 종헌 종풍'을 소개하고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으로 '금강경 독송'과 '간화선 참구'를 제시했다.

글 · 사진=이준엽 기자

우수 교양대 준 종립대로 격상

태고종 실태조사 계획

태고종이 종단산하 사찰과 스님, 신도가 운영중인 불교교양대학 실태조사에 나선다.

태고종은 최근 종무회의를 갖고 불교교양대학 운영 현황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들 학교에 대한 지원과 육성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태고종은 불교교양대학 정비사업을 통해 이들 불교대학 중 시설과 여건이 갖추어진 곳은 '준 종립대학'으로 인가하고 이 학교 졸업자에게도 졸가자격을 줌으로써 종단에서 추진중인 선교육 후득도 제도의 정착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 밖에 종립대학으로 인가 받을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양대학도 학사일정, 학교 정관, 학생 현황, 학생증과 수료증 양식, 대학장 및 교수현황 등의 행정편의와 각종 홍보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이들 교양대학간 네트워크를 구성해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양대 졸업자에게 2급 포교사 자격증 발급 및 정포교사 시험 응시 자격과 동방불교대학 2학년 편입시험 응시자격 부여도 검토할 방침이다. 태고종 산하 불교교양대학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각 시도교구종무원이나 총무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원우 기자

스리랑카 피해지역 지원

태고종(총무원장 운산)과 태고종단사간행위원회(위원장 수열)가 지난 해 쓰나미 피해를 입은 스리랑카 와지라시리사에 1만달러를 지원한데 힘입어 9월 1일 요사채 1동과 컴퓨터교육장 1동이 신축됐다.

와지라시리사 재건불사 지원은 태고종과 태고종사간행위원회는 4월 4일 스리랑카에서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지역 위문 및 희생자 천도 영산대재(100일재)'를 봉행했었다. 이 자리에서 태고종과 태고종사간행위원회는 성금 34,493,590원과을 모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국가 돕기 행사의 일환으로 의류 300벌, 신발 300족, 현금 5000달러를 1차 지원한데 이어 8월 9일 2차로 5000달러를 지원했었다. 김원우 기자

본원종 창종 기념법회 대화 스님 총무원장 재임

본원종(총무원장 대화) 창종기념법회가 9월 9일 서울 연화정사에서 열렸다. 부종정 대종 스님과 동광 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법회에서 총무원장 대화 스님은 "종단 발전을 위해 전종도들이 힘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본원종은 이날 제5대 중앙종회를 구성해 총무원장 대화 스님 등 9명의 각 원의 원장스님을 재선출하고 안산 통일사 주지 대원 스님을 새 감찰원장에 임명했다. 강유신 기자

미륵종 대구경북교구 종무원장에 왕인 스님

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9월 9일 거제 견성암에서 미륵종 대구경북교구 종무원장 임명식을 봉행했다.

이날 대구 경북교구 종무원장에는 왕인 스님, 총무부장에는 법인 스님, 감찰부장에는 원각 스님이 각각 임명됐다.

또한 미륵종은 이날 중앙교육원 행자교육 교수사에 고봉, 법일, 도신 혜산 스님, 습의사에 현담, 혜연, 도성, 혜초 스님을 임명을 임명했다. 강유신 기자

대구 청룡사 어르신 초청 10월6일 경로 문화예술제

태고종 대구 청룡사(주지 보성)는 10월 6일 오후 2시 30분 대구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대구경북지역 어르신 20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제 2회 경로위안 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

문화예술제는 영산재보존회 영산재 시연, 삼보연합합창단 찬불가, 청정무용단 고전무용 및 민요, 영남민요보존회 민요, 배일호, 오은주, 노경희 등 대중가수 공연 및 어르신 장기자랑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청룡사는 매월 독거노인가정 생계비 지원은 물론 매주 토요일 대구역 노숙자 무료급식과 매년 1차례씩 어르신 효도관광, 어르신 및 장애인 목욕봉사, 종합병원 환자 위문공연 등을 펼치고 있다. (053) 615-5335 김원우 기자

수맥파 차단카드 나왔다

자고나면 머리 맑고 컨디션 좋아





맬토차단캡

왜! 수맥파를 차단해야 하나?

일본의 산업의학연구소는 수맥파가 흐르는 곳을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뜻에서 **"병인성지대"**라는 표현을 쓴다. 수맥파는 투과력과 침투력이 강해 모든 물질을 관통하고 종파로 발산되어 생체리듬을 교란시켜 수맥파가 흐르는 곳에서 장기간 살게되면 체질에 따라 각종 질병을 유발 할 수 있다. 한국수맥파연구회에서 제작한 멜토수맥파 차단카드는 간편하게 안방 침대 바닥에 놓고 멜토차단캡은 거실 구석에 고정시켜 놓으면 종파로 올라오는 수맥파를 중화시키며 차단한다. 가격75,000원 **문의(02)741-4477**

옴마니 반메훔 건강밸트

축복의 밸트!
성공의 밸트!
지혜의 밸트!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형통된다는 옴마니 밤매홈 건강밸트가 불교 법구전문업체인 불광사에서 출시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세상 사는 동안 악인을 만나지 않고, 정의롭게 살며, 나쁜곳에 빠지지 않으며, 어려움에 처해 있을때 3불의 지혜를 받아 해결되고, 동서남북의 복을 받아 시작부터 끝이 하는일 마다 풍요롭게 되는 뜻을 담은 법구밸트다. 또한 일반밸트와는 달리 건강기능을 갖춘 밸트로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음이온과 원적외선이 발산되며 허리와 장과 간을 튼튼하게 하는 맬토에너지까지 발산되는 천연가죽으로된 고품격 고급밸트로 만사 형통하는 선물로 품위가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정성껏 보내준다. 가격7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53-12-102911

평생 부자지갑

관세음보살 福지갑 출시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리라!

존경하는 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여성용銀나노장지갑 (진보라색)

남성용반지갑 (검정색)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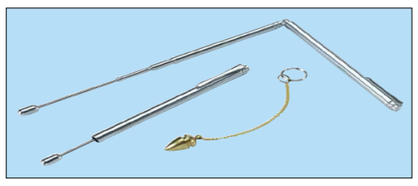
관세음보살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생들의 고민과 고통을 해결해주고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부처님이다. 세상사는 동안 제일 큰 고통이 재물로 인한 고통으로 이것을 해결해주는 영험의 비방이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이다. 재물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을 몸에 지니고 성심으로 기도하면 곧 보배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며 가지고 있는 재물이 헛대이 나가지 않는 영험을 담고 있는 법구다. 법구 제작전문 불광사에서 기도와 축원불공속에 만든 **관세음여의주 수진언 복지갑**은 지갑 앞면에 재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고 재물을 들어오게하는 영험의 여의주수진언을 부착하고 내부에는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는 삼고금강저를 순금도금해 넣어 소원을 이루게 했다.

고급천연銀나노 가죽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될수 없게 섬세하게 꾸며져 평생 사용할 수 있으며 출시 6개월도 안돼 **관세음보살의 영험**으로 아주 어렵던 사업과 장사가 잘되고, 못받을 돈이 들어오고, 부도 직전에 귀인을 만나고, 제조업은 만들면 팔리고, 부동산과 증권으로 큰 돈을 버는등. 숫한 화제를 낳는 지갑이다. 여성용보라색은 성공과 번영을 뜻하며 여성이 항상 지니고 다니면 가정이 번영하고 사업장은 재물이 끊이지 않는 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축원불공을 드리고 보내준다. 남성용55,000원 여성용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53-12-102911

수맥 탐지기 엘로드 배우기 열풍

출장수맥 및 수맥파 감정 개업 또는 주말부업 노후 대책으로 인기

누구나 집에서 쉽게 배울 수 있어 인기



수맥파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발표가 속속 밝혀지면서 수맥탐지기 엘로드를 배우려는 직장인과 부동산 중개사들까지 열풍이 일고 있다. 우리집 땅속에는 수맥이 흐르지 않나 하는 의구심에 수맥감정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선진국에는 수맥감정사무소가 많이 있으며 일본같은 경우 수맥 감정법인까지 있다. 우리나라에는 수맥감정을 하고 싶어도 의뢰할 때가 없다. 환경오염으로 깨끗한 식수를 찾으려 해도 땅속에 있는 물줄기를 정확히 찾는 전문가가 몇명안돼 이곳저곳을 뚫기 일수다. 수맥탐지 기술만 배우면 수맥감정 사무실을 오픈해 홍보만 조금해도 재 투자가 전혀 없는 평생 안정된 부업 또는 사업이 될것이다. 氣의 입자파장에서 세상물체가 인지 반사반응을 일으키는 파장이므로 오랜경험에 의해 감지하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수맥과 수맥파를 탐지하는 엘로드의 발달로 수맥과 수맥파는 일반인들도



그림1



맬토차단캡



모아짐

그림2

집이나 들에서 예민한 銀나노 엘로드로 연습하면 찾아 낼 수 있다. 그림1 같이 엘로드를 가지고 집안곳곳을 탐사하다보면 그림2와 같이 엘로드가 모이게 된다. 이곳이 수맥이 흐르는 곳으로 그곳에 멜토 차단캡을 놓고 다시 해보면 그림2 모양이 아닌 그림1 같이 된다면 그곳이 수맥이 흐르는 곳이다. 정신집중이 잘되지 않는 사람은 수행하는 마음으로 연습하면 된다. 전국 氣기능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KSO 銀나노 엘로드와 탐사추 및 수맥탐지연습용 멜토차단캡과 수맥탐지법책 셋트 가격65,000원
문의(02)741-4477
농협053-12-102911

금강저의 영험

험한세상 화를 미리 쫓는 수호신



왜! 금강저를 가지고 다녀야 하나?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수호신으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 쫓으며 영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납치, 강도, 강간, 유괴,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속에 사는 현실이다. 군에 있는 자녀, 딸자녀, 경찰관, 직장인, 학생,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분, 가정주부등 가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영험의 수호신으로 여성은 핸드백속에 학생은 가방속에 남성은 지갑속 또는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순금처리하여 축원불공을 마치고 불광사에서 전화로 판매하고 있다. 가격25,000원
문의 (02)741-4485 농협053-12-102911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시끌벅적~ 바로 이 분위기 '짱'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서울 · 경기지부 연합법회 현장

청소년 포교가 열악한 상황에서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9월 10일 서울 · 경기지부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단원들이 봉은사 보우당에서 연합법회를 연 것이다.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행사를 위해 서울 · 경기 전역 7개 종립고등학교(동대부속중 · 고, 동대부속여중 · 여고, 의정부 광동중 · 고, 남양주 광동고) 학생 불자 및 각 사찰학생회 학생 불자들 270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삼귀의, 반야심경을 봉독한 뒤 청소년들의 힘든 수험생활을 위로하는 서울지부장 원혜 스님(봉은사 주지)의 법문이 이어졌다. 뒤이어 파라미타 연합법회만의 특별 이벤트, 교리퀴즈 시간이 다가왔다.



9월10일 봉은사 보우당에서 파라미타 서울 · 경기 지부 연합법회가 열렸다. O, X 퀴즈시간에 정답을 맞추기위해 법당안을 오가는 청소년 불자들.



서울지부장 원혜 스님(봉은사 주지)의 법문 시간. "파라미타 학생회에 들어왔으니 선업의 씨앗을 심은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열심히 정진하세요."



순간의 방심으로 탈락한 학생들은 법당 뒤에 앉아 있다가 패자부활의 기회가 오면 앞다투어 손을 들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생존자들. 이날 영광의 1등은 동대부중2학년에 재학중인 이준형(사진 가운데)군이 차지했다.

"문제를 잘 들으시고, 10초 안에 O, X를 선택해 주세요. '연꽃은 불교의 상징화이다.' 맞으면 법당 오른쪽, 틀리면 법당 왼쪽에 서십시오."

사회를 맡은 이수민(동대부여고 2 · 파라미타 서울지부학생총회장)양이 문제를 다 읽기도 전에 "와아~"라는 함성과 함께 270명의 학생들이 법당 왼편과 오른편으로 달려가기 시작한다. 우당탕탕, 정신없다. 정작 문제를 맞히는 것보다도, 친구들과 이리저리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는 게 더 즐거운 눈치다. 답이 뻔히 보이는 질문에도 일부러 움직이지 않고 X쪽에 서 있는 학생들도 몇 보인다.

친구들이 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쪽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깝게 "얼른 이리와~ 이리와~!"라고 소리치지만 소용없다. "왜 일부러 틀린 답 쪽에

7개 종립학교 270명 한자리
OX 퀴즈 풀며 불교지식 쌓고
장기자랑하며 한마음 장 펼쳐

서 있었어요?"라고 질문하자 첫 번째 청개구리 탈락자 이보희(광동고 1학년)양의 대답은 "여기저기 불려 다니기 싫어서."다.

시간이 지날수록 퀴즈 생존자가 줄어들었다. 살아남은 몇 안 되는 학생들 중에는 동대부여중 1학년생인 정혜수, 이보미, 이연진 양도 있었다. 언니, 오빠들이 모두 탈락하는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정답을 맞춰가는 실력이 예사롭지 않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퀴즈대회가 있다고 해서, 검색사이트에서 불교관련 지식을 훑어보는 등의 특별공부를 하고 왔다"고 말했다. 모두 같은 반 친구라는 세 아이들은 손을 꼭 잡은 채 "다같이 1등 하자!"라고 외쳤다.

그러나 상황은 왕중왕을 가리기 위한 퀴즈 2회전이 시작되면서 급변했다. 여태까지 O, X로 진행되던 것과는 달리, 이번부터는 사지선다형 질문 중 하나를 골라야한다. 게다가 가장 먼저 손을 든 사람에게만 답변의 기회가 주어진다. 만약 살아남은 10명 중에서 정답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뒤쪽에 앉은 탈락자들에게 기회가 넘어간다. 탈락자에게는 패자부활 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탈락자가 속출할수록 뒤에 가서 앉는 관중들은 늘어나고, 분위기도 진지해져갔다. 소속학교 출신 학생이 한 문제를 맞힐 때마다 뒤에서 환호성이 울려퍼졌다. "광동여고 잘해라!" "동대부중! 동대부중 파이팅!" "지지마라, 동대부여고!"

"다음 중 통도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통도사는 자장율사가 창건했다. 2. 통도사에는 탑이 없다. 3. 통도사는 선덕여왕 때 창건됐다. 4. 통도사에는 대웅전이 있다." 생각보다 어려운 난이도의 질문에, 아이들이 대답을 못하자 뒤에서 구경하던 탈락자 사이에서 여기저기 손이 올라왔다. "저요!" "여기요" "3번이요!" 엉뚱한 대답을 하며 즐거워하는 관중도 있다. 그 중에서 광동여고 교복을 입고 손을 꼭 잡고 있던 두 문제를 맞히고 뛰어나왔다. 이날 패자부활전을 통해 올라온 유일한 생존자들이었다.

치열한 접전 끝에 '부처님 십대제자 중 반야심경에 나오는 인물'을 묻는 마지막 질문에 "사리자"라고 답변한 이준형(동대부중 2) 군이 1등을 차지했다. 이 군은 "모를 때는 뒤에서 친구들이 알려주기도 했다"며 "사실은 친구들이 더 잘 아는데 한마음으로 나를 응원해주었다. 내가 아니라 동대부중 불교학생회가 상을 탄 것"이라고 대답했다. 패자부활전에서 살아난 이후 승승장구하며 2등에 오른 장미현(광동여고 2)양은 "종립학교에 들어와서 불교학생회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동안 알게 모르게 주워들은 상식이 많았나보다"라고 쑥스러워했다.

퀴즈대회로 후끈 달아오른 열기는 '가장 이쁜 여학우' '가장 잘생긴 남학우'가 나와서 장기자랑을 펼치는 장기 콘테스트, 비트박스 공연, 춤 대결 등으로 이어지며 더욱 고조됐다.

교복 넥타이를 머리에 두르고 감각적인 '통아저씨' 춤을 춰 타학교 학생들에게까지 뜨거운 박수를 받은 이우용(의정부 광동고 1)군은 "이렇게 타학교에서 활동하는 파라미타 학생들을 만나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 더욱 좋다"며 "그냥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어 회원 수가 많은 불교학생회에 들어왔는데, 어느새 불교 자체가 좋아졌다"고 말했다.

연합법회는 책을 통해 불교지식을 습득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반과 서로 어울리고 몸으로 불교를 체험하는 자리였다. 이 날 약 3시간 여 동안 즐겁게 어울렸던 학생 불자들은 수능이 끝난 뒤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아쉬움을 뒤로하고 헤어졌다.

글=이은비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파라미타 서울 · 경기지부 연합법회는…

서울·경기 청소년 포교 구심점 역할
서로 영향 주고 받는 정보 교류의 장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택) 서울지부가 한 학기에 두 번씩 여는 연합법회는 불자 청소년의 '만남의 광장'으로 자리 잡으면서, 서울 · 경기지역 청소년 포교 구심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구수 대비 청소년 불자 숫자가 가장 적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서울 · 경기 지역에서, 연합법회는 학교 울타리를 떠난 곳에서 이뤄지는 또래 포교의 가장 큰 무대다.

동대부여중 권진영 교법사(교법사단 사무총장)는 "연합법회가 각 종립학교만의 고유색깔을 공유하는 정보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각 학교 불교학생회는 저마다의 전통과 특징이 있는데 이것이 타 학교에 알려지면서 서로 영향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또 종립 중학교를 졸업해 타 국공립 고등학교에 진학한 파라미타 학생회 출신 청소년 불자들이 계속해서 법회에 참가하고 또래 불자들을 만날 수 있는 '다리' 역할도 하고 있다.

이번에도 일신여상과 대원여고, 이대부속 디지털고 등에 재학 중인 종립중학교 출신 학생 20여 명이 후배를 만나기 위해 법회에 참석했다.

10월 23일에는 '제1회 서울 · 경기지부 연합체육대회'도 열린다. 종립학교 간 단체 대항전, 풍물놀이, 합동경기 등을 통해 또 한 번 불자 청소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는 계획이다.

권 교법사는 "파라미타는 현재 전국적으로 26개의 지부, 지회가 개설돼있다"며 "이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라도 각 지부의 연합법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불경, 금책, 금병풍



실물크기(3.5×5cm, 5×7cm)
금강경 24매 · 천수경 12매 · 반야심경 8매



(관세음보살 보문품) 2폭금병풍 크기 (1폭 가로37cm 세로74cm) (광명진언 지장본원경)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호신용 소장용 영가천도

금강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의 99.9%순도의 금으로 만든 초소형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여 화제다. 불경금책은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등이 있으며 3.5×5cm 5×7cm 7×10cm 크기로 있어 소장 및 휴대가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한다. 불경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한다. 소법당,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기도정진 재례용 등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한 최고급 금병풍(관세음보살보문품, 광명진언 지장본원경)도 제작 판매한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722-1850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 !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약돌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산 뱃속 깊숙이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능과 34개의 쑥뜸을 동시에 시술받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앉아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습니다.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이신분에게 적극권장 · 아랫배가 냉하신 분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생명의 빛 생명의 氣

원적외선 "침" 쑥뜸의효능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다용도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며 저렴한 가격의 은행석 온열복대 사용으로 건강을 지키고 암과 질병 등을 예방하고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네트워크로 내실 다지자”

공불련 창립 5주년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는 2000년 창립 이후 5년동안 270여 단체, 5000여 회원을 거느린 거대한 신행단체로 성장했다. 사진은 2002년 양산 통도사에서 열린 공불련 창립 2주년 기념법회. 현대불교 자료사진

270여 단체 5000여 회원 확보 비약적 성장
10월 1~2월 갑사서 기념행사…새 회장 선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이하 공불련)가 내달 창립 5주년을 맞는다.

공불련은 감사원,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불자회 등 중앙정부기관 불자회의 주도로 2000년 10월 깃발을 세운 이래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5년동안 소속 불자회는 100여 단체에서 270여 곳으로 늘어났고, 중앙정부기관을 비롯해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5000여 회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올 3월 전임 회장이 중도하차한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공불련은 10월 1~2일 충남 공주 갑사에서 5주년 기념법회 및 대의원총회를 열어 지난 5년을 평가하고 보다 내실있는 신행단체로 뿌리내리기 위한 돌파구를 찾는다. 8개월여 공석으로 남았던 회장 선출과 4기 집행부도 이날 구성된다.

공불련은 창립 5주년 기념법회를 공무원불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주춤거렸던 ‘도약’의 발걸음을 내딛는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개인 역량 결집은 공불련의 ‘힘’

공불련은 하나로 모아지지 못했던 공무원불자들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해 왔다. 불자모임이 없는 기관에서는 공불련 창립을 계기로 속속 불자회를 결성했고, 공무원불자 개개인의 역량은 공불련으로 집중돼 공무원불자들의 ‘힘’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역시 · 도청 · 지방경찰청 등 상급기관의 불자회는 관내 시 · 군청 · 경찰서의 불자회 결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상급기관 불자회가 산하 미창립 기관의 불자회를 결성하는 기폭제로 작용한 셈이다.

상하관계를 중시하는 공무원 조직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광역시 · 도별 조직체계를 형성하는 기본골자가 됐다.

공불련 창립은 직장내 신행문화를 정착하는 ‘동력’이 되기도 했다. 1백여 곳에 불과했던 직장 신행단체가 공불련 창립 이후 급격히 늘어나면서 직장내에서 불교를 공부하고 법회를 여는 모습은 흔한 풍경이 됐다. 결과적으로 불자들의 신행이 사찰과 가정에서 직장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

▮체계적 조직 관리 · 인력 육성 등 시급

그러나 이같은 외형적 성장의 이면에는 풀어가야할 숙제가 많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이름만 유지할 뿐 활동이 전무한 불자회를 재가동시키는 일이다.

공불련 가입단체들의 활동을 보면 그야말로 ‘천양지차’다. 부산시청, 대구시청, 대전시청 불자회 등이 탄탄한 활동을 보이는 반면, 전혀 활동하지 못하는 단체도 있다. 법회와 같은 기본적인 신행을 이끌어갈 만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회원 교육과 지역 불교대학과의 연계 등이 절실하다.

지역편중 현상을 해소하는 일도 공불련이 안고 있는 고민이다.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경남 등은 모든 행정기관에 불자회가 결성됐지만, 울산과 인천 등은 불자회를 창립한 기관이 한 곳도 없을 정도다. 광주와 충남, 충북, 제주 등도 극소수 기관에 불자회가 생겼을 뿐이다. 전통적으로 불교세가 약한 탓도 있지만, 지역불교계의 무관심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소속단체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교류가 이뤄져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신행관계자들은 조언한다.

이 외에도 비대해진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확립하고 핵심인력 육성, 지역사찰 연계, 지도법사단 구성 등이 시급하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우리단체 이사람



이판열
인천중부경찰서 불교회장

회원, 전 · 의경들의 ‘신행 도우미’
인천 모든 경찰서 불교회 결성 願

이제 겨우 첫돌을 넘기고 두 살을 바라보는 인천중부경찰서 불교회. 아는 것 많지 않은 초보불자들이지만 열정은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 그 중심에 이판열 회장(58 · 경무과장 · 사진)이 있다. 저마다 업무에 바쁜 회원들을 하나로 모아 신행과 포교의 길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

그러나 이회장 역시 초보불자다. 불교회가 만들어지기 전 이회장은 어렸을 때 어머니 손을 잡고 절에 다녔던 아련한 추억을 지닌 평범한 경찰이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절에 갔던 일이라고는 기껏해야 여행 삼아 갈 때 뿐. 그것이 이회장에게는 마음의 빚으로 오래 남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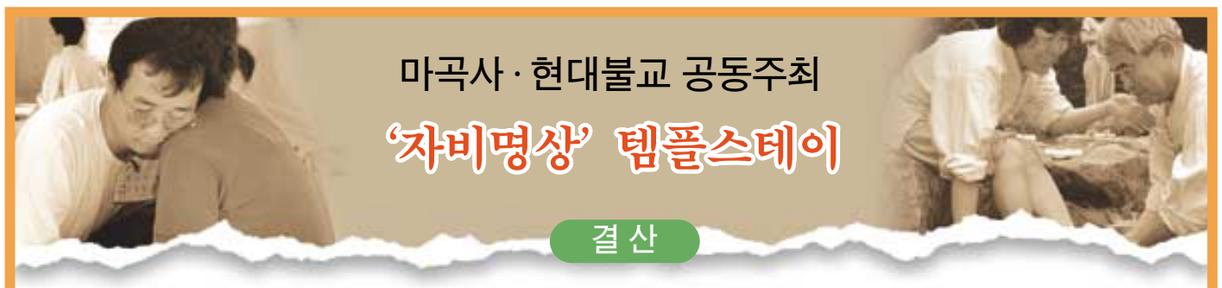
“인천중부경찰서에 불교회를 만들자는 김진홍 前 대한민국경찰불교회 사무국장의 제안을 받고 오랜 세월 마음을 짓눌렀던 빚을 갚기 위해 맨 앞에 섰습니다. 회장을 맡은 뒤 회원들에게 모범이 돼야겠다는 생각에 불교대학에 다니는 늦깎이학생이 됐어요.”

올 3월 경인불교대학에 입학한 이회장은 회원들의 ‘신행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월2회 정기법회와 분기별 성지순례, 인터넷 카페 운영, 7개 관내 복지시설 후원 등을 직접 챙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회원과 전 · 의경에게 매월 <법공양(불교신행연구원 刊)> <생활 속의 불교(해동불교 刊)> <법륜(군불교진흥회 刊)> 등의 불교 교양잡지를 나누어주는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는다.

“100여 회원 대부분이 초심자였기에 제가 아니라도 누구든 해야할 일이라서 제가 나선거에요. 회원들이 환희심을 내거나 열심히 신행활동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새로운 회원이 들어올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이회장은 처음으로 충남지방경찰청 산하 모든 경찰서에 불교회가 생겼다는 소식을 접하고 인천지방경찰청이 그 뒤를 잇게 하겠다는 원을 세웠다. 동부경찰서와 계양경찰서, 연수경찰서에 불교회를 만들면 가능한 일이다. 이판열 회장은 쉽지 않겠지만 그 날이 멀지 않았다고 자신한다.

박봉영 기자



마곡사 · 현대불교 공동주최

‘자비명상’ 템플스테이

결 산

지도자 과정 개설 ‘맞춤 포교’ 절실

7월 1일~9월 4일까지 10회 진행
사회 소외자들 보듬어준 알찬 기획

마곡사와 현대불교신문사 공동 주최로 7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모두 10차례 열린 자비명상 템플스테이는 여름동안 열린 많은 템플스테이 중에서 특히 주목을 받았다. 이혼자, 가족, 소년소녀 가장, 부부, 장애인, 노인, 취업대기자 등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나 사회 소외자들을 위해 열린 보기드문 기획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이다.

총 300여명이 참여한 마곡사 자비명상 템플스테이는, 참가자들이 가족 · 친구나 이웃에게 한번 참여해 보라고 권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일반 매스컴의 주목까지 받았다. 지도법사 마가 스님(마곡사 포교국장)의 인터뷰와 이모저모를 통해 자비명상 템플스테이를 결산한다.

마가 스님

억지 포교 역효과, 부처님 대하듯
스님, 기업 CEO 등에 실시할 것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유는?

–오랫동안 템플스테이를 주관하다 보니, 상심이 크고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들은 단순히 사찰체험을 하러 오기보다는 자신의 내부에 깊이 내재돼 있는 슬픔, 외로움, 절망 등을 보듬어줄 무언가를 찾아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부처님의 자비로 안아주고자 동병상련의 사람끼리 모아 본 것이다.

▲특히 호응을 받았던 프로그램은?

–유서를 서서 읽고 냇가에 나가 태우고 들어와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세 가지를 선포하는 ‘구름이 흩어지듯’이란 프로그램이 있다. 경전에 ‘생야일편부운기 사야일편부운멸(生也一片浮雲起 死也一片浮雲滅)…’이란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착안해서 만든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대부분이 눈물을 흘리며 스스로의 마음이 정화되어 새로 태어나는 느낌이라고 토로한다.

템플스테이 마지막에 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프로그램은 상불경 보살이 되어 참여자 한사람 한사람에게 자비를 보내며 행복을 기원하는 시간이다. 타종교인이나 무종교인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고스란히 체험할 수 있어 행복해 한다.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시작된 템플스테이가 주5일 근무제와 웰빙의 확산으로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총 3만7천명이 참여했고 올해는 5만명이 넘을 것을 예상하는데, 오랜 경험으로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하는지 조언한다면?

–템플스테이 참여자들은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이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이 템플스테이 실무자들인데 그들의 언행을 통해 불교를 이해한다. 따라서 템플스테이에는 전문교육을 받은 실무자를 배치해야 한다. 또 중요한 것이 진행자들의 자비의 미소를 머금은 환한 얼굴이다.

각 사찰 여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야 한다. 참가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한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템플스테이를 이용해 일반인 포교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인데….

–불교를 말로 설명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면 친근감을 느끼고 또 찾아오게 된다. 억지로 포교하려고 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찾아오는 이들을 부처님 대하듯 하면 된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자비명상’은 학교, 복지관, 문화센터 등 등 어느 곳 어느 단체에든지 거부감없이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템플스테이 참가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지도할 사람이 부족하다. 따라서 스님들을 위한 ‘자비명상’을 하고 싶다. 강원이나 중앙승가대 스님들이 자비명상템플스테이를 배운다면 이 스님들이 10년, 20년 후엔 지도자가 되어 많은 포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신행단체 대표나 기업의 CEO를 위한 ‘자비명상’도 실시하고 싶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자비명상’ 지도자 과정을 개설했으면 한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한 눈높이포교, 맞춤포교가 절실하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마곡사 자비명상 템플스테이 이모 저모

● 참가자들의 ‘엄마 · 언니 · 누나’ 묘운 스님



푸근함으로 참가자들의 엄마, 언니, 누나가 되어줬던 묘운 스님(사진). 묘운 스님은 지도법사 마가 스님을 보좌하며 열 번의 ‘자비명상 템플스테이’가 잘 회향되도록 이끈 ‘숨은 살림꾼’이다. 스님은 자칫 딱딱해질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웃음과 재미가 가득한 프로그램으로 꾸미는데 톡톡히 역할을 했다.

묘운 스님은 1989년 출가 당시부터 ‘자비’를 화두 삼아 정진했고 마가 스님을 만나 명상 공부를 시작했다. 그 후 마가 스님이 마곡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스님을 돕기로 하고 1년여 전부터 마곡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지도하고 있다.

● 미움과 증오 버리고 남편곁으로

1차 ‘치유명상’에 참여한 한 주부는 남편에 대한 미움을 거두고 5년 만에 남편이 있는 미국으로 되돌아갔다. 마음 한켠에 자리했던 증오와 분노를 버리니 마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다고 나중에 템플스테이 관계자에게 토로했다고.

● ‘이혼자’ 참가자들, 꾸준히 모임 가져

“매일 언니 오빠들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도 날리고 있어요. 인터넷에는 카페가 만들어져 컴퓨터를 잘 아는 ‘은비령’ 언니가 관리를 하고 있죠.” 2차 ‘이혼자를 위한 새출발’ 참가자들은 이후에도 꾸준한 모임을 갖고 있다. 템플스테이 직후 서로에게 잘 지내라는 핸드폰 문자를 보낸 일이 계기가 돼 얼마 후 인터넷에 전용카페가 개설됐으며 8월에는 서울에서 1차 모임도 가졌다. 11월에는 천안에서 2차 모임을 열 예정이다.

‘반야’라는 별칭의 참가자는 “천안에 사는 언니와는 우리가 전생에 친자매였다고 말할 정도로 친하게 됐다”며 “템플스테이를 통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 “부모–자녀 간 대화 이어줬어요”

“아이들과 함께 호젓하게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할만한 여유를 찾기위해 템플스테이를 왔어요.” 3차 ‘가족명상’에 참가한 가족들은 대부분, 사찰을 찾은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산이나 바다로 향하면 몰려드는 휴가철 인파에 지치고 피서지에서 노느라 바빠 정작 가족과 깊은 대화를 할 시간이 없는 것.

아이가 수험생이 되기 전에 서둘러 참가했다는 부모, 어린 아이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참가했다는 부모 등 각양각색이었지만 ‘대화가 소중하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

속상했던 상황을 서로 이야기하던 어떤 가족은 “똑같은 상황을 우리 부부가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부부간 의사소통의 비중을 높여야겠다”며 활짝 웃기도 했다.

● “무뚝뚝하던 아빠가 변했어요!”

집에 오면 밥만 먹고 말 한마디 않던 무뚝뚝한 아빠가 변해도 너무 변했다. 7차 ‘부부명상’에 다녀온 한 부부는 남편의 변화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템플스테이 후, 아빠가 가족들에게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해 부인과 아이들이 모두 깜짝 놀라기도.

40년동안 ‘속만 썩인’ 한 남편은 템플스테이에서 부인에게 절을 하면서 “미안하다” 한마디를 하니 당사자는 물론 참가자 전원이 울음을 터트려 울음바다가 되었다. 감격에 찬 부인의 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 참가자 없어 ‘장애인 가족’은 불발

8차 ‘희망나눔 – 장애인 가족을 위한 템플스테이’는 가장 관심을 모았지만 열리지 못했다. 장애인 가족의 참여가 너무 적어 일반 가족 템플스테이로 바뀐 것. 자폐아가 있는 한 가족이 왔지만 그 한 가족마저 프로그램이 시작되자마자 포기해 버렸다. 장애아동이 낯선 환경에 적응을 못 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가족의 노출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새삼 느끼게 한 사례다.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장애인을 둔 가족의 서로 부딪쳐 생긴 상처가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기에 아쉬움이 더 컸다.

● 참가후 기독교서 불교로 개종

가족이 연이어 참가한 경우도 있다. 9차 ‘60대 이상 노인을 위한 자비명상’에 참여했던 어머니 박종숙(56) 보살에 이어 어머니의 권유로 아들 신현범(30)씨도 10차 ‘취업대기자를 위한 템플스테이’에 참여했다. 특히 어머니는 템플스테이에 다녀온후 그동안 다니던 교회를 그만두고 불교로 개종까지 했다고.

이장원(55) 이진수(20) 부자는 10차때 나란히 참가했다. 아들 진수씨가 곧 일본 유학을 떠나기로 되어있어 이번 템플스테이가 부자 모두에게 좋은 추억이 됐다고 한다.

● “사찰순례를 템플스테이로 대체”

마곡사 템플스테이 기사가 계속 소개된 <현대불교>에는 독자들의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참가방법을 묻는 불자들의 문의와 함께 사찰들의 문의도 많았다.

어떤 사찰의 스님은 “해마다 하는 사찰순례를 마곡사 템플스테이로 대체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기도. 천년고찰의 멋도 느끼고, 자신의 삶도 돌아볼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니냐고 그 스님은 덧붙였다.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2004-8213~6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중무원 모집, 알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채용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개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곶집, 딱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8년 동안 스님, 거사님, 보살님등 많은 분들이 배웠습니다.
• 우스이 레이키 70만원 교육기간 2~3일
카루나 레이키 40만원 교육기간 1일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 www.reiki.co.kr
특유의 관정비법으로 전수합니다.
전화: 02)720-5719/720-5682

각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	천도재	수륙재	각시식	사물	바라나비충	경전
안	49재					
식						

학 인 행 자 모 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불교 범음·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전수자모집
부산 경남 범음 범패 불음대학
의식스님 필요시 연락바람
교육문의 011-584-5588 법수
행사문의
011-869-8560 진우

육임역학 비법전수
• 5천년 역학사 검증된 정확성
• 역학 중 자타공인 최고의 길흉점증을
• 인간사 모든 문제 길흉 예측 정단
고려육임학회(육임학 전문 학술단체)
02)816-2115
053)551-1356(011-1763-3567)

정통 중국 황실 육임학 비법 전수
• 평생운 流年運의 정확한 예측법
• 古宮(자금성)에 소장중인 秘書로 강의
• 대육임 현대응용 활용법 강의
御定六壬學會
(어정육임학전문연구학회)
055)362-2799
010-4850-3900

연꽃그림에 부처님말씀 담아 드립니다
한지에 한국화(미표구)
• 크기 : 소, 중, 대, 특대, 병풍, 부채 각종 보시용, 선물용, 판매용
• 전화주문 후 계좌송금 확인 즉시 작업 착수 등기 속달
• 입금 계좌 : 농협 150039-56-064426 이상근
연꽃화가 018-588-5698
안동 하회마을 입구 한지마을

소백산 송이·능이 판매
054)634-3334
주문처: 농협(한희욱)
751081-51-060579
경북 영주시 봉현면 두산2동 269
심우사 한산 합장

사찰운영(동업,주주)모심
• 사찰위치 : 경주
• 규모 : 토지3500평,건물 300평
(소자본으로 힘을 모아 사찰운영 같이 할 분)
처사님 보살님 동참 바랍니다
정말 좋습니다
051)803-5143

눈병치료 무료공개
시력장애, 녹내장, 백내장,
노안, 근시, 원시,
눈물 흘리는 증.
10월 8일 오후5시 (단 하루만)
※전화, 위치, 비방침술광고 참조.
천제 불국사 의성(아무나 오세요)

구운 마늘환
• 혈액순환 잘 되고 피가 맑아짐.
• 수족냉증 해결 및 만성피로 해결
• 스테미너 강화 및 피부노화 방지
• 성인병 예방 및 강력한 항암효과
• 전립선 비대 예방 및 천식 해결
동양물산 051-338-0120
무료전화 080-766-6600

불교최초의 기도문 전문 사이트
http://www.gidovision.com
반야심경독송회
원장 覺光 합장
051)864-3740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곳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및 천도재 등 각종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16)9414-1525
041)571-1112~3

비구 부전스님
공양주보살님
(50전후)
사무1명 (40세전후)
사찰요리보조원1명
011-9150-9190

부전스님이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주십시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10-4555-2981

참으로 기도에만
전념하실
비구(부전)스님을
모십니다(포교원)
▷서울 송파
019-9373-3535

신심있는
공양주 모십니다
▷서울 가양동 소재
02)2658-3100

함께하실
보살님
구합니다
011-9571-647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전북완주
063)243-4947
011-225-7015

부전스님 자리 구함
각종 불교의식, 사주철학,
한의학 가능
정법 작은 사찰 거주 가능
경기 강원지역 사찰 원함
(47세 비구)
010-4561-5675

불사를 시작한
62년생 비구입니다
불사에
도움주실분
010-2388-2847

가난한 절이나 보살님
또는 처사가 운영하는 절.
주지직 원합니다
무보시로 운영해드리며
역학 및 49재 천도재
불공의식에 능통한 법랍 30년
50세 조계종 비구입니다
011-854-8107

서울 조용한 암자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기도하며 남은여생
마음편히 암자에
사실분
011-306-3504

조계종 영험도량인 소백산
내원암에서 조용히 자기기도
하면서 사원을 보살필 신심있
는 40~50대 공양주를 구함.
그리고 큰스님 시봉할 보살도 구함
▷소백산 지장보궁 내원암
054)653-1180(경북)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절에서 상주하실 분(50대 전후)
▷ 구파발 시연사
011-261-0572
02)352-0572

부전스님이
필요하신 사찰
전화바랍니다
010-7166-319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31)764-8381

산 좋고, 물 좋은 오래된 암자
3,500만원에 사글세 냅니다.
법당,요사채 100평. 용화전,
용왕전,산신각,정각
꼭 원하시는 분만 전화요망
031)582-9816

불상(급)안내
지장대불을 모실분을 찾습니다
● 위치 : 경북 ● 높이(좌대포함) 23석자
옥좃대, 향로, 다기-한세트, 초꽂이 180개
● 대불조성비용 4,500만원(절충가능)
꼭하실분만 연락요망
010-6512-1237

수능시험합격부적패션출시
"경명주사"로 특수염색자수 하여 氣를 발산하고 액운을 막아주며 행운을 주는 패션제품
• 수험생에게 합격의 선물로... • 학업자에게 지혜의 선물로...
• 사업자에게 성취의 선물로... • 어려운이에게 희망의 선물로...
• 모든이에게 행운의 선물로... ■ 제품 : 팬티, 손수건, 양말, 차량용 복주머니
선물용포장 017-533-1356 [특허출원]
유통사업관심계신 분 – 전화상담

행자[예비스님, 남·여]모집
● 행자원 있음(엘리트 스님 양성목표 - 45세미만)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 큰 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011-9852-0075(총무스님)
※ 단기 한시적 출가도 가능 ▷ 도심사찰 최신의 남골당 있음◁
전국 제1의 불교대학! 도심속의 7층 정법대사찰 TVbuddha.co.kr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

氣 절대 말이나 이론으로 하는게 아니고 몸으로 수련하는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오세요.
제1기 전문 기수련인 모집 (선착순 0명)
● 모집대상 : 스님 및 전문 기공인이 되고자 하는 분,
일반수련생 (몸이 불편하거나 건강을 위해서 하실 분)
천지도법 기공협회 053)754-0082 / 011-549-8130
(대구 동부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 운세 10초내 맞추면 입금
명리학질문 10초내 답변 / 사주 첩경통달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선방 대중 모심
대한불교조계종 영남불교대학 관음사에서는 감포도량에 선방을 개원하고 동안거 정진대중을 선착순으로 모십니다. 산과 바다를 함께 아우르는 천혜의 대도량에서 큰 깨달음 있으시길 바랍니다.
● 무문관 : 15명 (법랍 10년~20년 승려증지참) - 비구
● 재가대중선방 : 40명(주민등록증지참) - 건강한 여성 불자
● 행자 : 10명(45세미만, 남.녀) - 대구큰절 중 택일
● 동안거 결제일 : 음력 10월 15일 (그 이전에 방부허락을 받으셔야 함)
● 감포도량 위치 : 감포 대본2리(회곡)에 있음
● 선방 방부문의 : 011-881-9710 (감포도량 연봉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대구: 입학 납골(053-474-8228), 행자문의 011-9852-0075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 (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지도 혜도 혜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제일약국 (2층) 봉산동 가구 네거리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고급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 위주 강좌
▶ 개강 : 2005. 10. 4
월·화반, 수·목반, 금·토반(주·야간 : 3개월 완성)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정통명리강좌 정통풍수강좌

사암침술학회
• 서울 : 종로3가 국민은행 4층 (지하철 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2267-9136. 011-307-2975
• 부산 : 부산 진구 전포동 레그늄오피스텔 604호 (구전지하철철역 8번 출구)
문의 : 051)804-8571

공주대학교 식품과학연구소 | NSF-ISR에서 ISO 9001(2000), HACCP인증 | 3억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심마니 토종 오가피



심봤다! 제2의 산삼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는 옛 고전의서에 전해 내려오는 국내산 오가피에 심마니가 채취한 천종산삼의 배양근을 함유하여 우리 체질에 맞게 심혈을 기울여 개발되었습니다. 첨단 생산 시설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에는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시작하세요!

왜 심마니 토종오가피인가?
■ 유효성분이 가장 좋은 100% 국산 토종오가피 (중국산의 6배)
■ 심마니가 강원도에서 직접 채취한 천종 산삼 원근으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추출물
■ 홍성, 포천, 영월등 자사 직영 현풍농장에서 직접 재배관리
■ ISO 9001 품질인증, 식품위해요소중점 관리 기준 HACCP 인증

책자와 비디오테잎을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현풍F&B HYUN PUNG F&B CO.LTD 02)455-1114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 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0-9697-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732-1522 (直), 02) 2004-8200 (代)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사천지역
• 법당: 25평
• 요사: 55평 외 건물다수
• 부지: 530평
• 가액: 6억

• 위치: 부산
• 법당: 14평
• 요사: 5평
• 부지: 100 (사용평수포함)
• 가액: 1억1500만원

-사찰부지-
• 충북옥천: 1400평
• 가액: 2억
• 부산: 430평
• 가액 5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미래공인중개소(구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①북한산토굴1000평-6억5천
②충주사찰1000평-3억5천
③북한산임법당임대-월85만원
④경기목조사찰2000평-20억
⑤서울토굴2000-20억
⑥서울토굴만평-30억
◆1억~10억사찰많음.투자상담
※직원,공양주,기도스님신속연결

현대불사 02)555-0575

포교당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동 2층건물의 2층
• 법당 15평, 전체 32평 시설일체 완비
• 가액 : 보증금 2백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52)258-4994

사찰안내

• 위치: 부산 강서구 녹산동 부근 경내에 500년생 괴목 2그루 (부산시 보호수)있음. 420평
• 법당. 요사(큰방1, 각방3) 등기필
• 가액: 3억

010-5655-1250
051)973-4562
051)941-8989

도심포교당안내

• 위치: 밀양시 교동 시청주변
• 대지: 310평
• 건물 3동, 3층건물 1동 단청 슬라브 기와 1동 별채 1동
• 가액: 6억 5천

010-4876-5535

사찰 안내

• 위치: 경북 군청 소재지
• 땅 삼백평 중 등기 백평
• 법당: 18평 외 미륵불
• 요사: 23평, 용왕전
• 급매 1억2천, 약수물

• 위치 : 경기도
• 부지 : 천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가액 : 10억

※ 전국사찰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안내

• 위치: 서울 동작구 상도2동 장승백이역 2분거리
• 대지 66평, 건평 56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4억 7천만원

02)815-0302
011-722-0302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 하단동
• 법당 30평
요사 20평
부지 73평
• 가액: 1억8천만원

010-8955-5535
055)338-3020

사찰안내

• 위치: 부산 북구 구포시장내요지 2층 건물에 2층 65평 법당, 방3칸
• 가액: 전세 3000만원 시설비 답사후 협의결정
• 허가등록된 주차장운영 (월세 충당)

051)364-4889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 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3천9백만원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11-9542-5726

사찰 안내

• 위치: 대전시내
• 대지 905평, 전 150평, 임야 320평, 총 1,375평 임야 전은 현재 주차장 밑마당으로 사용중이며 언제라도 건축을 하면 대지로 전용 할 수 있음.
• 법당은 새건물이며 시멘트슬라브 기둥세워서 2층으로 올릴 수 있음.
• 1층 120평, 지하 40평, 요사채 구옥 시멘트슬라브 약 40평 • 가액 : 15억

011-209-7420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양평
• 부지: 2000평(평지임)
• 법당: 30평(목조)
• 요사: 80평
• 양도가: 15억(대출가능)
※서울강남에서 40분거리 유서깊은 사찰임

• 위치: 서울시내 (지하철역 200m)
• 대지: 60평 3층: 법당 40평 1,2층: 요사 80평
• 양도가: 10억(대출가능)
※30년 역사의 도심사찰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시 강동구 천호 4동 암사역 2분거리
• 대로변, 역세권 유동인구 많고 위치 최고 좋음
• 평수: 48평(5층 건물중 2층)
• 시설: 사존불외 집기일체 후불탱화, 방2칸, 주방, 화장실, 베란다, 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5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즉시 법회가능

010-7324-5115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진주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376평, 전: 156평 법당: 25평, 요사채: 55평 전불전: 38평, 고시원: 45평 주지실: 10평. 주차시설 완비 건물 일체 심야보일러 온수
• 건물: 5억3천만원 총공사비 10억 소요

010-9889-3188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사천시 사천읍 경계
• 건물(조립식) 대지 200평, 법당 25평 요사채 10평, 부속창고 20~30평 총 1600평
• 심야보일러 130m암반수
• 가액: 1억5천(절충가능)

016-9559-8889

신축사찰 안내

• 위치 : 강릉시 옥계면
• 대지 150평, 전 430평
• 가액 8천5백만원(절충가)

포교당 안내

• 위치 : 양산시 북부동
• 가액 : 500만원에 월35만원(절충가)

010-4841-3499

사찰 안내

• 위치: 경기도
• 총 602평에 대지 402평, 대웅전 33평(삼존불), 삼성각 10평, 요사채 66평, 7층석탑.
※수행과 포교에 적합
• 가액 : 7억 3천만원

011-9411-530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 부지 : 1천평(종교용지)
• 법당 : 40평(목조, 단청)
• 요사 : 40평
• 기타 : 산신각, 쑥뜸, 석탑
• 가액 : 7억
• 특징 : 바닷가 전통 사찰임

• 위치 : 경북 성주군
• 부지 : 700평(종교용지)
• 법당 : 40평(단청)
• 요사 : 2동 60평
• 가액 : 1억7천만원
• 특징 : 조용한 산사사찰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8-536-4064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부근 원주시 국선 전철역 부근 개통 예정지 앞 의료단지 상업단지 부근
• 평수: 209평, 법당: 20평, 요사채: 20평,삼존불, 돌탑부처님 (관세음보살, 약사불, 미륵불)
• 가액: 2억1천만원

033)766-0057
011-471-1996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영덕군,읍 평수 570평(대지 110평) 나머지는 전답
• 법당, 산신각, 요사채(방3), 스님방 별도.
• 가액 : 6천만원

054)732-7583
018-557-7583

사찰 안내

• 위치: 경남 하동 (지리산 자락)
• 면적: 756평 법당 집기 일체
• 방4개, 창고 50평
• 비구니 스님 기도처 명당
• 가액: 2억7천만원

010-3138-4897

사찰 안내

• 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 대지: 245평(전망최고)법당: 30평 요사채: 50평(화장실2, 창고1)
• 산좌수려(와우형),교통편리
• 가액: 3억
• 용도 : 사찰이나 수련원

016-626-4388
011-606-1976

※ 인연있는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사찰경 포교당안내

• 위치: 경기도 부천(부천역사 2분거리)
• 시장유동인구 밀집지역, 연립 5층의 2층 30평
• 법당1개,큰방2개,거실,욕실,도시가스(살림해결), 금불상, 삼존불,법단2단 목조각
• 가액:보증금 1천만원에 월 55만원 시설비 1천만원. 주차가능

※ 비구니스님, 법사님, 보살님, 보시는 분 적합

011-650-8481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 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포교당 안내

• 위치: 경기지역 지하철 역세권
• 평수 100평. 집기일체 완비. A급 시설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에 월 13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 10년 포교 역사

011-9904-6957

토굴 암자 안내

• 위치 : 전북 완주군 운주면 완창리 대둔산 안심사 주위
• 건물 3동, 경관수려하고 기도도량.
• 가액 : 6,700만원 (상환받을수 있는 4,400만원 짜리 콘도권을 포함해 드립니다. 답사후 절충가능)

011-456-5587

포교당(급)안내

• 위치: 강원도 속초
• 건평 60평
• 내부시설 황토로 되어있음 전통 쑥뜸 기구 완벽 환자치료할 포교 스님에 매우적합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가능
• 몸만오시면 됨

011-790-4809
033)631-4831

암자안내

• 위치: 충남
• 대지: 270평
• 정남향 이면서 아늑하고 포근한 포교와 기도도량
• 법사님 보살님 비구니스님
• 전망 아주 좋음

011-526-1824

사찰 안내

• 위치: 전남 나주시 인근. 현도로에서 2차선 도로예정 무안 광주간 고속도로 분기점 IC 5분거리 (1호선국도 7~8분거리)
• 대웅전(목조) 30평, 요사채(목조) 20평 - 스님방1, 주지실방1, 종무실방1, 객방1 공양간(목조) 10평 방1개,화장실 목조 (해우소) 남,여 각1개, 화장실 겸 사워실 1개
• CC카메라시설(내부외부 모두 설치) 총 490평
• 암반지하수 대형관전(130m 물량 100톤) 사찰주변계곡 물 흐름 안쪽으로 골프장 확정
• 가액은 꼭 보시고 의양이 있으신분만 연락바랍니다

010-3627-0108

사찰 (급) 안내

• 부산대 사찰 사내 평수 천평
• 주차 85대 가능,
• 가액 : 13억

051)326-1545
011-563-1545

사찰(급)안내

• 위치: 양산시 웅상읍(일명 서창)
• 대지: 60평(평당 200만원 이상) 건물: 법당 30평, 요사 32평 칠성각 5평(신축 단청필)
• 가액: 2억6천(은행 9천포함)
• 특징: 부산시내버스 5개노선 울산시내버스 2개노선 신도시 요청지

011-868-5997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단양
• 430평 중 대지 290평 요사채 60평 법당 40평 지장전 20평
• 시설완비
• 가액: 1억4천만원

011-9567-5300

사찰(터)안내

• 위치: 경북 김천시 구성면
• 면적: 2만평
• 산세가 수려하고 돌로둘려싸인 천하절경명산
• 가액: 2억6천만원

054)433-3533
011-9570-3533

포교당 안내

• 위치: 대구 남구 대명 5동 (영대전철역 옆)
• 총평수: 40평.즉시법회가능 법당(삼존불, 신중, 시왕, 방2개, 공양간) 집기일체 양도
• 몸만오시면 됨
• 가액: 보증금 5백 월 26만원 시설비: 1천2백만원

011-9850-2946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내에서 15분거리
• 대지 600평 대웅전 25평, 요사채 40평
• 교통편리, 산세위치 수려함, 신축건물 고건축
• 가액 : 4억5천만원 (절충가능)

011-530-8490

사찰(급)안내

• 위치: 강원도 최고의 관광지 기도처
• 법당, 요사채, 집기 일체 양도
• 가액: 14억
• 답사 후 가액 절충 可

010-6248-7345

포교원 안내

• 위치: 상계역 2분거리
•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내 위치
• 2,3층사용 보증금 1천만원 월 1백만원 / 2층만 사용시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 2층 40평 3층 20평
• 삼존불 모셔져 있고 시설완비 집기일체, 즉시법회가능 시설비 약간

02)952-8131

사찰안내

• 위치: 경남 밀양
• 법당 30평, 단청필, 요사채 60평, 부지11,060평
• 복지원, 납골당, 수련원, 등 대형 불사를 하실 스님들께 적합
• 가액 : 10억

055)352-4733

사 찰 안 내

• 위치: 수원시내 주택가
• 도심포교 최적지
• 가액 : 4억 8천만원

(조흥은행 융자 1억7천만원)

011-688-3521
011-9916-2820

포교당 안내

• 위치: 인천시 중구 (아파트 밀집지역)
• 방3, 공양간1 아미타 부처님 주불 각단탱화 • 평수 30평
• 전세 6500만원
• 즉시 법회가능 각종 불단 시설 완비

011-9952-1413

사찰안내

• 위치: 영천 시내에서 10분거리 청통IC에서 10분거리
• 대지 150평,대웅전 20평 요사채 2동
• 가액: 1억5천
• 사정상 "급"양도

011-679-2178

사찰안내

• 위치 : 서울 성북구 성북동
• 대지 : 220평, 건평 60평 법당, 요사채 2동
• 전세 : 2억5천(절충가능)

02)762-2204
02)745-6939
011-244-208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청송군 진보면 면소재지에서 걸어서 5분
• 면적: 680평 법당 요사채 50평 삼존불, 단청
• 가액: 1억2천만원 (융자 5천만원)

011-808-5206
054)874-2155

사찰안내

• 위치: 충북 옥천 (대전 20분거리)
• 대지: 200평중 100평 등기필
• 건평: 대웅전 25평 산신각 5평(목조) 부속건물 18평, 11평
• 옥천읍 5분거리에 270호 촌락의 산자락에 자리한 작고 아름다운 사찰로써 완벽하게 가꾸어졌음
• 가액: 1억2천만원

011-9405-8186

포교원안내

• 위치: 인천 부평구 부개1동 (부개역 5분거리)
• 평수 : 48평(4층건물 2층내), 법당1,방2개,후원1개, 대중방 포함
• 주차 : 도로상 일렬 주차
• 전세 : 5000만원, 시설비 : 1천 5백만원
• 모든시설완비. 바로 법회 가능함

017-269-2629
032)517-3001

웰빙기수련원

기란?
기를 만지고 느낄 수 있다
자기 손에서 나온 기로 타인의 고통이 없어진다
자기 몸에서 나오는 탁기를 본인이 느낀다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배울 수 있는 에너지 요법
첫날부터 기를 느낀다면 믿겠는가?

치유기공 수련생 모집

◆ 이론은 있으나 실기가 안되는 분
◆ 실기위주 전문교육(집중교육)
◆ 3개월후에는 전문치유 기공사
◆ 기감 강화를 위해 전국 명산 수련
◆ 치유기공 과정 수료후 전국지부 개업 가능
◆ 개인지도 가능

교 육 내 용

• 기공의 종합이론
• 치유 특수 명상
• 타력 기공
• 염력 치유 기공
• 기감 증폭 수련
• 자력 기공
• 치유 실습
• 영적 치유 기공

치유기공 연구회 02)561-6488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취급브랜드 JBL dbx AKG MACKIE crown






믿을 수 있는 회사와 제품을 원하신다면 스님이 운영하는 (주)야단법석과 상의 하십시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 050-5844-0108 (관음사업부)

사원모집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 원 - 남 0명, 여 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 5동 (영대전철역 옆)
• 총평수: 40평.즉시법회가능 법당(삼존불, 신중, 시왕, 방2개, 공양간) 집기일체 양도
• 몸만오시면 됨
• 가액: 보증금 5백 월 26만원 시설비: 1천2백만원

011-9850-2946

사찰안내

• 위치: 경남 밀양
• 법당 30평, 단청필, 요사채 60평, 부지11,060평
• 복지원, 납골당, 수련원, 등 대형 불사를 하실 스님들께 적합
• 가액 : 10억

055)352-4733

사 찰 안 내

• 위치: 수원시내 주택가
• 도심포교 최적지
• 가액 : 4억 8천만원

(조흥은행 융자 1억7천만원)

011-688-3521
011-9916-2820

포교당 안내

• 위치: 인천시 중구 (아파트 밀집지역)
• 방3, 공양간1 아미타 부처님 주불 각단탱화 • 평수 30평
• 전세 6500만원
• 즉시 법회가능 각종 불단 시설 완비

011-9952-1413

사찰안내

• 위치: 영천 시내에서 10분거리 청통IC에서 10분거리
• 대지 150평,대웅전 20평 요사채 2동
• 가액: 1억5천
• 사정상 "급"양도

011-679-2178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성북구 성북동
• 대지 : 220평, 건평 60평 법당, 요사채 2동
• 전세 : 2억5천(절충가능)

02)762-2204
02)745-6939
011-244-208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청송군 진보면 면소재지에서 걸어서 5분
• 면적: 680평 법당 요사채 50평 삼존불, 단청
• 가액: 1억2천만원 (융자 5천만원)

011-808-5206
054)874-2155

사찰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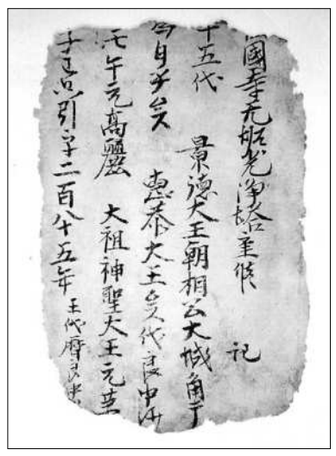
• 위치: 충북 옥천 (대전 20분거리)
• 대지: 200평중 100평 등기필
• 건평: 대웅전 25평 산신각 5평(목조) 부속건물 18평, 11평
• 옥천읍 5분거리에 270호 촌락의 산자락에 자리한 작고 아름다운 사찰로써 완벽하게 가꾸어졌음
• 가액: 1억2천만원

011-9405-8186

포교원안내

• 위치: 인천 부평구 부개1동 (부개역 5분거리)
• 평수 : 48평(4층건물 2층내), 법당1,방2개,후원1개, 대중방 포함
• 주차 : 도로상 일렬 주차
• 전세 : 5000만원, 시설비 : 1천 5백만원
• 모든시설완비. 바로 법회 가능함

017-269-2629
032)517-3001



불국사 무구광정탑중수기.

불국사 석가탑 중수기 중앙박물관서 보관중

중수시기 1038년 추정

고려시대 11~12세기에 작성된 불국사 석가탑 중수기의 존재가 확인돼 학계를 흥분시키고 있다. 특히 불국사 사적과 석가탑 중수의 내력을 담고 있어 획기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지 묵서로 작성된 이 중수기는 1966년 불국사 석가탑을 해체할 당시 무구정광다라니경(국보 제126호)과 함께 발견됐으며, '묵서지편(墨書紙片)'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바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건무)에 따르면 1997년 9월부터 1998년 12월까지의 상태조사를 거쳐 이물질제거, 겹겹이 쌓인 종이쪽 펼치기 등 기초 보존처리가 진행됐고, 현재 110여쪽의 종이편으로 분리돼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하지만 아직 판독작업은 이뤄지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따르면 '불국사무구광정탑중수기(佛國寺无垢光淨塔重修記)'라는 제하에 고려시대에 이루어진 중수 내용을 이두를 사용해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수한 시기는 '(太平, 중국요나라 연호) 18년'으로 돼 있어 고려 정종(靖宗) 대인 1038년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 '불국사서석탑중수형지기(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라는 제하의 중수 당시의 상황과 전말을 기록한 내용과 다라니경으로 추정되는 사경편 등도 존재가 확인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현재까지 석가탑의 중수기록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 중수기를 통해 고려시대에 중수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고, 고려시대에 석가탑을 '무구광정탑' 또는 '서석탑'으로 불렀음을 알 수 있다"고 밝히며, "이 중수기 등에 대한 정리와 조사는 내년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익순 기자

공안 · 화두 주제로 눈길 끈 학술발표 2題

공안과 화두는 같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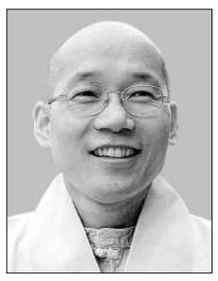
공안과 화두는 같은가 다른가. 공안선과 화두선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공안은 왜 출현했으며,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선을 접해본 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법한 주제인 공안과 화두의 관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돼 관심을 끌었다.

9월 15일 동국대에서 열린 한국선학회(회장 현각) 월례발표회에서 인경 스님(명상상담연구원장)의 '공안선과 화두선'과 박재현 경희대 강사의 '공안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철학적 연구'가 발표됐다. 인경 스님은 간화선 성립의 주역인 원오극근과 대혜종고의 선사상을 비교함으로써 공안과 화두의 의미를 규명했고, 박재현씨는 공안의 기능을 살폈다.

잘 다뤄지지 않아온 '공안'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도 이채롭지만, 두 발표자의 주제 접근 방식이 달라 더욱 흥미로웠다. 특히 박재현씨는 종교적인 시각에서 탈피해 철학적으로 간화선을 접근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쳐 주목받았다.

인경 스님 '공안선과 화두선'

공안은 역사, 화두는 실존 과제
간화선 시작 대혜종고로 봐야



인경 스님(사진)은 <벽암록>과 <원오어록>, 대혜종고의 <대혜어록>을 통해 간화선을 정립한 이들 자신의 공안과 화두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고자 시도했다.

인경 스님에 따르면 원오극근의 경우 <벽암록>과 <원오어록>에서 나타나는 공안 개념은 다소 상이하다. <벽암록>이 공안을 '옛 조사의 가르침, 선문답'으로 정의하고 공부하는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원오어록>은 공안의 본질을 '그 자체 진리의 현현(現成公案)'으로 밝히고 있다.

두 책에서 나타나는 차이에 대해 인경 스님은 "<벽암록>이 공안을 공부하는 이들을 위한 안내서라면, <원오어록>은 직접적으로 진리를 드러내는 자리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설명했다. 이어 두 공안 개념을 통일적으로 해석, "공안은 현성공안으로 진리 자체를 보인 것이지만, 그것을 그 자체로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이 있다면 그것을 결택해 수행의 길로 삼아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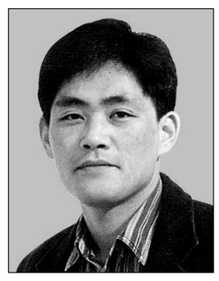
이 같은 맥락에서 인경 스님은 원오극근의 공안선을 "깨닫지 못한 이들을 위해 공안을 활용해 학인들을 지도하는 공부법"으로 정의하며, "공안의 출현은 당(唐)대 마조 · 조주 스님 때 일이지만, 공안을 활용한 공부법(공안선)으로 발전시킨 것은 송대에 들어서"라고 분석했다.

원오극근의 공안선을 화두수행법으로 체계화시킨 이는 제자인 대혜종고다. 이들은 공히 화두를 "과거의 사건인 공안을 관통하는 핵심적 언구"로 이해하고 있다. 대혜종고는 한 걸음 더 나가 화두에 선사상적 의미를 부여했다. 대혜종고는 "공안은 과거의 단순한 기록에 불과하며, 진정 필요한 것은 절박한 자기문제로서의 화두"라고 강조하고, "화두의 본질은 의심이며, 화두에서 의심을 일으키라"고 말했다.

이로부터 인경 스님은 "공안이 수행의 대상으로 활용된 것은 송대부터"으므로 공안의 성립을 공안선의 출현으로 이해하는 방식은 재검토돼야 한다"며 "화두선의 진정한 시점은 공안을 배격하고 화두 공부의 길을 마련한 대혜종고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재현씨 '공안의 기능과 역할에…'

신비주의적 접근에 문제 제기
문자선 극복 위해 간화선 출현



박재현씨(사진)의 발표는 공안에 대한 신비주의적 이해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됐다. 그는 먼저 "지금까지 공안이 주문처럼 신성하고 신비적인 것이어서 철학적 이해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돼왔는데, 이 같은 태도는 선불교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차단함으로써 해석학적 회의주의로 귀결될 위험성이 크다"고 경계하며 "공안은 문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철학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씨에 따르면 공안이 신비화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본래 공안이 만들어진 것은 "깨침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과 그 여부를 점검하는데 있어서 공공성과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선문답이 언어화되는 과정에서 언어화될 수 없는 현장성은 상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은 그 자체로 진리성을 간직한 것으로 믿어졌고, 깨침을 이루기 위한 초역사적인 모범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는 것.

박씨는 원오극근의 <벽암록>이 이 같은 문제인식에서 저술된 것으로 분석했다. 즉 원오극근은 <벽암록>에 선문답 외에 '평창(評唱)'이라고 하는 공안해석 형식을 덧붙임으로써 문자선으로 치달은 공안선의 한계를 극복하고 불립문자의 전통을 되살리고자 했다는 것이다.

당말에서 북송대로 이어지는 시대의 중국 지성계는 지적 객관주의를 지향한 훈고학적 경향 속에서 나타난 '생기(生氣)의 부재'를 해결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는데, 불교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간화선이 돌파구가 됐던 셈이다.

박씨는 "간화선은 종교적 도그마에 대한 신봉과 기호로서의 언어에 내포된 지적 객관주의를 비판하고 경계함과 동시에 선문답이 가졌던 수행적 기능을 되살려내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화선은 의단을 강조함으로써 수행주체인 '나'를 복권시키는 방법을 선택한 셈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씨는 "나로부터 비롯된 '왜?'라는 질문과 함께 공안과 수행자 사이의 일방통행은 쌍방통행으로 바뀌고, 지적객관주의 속에서 사라져버린 수행주체인 '나'가 복권된다"고 덧붙였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25>

소나무와 나노 기술

금년 여름은 무덥고, 더위도 길었다. 하지만 입추가 지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석으로 선선한 바람이 분다. 어떤 사람은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한해의 결실을 계획하면서 바쁜 마음이기도 할 것이다.

한 여름을 정리하면서,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산사를 주위에 두고 있는 우리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특히 법주사와 같이 산과 잘 어우러진 사찰은 세계의 어떤 문화재와도 바꿀 수 없는 유산이다. 수많은 사람들과 재정의 희생을 요구했던 유럽의 문화재에 비해서, 자연과 규모의 균형을 갖춘 우리의 사찰은 인류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유산이다.



그림 : 문병성

바위에 뿌리 내린 소나무 · 뼈와 피
무기물-유기물 결합한 인연의 그물

법주사는 서기 550년 경, 신라 진흥왕 때, 의신 화상이 인도에서 돌아와 지었다고 전해진다. 팔상전 등 국보급 유물이 불교를 이상향을 그렸던 선조들의 마음을 전해준다. 피부병이 많았던 세조께서도 들러서 법회를 열었다고 전한다. 법주사를 품고 있는 속리산 또한 명산이다. 초입부터 소나무가 세속에 찌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어준다.

속리산 소나무는 어느 나무보다도 잘 생겼다. 물이 그렇게 키운 것인지, 아니면 바위가 소나무를 그렇게 강하게 키웠는지 알 수는 없다. 아마, 청정한 물, 깨끗한 공기, 그리고 바위가 어울려서 한국의 소나무를 키워 냈을 것이다. 특히 바위 위에서 자란 소나무는 우리를 경외롭게 만든다. 물을 찾아서 용트림 모습을 한 뿌리는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게 만든다.

재료공학자들은 지구의 물질을 유기물질과 무기물질로 나눈다. 유기물질은 탄소가 주가 되어 만들어낸 물질이다. 나머지 물질은 모두 무기물질이다.

생명은 유기물질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생명을 다루는 과학에서는 유기물질이 중요한 대상이 된다. 식물이 태양으로부터 빛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녹말을 만드는 광합성 작용은 유기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이에 비해 한국이 세계 제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의 원료가 되는 실리콘 물질은 바위와 같은 무기물질이다.

1밀리미터의 100만분의 1정도의 크기를 다루는 나노 과학자들은 유기 분자들을 조작해서 생명현상을 이해하기도 하고, 또 미량의 암 독소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기도 한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반도체와 같은 무기물질을 나노 크기의 입자로 쪼개고, 그 표면을 잘 처리해서 원하는 유기분자를 붙인다. 이 유기분자가 병원균과 결합하게 되면 나노 입자의 성질이 바뀌게 되는데, 이런 성질을 이용하면 병원균의 유무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바위 위에서 뻗어나간 소나무의 뿌리를 보면서, 무기물질과 만나는 유기물질의 인연을 생각해보자.

이러한 현상을 보고 있는 나의 몸 역시 무기물질(뼈)과 유기물질(피, 호르몬등)의 만남으로 이뤄져 있음을, 그리고 이 인연이 흩어지면 또한 작은 원소로 다시 돌아가는 위대한 인연의 그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대한불교법화종 제9대 성파 대종사 종정 추대법회

모시는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일륜(日輪)이 빛을 더하면 만물이 더욱 후덕하고, 일인(一人)의 덕화가 더 높으면 중생의 고난이 덜어지매, 성파 대종사의 종정 추대를 불보살께 우러러 고하고자 합니다.
한사람의 뜻이 천만 갈래로 퍼지니, 본종 **제9대 성파 대종사 종정 추대법회**에 수희 동참하시어 가지마다 영근 복덕을 듬뿍 가져 가소서...

불기 2549년 좋은날

봉행 일시 및 장소

● **일 시** : 불기2549(2005)년 9월 28일(수) 오전 11시
● **장 소** : 신라고찰 안정사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888번지 소재)
● **문 의** : 02)762-2678(서울 총무원) / 팩스 02)747-5044
055)649-3503(안정사)

대한불교법화종 제9대 종정추대 봉행위원회 합장

일주문



노인학대 예방 사진전 개최

복지법인 불국토 대표이사 혜총 스님은 9월 13일 부산시청 앞에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사진전 및 서명운동을 개최했다.



월암 스님 초청 1029일 천도법회

합천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9월 19일 대적광전에서 북경대 철학박사 월암 스님 초청 1029일 천도법회를 봉행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객원교수로

서울 삼천사 주지 성운 스님은 9월 5일자로 동국대 불교대학원 객원교수로 선임돼 '사회복지현장실천론'을 강의한다.



도광대선사 21주기 추모재

구례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은 9월 26일 오전 10시 30분 각황전에서 도광대선사 21주기 추모재를 봉행한다.(061)782-7600



'금강불자 한마당' 개최

광명 금강정사 주지 지홍 스님은 9월 25일 오전 10시 서면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금강불자 한마당'을 개최한다.(02)808-56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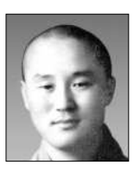
대전 시니어클럽 본부 개관식

공주 갑사 주지 장곡 스님은 9월 9일 염홍철 대전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둔산동 시니어클럽 본부 개관식을 개최했다.



'양평군민의 날' 기념식서 법문

양평 사나사 주지 화암 스님은 9월 21일 강상체육관에서 열리는 양평 군민의 날 기념식에 초청돼 법문을 한다.



삼보사찰 성지순례

대구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은 9월 29일 신도들과 함께 양산 통도사 등지로 삼보사찰 성지순례를 떠난다.(053)766-3474



제3회 대원상 후보 추천받아

불교진흥원 홍승희 이사장은 10월 31일까지 △승가 △재가 △단체 부문 등으로 나눠 제3회 대원상 후보추천서를 받고 있다.(02)719-1855



보현불교대 개관 14주년 법회

대전 보현불교대학 오상현 이사장은 9월 15일 광덕사 주지 경원 스님을 초청해 불교대학 개학 1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회관 마련 · 재정자립 숙원 꼭 풀것"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추대 유력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

"신도회관 마련을 위한 건립기금을 모으고, 임기내 재정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2대 회장선거에 단독 출마해 9월 24일 회장 추대가 확실시 되는 김의정(64 · 사진) 후보.

김후보는 신도회 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신도회관'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사 인근에 흩어져 '따로' 활동하는 신행단체들을 하나로 모아 역량을 배가시키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9월 12일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교계 기자들과 만난 김 후보는 "첫 번째 여성 중앙신도회장 후보라는 꼬리표가 부담된다"면서도 "이제는 암탉도 울어야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으냐?"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신도회관 마련과 함께 1차 해결 과제로 설정한 것은 재가불자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문제.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는 불자들을 발굴, 그들을 중앙신도회로 묶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김 후보는 "최근 봉행한 '불자정부기관장 초청법회'와 같은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동의 외연을 넓혀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또 신도회 차원에서 남북 불교교류를 정례화하고 밀가루 지원 등의 대북구호활동을 상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금강산 신계사에서 북측 조선불교도연맹과 합동법회를 개최한 뒤 매년 정기적으로 법회를 함께 봉행하기로 이미 합의한 상황이라고 김후보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세계불교도우의회' 참여를 비롯한 해외 불교교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전임 백창기 회장님이 전국신도회와 중앙신도회의 통합을 이뤄내고 신도회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이제 중앙신도회를 명실상부한 조계종의 대표적인 신도조직으로 도약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후보는 쌍용그룹 창업자 故 김성곤 회장의 차녀로 명원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7호 궁중다례의식 보유자이기도 하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그림 속 線 보고 느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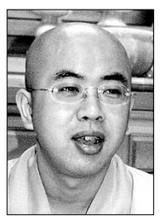
禪畵 전시 · 시화명상집 출간 묵연 스님

"제 그림 속의 '선(線)'을 유심히 관찰하면 붓 하나로 그리는 선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가늘고 굵은 선을 붓 하나로 표현하는 선화가 묵연 스님(사랑선원장 · 사진)의 전시회 '마음 고요해지는 선화전'이 10월 5~11일 서울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에서 열린다. 전시회가 개막되는 5일 오후 2시 시화명상집 출판기념회가, 오후 3시에는 사인회가 준비되어 있다.

선화를 그리기 시작한지 2년 남짓됐다는 스님의 선화는 5가지 주제로 크게 정리된다. 사람, 연꽃, 산, 나무, 달이다. 스님은 이 5가지 주제에 매달려 하루 5~6시간씩 선화를 그린다. 목탁을 들지 못할 정도로 통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렇게 2년 동안 그린 작품이 6천여 점에 달한다. 문경 한지장 김삼식씨가 만들어낸 전통 닥종이와 먹만을 고집해온 스님이 이번 전시회에서는 경명주사 작품도 선보인다.



"선화 뿐 아니라 1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해서 10년 전에 시집을 한편 냈다"는 스님은 10여 년간 써온 시 3000여 편도 선별해 시집으로 묶을 계획이다. 이번 전시에 맞춰 우선 시와 선화 47편씩을 선별해 엮은 시화명상집이 출간된다.

지난해 스님이 설립한 도서출판 공의 첫 번째 작품이다. 묵연 스님은 앞으로 3년간 시화명상집 10권 정도를 내겠다고 발원한 상태이다.

"앞으로 그림이나 책으로 얻는 수익은 모두 문서포교에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좋은 책을 만들고, 또 양질의 책을 구해 군부대나 교도소로 보내고 싶습니다." 011-9366-1129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법화종 9대 종정 성파 스님 추대

추대식 28일 안정사서



대한불교법화종 9대 종정에 성파 스님(사진)이 추대됐다.

법화종(총무원장 혜륜)은 9월 7일 서울 총무원 청사에서 종정추대위원회를 열고 제9대 종정에 성파 스님(창원 백운사 조실)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종정 추대식은 9월 28일 고성 안정사에서 봉행된다.

1936년 김해에서 태어난 성파 스님은 60년 김해 장유암에서 철해 스님을 은사로 수계득도하고 부산 흥국사, 고성 약천사, 창원 백운사 주지, 법화종 마산교구 종무원장, 교육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02)762-2678

강유신 기자

국제포교사 10기 양성과정 수료



국제포교사 10기 양성과정 수료식이 9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3월 24일~6월 2일 국제포교사 교육을 받은 24명 중 19명이 새 포교사로 탄생했다. 조계종 포교국장 재현 스님은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부산 삼광사, 불우이웃돕기 성금전달



천태종 삼광사(주지 도원)는 9월 15일 향적당에서 한가위맞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전달법회를 가졌다. 삼광사 주지 도원 스님, 김형대 신도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서 삼광사는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등 불우이웃 110세대에 총 11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다과를 나눴다.

국가와 도민 안전을 위한 특별법회



국가와 도민 안전을 위한 특별법회가 9월 13일 경북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경북경찰청 경승실장 성타 스님(불국사 회주),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과 불자 경찰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성타 스님은 "인간의 존엄을 구현하는 일에 계속 헌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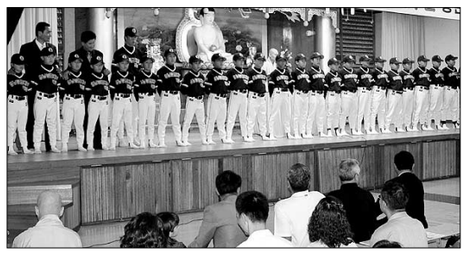
인천불교대 기본과정 33기 개강법회



인천불교대학 기본과정 제33기 개강법회가 인천 법명사(주지 선일)에서 봉행됐다. 입학생을 포함한 300여 명이 참석했다. 개강법회에서 장수 죽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은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고 당부했다.

입학생들은 4개월 동안의 기본과정, 1년간의 본과정을 이수할 예정이다.

영남불교대 관음사 리틀 야구단 창단식



불교계 최초 어린이 야구단인 리틀 야구단 '불교 엘리펀트' 창단식이 9월 13일 대구 영남불교대학 3층 법당에서 열렸다. 유영목 단장, 김헌자 감독, 삼성야구단 이선희 코치 등 약 300여 사부대중의 축하 속에 열린 이날 행사에서 영남불교대학 회주 우학 스님은 야구단 어린이들 모두에게 단주를 선물했다.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법요집 · 기초교리집 괘도 특별한정 보급!!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요집
·삼귀의 ·정근
·찬양합니다 ·발원 및 축원
·반야심경 ·사홍서원
·입정 ·산회가
·청법가 ·기타찬불가
·법문

● 기초교리
1. 불교란? 8. 예불문 15. 사성제
2. 부처란? 9. 삼보 16. 사섭법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10. 삼귀의 17. 십이인연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11. 삼법인 18. 육바라밀
5. 사찰경내 예법 12. 삼업 19. 팔정도
6. 합장과 반배 13. 삼학 20. 보왕삼매론
7. 고두례 14. 신도오계

법회의 일반적인 순서와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초교리가 암도 큰스님의 감수로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 특별보급가 :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자크지

괘도를 구매하시는 모든분께
고승열전도서 - 용성큰스님, 운허큰스님
(정가16,000원) 2권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사은품은 선착순 100분께만 드립니다.)

MAHAMALL www.mahamall.co.kr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주문전화 02-2004-8218~9
Mahamall.co.kr 02-732-1520





불자 세상보기

김 징 자
칼럼니스트

생명과학, 또 다른 판도라 상자

미래인류는 남녀 구분이 따로 없는 양성구유(兩性具有)의 인간이 될 수 있을까? 그것도 자연진화가 아닌 인위적 방법으로.

미셸 우엘벡 이라는 프랑스 작가는 그가 쓴 소설 '소립자'에서 황당하게도 미래인류의 모습을 조심스럽게 그렇게 그린다.

'소립자'에는 과학자들이 유전자를 변형시켜 만든, 지금 인류를 대체시킬 미래인류로 나올, 그 '새로운 종'은 남녀의 구별이 없다. 개체마다 남성성 여성성을 함께 지니고 있어 후손번식의 생식방법으로서의 남녀간 사랑도 물론 필요가 없어진다.

그렇다면 사랑의 행위에서 얻을 수 있는 현생인류의 즐거움은 어떻게 될까? 그 문제도 간단하게 해결된다. 지금 인류에겐 무아의 경지를 이끌어 내는 '크라우제 소체'라는 것이 신체의 몇 군데만 분포돼 있다. 따라서 그런 경지를 얻기 위해 번거로운 행위를 해야만 한다.

하지만 '새로운 종으로서의 신인류'에게는 크라우제 소체가 신체 여러 곳에 널리 퍼져있다. 타인과 피부만 닿아도, 아니 혼자서 피부만 쓰다듬어도 그 쾌감과 즐거움을 언제든지 맛보게 된다. 마약도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임신과 출산은?

소설에서 그 부분은 확인되지 않으나 오늘의 생명과학이 보여주는 가능성 등으로 미루어 보면 이 역시 파격적인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코미디이긴 하지만 남성배우 '아놀드 슈워즈네거'가 스스로 임신하고 출산하고 아이 기르는 내용의 헐리우드 영화 '주니어'는 이미 오래된 버전이고, 이제 영화는 '아일랜드' 등 인간복제에 대한 이야기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최근, 영국과학자들이 인간의 난자만을 가지고 마치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된 것처럼 세포분할을 하는데 성공, 이른바 유성(有性)생식이 아닌 단성(單性)생식의 '아빠 정자 없는 무염수태' 가능성을 열었다고 전한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세계최초로 '아빠 없는 쥐'를 탄생시킨 실적이 있는 만큼 앞으로의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성생식의 성공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는 생명과학분야에서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와는 또 다른 해결책을 보여주는 것으로, 줄기세포 쪽 보다는 해결해야 할 장애가 더 많은 연구로 알려져 있지만, 단성생식의 성공이 가져 올 인류의 변화는 참으로 상상을 초월한다 하겠다.

현재의 과학적 결과로 보면, 여성은 단성생식으로 끝없는 자기 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남성들로서야 난자의 도움 없이 정자만으로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방법을 따로 연구해내야겠지만….

물론 이런 연구들은 지금 인간의 난치병 치료에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인간 신체의 개량, 또는 개선의 길이 열리는데 그 길을 외면할 과학자들이 있을까? '황당한 소설적 상상'이라 치부되는 소설 '소립자'에 등장하는 양성구유의 '미래 인류 상'이 그럴듯하다는 느낌마저 받게 되는 이유다.

이를 가정한다면 천지개벽이 따로 없다.

동성애에 대한 세계적인 새로운 관심, 남녀관계 변화 등등 작금의 사정들을 보면서 이런 증상이 혹시 현생인류 적 여러 특성들을 인류 스스로가 거부해 가는 초기적 조짐은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도 든다.

생명과학이 새로운 경지를 개척할 때마다 이에 환호만 하기보다 우리가 무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에 맞는 가치관을 제시하고 이를 선도해야할 종교라면 더욱 그렇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 인곡당 법장대종사가 9월 11일 원적에 들었다.

2년 7개월간의 총무원장 재직중 스님은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었기에 이렇듯 안타까운 마음은 더욱 절절하기만 하다. 덕숭총림 수덕사의 가풍을 이은 스님은 일찍이 제방선원을 다니며 참구정진에 힘써왔으며 한국불교선학연구원을 설립해 선풍진작에 매진하며 수행자의 본분을 지키려 애썼다.

특히 스님은 더러 정치적 술수와 비난이 횡행하는 종단풍토 가운데서도 "나는 정치인이 아니라 수행자다'라는 소신을 늘 견지해 왔으며, 그런 가운데서도 이(理)와 사(事)를 겸비한 종무행정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했기에 종도들은 실로 믿음직스러워 했다.

스님의 일생은 자비와 원력의 보살, 바로 그것이었다. 불우한 어린이를 내 몸처럼 거두고 재소자교화에도 눈길을 돌렸

법장 스님의 '바랑'이 되자

으며, 종단의 내일을 위해 인재양성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종단 수장으로서 스님의 활동영역은 종단를 넘어 국내외로도 펼쳐졌다. 특히 민간지도층으로는 처음으로 이라크의 자이툰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으며, 지난 6월에는 북한을 방문해 남북불교교류와 화해의 지평을 넓히기도 했다.

스님의 자비원력 정신은 지난 94년 '생명나눔실천회'를 창립하고 시신과 장기기증을 서약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끝내 사바에 남긴 육신을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에 기증했다.

생명나눔을 통해 오늘날 '구두선(口頭禪)'에 그치고 있는 불교의 자비정신을 실천에 옮기고자 했던 법장대종사, 그는 분명 교단의 사표로서 손색이 없는 분이다.

총무원장의 육신보시! 오랜만에 들어보는 명쾌한 결정이다. 법장 대종사 본인은 물론 사부대중과 사회의 일반대중들도 숙연하게 반기리라 믿는다. 스님이 법문했던 '주어도 주어도 비지 않는 바랑'은 바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비와 원력의 바랑일 것이다. 이제 우리도 그것을 아끼지 말고 중생들을 향해 주고 또 주어야 한다. 아울러 스님이 떠난 종단을 잘 꾸려나가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인곡당 법장 대종사의 명복을 삼가 법답게 축원하는 일이 될 것이다. ■도수(정업도량 회주)

이렇게 들었다 장애

온갖 존재는 실체가 없고 평등할 뿐이다. 만약 온갖 존재에서 안팎을 구분한다면, 이는 마음에 장애가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떠나 별개의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비밀상경〉

자폐증 수영선수의 아름다운 도전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다. 9월 체코에서 열린 세계장애인 수영선수권대회 배영 200m 경기에서 감동과 눈물의 금메달을 목에 건 김진호군(19 · 부산체고 2년)이 주인공. 진호군은 8일 '2분 28초 5'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당당하게 우승 메달을 쟁취했고, 9일 열린 자유형 200m 경기에서도 은메달을 추가했다.

진호군의 승리가 빛을 발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좌절과 시련, 가족들의 남모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네 살 때 자폐증 진단을 받은 진호군은 아홉 살이 돼서야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진호군은 한 달 만에 학교에서 쫓겨나 열한 살이 될 때까지는 학교를 다닐 수 없었다. 이때부터 성장교육의 일환으로 수영을 배웠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진호군은 세상의 높은 편견에 다시 눈물을 흘렸다. 자폐아란 이유로 바로 집 앞 체육고등학교가 입학을 거부했다. 진호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경기도 안양에서 부산으로 집으로 옮기기까지 했다. 진호군의 승리는 그런 어려움을 뚫고 이뤄냈기에 더욱 값진 것이다.

이번에는 새로운 모험을 한다. 10월 14일 열리는 전국체전에 출전해 일반인들과 승부를 겨루는 것이다. 편견의 물살을 가르는 진호군의 수영. 힘찬 진호군의 스트로크가 언제까지나 계속되길 기대해 본다.

■강유신(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원적에 놀라고 '자비'에 또 놀라고…

9월 11일 입적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추모 글과 가슴 아픈 사연들이 연일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수많은 네티즌들은 갑작스럽게 당한 일에 황망한 심정과 법장스님과의 각별한 인연을 담은 사연을 전하기도 했다.

붓다뉴스와 법장 스님 공식추모사이트에 올라온 애도의 글들을 모았다.

◯…삼가 총무원장 스님의 영전에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살아서 참된 불교인의 자세를 몸소 실천하시고 사후에도 온몸으로 자비의 정신을 심고 가신 스님 부디 극락왕생 하소서. 송재윤

◯…귀의삼보 하옵고.. 역대 어느 시기 총무원장님 보다 더욱 교계의 자정운동을 위해 애쓰시던 분~ 삼가 아미타 세계 상품 상생 하옵시고~ 큰 스승으로 빨리오시어 중생제도 하옵소서~

불자약사 보리회

◯…모든 애욕과 욕망의 불구덩이 같은 번뇌 망상들이 없는 편안하고 행복 많이 존재한 불생불멸토록 편안한 세상이 바로 불국정토 극락세계입니다.

오색찬란한 무지개 빛과 오탁 봉황새가 앉아서 노래를 하고 부처님이 그대를 기다리고 마중 나온다. 그 길은 피안의세상이요, 우담바라꽃이 피는 꽃동산에서 부처가 그대를 기다리노라. 윤승환

◯…큰 원력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던 스님의 명복을 빕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로 다음 생에 더 훌륭하신 스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중생들을 구해 주시는데 더욱 애써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태수

◯…지난 5월에 L.A에 오시어 "고통을 모으러 다니는 나그네" 설법을 해주시고 책을 한권 주셔서 주위의 친구들과 함께 나눠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짧은 만남 긴 여운이 남았네요. 부디 왕생극락하시고 통일의 꽃으로 다시 환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LA 에서 남북통일 합장

◯…마음을 두고 가신다더니/ 몸마저 두고 가십니다.

마음이, 아픔이나 슬픔을 몰라도/ 이렇게 그냥 눈물이 나네요.

언제, 언제쯤 뵐 수 있을는지/ 오래도록 평안 하시기를…. 신성운

◯…총무원장 법장 큰스님의 극락왕생을 삼가 발원합니다.

이라크 평화재건사단 장병일동

◯…덕높으셨던 큰스님의 원적소식에 한번울고 오늘 또한번 시신기증 소식에 또한번 통곡합니다. 역시 대종사십니다. 스님을 이리 일찍 잃은 것이 더 많은 가르침과 큰 지도자를 잃은 것 같아 말할 수 없이 통탄스럽지만 오늘 이 소식은 크나 큰 교훈이 되고 큰 위로가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하은

◯…제가 지금까지 불교신도로서 스님의 다비가 수습이 되지 않는다는 첫 번째 사례를 듣는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그동안 하시는 일을 극락세계에서도 이으시기 위해 육신마저 중생을 위해 보시하시고 가시는군요. 극락에서도 부디 스님의 뜻을 불제자들이 정진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영국 런던에서 합장합니다. 박지호

◯…큰 스님께서 늘 곁에 계시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가시다니 믿어지지가 않아 며칠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다가, 큰 스님 뵐 때 부끄럽지 않게 저도 장기와 시신을 기증하고 사회에 봉사하면서 남은 인연 짓도록 하겠습니다. 큰 스님 극락왕생 하시옵소서. 대자행

◯…스님의 행적은 후배들과 큰스님들에게 큰 방망이를 남겨주시고 가셨습니다. 말로만 큰소리치던 사람들에게 허울을 벗겨낼 수 있는 거울을 주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더 이상 큰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스님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부다랑

◯…우리가 이 순간 고인의 유지를 받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랜 시간 그분의 유지가 계속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일부스님들의 정서와 상좌의 반대는 어느 의미에서 합당하다. 본인의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보라. 어느 누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반대를 했겠는가. 지성과 냉정

'현대' 만평 심 민 섭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제19기 「전생요법 · 빙의 치유」 특별강좌



상담학 박사 임재형

무료공개강좌 9월 22일 13:00~16:00까지

개강안내 9월 23일 10:00~18:00까지 (매주 금요일 7회과정)

통신교육과정 전체 교육 내용을 녹화한 비디오테잎(2시간용 총20개)

▶과정별 교재 및 실습테잎 제공

▶교육 참가비 : 200만원
입금계좌 : 조흥은행591-01-008086 (한국의식개발원)

▶특전 : 전생상담사 이수증 발급 및 회원 가입 후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 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사 주 명리학	사주 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면의 원리, 자기최면, 타인최면 최신기법, 심리치료, 자율훈련, 성격개선,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공포증 소거법,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법, 슬픔, 번뇌 집착에서 벗어나는 후최면 건망법,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1만원을 송금하시면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

심리상담 전문가 / 한국생활최면 실천학회장
한국최면지도사협회 회장
한국치유목회대학원 겸임교수
KBS 무한지대큐, MBC TV특종 놀라운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Vj세상 속으로, iTV, TJB, CMB방송 등 출연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외 다수 대학과
공무원 연수원 기업체 등 에서 강의

驚異

강의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됩니다.

•전 화 : (042)255-0734~5
•주 소 : 대전시민회관 후문 청운빌딩 (2층강의실) 대전역에서 5분거리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주최 : 한국전생 · 빙의 연구원
주관 : 한국최면과학원 www.HYPNOS114.COM

소아암 환우에 큰 희망을

광주 하남 콜롬버스 시네마, 헌혈증서 · 나눔돼지 전달


9월 9일 광주에서 열린 '아름다운 나눔의 날' 행사에 나눔의 집 6호점 연화유치원생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를 위한 '아름다운 나눔의 날'이 9월 9일 광주 하남 콜롬버스 월드극장 본관에서 열렸다.

이날 콜롬버스 시네마(나눔의 집 2호점) 김덕일 관장은 나눔돼지 500여개와 헌혈증서 1500매를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장 스님 · 이하 생명나눔)에 전달했다.

헌혈증서 전달에 앞서 김덕일 관장은 "영화를 좋아하는 이들은 누구보다 마음이 맑아 소아암 백혈병어린이 돕기에 적극 참여 하고있다"며 "나눔돼지 저금통 분양에 더욱 힘써 어린 환우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콜롬버스 시네마는 지난해 연말부터 나눔돼지 저금통 5000여개를 관람객들에게 배포하고, 저금통을 채운 기증자에게 무료 영화티켓을 지원했다. 헌혈증서 기증자에게도 영화티켓을 지원해 지난해 헌혈증서 2000매에 이어 이번에도 1500매를 모아 생명나눔에 전달했다. 또한 4차례에 걸쳐 투병중인 소아암 아이와 가족들을 초청해 영화시사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한편 나눔의 집은 생명나눔이 소아암 어린이돕기 기금과 헌혈증서를 모으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광주에는 콜롬버스 시네마, 연화유치원 등 7개 나눔의 집이 운영중이다. 글 · 사진/광주=이준엽 기자

노숙인 쉼터 '사명당의 집' 건물주 계약거부 폐쇄위기


노숙인들이 '사명당의집'에서 쉬고 있다.

불교계 유일의 노숙인 쉼터 작은손길 '사명당의집'(대표 김광하)이 폐쇄 위기에 처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한 '사명당의집'은 최근 건물주로부터 재계약 불가 방침을 통보받았다. '사명당의집'이 입주해 있는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 갑작스런 통보는 '사명당의집' 관계자들과 이곳을 이용하던 노숙인들에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다.

작은손길 김광하 대표는 "11월말까지 수 천 만원이 소요되는 시설 이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청량리역 등지에서 노숙을 하며 사명당의집을 이용해온 김경준(55 · 가명)씨도 "그동안 편안하게 이곳에 머물렀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시 거리로 쫓겨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2004년 12월 개원한 '사명당의집'은 노숙인에게 무료로 목욕, 세탁, 식사, 물품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을 위한 주거지원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02)924-1010, 후원: 조흥은행 397-01-098367(예금주 작은손길)

글 · 사진=유철주 기자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 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하는 곳도 제보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제보해주십시오.

일허 스님 달마도 구입안내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돕기에 일허 스님(밀양 영천암 주지)이 달마도 100장을 보시했습니다. 달마도(사진)는 35×45(㎝)규격이며, 작품 가격은 장당 5만원입니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민수의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달마도 구입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39

영천암 (055)356-2040, 일허 스님 011-867-4747

계좌번호: 006001-04-095472, 국민은행 예금주: 김강진 (현대불교)



완치되는 그날까지 민수돕기 모금운동 계속됩니다

현대불교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돕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완쾌되는 그날까지 각 사찰 단체 개인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문의: 나눔의 손잡기 (02)2004-8234

도움주실 곳: 927-12-838466(농협 예금주 김형찬). 016-547-8672

나눔성금 보내주신 분

박상환	50,000	조근영	1,000
황인운	60,000	이창근	10,000
김재풍	50,000	수행자	20,000

총 누적성금 42,166,050원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청소년 장학금 지원에서 이제 독거어르신 지원 부대로 나선 '한아름회'. 사진은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8월19일 만발공양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서울노인복지센터

서울노인복지센터 지원하는 한아름회

작은 정성 모여 큰 기쁨

"더 큰 금액을 보시하고도 얼굴을 숨기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부끄럽네요."

9월 12일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완). '한아름회(회장 신경숙)' 회원 보살들이 지완 스님을 찾아왔다. 그것도 8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들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조그만 힘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며 웃는 그들의 미소가 복지관 직원들까지 흐뭇하게 만든다.

이들이 복지관에 방문한 이유는 '한아름회' 회원들이 월 3만원씩 모은 돈으로 혼자 사는 할머니 25분에게 결연후원을 하기 위해서다. 꾸준히 어르신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전달식까지 가졌다.

'한아름회'가 결연 후원 사업을 벌인 것은 2000년 7월부터. 회장 신경숙(73)보살을 구심점으로 법련사 신도들이 10명 남짓 모여 만든 작은 집단 '한아름회'가 전국적으로 회원수 50명을 자랑하는 단체로 발전하게 된 것도 이때다. 그렇게 사람이 모이다 보니 좋은 일을 '한아름'해야겠다는 뜻으로 이름도 '한아름회'다.

가장 먼저 시행한 사업은 소년소녀 가장 돕기. 각 복지단체에서 추천받은 23명의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3년 동안 후원금을 전달하며 성장하는 것을 지켜봤다. 그러고 나니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었다. 서울 시내에서 가장 많은 회원수를 자랑하는 서울노인복지센터와는 올해부터 '나눔 파트너'가 됐다. 조금 더 효과적으로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서다.

회원들의 '나눔 손길'은 장학금이나 결연 후원금 지원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백중 때는 1200명의 어르신들에게 '삼계탕' 만발공양을 대접했다. 김영주(68) 보살은 수해가 날 때마다 수해 지역에 이불을 1,000채씩 보시했다. 또 하수정(70) 보살은 올 1월 칠순을 맞아 사찰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대중공양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활동하면서 "마음 속 깊은 곳까지 뿌듯하고,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환희심 마저 난다"고 기뻐하는 표정을 역력히 드러낸 한아름회 회원들. 단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

"우리 회원 대부분이 나이가 많아요. 젊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뜻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데, 좀 힘드네요. 더 노력해야겠지요." 김강진 기자

노인의 날 후원물품 보내주세요

하루에 2000여 어르신의 점심 공양을 제공하고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쌀과 부식 등의 급식물품이 가장 필요하다. 한아름회 보살들은 "급식 물품도 필요하지만 10월 2일 노인의 날에 쓸 도시락과 기념품 등의 후원도 절실한 상태"라고 전했다. (02)739-9501

EcoQuest 최첨단 Thunderstorm 원리로 세계시장을 완전 석권한 - 리빙에어
EPA Est. Reg. No. 065975-TN-001
스님, 불자님 자연의 신선한 공기를 꿈꾸십니까?
無 필터 無 병균 無 악취 첨단기술방식 공기청정기 Living Air

◆산업공해 연구원(시험성적표) ◆고려대학연구소 측정확인서
◆캐나다 환경청 인증서 ◆미국환경청 인증서
미국 EcoQuest사에서 제작된 LivingAir는 공기청정기 시장에서 최고의 격찬을 받고있는 세계적인 공기 청정기 시스템으로서 최첨단 신기술(Thunderstorm : 천둥.번개+RCI : Radiant Catalytic Ionization : 광촉매방식)의 신산화작용(AOP)으로 악취와 VOC' S(휘발성 유기화합물)을 감소 시킴과 동시에 살균 효과로 언제나 숲속에 있는듯한 상쾌한 기분을 유지시켜 줍니다.
❖ 리빙에어의 다양한 효능 ❖
▶새집증후군으로부터 배출되는 유기화합물 분해
▶환경오염으로 오는 비염, 알레르기, 아토피등의 질병예방
▶애완동물의 털, 먼지, 음식냄새, 담배냄새 제거 탁월
▶곰팡이, 박테리아 살균 및 습기로 인한 악취제거
▶유해냄새및 담배연기로 인한 두통, 만성피로감에서 탈피

Breeze AT
· 공기청정기부분 미국 제1의 매출실적
· 소독기능 장치 / 리모콘 기능
· 소음이 거의 없음
· 오존발생 일시 제거기능
· 5평에서 70평까지 공간에 알맞게 조절 사용

XL-15Classic
· 제작 20년의 기술축적
· 5평에서 84평까지 공간에 알맞게 조절 사용
· 필터 교환의 번거로움이 없어 비용이 절감
· 높이 30cm, 폭20cm, 무게8kg 으로 자유롭게 이동 설치
· 카드플레이트의 세척만으로 반 영구적으로 사용

Fresh Air
훤과 정화를 위한 정확한 공간의 면적을 표시해 주며, 조정 가능한 살균방식에 남은 시간을 알려줍니다.새로운 SynAirG5 시스템은 광촉매 기술로 하여금 보다 빠르고 더욱 효과적인 에코테크 과정을 촉진합니다.
■ 오투에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3-7 이오빌딩 518호) ■ TEL : 02)2055-0202 ■ FAX : 02)2055-0279 www.o2air.net

찌고, 삶고, 뜨고 모두 수행이죠

산문밖의 선

류행영 송담한지 대표(중요무형문화재 한지장 기능보유자 지정예고)

경기도 용인 수지의 아파트 숲을 헤치고 신봉동 북동쪽 끝자락에 다다르자 구불구불한 좁은 비포장도로가 보인다. 도로를 따라 올라가니 나타나는 것은 태봉암이라는 작은 암자와 그 앞에 있는 허름한 비닐하우스 두 동. 그 사이로 고희를 넘긴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내며 기자를 반갑게 맞는다. 지난 8월 5일 중요무형문화재 한지장(韓紙匠) 기능보유자로 지정 예고된 류행영씨(73)다.

1400여년을 이어온 전통 한지 제작 비법을 전수한 장인의 집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초라한 비닐하우스에서 류 선생은 '먹고 자며' 한지를 뜨고 있었다.

닥나무를 베고, 찌고, 삶고, 말리고, 벗기고, 두들기고, 고르게 섞고, 뜨고, 말리는 등 아흔아홉 번의 손질을 거친 후 마지막 사람이 백 번째로 한 번 더 만진다 해서 '백지(百紙)'로 불린 것이 한지다. 그만큼 한지를 생산하는 과정은 여간 까다롭지 않다. 류씨는 이 모든 과정을 전통 방식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장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 *50여년간 전통 한지 제작에 전념*
> *'외발뜨기'는 그만이 가진 노하우*
> *돈보다 맥 잇는다는 자부심이 우선*
> *우수성 알리고 보급에 앞장 설 것*

"여러 과정을 거치는 한지는 만들 때 잠깐 이라도 욕심 부리며 잔꾀를 부리면 여지 없이 원하는 종이가 안 나와요. 수행자가 끝을 생각하지 않고 부처님 전에 한배씩 정성을 다해 절을 올리듯이 종이 만들 때도 과정마다에 온 힘을 다 쏟아야 합니다. 그렇게 삼매에 들다보면 내 자신이 없어지고 종이와 내가 일체됨을 느낍니다."

양지(洋紙)에 밀려 한지 수요가 줄어든 데다, 가격이 비싸 돈을 번다는 것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에서 류씨가 전통 한지를 고집스럽게 지키고 있는 이유는 뭘까? 그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개량한지는 질이 낮아 보존기간이 짧고 종이의 격도 떨어져 전통 한지를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닥나무가 인고의 순간을 거쳐 하얗고 윤기 흐르는 한지로 태어나는 과정이 마치 그가 전통한지기술 보존을 위해 바쳐온 자신의 인생과 닮아서일까.

한지를 한 번 만드는 데는 강도 높은 노동과 지루한 기다림이 20여일(한지 100근 기준) 지속되지만 류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류씨의 한지제작 과정에서 그만의 전매특허 노하우는 바로 외발뜨기에 있다. 이것을 할 때는 고도의 집중이 요구된다. 하나의 끈에 묶여있는 틀 위에 발을 얹고, 두 손으로 틀을 움직여 앞물을 떠서 뒤로 버리고 옆물을 떠서 반대되는 쪽으로 움직이면서 두께를 조절하는데, 이때만큼은 모든 시름과 번뇌를 잊고 비로소 종이삼매에 들게 된다.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류씨지만 기술보다 그가 더 중시하는 것은 바로 정성이다.

"전통한지는 정성이야. 정성 없이는 좋은 종이를 얻을 수가 없어요. 종이를 쓸 사람을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물질 한번이라도 더해줘야 좋은 종이가 나오지. 대충대충 쉽게 하려다보면 종이의 질이 떨어져."

류씨가 한지 장인의 길로 들어선 것은 그의 나이 19세 때, 개울가에 천막만 치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에서 돈을 벌기 위해 시작했다. 제일먼저 그는 '화선지 잘 뜨는 이'로 통했던 전북 완주의 김갑종 선생(2001년 작고)을 찾아갔다. 점잖고 자상한 스승은 류씨에게 전통 한지제법을 꼼꼼히 사사했다. 하지만 전통 한지 장인으로서의 삶이 녹록치만은 않았다. 이윤이 너무 적어 한때 한지 일을 접고 이화여대 약초원에서 관리인 노릇을 해보기도 했다.

그때마다 "내가 할 일은 전통 한지의 맥을 잇는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경기 마석에 있는 낡은 제지공장을 인수해서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곳에서는 일본으로 한지 수출 길이 열리는 등 일이 잘 풀려갔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문세광의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으로 한일관계가 급랭, 수출길이 막히고 공장이 부도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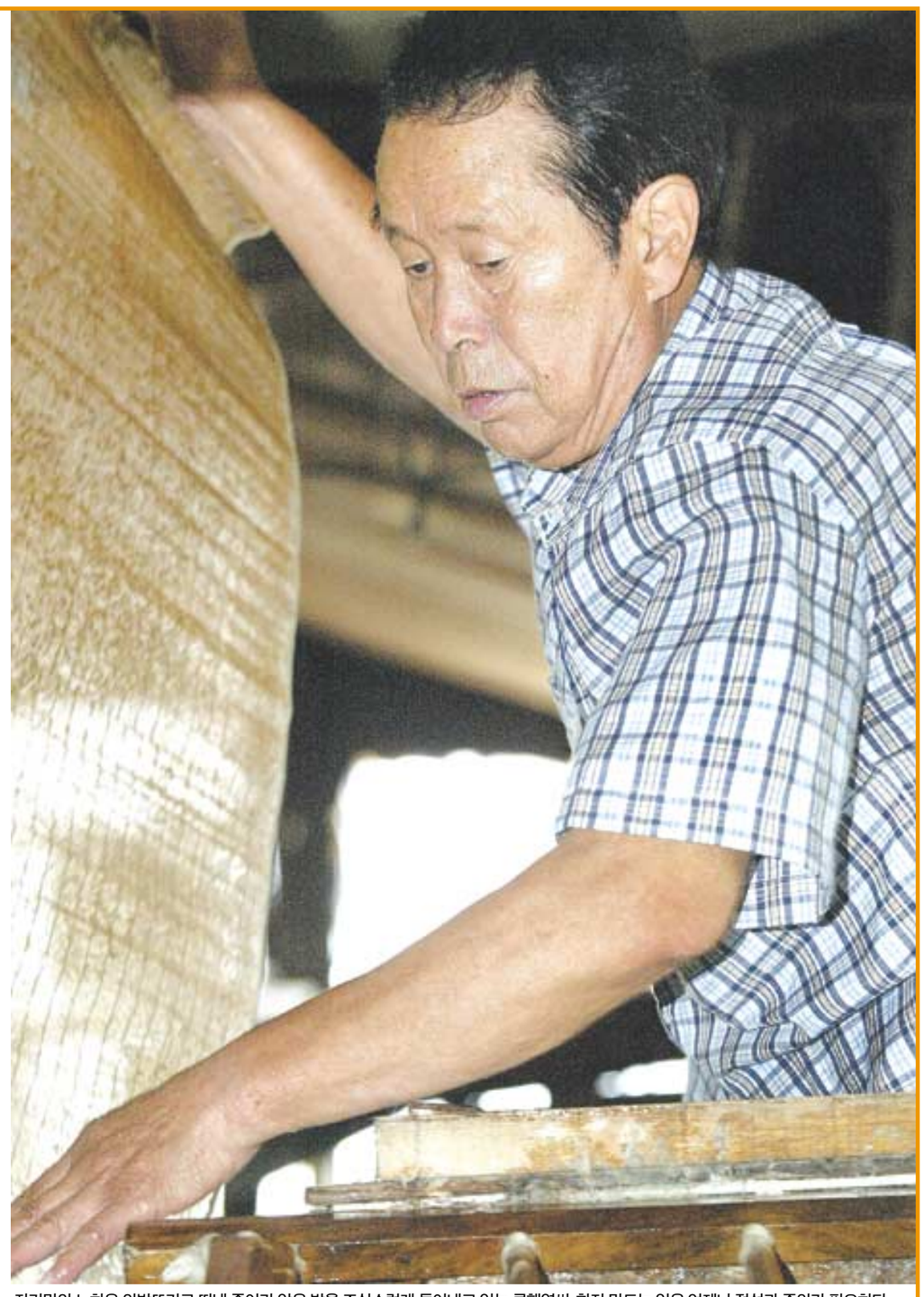
어려움에 처한 류씨가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는 경기도 용인의 태봉암 주지 스님이다. 스님은 속가에서 인연이 있었던 류씨에게 태봉암 앞의 토지를 내주고, 잿물을 만들 수 있는 식물과 닥나무 재배를 도왔다.

독실한 불자인 아내 이경자씨(51) 또한 닥나무 껍질을 벗기는 작업 등을 도우면서 남편의 재기에 힘을 실었다. 이씨는 "먹고살기 힘들었지만 남편이 전통을 지키겠다고 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었다"며 "아마도 부처님 가르침대로 마음 비우고 욕심 없이 살려 노력했기 때문에 오히려 남편을 도와가며 살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회고했다.

그가 돈을 벌고픈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전통 한지의 가치를 알림으로써 시장을 확대해볼 요량으로 류씨는 직접 박물관과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영업에 나서보기도 했다.

하지만 구매를 결정하는 대가로 뇌물을 원하거나 일정액을 학교에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세태를 접하고는 영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자존심은 전통한지를 이용하려는 이들과의 타협을 허락지 않았던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생활을 영위해야 했던 그였지만, 그에게는 돈보다 전통을 이어간다는 자부심이 먼저였다. 그런 정신이 있었기에 우직하게 평생 돈벌이 안 되는 일을 하며 힘든 길을 걸어온 것인지도 모른다.

한지장 분야 최고 기능보유자로 인정받은 류씨는 이제 전통한지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는 일에 나설 생각이다. 가짜 전통한지가 판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다.



자기만의 노하우 외발뜨기로 떠낸 종이가 앉은 발을 조심스럽게 들어내고 있는 류행영씨. 한지 만드는 일은 언제나 정성과 주의가 필요하다.

"황촉규로 만든 닥풀을 사용해서 한지를 만든다고, 저마다 전통한지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대로 된 한지를 만들려면 잿물부터 바로 만들어 써야 해요. 예부터 잿물은 목화대 · 메밀대 · 볏짚 등으로 만들었거든. 그런데 그게 요즘은 간단치 않은 일이다보니 양잿물을 사용해도 별 문제를 안 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양잿물을 사용하면 섬유조직이 약해지고, 한지에 독성을 남겨 참다운 전통한지를 만들지 못해요."

더디고 힘든 길이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디뎌온 그 마음이라면 신라인의 한지를 뛰어넘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 본다.

글=박익순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잠깐이라도 욕심 부리면 원하는 종이가 안 나와요 과정마다 온힘 쏟아야 종이와 일체 됨을 느끼죠"



종교 화합의 밤

천주교
1. 옥천성당 합창단·청년 합창단
2. 이노주사(찬양시도)
3. 김영수 신부 그룹사운드
4. 테헐라 색소폰 중창단

불 교
1. 보현 스님 (부처님마을주지 · 유명가수)
2. 지효 스님 법고 시연
3. 가수 최은혜 노래교실(대전 유명노래강사)
4. 법민 스님 승무시연
5. 도탈심인당 심인합창단
6. 도신 스님(서천사 주지)

광고 협찬 금강잉어탕·호떡 : 011-9423-6925, 731-6925
금만호, 염정애, 금 걸, 박현숙 가족 소원 성취

선남선녀와 함께~ 천주교 옥천성당 가족과 함께~

제3회 대성사 산사 음악회

- 일시 : 2005년 9월30일 (금) 저녁 7시
- 장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297-4
- 전화 : 대 성 사 732-5560 (혜철 스님)
  옥천성당 731-9981 (요셉 신부님)
-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대전·충북지사
- 후원 : 옥천군, 옥천경찰서, 옥천교육청, 옥천문화원, 옥천농협
  옥천영동축협, 청주불교방송국, 현대불교신문사
  충북불교총연합회, 옥천불교사암연합회



티벳 불교 전통의식 '푸자'(영가천도의식)
인도 및 네팔스님 8명 집전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한가지 소원 성취 기도 해드립니다

나의 수행법

사띠 체험기 - 손일권 (下)



수행 지도자들에게 수행법을 소개 받고도 첫 발을 내딛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었다. 나 역시 소개받고도 일상의 중력에서 벗어나 수행하러 가는 것 자체가 아주 어려웠다.

평생 수행만 하면서 살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일상에서는 그게 가능할 리가 없다. 그러니 결국 수행은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통을 다루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술을 최대한 익히도록 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근본불교 수행도량인 '반냐라마'에서 지도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이런 기술을 지겹도록 철저하게 가르쳐 주었다.

먼저 마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 후에 '불교수행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왜 그 방법이 효과적인지'를 일러주었다. 그리고 기준점을 두고 '알아차림(자각)'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뒤따랐다.

매순간 자각하라는 지도에 따르니 시간이 흐를수록 알아차림 지속

앉아서 배를 자각하며 걸으면서 발을 자각하고 그 외 모든 순간에서 행위의 끝 지점에 이름을 붙이며 자각(알아차림)을 지속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밥을 먹을 때, 걸어 다닐 때, 일상의 매순간에서 철저하게 자각이 이루어지도록 수행을 지도하는 분들이 푸른 눈을 뜨고 나의 수행을 지켜보고 서 있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약간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순간순간 알아차림이 지속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

사실 사띠 수행을 만나기 전에 다른 수행법들을 꽤 많이 둘러보았었다. 하지만 사띠 수행만큼 구체적인 기술과 그 원리, 기술이 작용하는 전 과정, 그 효과를 스스로 경험하게 해준 것은 없었다. 이 수행법을 익히면 고통을 다룰 수 있다는 확신이 섰다.

사띠 수행은 부처님이 부른 이름이다. 후대 사람들은 위빠사나라는 이름을 많이 쓰게 됐지만, 요즘은 다시 부처님이 부르신 대로 사띠(Sati, 念) 수행이라 부르고 있다.

이 수행은 구체적이며 단순한 것이 특징이다. 배와 발을 보고 있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면 고통이 하나 둘 깨져 나가면서 그 고통이 비롯된 원인과 마음 안에서의 작용, 그리고 소멸까지의 전 과정을 알 수 있게 된다.

머리는 거짓에 익숙할지 몰라도 우리 몸은 거짓이 없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기억의 무게, 정서, 스트레스 등이 깨져 나갈 때는 만만치 않게 고통스럽다. 그러니 아프지 않기를 바라면 수행이 될 리가 없다. 좋은 스승과 도반은 그런 과정이 훨씬 수월하게 지나가도록 큰 힘이 되어준다. "현상과 어울려 놀지 말고 기준점을 정확하게 보라!"는 수행지도자의 한 마디는 참으로 귀하다.

수행을 통해 지혜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행을 통해 얻어진 지혜를 다른 존재와 나누는 삶은 더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내 삶이 조금 향기로워진다면 누군가는 그 기술에 대해 물을 것이고, 그 기술이 구체적이고 과학적이라면 누군가는 스스로 해보려 할 것이다.

자기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세상의 변화에 대해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리더십의 핵심이자 원천은 바로 자기 변화(Self-Leadership)이다. 부처님이 남기신 수행법은 자기변화의 기술 중에 단연 으뜸이니,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리더십 원천기술을 확보한 것이다. (끝)

■ 반냐라마 부설 지혜연구소장


김태영


김태완


성상현


송찬우


장명화


우희종


이제열


이황우

선교쌍수(禪敎雙修) 실천… 강의를 수행으로

출가자 전유물이었던 수행 대중화 보편화에 큰 역할 치열한 자기체험 바탕으로 생생한 목소리 전달 호응

최근 들어 경전과 선어록 공부모임이 늘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진리의 실상(實相)을 찾아내고, 선사들이 깨닫기까지의 수행과정과 깨달은 순간의 상황을 기록한 선어록이 깨달음의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까닭에서다.

이 같은 움직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핵심적인 특징이 있다. 바로 재가법사들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깊은 수행체험을 바탕으로 한 경전과 선어록 강의는 물론, 수행지도와 수행모임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경전을 강의하는 재가법사는 김태영 문사수법회 상임법사, 성상현 대한불교보림회 지도법사, 이제열 유마선원장 등이며, 선어록 강독의 경우에는 송찬우 중앙승가대 교수, 장명화 우곡선원장, 우희종 서울대 교수, 이황우 부산 새말귀선원장, 김태완 부산 무심선원장 등이다(도표 참조).

이외에도 서울 우곡선원은 10명의 법사단을 구성해 매주 선어록을 강의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이각범 한국정보통신대 교수, 홍석교 아주대 교수, 송운석 단국대 교무처장 등의 법사단이 자체적으로 돌아가며 <육조단경> <돈오입도요문론> <달마혈맥론> <무심론> <위앙록> <마조록> <백장록> <임제록> 등을 강의하고 있다.

#구체적 지도로 수행중 오류 잡아줘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병무청에서 근무중, 40대 초반에 원인모를 병에 걸려 죽음 일보직전까지 갔다 살아난 성상현 법사는 단순히 경전 내용을 아는데 머물지 않고, 읽고 외운 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 가르침 그대로 행하는 '여설수행(如說修行)'을 실천하고 있다. 때문에 성 법사는 강의 도중에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수행과 결부시켜 자세히 설명한다.

경전·선어록 강의하며 공부모임 이끄는 재가 법사들

"초심자가 경전과 선어록을 보는 안목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선지식에게 법문을 청해 들어야 해요. 또 스스로 읽고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독경삼매에 들어 뜻이 저절로 명확해지고 환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선지식에게 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전에 통달한 스승을 만나야 해요. 경을 완전히 이해해 뜻을 열어 보이고(開示), 깨달음에 들어간(悟入) 스승에게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보림회 법당에서 경전과 선어록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상현 대한불교보림회 지도법사와 수강생간의 대화내용이다.

재가법사 주요 강의처

재가법사	경전 및 선어록	일시	장소및 연락처
김태영 문사수법회 상임법사	법화경	매주 화 오전10시30분~12시, 오후 8시~9시30분	고양법당 (031)966-3581
김태완 무심선원장	선문염송	매주 월 오전11시~12시	선원 강의실 (051)515-7226
	전심법요	매주 월 오후7시30분~8시30분	
	반야심경	매주 수 오전11시~12시	
	육조단경	매주 수 오후7시30분~8시30분	
	원오심요 및 서장	매주 토 오후2시30분~5시30분	
성상현 대한불교보림회 지도법사	법화경	매주 금 오후2시~3시20분	보림회 강의실 (02)739-1044
	육조단경	매주 수 오후2시~3시20분	
송찬우 중앙승가대 교수	벽암록	매주 토 오후4시~5시30분	서울 종로 건국1호빌딩 407호 (02)732-3038
장명화 우곡선원장	육조단경	매주 월 오후8시~10시	서울 법당 (02)2055-3111
	육조단경	매주 금 오후8시~10시	부산 법당 (051)740-6288~9
우희종 서울대 불이회	육조단경	매달 둘째주 일 오후4시	서울 정혜사 (02)889-6847
이제열 유마선원장	유마경	매주 금 오전11~12시	서울 성북구 유마선원 서울공부방 (02)927-8227
	금강경	매주 토 오후7시~8시	
이황우 부산 새말귀선원장	금강경 유마경 선문염송	매주 금 오후8시~9시 매주 토 오후11시~12시	선원 법당 (051)759-1097

한국 현대거사불교의 양대 산맥인 백봉 김기추 거사의 제자인 이황우 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순한 교학 차원이 아니라 직접 '선교쌍수(禪敎雙修)'를 실천하고 있다. 매주 <금강경>과 <선문염송>을 설하면서 수행자에게 수행의 올바른 이해를 이끌어내고, 1년에 두 차례 4박5일간 철야용맹정진을 하고 있다.

23년 넘게 부산 새말귀선원에서 재가자들의 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이 거사는 "전 생애를 통틀어 수행보다 중한 일이 없다"며 철저히 1:1로 선원 신도들의 공부를 점검하고 있다. 초심자들에게는 화두참구의 참맛을 알게 하고, 구참자들에게는 수행 중에 빠지기 쉬운 오류를 바로 잡아 나가도록 돕고 있다.

경전을 방편 삼아 법을 설하는 부산 무심선원을 이끄는 김태완 원장도 대표적인 재가법사다. 김 원장은 발심(發心), 참문(參問), 참구(參究), 감변(勘辨)과 인가(印可)로 이어지는 조사선의 공부과정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 선을 공부해 마음을 깨닫겠다는 발심을 끌어내고, 발심자들이 묻는 법에 대한 답으로 깨달음의 인연을 성숙시키거나 의문을 증폭시켜 스스로 참구하게 한다. 그리고 그 참구의 결과에 대해 또 다시 질의응답으로 학인의 공부정도를 판단하고 점검함으로써 깨달음에 이르도록 길잡이가 돼주고 있다.

이외 재가법사로는 1988년 문사수법회를 창립해 초심자들에게 불교이해의 안목을 틔우고 본격적인 수행의 기틀을 잡아 주고 있는 김태영 상임법사, <원각경> <금강경>을 재가불자의 눈높이에 맞춰 법문하고 있는 이제열 유마선원장, 실상관법(實相觀法)을 통해 재가불자의 선 수행을 지도하는 장명화 우곡선원장, <육조단경>을 청·장년층과 강독하는 우희종 서울대 교수 등이 있다.

#재가법사들의 '경전과 선어록' 강의가 주는 메시지는?

그럼 재가법사들의 경전과 선어록 강의는 한국불교계에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 우선 이들의 강의는 단순한 '글귀의 뜻풀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치열한 자기 수행에서 묻어나는 강의를 한다는 것이다. 즉 강의 자체가 수행인 셈이다.

지난 2004년 6월부터 재가법사로는 <벽암록>을 처음으로 강의하는 송찬우 중앙승가대 교수는 "재가법사들의 왕성한 활동은 불교가 산중에서 대중으로 전환케 한 핵심 원인이 된다"며 "재가불자는 물론 일반인들이 재가법사의 강의를 통해 전문적인 경전과 선어록을 일상에서 좀더 가까이 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한다.

특히 송 교수는 재가법사들의 경전과 선어록 강의가 선원에서 거의 사라진 조사들의 어록 제창 전통을 복원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즉 송 교수의 이 같은 인식은 현재 적지 않은 스님들이 경전과 어록을 통한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선원 현실에 시사하는 메시지가 남다르다.

그럼 재가불자들은 이들 재가법사의 경전과 선어록 강의 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제열 유마선원장은 "그간 출가자 전유물로만 여겨던 수행이 사회적으로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재가법사들의 역할이 커졌다는 의미다.

이 원장은 "일반인들과 현실생활을 함께 하는 재가법사들의 경전과 선어록 강의는 '진리의 현장감' 차원에서 재가자들에게 구체적인 설득력으로 그 가르침이 다가온다"며 "다만 경전과 선어록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 문자선(文字禪), 해오선(解悟禪)의 병폐에 빠지지 않고, 선사의 경지를 자신의 경지로 속여 깨달았다는 '스승의 상(相)'을 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철우 기자

불교방송과 현대불교신문이 자세히 소개한
영산범음집
한글해설판 사물장단악보
천도재(49재)나 각종 시식에
영산범음집(靈山梵音集) 한 권이면
여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산범음집 특징
●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가 끝나도록 구성됨. 운운(云云)은 없음
● 전문(全文)에 걸쳐 한글해설을 실어 내용을 알고 집전할 수 있도록 함
● 장경연구소의 서체지원으로 고문자(古文字) 이체자(異體字) 100% 완벽조판
● 바라춤과 요잡 등, 각종 진언의 사물장단(쇄. 태징, 북 등)악보를 실어 이해를 도움
● A4크기. 얇고도 질긴 최고급 재질, 이중배접 고서제본방식. 320쪽 (본문, 해설편, 장단편)
정가 50,000원 (구입시 상용천도집 증정)
천도재 비디오 3개 (대령, 관욕, 시식, 배송) 완벽한 방송용 자막 커리. 할인가 6만원
농 협 121047-52-069528
우체국 600841-02-046873 (예금주 이판암)
(080)208-8000. 8008
범패연구소 http://www.pompae.com

소원성취 기도도량
봉화 약수암
봉화에 위치한 약수암은 부처님의 가피와, 산신각의 산신 할아버지의 영험함, 그리고 경내 석간수로 흐르는 약수의 치유력으로 고통받아 오던 신도들이 건강을 되찾고, 소원하던 바를 이루어 가며 점차 기도도량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난치병으로 죽음만을 기다리던 김순분 보살님, 극심한 고통을 동반한 지병으로 삶을 포기했던 박정희 보살님.... 약수암 부처님께 의지해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한 결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도님들 또한 약수암의 기도로 원하는 바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약수암
삶의 끝에 서 있다고 절망하는 신도님들께 마음과 질병의 치유를 함께할 수 있는 약수암을 알려드립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돈보다 지극한 정성의 마음이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2리 약수암
(분천역 바로 뒤 / 영주에서 봉화를 거쳐 현동, 울진방향)
054)672-7932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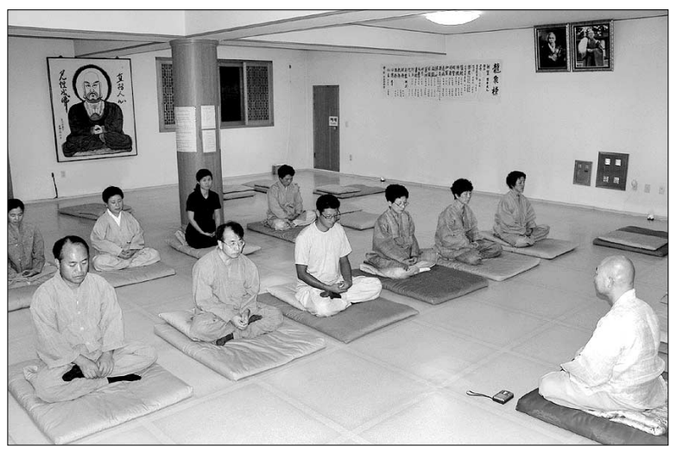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당뇨병 희소식!!
당뇨로 고생하시는분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본 사찰에서 극비리 전해 내려오는 비법과 본인이 기도로 얻은 비방으로 당뇨를 해결해 드립니다.
1. 당뇨수치 높은 분
2. 합병증으로 고생 하시는 분
3. 발병한지 오래되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되시는 분.
4. 당뇨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대한불교 해 월 정 사
경남 마산시 성호동 73-4번지
전 화 : 055)241-0374
휴대폰 : 011-833-0374
※ 남여 행자 모집합니다.

철저한 실참·점검…수행 열기 '활활'

도심 수행도량을 찾아서 ⑭ - 공주 학림사 오등시민선원



공주 학림사 오등시민선원 불자들이 조실 대원 스님의 소참법문을 듣고 있다.

"개구즉착(開口卽錯)이라! 입을 열면 그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럼 가만히 입을 닫고 앉아 있어야 옳은가?"

"…."

오등시민선원 조실 대원 스님이 묻자, 대중들의 답이 없다.

"입을 열어야 옳은가, 입 닫고 있어야 옳은가? 그럼 어떻게 하면 옳은가? 혀뿌리는 밖으로 나온 일이 없습니다. 이 말만 바로 알아들으면, 이 사람은 공부에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입니다."

#물어라, 답해 주리라

9월 9일 오후 8시 공주 학림사 오등시민선원. 20여 재가선객들의 50분 좌선이 끝나자, 곧장 조실 대원 스님의 화두참구 점검이 이어진다.

오등시민선원 운영위원장 김일수(48 · 대전 삼천동) 거사가 첫 질문을 던진다.

"정(情)을 버리라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은 중생심입니다. 정이란 자체는 좋을 때는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고(苦)를 낳죠. 정을 여의고 공부해야 순수한 자비심이 나와요. 자비심이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행복하게 해주지요. 그래서 정을 버리고 자비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엔 새벽부터 기차타고 올라온 이달연(68 · 대구 만천동) 보살이 묻는다.

"공부하면서 경계를 뒤집고 또 뒤집어야 안목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무슨 의미인가요?"

"'뒤집는다는 것은 자기 견해를 달라지게 한다는 의미예요. 시야를 넓혔다 좁혔다 하는 것과 같지요. 경계를 자주 뒤집어야 세계를 보는 차원이 달라져요. 그러려면 화두만 들고 앞만 보고 가세요."

조실스님과 재가선객의 문답은 밤 10시까지 계속 된다. 적당히 두리 뭉실 넘어갈 법도 하지만, 대원 스님은 재가자들의 마음공부 상태를 철저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다. 경책도 마찬가지다. 참선정진 중에는 대중 전체가 불 뿜는 장군죽비를 피해갈 수 없다. 졸든 졸지 않든 수행자의 어깨를 어김없이 두들긴다. 조는 사람은 수마(睡魔)에서 벗어나게 하고, 졸지 않는 사람은 망상 떨지 말고 화두를 들게 하기 위해서다.

 # '마음의 소화능력' 큰 재가선객들

그럼 오등시민선원에서 수행해온 재가선객들은 어떤 자기변화를 경험했을까?

20년 넘게 간화선 수행을 해온 신한수(50 · 대전 월평동) 거사는 "선 수행은 마음의 안정과 자신감을 얻게 한 것이 가장 큰 소득이었다"며 "무엇보다도 '주인이 던진 돌을 무는 개가 될 것인가, 돌을 던진 주인을 무는 사자가 될 것인가?'란 말을 통해 가정과 직장 등에서 부딪치는 인간관계를 효율적으로 극복하는 법을 터득하게 됐다"고 말한다.

3년 동안 매일 새벽 3시에 오등시민선원으로 첫 출근(?)을 하는 박현숙(41 · 대전 어운동) 보살도 마찬가지다.

"선 수행은 내 마음을 스스로 돌이켜 볼 수 있게 했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바로 내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떠드는 학생들에게 '조용하라' 고만 소리쳤지, 정작 제 마음이 한없이 시끄러웠던 것을 몰랐던 거죠."

'한 생각 잘 내고, 잘 써야 한다'는 것을 정진으로 깨닫고 있는 재가선객들은 "잘못 낸 한 생각이 질투 시기 등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늘 생활 속에서 이를 경계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출 · 재가 함께 경책 · 정진

학림사에는 '상선(上禪)'과 '하선(下禪)'이 있다. 상선은 출가자의 수행처이고, 하선은 재가자들의 정진처다. 한 도량 안에서 출 · 재가가 함께 정진하고 있는 것이다. 출가자는 100일간 잠을 자지 않고 정진하며, 재가자는 1개월에 한번 1주일 철야참선정진을 한다. 출 · 재가가 서로 경책이 되면서 수행열기를 북돋우며 정진한다.

2001년 개원한 오등시민선원의 수행열기는 여기서만 그치지 않는다. '철저히 간화선 화두를 가지고 공부해 자신의 무명심을 타파하고 본래면목을 되찾게 한다'는 대원 스님의 발원이 오롯이 선원 가풍에 담겨져 있기에 그렇다.

때문에 대원 스님의 공부점검은 수시로 빈틈없이 이뤄진다. 먼저 화두가 없는 사람은 3천배를 회향한 다음에 화두를 받게 하고, 화두가 있는 사람은 108배를 하게 한 다음 점검을 해준다. 공부가 무르익은 사람은 평소에 의심나면 바로 점검해 준다. 보름 단위로는 전체 대중의 공부를 일괄적으로 점검하기도 한다. 방식은 1:1. 시민선원 50여명, 출가자 10여 명이 대원 스님에게 점검을 집중적으로 받는다.

특히 출가자, 결제 입방 대중, 출퇴근 시민 대중이 함께 공부하는 자유로운 공부 분위기는 오등시민선원만의 특징이다. 또 매주 토요일 오후 8시에 열리는 대원 스님의 <금강경오가해>는 재가선객들에게 공부하는 법을 일러주고 있다. (042)825-6505 www.odzen.or.kr

글 · 사진/공주=김철우 기자

직분에 맞게 최선 다하면 '속세 부처'

■재가자 위한 대원 스님의 조언

"단 1초라도 단도직입적으로 밀어 부치세요. 그럼 화두가 타파됩니다. 아무리 둔한 사람도 10년 안에는 깨닫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화두예요. 여기에 답변도 만들지 말고 얼른 깨달아야겠다고 하지 마세요. 책과 글로써 선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요."

학림사 조실 대원 스님(사진)은 '화두일념이 현실생활 속에서도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렇게 되면, 반대 방향에 서있는 모든 것이 없어지고 본래 면목자리에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스님은 이를 위해 재가자들이 가정과 직장생활 등에 충실하되 남아도는 공백시간을 100% 활용할 것을 주문한다. 재가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근본적인 마음 하나를 잘 단속하는데 공백시간만큼 소중한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직분에 맞게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바로 속세에서의 부처입니다. 모든 경계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소화능력'이 커졌기 때문이지요. 화두는 모든 번뇌 망상을 녹이는 용광로입니다. 잡념이 이 화두 속에 녹아들죠."

특히 스님은 출 · 재가자들이 '본래 마음이 청정해 무엇을 닦을 것인가, 그것은 망상'이라 단언하는 자만심을 경계하라고 당부한다. '닦을 것이 없다'는 말에 집착해서 오히려 수행에 방만해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스님은 해오선(解悟禪:알음알이로 이해하는 선)이나 앵무새 선에 빠지는 선수행을 경계한다.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35> 선사들의 안타까운 최후

독살 당한 달마, 도적에 희생된 암두 선사
사회적 교단적 정치적 이유로 생사 좌우

사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전신(全身)사리가 사리중의 백미이다. 왜냐하면 온몸 그 자체가 사리이기 때문이다. 온몸 그 자체가 사리라는 말은 선사가 살아온 과정 그 자체가 모두 사리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운문 선사는 '날마다 좋은 날'을 부르짖었던 것이다. 혹 이상적인 열반모습에만 고집한다면 이는 그 선사의 진면목을 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지도 모른다.

달마 대사는 독살 당했다고 한다. 그것도 율종 승려인 광통 율사에 의해서. 율사가 어찌 살생을 할 수 있느냐고 정말 펄쩍 뛸 일이지만 그래도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 사실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이는 당시 기득권 종파인 율종과 신흥종파 선종간의 알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달마가 마지막 관 속에 짚신사리 한 짝을 남겨두고서 표표히 자기의 본고향인 서역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다. 뒷날 육조혜능 선사가 등장하여 당신을 다시금 살려놓았다.

서천 24조인 사자 존자는 정치권과의 갈등으로 희생된다. 모양은 법담의 형식이지만 내용은 취조 그자체이다.

계빈국의 왕이 칼을 빼들고 물었다

"스님께서는 오온개공(五蘊皆空)의 경지를 증득하였습니까?"

당연히 증득했다고 대답해야 한다.

그러나 그건 수행의 수준정도를 묻기 위한 물음은 물론 아니다.

"오온개공을 알았으면 생사를 여의었습니까?"

"여의었습니다."

옳거니. 이제 제대로 걸려들었다. 바야흐로 본색을 드러낸다.

"스님의 머리를 베고자 하는데 주시겠습니까?"

어차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 다른 말은 해봐야 소용없다.

"몸도 내 것이 아니거늘 머리를 아끼겠습니까?"

이 때 왕이 목을 치니 흰 젖이 한 길이나 뿜어 올랐다. 이런 왕에게 과보가 없을 리 없다. 그 자리에서 왕의 두 팔이 저절로 땅으로 떨어졌다.

암두전활(828~887) 선사는 사회적 불안이 원인이 되어 열반한 경우라 하겠다.

임종하던 그 해에 중원 땅에 도적이 크게 일어났다. 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도망갔다. 오직 선사만이 남아서 홀로 절을 지켰다. 그러던 어느 날 도적들이 절에 몰려왔다. 뭔가 가져가야 하는데 집채 외에는 아무 것도 가져갈게 없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선사를 칼로 찔렀다.

태연한 얼굴로 앉아서 칼을 받았다. 동시에 큰 소리로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는 그 자리에서 열반했다. 그 때 그 소리가 수십리 밖까지 들렸다고 한다. 오백년에 한 사람 날까말까 하는 고승도 이렇게 도적의 화를 입어야 하는게 중생계의 현실이다.

사회적 교단적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수행자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없다. 그럼에도 선사들은 늘 그 속에서도 항상 몸과 마음이 현실경계에 걸리지 않으려는 삶을 추구해왔다. 조계종 총무원장 인곡법장(仁谷法長) 대종사 역시 비록 지병인 심장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지만 마지막 법구(法軀)를 흔쾌히 생명나눔으로 회향하시어 만세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남겨놓으신 '바랑'은 입적하신 그 자리에서 전신사리가 되어 후학들에게 법을 설하고 있다. 먼훗날 누군가 다시 이 걸망을 지고서 천하를 만행하리라.

나에게 바랑이 하나 있는데(我有一鉢囊)
주둥이도 없고 또한 밑바닥도 없다(無口亦無底).
담아도 담아도 넘치지 않고(受受而不濫)
주어도 주어도 비워지지 않는구나(出出而不空). (법장 스님이 입적 전에 남긴 글귀)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개 천지조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지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삼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 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히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집안이 잘 안풀리는 분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 02) 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道를 수행 (佛,知,行)함으로써 혁명적인힘 (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 (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 (초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 (난치병 치유)
● 자기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혜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 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 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요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62)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7강 기원정사에 대하여

나아가라 장자여, 물러서지 마라

<금강경>이 설해진 장소는 기수급고독원(祇樹給孤獨園)이다. 붓다가 오래 머물며 법을 펴던 기원정사(祇園精舍)는 그 정원에 세워졌다. 그것을 세우기까지의 과정이 예사롭지 않은데, 오늘은 그 인연설화를 소개하기로 한다.

숲을 금화로 덮으려던 수닷타 장자

경전에는 기수급고독원(祇樹給孤獨園)이라고 되어있다. "제타(Jeta 祇陀) 왕자의 숲(樹), 고독한 자들(孤獨)을 구원하는(給) 독지가의 정원(園)"이라는 뜻이다. 이를 줄여서 기원(祇園)이라고 했고, 여기 수도처를 세웠기에 기원정사(祇園精舍)라 불린다. <율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다.

아나타핀디카라는 사람이 있었다. '고독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독지가'라는 뜻에서 한어로는 급고독장자(給孤獨長者)로 번역된다. 그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자선을 베풀고 도움을 주는 유덕한 사람이었다.(*여기 孤獨은 청년의 아련한 감상이나 실존적 고민이 아니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질병으로 고생하면서도 주변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즉 현대어로 사회적 약자들을 가리킨다.)

그 자선가, 사회사업자의 원래 이름은 수닷타(須達)였다. 어느날 사업차 은행가인 처남을 찾아 왕사성 라자가하를 방문했다. 그런데, 조용해야 할 집안이 그날따라 부산하기 이를 데 없었다. 무슨 결혼식이나, 보헌식, 혹은 왕의 군대가 방문하는 줄 알았는데, 처남의 말이 "내일 붓다께서 무리를 이끌고 오시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수닷타는 "지금 붓다라고 했습니까."라고 물었고, 처남은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수닷타는 세 번을 꼭 같이 물어보았고, 은행가 처남은 그대로 대답했다. "붓다는 이 세상에 오시기 힘든 분인데… 그 분을 좀 뵐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아니고, 내일 일찍 오신답니다."

수닷타는 붓다를 만날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문득 눈을 뜨고 보면 아직 한밤중이었다. 그러기를 세 번, "이제는 날이 샜겠지"하며 대문을 나섰다. 그러나, 그건 집안이 너무 환해서였다. 문밖은 아직도 캄캄했다. 두려워 발걸음을 머뭇거리자 야차 시바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코끼리와 말, 나귀 수레 백대도, 보석 귀고리로 장식한 수백명의 여인들도, 네가 내딛는 한 걸음의 16분의 1의 가치도 없다. 나아가라 장자여 나아가라 장자여. 내딛는 것이 좋다. 물러서지 마라."

그러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생겼으며, 수닷타의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졌다.

나는 늘 편안하다, 수닷타여

다음날 아침, 수닷타가 다가오자 붓다는 그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어서 오너라 수닷타여." 자기만이 아는 이름을 부르자 놀란 수닷타는 붓다에게 경배하고, 자신을 편안하게 대해 달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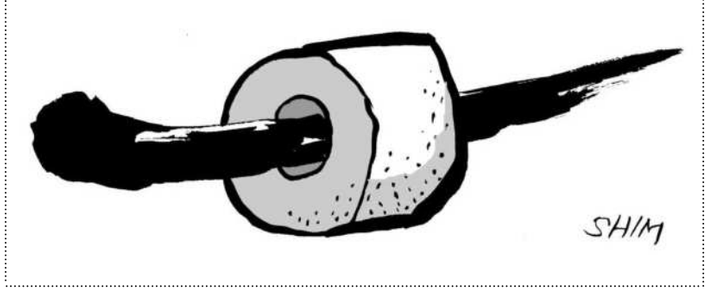
"나는 언제나 편안하다네. 갈망에 얼룩지지 않고, 물들게, 그리고 업(業)의 바탕이 없기에…나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수닷타를 위해 붓다는 많은 얘기를 해 주었다. "주고 받음에 대해, 도덕적 습관에 대해, 그리고 감각적 쾌락이 얼마나 공허하며, 또 무서운가에 대해, 그리고 그로부터 물러서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에 대해…." 붓다는 수닷타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가진 법(法)을 설해 주었다. 고집멸도(苦集滅道), 고통의 현실과 그 기원, 그리고 그 소멸과 거기 이르는 방법에 대해….

"무릇 계기에 의해 일어나는 것은 모두 멈추게 되어 있다!" 수닷타는 하얀 천에 물을 들이듯, 붓다의 말씀을 그대로 빨아들였다. 감동의 여운에 젖은 그가 말했다. "뒤집어진 것을 바로잡고, 숨겨진 것을 밝히시며, 길 잃은 자들을 위해 인도해 주시는 분, 어둠 속에서 빛을 밝혀 주시는 분이시여. 저희 집에 꼭 한번 들러주십시오. 초대하고 싶습니다." 붓다는 침묵으로써 응낙을 보였다.

수닷타는 라자가하(王舍城)에서 일을 마치고 스라스와티(舍衛城)으로 향했다. 도중에 그는 사람들을 향해 외쳤다. "붓다가 나셨으니 수도원을 짓고 사실 곳을 마련하며, 가구를 갖추어 드립시다."

수닷타는 집에 도착해서 생각했다. "마을에서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으면서 소음이 없이 조용한 곳이 좋겠다." 사방으로 부지를 물색하며 다니다가 발견한 자리가 제타 왕자의 소유인 '기쁨의 숲'이었다.



제타 왕자는 코살라의 지배자 파사익 왕 프라자파티의 태자였다. 그는 숲을 팔 일이 없었다. 수닷타가 와서 하도 조르자 그는, "금화 10만개를 준다 해도 아니 팔겠소!"라고 외쳤다. 안 팔겠다는 뜻에서 부른 가격이었는데, 수닷타는 당장 수레에 황금 동전을 싣고 와서 제타 왕자의 현관 앞부터 깔기 시작했다. 현관 한쪽을 덮기에도 까마득하자 수닷타는 사람들을 채근 독촉했다. "가서, 동전을 더 싣고 오게!"

그 광경을 제타 왕자가 보았다. "이건 예사일이 아닌데…. 어째서 저 많은 재산을 쏟아 붓고 있는 거지…." 사정을 듣고 난 제타 왕자는 깊이 감동했다. "황금을 내가 깔도록 해 주시오. 당신에게 이 땅을 주겠소." 이렇게 해서 기수급고독원, '제타 왕자의 숲이었다가, 고독한 자들의 후원자 수닷타 장자에게 양도된 그 정원'에, 붓다의 오랜 거주지이자 수련처인 기원정사가 만들어졌다.

육조 혜능의 부연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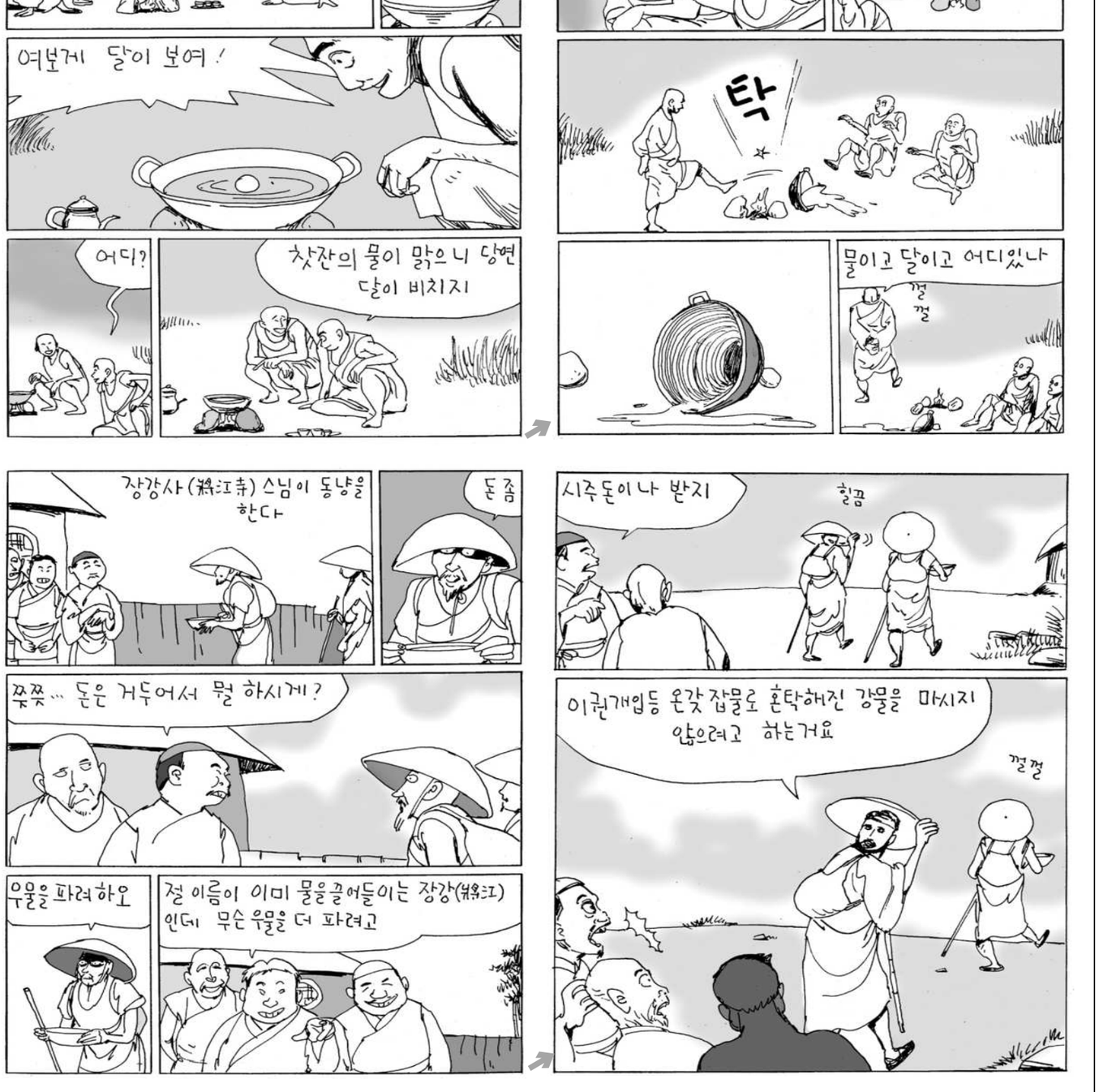
혜능도 이 인연설화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듯하다. 제 1장의 구결(口訣)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言一時者, 師資會遇齊集之時. 佛者是說法之主, 在者欲明處所. 舍衛國者波斯匿王所居之國. 祇者太子名也. 樹是祇陀太子所施, 故言祇樹. 給孤獨者須達長者之異名. 園本屬須達, 故言給孤獨園." 번역하면 이렇다. "(경문에) '일시(一時)'라고 한 것은 스승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던 때를 가리킨다. '불(佛)'은 설법의 주인을, 그리고 '재(在)'는 그 처소를 가리킨다. '사위국(舍衛國)'은 파사익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고, '기(祇)'는 그곳 태자의 이름이다. '수(樹)'는 기타(祇陀) 태자가 기부한 숲이라는 뜻에서 '기수(祇樹)'라고 했다. 급고독(給孤獨)은 수닷타(須達) 장자의 별칭이다. 수닷타 장자가 소유한 정원이기에 급고독원(給孤獨園)이라고 했다."

각설하고, 나는 <율장>의 이 이야기가 예사롭지 않게 다가왔다. 하나는 수닷타 장자의 영웅적 용기이고, 둘은 붓다의 유머 감각이다. 수닷타 장자는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둠 속에서 몇 번을 망설인다. 그는 두려움에 떨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세속의 영광과 부를 버리고, 삶의 의미를 일깨워줄 스승을 찾아 대면하는 일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다. 그는 주저한다. 한 걸음을 내디디면 다시는 이전의 익숙했던 삶으로 돌아올 것같지가 않은 것이다. 그때 야차 시바카가 조용히 속삭인다. 그것은 자기 내면에서 울려오는 불성의 소리에 다름 아니다. "코끼리와 말, 나귀 수레 백대도, 보석 귀고리로 장식한 수백명의 여인들도, 네가 내딛는 한 걸음의 16분의 1의 가치도 없다. 나아가라 장자여. 나아가라, 물러서지 마라!" 이 속삭임을 우리 모두 듣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은 무시하고 살거나, 업장이 두터워 아예 듣지 못한다. 그렇지 않은가.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장자따라… ⑧④ 흠산 스님의 '우물'

조태호



흠산 문수(欽山文邃, ?~?): 당(唐)대 스님. 복주 출신으로 동산양개(洞山良价)의 법을 이음. <벽암록> 제56칙 흠산일록(欽山一鏃) 공안이 있음.

네티즌 교리문답

걸망에는 무엇을 넣고 다니나요?

문 스님들이 가방처럼 등에 메고 다니는 것을 걸망이라고 들었습니다. 걸망이란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어디서 나온 말인지, 걸망에는 무엇을 넣고 다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방맨)

답1 : 일반적으로 운수납자들이 만행을 떠날 때 메는 '봇짐'을 걸망이고 합니다. 출가 수행자의 홀가분하게 벗어버리려는 무소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걸망을 걸머지고 간다'는 말도 합니다.

즉 '걸망'이란 스님들이 발우·목탁·경전이나 때로는 시주받은 공양물 등을 담아 등에 메고 다니는 일종의 배낭입니다. 걸망이라는 단어가 '걸'자로 시작했고 대개 스님들이 탁발할 때 쓰는 것을 본 사람들이 걸망을 걸식할 때 쓰는 망태기로 착각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는 철저한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걸망은 일종의 대형 주머니라고 보면 됩니다. 무명천에 먹물을 들여 걸망을 만들어 메고 이 절에서 저 절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구름처럼 다니는 스님들의 모습은 홀가분한 생활의 표본으로 여겨져 왔습니다.(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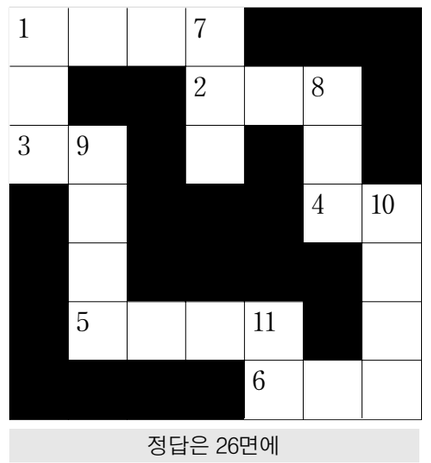
답2: 우리의 귀에 익은 말에 '괴나리봇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한 봇짐을 통틀어 '단봇짐'이라고도 합니다. 괴나리 봇짐이든 걸망이든 번거로운 이동장비를 피하고 언제나 훌쩍 떠날 수 있는 자세를 갖춘 상태를 유지할 때 쓰는 장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걸망 하나에 생계를 의탁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스님들의 행각을 불교 전문용어로 '만행'이라고 합니다. 만행은 탁발과 함께 스님들의 수행의 중요한 과정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국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일반인들이 겪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고 경험함으로써 참다운 스님이 되어보자는 의도로 만행을 합니다.(봇짐)

답3 : 일요일이 되면 도시 근교의 산에는 온통 서양식 걸망이 원색의 그림을 그리곤 합니다. 그러나 걸망을 메고 갈대가 하얗게 핀 산모퉁이를 지나가는 스님을 찾기가 힘듭니다. 한 번쯤은 걸망에 발우를 담아 메고 홀가분하게 먼 여행을 떠나는 여유와 한가로움을 비록 상상으로나마 즐겨 볼만도 합니다. 걸망을 메고 다니며 경험한 자료를 분석하여 오늘 이 시대의 중생이 진실로 겪고 있는 아픔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출가인)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한 스승 또는 한 학교에서 같이 학문을 닦고 배움 2. 닭고기와 잉어를 한데 넣어 끓인 국 3. 노를 이용하여 젓는 배를 부리는 사람을 일컬음 4. 싸리나무의 채로 넓적하게 올이 없이 결어 만든 채그릇 5. 솔밭에 나서식하는 버섯으로 향기가 좋고 맛이 있어 식용 버섯의 대표로 꼽힘 6. 지도상 지표면의 동일 해발고도점을 연결한 선.

세로 1. 조계종 제9교구 본사로 통일약사여래대불이 모셔져 있고 현재 계율수행대법회가 열리고 있음 7. 학습에 필요한 물품 8. 초나물에 녹두묵을 썰어 넣고 섞은 음식으로 묵청포라고도 함 9.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방송 사업을 경영하되 영리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삼지 않고 시청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방송 기관 10. 입사 광선이 반사하여 처음의 매질 속을 향해 진행하는 광선 11. 염전에서 바닷물을 거르기 위해 땅바닥을 다지고 가장자리를 넓고 길게 둘러막은 시루 같은 장치.

현대사 들춰내 전쟁 참혹상 고발



지압 장군을 찾아서
안정효 지음
들녘 펴냄 | 1만8천원



호찌밍(사진 왼쪽에서 세번째)과 보응웬 지압(맨왼쪽) 장군이 '디엔비엔푸' 전투중 작전회의를 하고 있다.



찌꽝 스님(사진 왼쪽)과 후에의 스님들이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다.



베트남 난민들이 한국군의 감시를 받으며 성분 분류를 기다리는 모습.



C-레이션 깡통을 받기위해 난민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수없는 패전 겪으며 끝내 전세 뒤집은 지압 장군 격전지 따라 짚어본 베트남史 '생생' 식민지, 독립전쟁, 분단, 남북전쟁으로 이어진 역사 통해 인간성 얼마나 피폐되는지 들려줘

새로운 전쟁문학이라는 호평을 받은 <하얀 전쟁> <은마는 오지 않는다>로 우리의 기억에 인상깊은 작품을 발표했던 안정효. 그가 이번에는 전쟁과 인간이라는 진지한 주제로 <지압 장군을 찾아서>를 내놓았다. 이 책은 작가 안정효가 2002년, 한국과 베트남 수교 10주년을 맞아, KBS-TV <일요스페셜> 제작진과 함께 베트남을 찾아가 호치민(사이공)에서부터 하노이까지 '통일열차'로 종단하는 시점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이 책 속에는 집필 당시인 2005년의 사건까지 언급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역사적인 사건들, 예를 들어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한국군 파병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시간 제약 때문에 억지로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는 지은이의 강한 의지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과연 지은이는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 단순히 베트남을 여행하면서 들려주고 싶은 추억의 회고담일까? 아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아직도 이 땅에 '구원'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무의미한 전쟁과, 그 속에서 인간성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를 들려주고 싶을 뿐이다. 그리고 지난 세기, 역사의 진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알려준다.

베트남의 얼룩진 현대사는 포연(砲煙)으로 가득하다. 200년 가까이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은 1945년 호찌밍(胡志明)이 선봉에 나서 독립전쟁을 시작한다. 이른바 '인도차이나전쟁'이다. 베트남은 프랑스에 이어 미국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끝마치는 1975년까지 30년동안 포연 속에서 120여만명의 전사자를 낳았다.

호찌밍은 46년 프랑스군에 선전포고를 한다. 이후 54년 베트밍(越盟, 베트밍은 호찌밍이 독립을 선언하며 조직한 북베트남의 정규군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베트콩'은 남부 베트남에서 활약하던 공산주의자들이다)군은 베트남 중부 디엔비엔 계곡에서 프랑스군 12개대대를 격파, 프랑스군을 남쪽으로 밀어냈다.

이 전투가 그 유명한 '디엔비엔푸 전투'다. 중국 공산화와 한국전쟁을 겪은 미국은 아시아를 모두 잃을 것이라는 위기감에 프랑스를 대신해 온갖 포화기로 무장한 채 55년 베트남에 상륙했다. 75년 미군이 철수할 때까지 20년 동안의 미국과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전쟁의 시작은 호찌밍이 시작했지만 프랑스와 미국을 상대로한 베트남의 30년 독립전쟁을 이끈 베트밍의 주역은 지압 장군, 곧 지금도 생존한 보응웬 지압이다. 그는 충실한 호찌밍주의자로서 수없이 많은 패전을 겪으면서 끝내 전세를 뒤집은 '백전불굴'의 장군이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베트남전의 영웅인 지압 장군의 격전지와 발자취를 따라가며 지은이가 카메라와 수첩에 담은 베트남의 과거와 현재가 이 책 속에 생생히 들어있다. 특히 베트남 과거의 모습은 지은이가 66년부터 3년 동안 베트남전 종군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이 책에는 남베트남 공산화 과정의 슬픈 역사가 있는 고도(古都) '후에'의 불교도 활동도 소개돼 있다. 후에는 1964년 부처님오신날에 불교의 '깃발'을 금지시킨 반면 사제 서품식에 교황청의 깃발을 게양토록 한 정부의 처사에 수천명 불교도가 집결해 항의 시위를 벌인 곳이다. 이곳에서 조직적인 반정부 투쟁을 벌인 불교 지도자가 찌꽝 스님이었다. 스님을 선봉으로 후에의 모든 승려들이 길거리로 나와 연일 연좌 시위를 벌였다. 후에를 40년만에 다시 찾은 지은이는 이곳을 돌아보며 그때의 함성을 다시 듣는 듯하다는 감회에 젖는다. 이 책에서 보여주는 베트남전이 다른 책에서 소개된 베트남전과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지은이가 시종일관 베트남전을 통해 준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의 용병이 돼 받는 하루 1달러에 목숨 걸었던 우리 군인들의 모습과 그들이 베트남 민간인을 잔혹하게 죽여야만 했던 비극적인 사실도 여과없이 보여준다.

지은이는 책 곳곳에서 이라크전 얘기도 빼놓지 않는다. 미국의 오판과 그것으로 빚어진 이라크 전쟁의 참상을 얼핏 드러내보이는데 이 책을 통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이라크전의 슬픈 현실을 보여주려는 지은이의 의도가 엿보인다. 전쟁에 참가해 본 경험이 있는 지은이 인지라 어떤 명분이든 전쟁은 이 지구상에서 참혹한 현실만 남길뿐이라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 같다. 그 강렬한 전달들은 지은이가 3년동안 종군 취재하면서 찍어뒀던 빛바랜 사진들만 봐도 금방 느껴진다. 또한 지은이의 사진뿐 아니라 곳곳에 목숨걸고 전장을 누볐던 세계적인 종군기자들의 현장감 있고 때론 섬뜩하리만큼 생생하게 느껴지는 사진들은 이 책이 주는 보너스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식탁 위의 쾌락
(부엌과 식탁을 둘러싼 맛있는 역사)
하이드룬 메르클레 지음 | 신혜원 옮김
열대림 펴냄 | 1만8천원

로마시대 부잣집에는 식당이 몇 개나 있었을까? 중세에는 왜 그리도 양념에 집착했을까? 르네상스인들은 왜 포도주를 그토록 즐기차게 마셔댔을까? 바비큐 파티에서는 왜 항상 남자가 고기를 구울까? 부엌과 식탁을 둘러싼 재미있는 이야기가 다양한 에피소드와 함께 흥미롭게 펼쳐지는 이 책은 2,500년이 넘는 역사와 더불어 변천을 거듭해 온 음식 문화 탐방기이다. 손님 뒤로 신이 숨어 있다고 생각해 정성껏 대접하고, 노래와 춤으로 식사의 즐거움을 즐기던 고대 그리스인들. 예술의 경지에 다다른 그리스 향연의 음주 문화. 포도주로 손을 씻고 누워서 식사 하던 로마시대의 퇴폐적인 음식 문화.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이 철저히 구분되고 양념이 신분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중세시대. 손가락으로 먹던 관습에서 탈피해 드디어 포크가 등장하고 음식에서도 고급화가 시작된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 메뉴와 식탁 예절에서 현대화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19세기 시민사회의 음식 문화에 이르기까지 식탁의 일상적이고 다양한 모습을 관찰하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2500년 음식문화사 맛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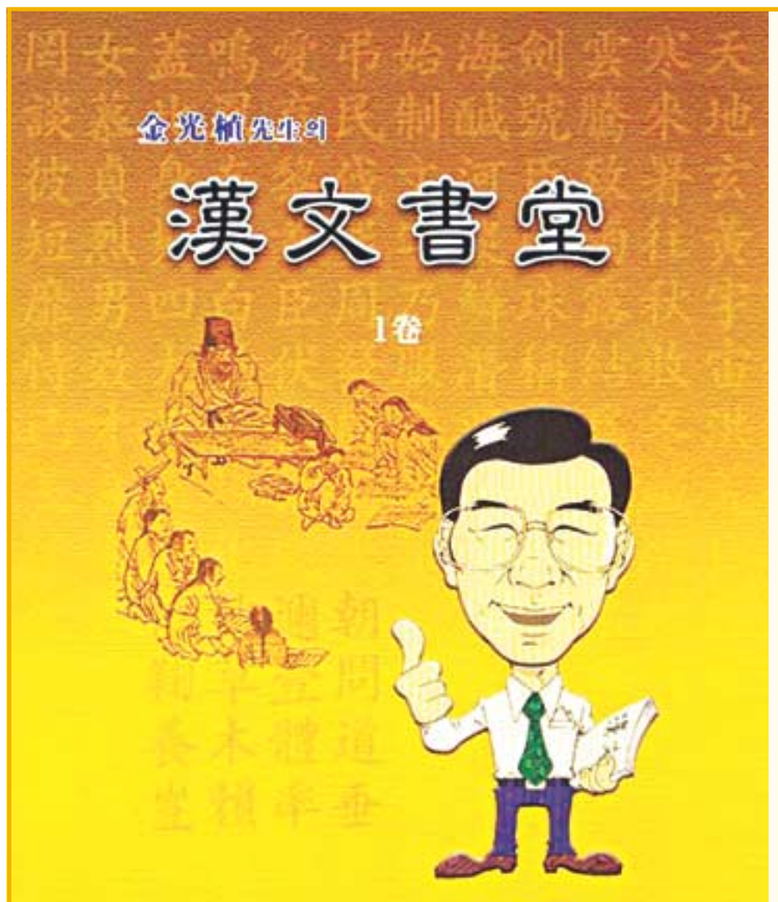
지은이가 이 책에서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음식에 대한 미학적 접근과 거리두기이다. 어떤 대식가는 혼자서 많은 음식을 먹기 위해 끓는 물에 손을 담그고 뜨거운 물로 입을 헹구어 무감각해지도록 만들었고 뜨거운 채로 서빙하도록 요리사를 매수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 맛의 미학을 위해서는 조금씩 먹는 방법, 식사 전 잠깐 동안의 지연을 참아내는 것, 식사 도구로 손과 포크를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 것, 음식에 대한 칭찬과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는 것 등을 추천한다.

식사, 그것은 즐겁고 유쾌한 행위이며 진정 '감각을 위한 축제'이다. 화려한 만찬이든, 소박한 상차림이든 식사는 인간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쾌락이기 때문이다. 역사 속 인물들의 때로는 우스꽝스럽고 때로는 진지한 모습에 놀라고 당황하기도 하지만 인류가 발전시켜 온 식사 문화를 들여다보는 것은 분명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유용한 지혜를 주며 색다르고 흥미로운 경험을 안겨준다. 음식과의 전쟁이 아니라 음식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즐길 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미식가가 될 수 있으며 식사는 최고의 쾌락이 될 것이다.

다양한 문학작품과 음식에 관련된 재미있는 그림 자료가 곁들여져 있는 이 책은 문화사적 자료로도 손색이 없다. 모두 6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시대의 증인들인 호메로스, 몽테뉴, 토마스 만 등의 다양한 문학작품을 위주로 하여 고대 그리스에서 19세기까지 손님 접대와 음식 문화, 음주 문화의 문화사적 흐름을 따라간다. 시대마다 어떤 음식이 축제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는지, 음식 섭취라는 행위가 어떻게 미학적인 일로 바뀌는지를 재미있는 일화와 더불어 위트 넘치게 풀어내고 있다.

■정지혜(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강사)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 김광식선생의 한문학습 노하우를 여러분께 모두다 전수해드립니다.

머리에 쏙쏙 !!

한문교육 40년 경험과 최고의 결과를 후학(後學)들이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漢文書堂〉 12권에 실었습니다.
속담에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로 "사람도 공부를 하면 위인(偉人)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漢文書堂〉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불자님들에게 희소식 !!

명광문화원 김광식 선생의 "한문서당"은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금년 연말(12월말)까지 한정 특별판매를 단행합니다.

정가 ~~180,000원~~을 150,000원으로 모십니다.

"한문서당"을 통해 깊은 학문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12개월(카드) 할부도 가능 !!

주문처
현대불교신문 "마하몰" http://mahamall.co.kr
TEL 02)732-1520
명광문화원 홈페이지 http://mkmunhwa.com
TEL 043)222-2257

한문이 이제 쉬어집니다.

◇ 현대불교신문 !
〈한문서당〉에서는 딱딱한 사전적 풀이대신 쉬운 언어로 한자를 풀이하고 있다. 한자는 형성과정을 이해하면 저절로 외워진다.

◇ 충청 투데이 !
체계적인 한문교육이란 무엇이며 예절과 충효문화교육에서도 상세히 알려준다.

◇ 동양일보 !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한눈에 쏙 한맹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 중부매일 !
한문교육 40년 경험과 최고의 경험과 최고의 결과를 후학들이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엮은 책이다.

◇ 이원종 충북도지사 !
한문책으로서 우리 도를 빛낸 또 하나의 쾌거이다.

◇ 김종호 전 내무부 장관 !
한문문화권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지름길을 제시해 주어 경제와 문화가 한층 발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법주사 도공 스님 !
한문과 불교문화는 밀접한 관계다. 불자들의 필독을 권한다.



일반인을 위한 불교 학술서 2권 선보여



삼국유사 사료비판
하정용 지음
민족사 | 2만원



웨단따 철학
마에다 센가쿠 지음
강종원 옮김
동국대학교출판부
1만2천원

삼국유사 사료비판 **편찬시기 · 저자 관련 논쟁 집중 다뤄**

웨단따 철학 **인도 최고 철학자 샹까라 사상 정리**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일반인들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불교 학술서가 잇달아 출간됐다. 한국 고대사 연구의 기본적 사료인 <삼국유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 <삼국유사 사료비판>과 인도철학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웨단따 철학을 소개하는 <웨단따 철학>이 그것이다.

우리 학술사에서 <삼국유사(三國遺事)> 만큼 많은 연구가 이뤄진 역사서도 드물다. 하지만 <삼국유사> 만큼 많은 이설(異說)과 궁금증을 간직하고 있는 책도 많지 않을 것이다.

현재 송광사 성보박물관 전문위원으로 일본 교토 고려미술관 특별연구원에 연수 중인 하정용씨는 <삼국유사 사료비판>에서 사료사적 연구를 토대로 <삼국유사> 해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곧 '<삼국유사>는 일연 스님 혼자의 작품이 아니고' '완성작도 아니며' '고려시대에 간행되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흔히 <삼국유사>에 대해 알고 있는 '고려 충렬왕(忠烈王) 때 일연 스님(1206~1289)이 지은 사서(史書)'라는 기본 전제를 뒤엎는 주장이다.

물론 이 같은 주장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 책은 이기백(한림대) 채상식(부산대) 유탁일(부산대) 김상현(동국대) 교수 등에 의해 제기되고 연구됐던 <삼국유사>에 대한 논쟁을 정리, 심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씨는 선학(先學)들이 제기한 의문 중 편찬 시점과 편찬자의 정체 그리고 간행시기, 원고 완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밝히려고 한다. 이를 위해 <삼국유사교감연구> <삼국유사일자색인> <교감역주삼국유사> 등을 통해 <삼국유사>에 대한 외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현존하는 고판본에 대한 서지학적 검토를 통해 내적 사료비판에 접근하고 있다.

하씨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삼국유사>의 오자와 탈자는 일연 스님과 무학대사 등의 찬자(撰者)가 직접 편찬 및 간행에 참여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며, 그러한 까닭에 미완성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내용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조목(條目)간의 유기적 관계가 옅다는 것도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님을 말해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한다.

이어 권 제5의 서두에 찬자인 일연 스님의 이름과 직위가 적혀 있는 것을 볼 때 스님 생전에 권 제5의 집필은 완성되었으나, 스님의 비문에 <삼국유사>의 서명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보면 일연 스님 생전에 그 외의 편목은 완성되지 않았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책 뒤편에는 연구에 쓰인 고판본인 <모씨소장고판본(某氏所藏古版本)>과 <조종업구장고판본(趙鍾業舊藏古版本)>을 실어 독자들이 직접 본문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3천년 이상을 거친 인도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대표적 철학은 무엇일까?

일본 인도학불교학회 이사장을 역임한 마에다 센가쿠(前田專學) 교수는 단연코 "웨단따(베단따) 철학"이라고 답한다. 샹카, 요가, 나야, 와이셰시까, 미망사, 웨단따 등 인도의 여섯 정통 철학파 중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동시에 힌두교의 이념적 근간을 이루는 철학이 바로 웨단따 철학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웨단따 철학이 인도철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지만 그간 우리 학술 · 출판계에서는 웨단따 철학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마에다 교수의 <웨단따의 철학-샹까라를 중심으로>를 번역한 <웨단따 철학> 출간이 반가운 이유다.

<웨단따 철학>은 웨단따 철학을 집대성하고, 그로부터 수많은 분파를 파생시킨 인도철학의 최고 철학자인 샹까라(Sankara, 700~750년경)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웨단따(Vedaanta)'는 웨다(Veda)의 끝(auta)이라는 뜻으로,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바라문교의 성전 <웨다>의 종결부를 형성하면서 그 궁극적 취지를 서술한다는 '우파니샤드'와 동의어로 쓰인다.

또한 웨단따 학파는 <우파니샤드>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 교설의 통일적 해설과 체계화를 지향하는 철학자 집단을 일컫는다.

불교학 및 인도철학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의 수제자인 마에다 교수는 책에서 웨단따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은 물론, 샹까라의 독자적인 저술인 <우빠데샤 샤하스리>의 문헌학적 연구결과를 함께 볼 수 있게 했다. 1장에서는 웨단따 철학 전체를 개관하고 웨단따 학파 및 그 안에서 불이일원론파의 역사적 전재과정을 살폈다. 2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샹까라라는 인물과 그 사상적 역할을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웨단따 철학이 인도사상의 중핵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피고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발품 팔아 수집한 아름다운 불교설화



이경애(52 · 사진)씨는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애착이 크다. 서울 종로구 북촌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이씨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물건들이 버려지는 것이 안타까워 하나 둘 주워 모으기 시작했다. 주워 온 물건들이 식당과 집을 가득 채우게 되자 이번엔 아예 '북촌생활사박물관'을 건립해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릴 뻔한 기억들을 되살려내게 된 것이다.

최근 펴낸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물>도 이씨의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애착'이 낳은 결과물이다. 1990년대 중반 불교방송에서 '불교설화'란 프로그램 구성작가로 일할 당시 수집한 불교설화가 이씨의 취재노트를 가득 채우고도 남았다.

그러나 방송 프로그램이 갑자기 중단되고 나자, 애써 수집한 불교설화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것이 안타까워 이렇게 책으로 펴낸 것이다.

"현재 전래되고 있는 설화 중 70~80% 정도가 불교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찰 신도들조차 사찰에서 전해지는 설화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씨는 설화를 수집하기 위해 하루 종일 도서관과 지역 문화원에서 사찰 창건기와 군지(郡誌), 신문 등을 뒤지기도 하고 전국의 사찰을 쫓아다니며 노스님과 공양주 보살에게서 구전 설화를 채집하기도 했다. 수집한 설화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고민하던 이씨는 불교설화를 문학적 차원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최근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본뜻이 왜곡되는 경우를 많이 접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동안 채집한 설화를 정확히 정리하고 원문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장을 읽기 좋게 다듬는데 중점을 뒀다.



이책에는 거제 보현암 삼신굴 설화, 춘천 청평사 회전문 설화 등 이씨가 발품을 팔아 수집한 18편의 설화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물
이경애 엮음 | 솔바람 | 9천원

염불수행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의심 끊고 염불하세
김지수 역음
불광출판부 | 1만원

중국 인광 대사의 염불 법문집 <화두 놓고 염불하세>를 번역해 국내에 염불 수행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김지수 교수(전 남대 법대)가 5년만에 두 번째 책 <의심 끊고 염불하세>를 펴냈다.

첫 번째 책에서 인광 대사가 설한 참선과 염불 수행의 장단점을 소개했다면, <의심 끊고 염불하세>에서는 천태지자 대사의 <정토십의론> 몽동 선사의 <철오선사어록> 연지 대사의 <권염불문> 전등 대사의 <정토법어> 감산 대사의 <염불절요> 성암 대사의 <권발보리심문> 인광 대사의 <편지설법> 등을 간추려 옮겨 염불이란 어떤 수행법인지를 체계적으로 알려준다.

그동안 틈틈이 염불 관련 법문집을 번역해 불교계 신문과 잡지 등에 발표해 온 김 교수는 "부처님의 자비광명 가피에 힘입어 극락정토 왕생을 발원하고 착실히 염불 수행하는 정토법문보다 더 수승한 법문은 없다"고 강조한다.

"최근 염불 수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정토 염불법문을 미신으로 치부하기 일쑤입니다. 믿음이 서질 않는데 어떻게 따분하고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염불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승대덕들의 정토법문을 통해 이러한 의혹을 풀어주고 염불법문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주기 위해 이 책을 펴내게 됐습니다."

각 경전마다 경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설명한 후 우리말 해석과 옮긴이의 보충 해설을 덧붙였다.

또한 '보살도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까닭' '악업중생도 극락왕생할 수 있는 도리' '화엄경의 핵심요지' 등 독자들이 경전을 읽어가며 의문을 가질 만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꼼꼼하게 정리해 염불수행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게 했다.

철새들의 둥지 DMZ 풍경

중이 여자하고 걸어가거나 말거나
도연 스님 글/사진 | 당그래 | 1만원





"새 둥지를 발견하면 가르쳐달라며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새 둥지를 들여다보거나 사진 촬영하지 않기'는 내가 정해놓은, 산에 사는 원칙 중 하나여서 둥지를 발견하고도 못 본 체 합니다. 평화로운 우리 집 창문으로 낯선 사람이 불쑥 들여다보았을 때, 얼마나 소름이 끼칠까를 생각한다면 함부로 새나 길짐승의 둥지를 들여다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DMZ(비무장지대) 포토그래퍼'로 널려 알려진 도연 스님이 포토에세이집 <중이 여자하고 걸어가거나 말거나>를 펴냈다. 민통선 내 철원평야에서 희귀 철새를 사진에 담아 온 스님은 이번 책에서 그동안 홈페이지(hellonetizen.com)에 연재했던 글과 사진을 가려 담았다.

강원도 철원 지장산의 '컨테이너 토굴'에서 살며 새벽 기도와 명상으로 아침을 열고, 물 긷기와 새들에게 먹이주기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스님의 일상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카메라에 담으며 느꼈던 단상들을 담담하게 정리했다. 비무장지대에서 촬영한 새와 나비, 곤충, 꽃 사진 100여 장도 함께 실었다.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역저한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중 제7권 출간!
최초로 1,454칙의 본공안을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불광출판부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坐禪三昧經

구마라집 한역 · 요산지안 감수 · 자응 역주 | 신국판 | 값 9,000원

좌선삼매경



좌선삼매경(坐禪三昧經)은 구마라집이 402년에 번역한 것으로 초기 선경(禪經)을 대표하는 경이다.
좌선입문자로서의 구체적인 수행지침이 설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선수행을 해야 하는 이유,
탐진치 삼독에 빠진 이들을 위한 관법(觀法),
선수행자가 지녀야 할 윤리적 행위와
중생들의 근기에 맞는 다섯 가지 관법(觀法),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아우르는 성문선(聲聞禪),
연각선(緣覺禪), 보살선(菩薩禪) 등
대 · 소승의 선법이 조직적으로 잘 정돈되어 있어
수행인들에게는 더할 나위없이 소중한 경전이다.

구마라집(鳩摩羅什 Kumaraiva : 344~413) | 인도 구자국 사람으로 중국 대표적인 역경사 중 한 분. 구마라집의 역경활동에 의해 비로소 중국은 대승불교 철학의 진수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대품반야경』 · 『묘법연화경』 · 『아미타경』 · 『유마경』 · 『금강경』, 용수의 『중론』 · 『십이문론』 · 『대지도론』 등을 포함하여 300권 이상의 대번역사업을 완수하여 중국 불교에 결정적인 초석을 놓았다. 그의 번역은 그 이전의 것들에 비해 사상적 내용의 전달이나 문체가 뛰어나 지금까지도 많이 읽히고 있다.

요산지안(樂山志安) 스님 | 통도사 벽안 스님을 은사로 득도. 통도사 승가대학 강주를 지낸 바 있으며, 현재 조계종 종립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겸 통도사 반야암 회주로 계신다.

자응(慈應) 스님 | 철오(徹悟) 스님을 은사로 출가. 동국대학교(경주) 선학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선학과 한문학을 공부. 남국선원과 해운정사에서 안거, 수행정진하였으며, 조계종 종립 은해사 승가대학원을 졸업했다.

불광출판부

송파구 석촌동 160-1 전화 (02)420-3200 전송(02)420-3400 http://www.bulkwang.org



미리보는 **김영원** 초대전

성곡미술관, 10월 7~30일

가을을 알리는 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9월 9일 오후, 경기도 광주 학동리에 위치한 조각가 김영원 교수(58·홍익대 조소과)의 작업실을 찾았다.
김 교수는 10월 7~30일 열리는 서울 성곡미술관 10주년 기념 초대전을 앞두고 막바지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었다.
성곡미술관 1층과 2층, 3층에서 만나는 이번 전시에서는 어떤 주제의 작품들이 선보일까.



'나'와 '내'가 서로 마주한 빈 공간은 텅 빈 충만의 공간이자 '나'를 바라보는 성찰의 장이다. 작품 '바라보다'는 크기와 보는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군상을 볼 수 있는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한다. 사진=박재완 기자

비움과 충만 사이 '내 모습은…'



해체된 인체 틀속에 자유 형상화 작품 100여점 전시



인체사실조각에서 구현할 수 없었던 비정상적인 관절의 꺾임을 '부조'를 빌어 표현했다. '누운 것이 실재인가, 선 것이 실재인가'는 작품 '바라보다-그림자'로 김영원 교수가 관객에게 던지는 화두이다.

김영원 교수는 이번 전시회를 '인체의 틀을 해체해 그 안에서 자유를 구한' 작품 100여점이 채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인간이 가진 욕망, 감정, 생각을 내려놓고 뭔가 자유로워지는 것을 형상화 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매일 좌선하고 명상하며 작업에 몰두했다.

김 교수가 만들어온 '인체사실조각'은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 속에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이입해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게 구성한 작품이다. 그러나 이번 전시에서는 역동감(力動感)과 실재감(實在感)을 강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체조각이 가진 공간성과 시간성을 제거해 박제처럼 만들었다. 마치 사진을 오려 공간에 세워놓은 것처럼 시·공간이 정지된 순간을 조각으로 표현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 "자연이나 생활에서 '회의'를 가졌고 나 외의 누구와도 소통이 불가능함을 느꼈어요. 보는 것도 대상을 통해 내 감정과 욕망을 보는 것이지 대상 자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 외의 세계와 교감이 불가능한 방해요인은 뭘까 생각했죠. 바로 우리가 매일 갖는 욕망, 생각, 감정이었습니다. 내려놓고 무심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대상과 바로보고 대화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주장하지만 않는다면…."

평면 조각, 시·공간의 정지 상태
인간이라는 존재만 남아 있을 뿐
마주선 공간 무한한 가능성 가져

김 교수가 말하는 '바라보다' 연작이 탄생된 계기이다. 이번 작품들은 인체라는 조각 이미지만 가져오고 인체가 지닌 질서인 '입체감'을 거부했다. 평면과 공존하는 반쪽 입체 '부조'를 떼어내 입체공간에 세워놓는 것으로 말이다. 인간이라는 구체성은 없다. 인간이라는 존재감만 남았을 뿐이다.

시공간이 정지된 상태에서 존재만 남은 '나'와 '내'가 서로 바라보며 마주 선 그 공간은 허무하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것을 포함한 에너지로 충만하다. 이 공간은 한없이 많은 가능성과 자유를 가졌으면서 욕망이 없다.

앞으로 김영원 교수는 있는 그대로의 내 이웃 가족 친구의 모습을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내 생각과 감정을 배제시키고 진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만들어 보는 것"이 다음 작품의 구상이다.

▲ 1층 전시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바라보다-그림자' 등 존재에 대해 이야기 하는 작품 10점이 전시된다. '물결 위의 색' '바람결의 색' '바라보다' 등은 인체의 왜곡을 통해 현대인의 정신을 표현한 작품들이다.

'바라보다-그림자'는 마치 그림자가 길에 드러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운 것이 실재인지 서 있는 것이 실재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 2층 전시실

'바라보다'라는 제목의 하얀 인체들은 FRP 합성수지로 제작됐다. '바라보다'는 총 84개의 개별 조각으로 이루어져있다. 인체의 뒷모습은 입체적으로 앞모습은 부조를 벽면에서 떼어낸 듯 평면이다.

그 평면 부분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 조각들이 80㎝에서부터 2m까지 크기별로 짝을 이뤄 2층 전시실을 가득 메우게 된다. 부조의 평면을 마주보게 함으로써 빈 공간의 가득참을 느끼게 한다.

▲ 3층 전시실

과거와 현재, 부조와 환조가 혼재된 공간이다. '바라보다'를 비롯, 10여점이 전시된다. 1층과 2층을 거쳐 클라이맥스에 이르렀던 긴장감이 편안하게 풀리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뼈대만 있는 상자로 표현된 상반신과 인체 하반신이 결합된 작품을 통해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것을 보여준다. 삶도 죽음도 없이 하나라는 것. 단지 변해 갈 따름이다. 눈에 보이는 이 공간이 실체일 수도 있고 보고 있는 내 몸이 환영일 수도 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김영원 작가는?

김영원 교수는 1980년 문예진흥원 미술관에서 제1회 김영원 조각전을 개최한 이래 서울 환미술관 이목화랑 금호미술관 선화랑 등에서 8번의 개인전을 열었다. 또 제22회 상파울로 비엔날레, 올림픽 10주년 기념 야외조각 심포지엄, 김포국제조각전 프로젝트, 부산비엔날레 조각 프로젝트, U대회 국제 조각 심포지엄 등에도 출품했다.

작품 감상 포인트?

김영원 교수가 말하는 감상포인트는 너무도 간단하다.

"선입견을 갖지 말고, 보고 느낀 것 그대로 받아들여라."

내 마음의 편견이 없이 작품을 바라보면 작가가 생각했던 이미지와 감정이 관람객들의 마음에 그대로 흘러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김영원의 작품 세계는?

수시로 변하는 유행사조나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30여년이 넘도록 자신만의 사실주의 인체조각에 천착해온 조각가 김영원 교수. 김 교수가 표현하는 인체는 관념적 표상 혹은 심미적 대상으로서의 인체가 아니라 일반화한 인간의 실재이다. 사실주의에 대한 집착은 인체를 통한 존재에의 끈질긴 모색에서 비롯된다.

미술평론가 윤범모 교수(경원대 회화과)는 "김영원 교수의 장기는 인체를 사실적으로 형상화하는 기량이 탁월하다는 것"이라며 "특히 사실적으로 형상화된 인체로 특정 상황을 잘 표현해 내기 때문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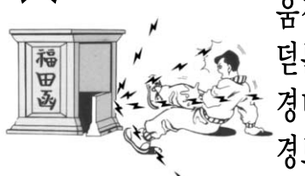
30여년간 사실주의 인체 조각
83년 이후 인간 잠재적 본성
90년대초 禪을 작업에 접목

1977년부터 82년 사이에 제작된 '중력·무중력' 연작들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신체의 기능을 정확한 모델링 기법으로 묘사한 집합체이다. 이후 인체 구조의 변형을 통해서만 문제를 접근하려는 작업에 식상한 김 교수는 83년부터 인간의 육신 속에 꿈틀거리는 잠재적 본성 등을 인간의 실체로 표현해 낸다.

90년대 초부터는 동양의 선(禪) 사상에 심취해 선수행에서 얻어지는 심기(心氣)를 예술작업과 일치시키고자 노력했다.

오원배 교수(동국대 미술학과)는 "스스로 체험한 불교수행의 향기가 작품 곳곳에 배어나는 작가"라고 김영원 교수를 평하며 "불교소재를 불교적인 도상으로 드러내놓고 보여줌으로써 불교의 세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불교사상을 현대적인 조각기법으로 풀어내왔다"고 설명한다. 강지연 기자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연기와 화상 걱정에서 완전 해방된 새로운 쑥뜸용구 -
소자본으로 대박잡는 틈새업종 대리점 및 쑥뜸기 체험방 모집!
허준선생의 東醫寶鑑 - "약과 침으로 치유되지 않는 병은 반드시 뜸을 떠야한다."
■ 제품의 특징
● 화상과 연기의 위험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쑥뜸을 할수 있다.
● 복부의 5개 혈자리를 동시에 뜸할 수 있는 획기적 효과가 있다.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온열판 내장으로 쑥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하는 효과 증대.
● 혈자리를 모르는 초보자나 노약자도 간편하게 쑥뜸을 뜰 수 있다.
오행쑥뜸기
■ 제품의 특징
각종 통증 완화 사용후 45분이면…
● 벨트를 이용하여 무릎, 머리, 어깨, 허리 등에 간편하게 고정 할 수 있어 집중 쑥뜸을 할 수 있다.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음양쑥뜸기 (무릎관절)
■ 제품의 특징
● 좌훈기 내부에 온열판 장착으로 쑥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되는 효과가 증대 됨.
● 인체와 접촉되는 부위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 끓는 물에 살균소독이 가능하여 위생적임.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좌훈기에 등받이가 부착되어 편안한 자세로 뜸을 할 수 있다.
오행좌훈기
의료용구로 허가를 받은 믿을 수 있는 제품
대구 한의대 및 대구 한방병원 교수진에 의해 개발
특허등록
의료용구 제조품목허가 : 제 03662호
의료용구 제조업허가 : 제 1682호
전기용품 안전인증허가 : JC07019-3001
실용신안등록 : 제 0308642호
실용신안등록 : 제 0318970호
실용신안등록 : 제 0328990호
의장등록번호 : 제 0344295호
의장등록번호 : 제 0344295호의 유사 제 01호
ISO 9001 인증서번호 : 제 017269호
대리점 및 쑥뜸기 체험방 모집
오행쑥뜸기, 음양 쑥뜸기, 오행좌훈기 등을 찜질방 및 사우나, 피부미용실, 한의원 등에 독점 공급하실 분
※ 무경험자도 가능 (완벽한 본사의 교육)
문의전화 02)521-4453
www.moxa4u.com 오행쑥뜸·좌훈기/음양쑥뜸기 제품구입 문의 02)521-6353~4
D.M.I산업 대구한의대학교 한방바이오 창업보육센터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 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靑미래 조청 1.2kg
중금속해독, 풍습제거(부종), 사지관절, 중풍과 암 예방에 탁월한 기여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웰빙 자연당
1100g×2병 = 18,000원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지계 - 좋은 습관 들여 청정함 살리는 길



"계율은 어렵지도 않고 멀리 있지도 않으며 바로 우리의 생활속에 있다"며 지계의 생활화를 강조하는 파계사 영산율원 율주 철우 스님.

동화사 - 현대불교 공동 주최
'깨달음으로 가는 길' 계율수행 대법회 6
주제 : 경전속의 지계정신 (9월 10일)
법주 : 철우 스님 (파계사 영산율원 율주)

계율은 불교의 윤리와 도덕이며, 부처님의 교육관입니다. 아이의 습관과 버릇을 잡는 가정교육과 같은 것이지요.

계는 행동과 언어로 악을 짓지 않도록 방지하고, 율은 부처님 제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으로 허물과 악을 억제하고 조복하여 대중에 수순하는 것입니다. 계를 지키고 행하는 이유는 좋은 습관을 지니고 나쁜 습관을 버려 청정한 마음과 계행을 지니기 위해서지요.

몸·마음으로 실천해야 살아있는 계율

계율은 불법이 오래 세상에 머물기를 바란 사리불의 청으로 시작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 명예와 이익에 끌리게 되면 잘못을 범하게 될 것이다. 아직은 잘못된 일을 범한 것이 없다. 떨어지지 않은 새 옷을 미리 꿰맬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여래는 때를 알고 있으니, 모든 비구들은 이 계송을 의지해서 수행하라." 하시고 '입으로 말조심, 생각과 나쁜 짓 하나 없이 세 가지의 하는 짓이 모두 깨끗하면 이렇게 닦는 것이 열반의 길이로다'라는 게송을 읊었습니다.

〈능엄경〉 '제6 수도분' 가운데 섭지궤칙과(攝持軌則科)에 출가자와 재가자가 지켜야할 율의로써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음란하지 말라, 둘째 훔치지 말라, 셋째 살생하지 말라, 넷째 거짓말하지 말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자가 몸으로 외형적인 행위에만 국한하지 않고 뜻으로 범하는 것까지 금하셨습니다. 출가자에게 있어 몸과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가 불음(不婬)인 것입니다. 그러나 재가불자는 정해진 배우자 외에는 부정한 남녀의 애정관계를 갖지 말라는 불사음(不邪婬)입니다.

불사음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것을 물질로 바라보는 물질화입니다. 인간의 존귀함도 잊어버리고 인간 자체를 물질로 보는 것이지요. 가장 적나라한 예가 성의 상품화입니다. 인간이 인격적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성의 노리개로 전락되어 금전으로 매매되는 세상이 된 거에요. 따라서 '불사음' 계는 재가자에게 문란한 성관계를 금지토록 한 개인의 수신 차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문제에 국한시켜서는 해결책이 구해지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인간 심성의 존엄성을 회복하여 상호 존중하고 사랑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해 내야 합니다. 인간 존엄성을 위협하는 일체의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녀야 할 계율이 불음 · 불사음계입니다.

"살생은 자비의 종자 끊는다"

두 번째는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입니다. 이는 불교인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전생의 업보 때문에 두고두고 갚아야 한다는 〈능엄경〉의 부처님 말씀은 이 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측면보다도 오히려 사회적 윤리성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이것 역시 사회적인 가치로 인식해야 합니다.

욕심내어 내 것만을 고집한다거나 다른 이의 공을 취하는 것 등도 투도(偸盜)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물건은 함께 힘을 합쳐 만들고 고루 나눠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보다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일으키고, 이 욕심이 만족되지 않을 때는 성을 내고 훔치고 빼앗는 것도 '도둑질' 입니다.

정당하게 나누어야 할 것을 나누지 않는 것, 다른 이의 곤궁을 외면하고 혼자만 살아나가려는 탐욕 등도 투도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란 나 하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는 무수한 중생이 직 · 간접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지요. 자기가 일한 만큼 정당한 몫을 받는 아니라 일하지 않고도 남보다 잘 사는 사회라면 올바른 사회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는 불살생(不殺生)은 개인 차원의 소극적 금계가 아니라, 일체 생명의 가치가 제한 없이 발휘되는 세계를 이루라는 적극적인 면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자각하여 보다 큰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가르침이지요.

그러나 작은 나에 탐착하여 일체 생명의 고귀함을 망각하는 것이 중생의 삶입니다. 부처님은 "살생은 자비의 종자를 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생명이 다치는 것은 바로 나의 생명이 상하는 것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하는데, 도리어 즐기기 위하여 사냥을 하고 낚시를 하고 맛을 위하여 도살을 하는 등 인간의 횡포는 끝이 없습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온갖 살상용 무기가 양산되고 이윤을 위해 몸에 해로운 상품을 만들어 팔고, 공해산업이 우리의 숨통을 조여 오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일체 생명의 내부에 깃든 부처님 성품에 대한 가증스런 폭력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불망어(不妄語)는 대망어라 하여 깨닫지 못한 이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깨달았다고 거짓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의 노자는 '지자불언(知者不言) 언자부지(言者不知)'라고 했습니다. 즉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하고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하여 말로는 진실을 드러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를 도라 하면 이미 도가 아닌 것입니다.

말은 하나의 표상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온갖 언어를 매개체로 삼아 우리의 뜻을 전하지요. 그러면서도 말이 가진 한계를 느끼지 않고 전능의 권위를 부여하거나,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합니다.

매스미디어의 발달은 온갖 정보의 홍수를 가져왔으나 진실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매우 드물어요. 오히려 유언비어가 횡행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짓을 말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제 한 말을 오늘 뒤집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불자들은 자신의 말을 책임지는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말로써 폭력적인 언어를 정화해야 하고, 진실된 말로써 부처님의 말씀과 뜻을 닮아나가야 합니다. 신구의(身口意)의 삼밀(三密)에서 구밀(口密)이 바로 이 뜻입니다.

진실된 말이 가득찬 세상, 서로 믿을 수 있는 세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신이 한 말에 책임져야

불자들은 계율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율은 어렵지도 않고 멀리 있지도 않아요. 바로 우리의 생활 속에 있습니다.

계율을 지키는 일은 불자 모두의 일입니다. 일부 전공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불자라면 응당 그렇게 해야 합니다. 때와 장소를 가릴 이유가 없지요. 언제 어니서나 몸과 마음으로 실천해야 살아있는 계율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잘 지켜라.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끝내 계율을 범하지 말라. 계율은 도에 들어가는 기초요 번뇌를 없애는 묘한 길이며, 열반의 안락한 곳에 이르는 평탄한 길이니라. 그러므로 계율을 가지는 이에게 큰 공덕이 있느니라". 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또, 경전에는 계율을 잘 지키면 열 가지 이익이 있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째 승가를 거두어 주고, 둘째 승가를 기쁘게 해주며, 셋째 승가를 안락하게 해줍니다. 넷째 믿음이 없는 이는 믿게 하고, 다섯째 믿음이 있는 이는 더 깊게 하고, 여섯째 조복하기 어려운 이를 조복하여 수순하게 하고, 일곱째 부끄러워하는 이를 편안하게 하고, 여덟째 현재의 번뇌를 끊고, 아홉째 미래의 번



불자들은 철우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계를 철저히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법회 동영상 중계 hompy.buddhapia.com/homepy/morals

영가천도전문도량 약천사
제3회 태(胎)중 아기(낙태, 유산) 영가 49재 천도재
약천사 양력 9월 25일(일요일)

태(胎)중 아기 지장보살님을 봉안하고 성심껏 기도하여 아기영가가 편안하고 업장소멸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낙태를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모의 인연으로 만나 생겨난 아기인데도 별다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기를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나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태중아기는 부모가 낙태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안과 긴장으로 몸을 움츠리며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낙태한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부모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참회한다면 스스로 지은 악연의 고리도 끊어져 새로운 인연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찾아드는 인연을 거부하고 '나'의 편리를 위해 '나'에게 의탁한 생명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중아기는 엄연한 생명이요, 그 생명을 끊은 낙태의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결정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간 태중아기를 위해 진심을 다한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태중(낙태,유산)아기 지장보살님

● 일 시 : 2005년 9월 25일 월요일 오전11시 (음, 8월 22일)
● 장 소 : 약천사 법당
● 기도입재(초재) : 양력 9월 25일 (음, 8월 22일)
● 3재 : 양력 10월 9일(음, 9월 7일)
● 기도회향(막재) : 양력 11월 6일 (음, 10월 5일)
● 기도 동참비 : 태중아기 지장보살 봉안비 30만원, 49재 (당일 천도재는 별도상담)
※ 위패비, 아기옷 : 무료
● 준 비 물 : 사탕, 과자, 분유(우유) 등
※ 7재 회향에는 태중아기 지장보살 관욕을 합니다. (메내적삼,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준비)
● 입금계좌 : 농협 075-02-390890 | 국민 353-24-0119-724 | 예금주 : 이순수

태중아기 영가 천도 방법
1) 성심을 다해 참회하여야 합니다.
2) 49재를 올려서 천도해 주어야 합니다.
3) 지장경을 독송해 주어야 합니다.
4) 지장보살상을 모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부처님을 조성해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6)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등을 밝힙니다.
7) 대승보살계를 받게 하시면 좋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직접 안내하여 드립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 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 011-9002-8523

Wellbling Life
장혜명 스님께서 15년간 환경보존연구와 미생물(효소) 연구 끝에 직접 생산하신
건강기능식품인 효소발효제품 아로하, 향적당

신진대사 활성
장내플로라 개선
체질 개선
→ 활력있는 삶 웰빙 라이프

엄선된 국산의 유기농산물에 미생물(유산균)을 배양 발효시켜 효소,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 아로하 : 1개월분 (270캅셀) 12만원
• 향적당 : 1개월분 (270캅셀) 24만원

장(腸)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할 수 있다 !

■ 제조 및 판매 : 선농BIO식품(주)
전국 소자본 대리점 모집 (부처님 제자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 본 사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 2동 1219 ■ 공 장 : 충남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 342-8
■ 홈페이지 : http://www.sunnong.co.kr ■ 소비자상담실 : 042) 531-0026, 531-0027 / FAX 042)523-3316

※효소는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안과 밖에서 여러 생화학작용의 촉매역할을 하여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 더 활발하게 해주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도움을 주어 세포의 생체활동에 기능적으로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5000여종의 효소는 소모되어지기 때문에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철우 스님의 제안

자비롭게 베풀며 청정하고 진실하며 지혜롭게 살라

삼귀의와 오계는 불자의 기본조건입니다. 진정으로 삼보에 귀의하지 않거나 계를 지킬 자신이 없다고 하여 가려서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모든 계를 받으려면 계체(戒體), 다시 말해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계를 지니기에 앞서 불교 입문의 자세를 말하는 것으로, 믿음을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삼귀의가 이루어지면 다음에 오계를 받아 지녀야 합니다.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가 그것입니다. 불자들은 오계가 행동을 제약하는 규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계의 의미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현재의 삶에서 한걸음 나아가 진정한 불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오계를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불자들이 적지 않아 계목을 적극적인 행으로 옮기기 위해 제가 임의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첫째, 불살생(不殺生)으로 '산목숨을 죽이지 말라' 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자비종자(慈悲種子)가 끊어지고 사람들이 보면 싫어하는 과보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자비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둘째, 불투도(不偸盜)로 '주지 않는 물건을 가지지 말라' 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복덕종자(福德種子)가 끊어지고 박복한 과보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셋째, 불사음(不邪 婬)으로 '간음하지 말라' 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청정종자(淸淨種子)가 끊어지고 역겨운 외모를 받는 과보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청정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넷째, 불망어(不妄語)로 '거짓말 하지 말라' 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진실종자(眞實種子)가 끊어지고 신용을 잃는 과보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불음주(不飮酒)로 '술을 마시지 말라' 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혜종자(智慧種子)가 끊어지고 바보가 되는 과보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철우 스님은 9월10일 동화사 통일기원대전에서 열린 여섯번째 계율수행 대법회에서 "불자들이 지계정신을 가져야 불교가 살아날 수 있다"고 법문했다.

뇌를 끊고, 열번째 정법이 오래도록 머무르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계는 불자의 선택아닌 의무

이 열 가지 이익을 요약하면 개개인의 수행을 위하여, 교단을 청정을 위하여, 또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정법이 영원히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계율이 제정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법을 영원히 머무르게 하고 더욱 증장시키기 위해서는 계율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계율이 지켜지지 않고 지키려는 노력조차 없다면 존재의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실천하는 가운데 진정한 지계의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지요.

요즘, 계율을 현대사회에 맞게 고쳐야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1결집때 이루어진 율장정신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계율을 바꿔서는 안됩니다. 만약 율장에 없는 것이라면 청규를 만들면 됩니다. 율장정신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시대에 맞는 청규를 만들어 시행하면 되는 일입니다.

정리=박봉영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철우 스님은 1957년 청도 적천사에서 출가, 67년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68년 해인총림 율원을 수료했다. 90년 자운 스님으로부터 계맥을 이었다. 현재 파계사 영산율원 율주이며 조계종 계단위원회 위원, 단일계단 구족계 존중아사리, 제18회 단일계단 유나, 법계위원회 시행위원, 의제실무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사분율> <사미율의> <사미니율의> <승갈마> <식차마나니계본> 등 다수 있다.

논 찬



덕문 스님
(파계사 강원 학감)

잘못 했을때마다 계 만든 부처님 뜻은 '자비'

질문1 : 계사 스님들은 '앞아서 계를 받고 서서 파할지라도 계를 받는 데 무한한 공덕이 있다'며 수계를 권합니다. 가능하면 계를 범하는 사람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계율을 엄정히 지키게 하는 것이 계율의 목적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환계법(還戒法)에 대해 일러주십시오.

철우 스님 : 계율은, 집에서 아이들에게 가정교육을 함으로 해서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을 할 때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게 하는 것과 같아요. 계율은 죄를 짓기 위해 받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계를 어렵게 보지 말고 생활 속의 수행으로 이해하세요.

만약 계를 범했다면 그 즉시 참회를 하고, 다시 계를 받으세요. 계는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겼을 때 진정한 참회와 함께 지계를 재다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계수행입니다.

환계라는 것은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환계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에서는 계를 받았다가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환계를 합니다. 절에서 단기출가하는 날 계를 받고 집에 돌아갈 때는 환계를 하는거지요. 그러니 평생 계를 어기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박6일 사찰수련대회를 할 때 회향하는 날 계를 줍니다. 속세로 계를 어기러 가는 사람에게 계를 주는 셈이지요.

질문2 : <4바라이>에서 말하는 불살생과 <능엄경>의 4종율의에서 언급된 불살생의 의미, 그리고 4바라이에서 말하는 불망어와 사종율의에서 언급된 불망어의 차이점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다면 수행자들이 율장을 이해하는데 적지 않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철우 스님 :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4바라이의 불살생은 재가자가 지켜야할 계율로, 내가 내 손으로 죽이지 않고 시켜서 죽이지 않으면 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의로 죽이지 않아도 그 또한 계를 어기는게 아니지요.

그러나 4종율의에서의 불살생은 몸으로 짓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살생까지도 금하는 확대된 의미의 계율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율의 목적입니다. 계율은 범했다고 해서 벌을 받는 식의 단순한 데 뜻이 있지 않습니다. 계를 받아 지키도록 하는 것이 계율의 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문3 : 법주스님께서 직접 계율을 공부하시고, 수지하시는 과정에서 체험하신 부분 가운데 후학들의 신심과 정진에 도움이 될 내용을 들려주십시오.

철우 스님 : 스님들에게도 권태기가 있습니다. 출가한지 10년 쯤 되면 '내가 무엇을 했는가' '지금의 나는 무엇인가' 하는 회의감이 밀려오지요. 나의 첫 번째 권태기는 구족계를 받을 때였습니다.

해인사에서 계를 받았는데, 자운 스님이 비구계본 책을 주시면서 그것을 외우라고 하셨어요. 권태기여서였는지 안 외웠지요. 그랬더니 자운스님께서 계를 받고 싶으면 3천배를 하라고 해요.

나는 계를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동기인 도반도 못받게 생겼어요. 어쩔 수 없이 3천배를 해야 했는데 할 일이 막막해요. 처음에는 정신없이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밥때를 알리는 종소리가 가장 반가운 소리인줄 알았는데, 그 날은 새벽예불을 알리는 종소리였어요. 그렇게 코를 꿰는 것처럼 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인사 율원에서 공부하면서 율장을 접하게 됐습니다. 율장을 보지 않았으면 부처님의 자비를 알지 못했을거에요. 우리는 조그만 모임을 만들어도 먼저 규약부터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계를 제정하면서, 계를 제정토록 만든 이들을 자비롭게 용서했습니다.

중생의 자비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니까 그런 것이란걸 나중에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계를 받지 않았다면 중노릇 못한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양규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인과 생각해 직업 선택을…과보 반드시 따라

질문1 : <범망경>에서는 출가자를 중심으로 하여 불사음, 불투도, 불살생, 불망어 등의 순서로 살펴보고 있는데, 오계와 비교해보면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오계의 마지막에 있는 불음주가 <범망경>에는 빠져 있고 나머지 네가지 계의 순서도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부연설명해 주십시오.

철우 스님 : 제 말이 모두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 공부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완전한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범망경> 보살계는 대승계이고, 재가오계는 기본적인 수행덕목입니다. 차이가 없을 수가 없지요. 대승보살계를 엄정히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을 때 가능합니다. 재가불자가 지키기에게는 무리가 있어요.

오계에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계목이 있는데, 대승보살계는 술을 팔지도 말라고 했어요. 경전에 술한 잔 권했던 인연으로 오백생에 손 없는 과보를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승보살계는 술을 먹지 말라는 계가 없는 것은, 술을 먹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술장사까지 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범망경> 계목이 우리 문화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이해하길 바랍니다.

질문2 : <범망경>에서는 육식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반면, 초기경전에서는 조건부(3정육, 5정육)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철우 스님 : 부처님이 5정육을 허용한 것은 병자에 한해서입니다. <사분율>에 병든 비구를 제외하고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극단적인 견해를 지녔던 제바달다의 식견으로는 5정육을 취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처님의 깨달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계율이 어떻게 제정되었는가를 보면 이해가 쉬울거에요. 계는 중생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구제하고 살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질문3 : 붓다는 살생과 관련한 직업은 갖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불자 중에는 횟집을 하는 등 생업으로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생활의 방편으로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철우 스님 : 생업으로 횟집을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과를 생각하고 직업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살생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눈빛이 다릅니다. 어렸을때 시장에서 닭집을 운영하는 사람을 오며가며 늘 보았는데 5년 정도 지나니까 눈에서 살기가 돋아요. 자신도 모르게 눈빛이 변하고 맙니다.

악연은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과보를 받게 되어 있어요. 과보를 좋게 받는 수행의 방편이 바로 지계입니다. 다시 말해 양심적으로 사는거에요. 생업을 하되 항상 자비한 마음을 가지세요.

단, 스님들이 고기를 먹어서는 안됩니다. <사분율>에 의하면 안 먹는 것이 맞아요.

재가불자도 오계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오계를 지키는 것이 수행입니다. 재가불자들은 스님이 계를 어기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지계정신을 늘 가져야 불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梵魚寺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세트

문 없는 문을 열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10대 선사의
간화선 수행에 대한 상세한 법문을 만나보세요.



범어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범어사 설선대법회'의 열분의 법주스님들의 법문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판매처 : 마하몰 www.mahamall.co.kr
02)732-1520 / 02)2004-8218~9

입금계좌 : 국민은행 006-01-0785-361 현대불교신문사
우 체 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농 협 053-12-113210 하동규

30,000원(무료배송)

500세트 한정판매

※ 설선대법회 CD, Video도 있습니다. (각10,000원)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라마의 제3회 특별 법회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1회 특별 법회는 2003년 12월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간, 티베트 망명정부가 자리하고 있는 다람살라 남갈 사원에서 있었습니다. 이 특별 법회의 의미는 참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달라이라마께서 한국 불자에게 하신 최초의 법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한국 불자와 달라이라마의 만남은 많았습니다. 거의 개인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회는 달랐습니다. <입보리행론>을 교재로 삼아, 제1장 보리심 공덕 찬탄품부터 제4장 보리심 불방일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달라이라마께서 그 의미를 짚어가며 읽어내려 가셨습니다. 경전 속 활자에 불과했던 샨티데바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샨티데바의 가르침에 달라이 라마의 숨결이 더해지면서 <입보리행론>은 수행지침으로 되살아 난 것입니다. 2004년 10월 델리에서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2회 특별 법회가 봉행되었습니다. 나흘간 진행된 이 법회에서는 <입보리행론> 제5장 호계정지품부터 제8장 선정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 2회 특별 법회 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일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의 제안으로 제2장 죄업 참회품을 독송을 하던 순간, 강당을 가득 메웠던 낭낭한 독송 소리는 조용한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티베트 학승과 티베트 불자까지 젖어들은 조용한 울음이었습니다.

**오는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3회 특별 법회가 다람살라 남갈사원 대법당에서 봉행됩니다. 달라이라마께서는 매번 법회를 시작할 때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법음을 열어갑니다.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은 우리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며, 신행의 목표점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것입니다. 평생에 만나기 어려운 이 귀한 법회에 동참하여 좋은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입보리행론

<입보리행론>은 대승 불교의 꽃인 '보살의 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입보리행론>은 총 10장 – 제1장 보리심 공덕품, 제2장 죄업 참회품, 제3장 보리심 전지품, 제4장 보리심 불방일품, 제 5장 호계정지품 제 6장 인욕품, 제7장 정진품, 제8장 선정품, 제9장 지혜품, 제10장 회향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샨티데바의 <입보리행론>은 티베트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가르침입니다. 이를 반증하듯이 여러 종의 번역본과 종파 별로 수많은 주석서가 있습니다. 10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입보리행론>은 대승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아주 쉽게 전달하고 있는 대표적인 논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행사일정

A팀 : 12월10일 – 19일(10일간) – 법회동참 일정 (동참금 220만원)
인천-델리-다람살라-델리-인천

B팀 : 12월 3일 -18일(16일간) – 불교성지순례와 법회동참 일정 (동참금 265만원)
인천-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파트나-바이살리-쿠시나가르-기원정사-다람살라(법회)-델리-인천

• 장 소 : 인도 다람살라 남갈사원 대법당
• 주 관 : 여수 석천사 (진옥스님 061-662-1607)

※ 참가신청 및 문의 : 본 행사는 법회진행비가 포함되어 있어 신청하신 분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Silkroad (주)실크로드여행사 전화 : 02)720-9600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앞)

추억행 열차타고 민속마을로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지났다. 성묘를 가고 차례를 지내지만 조상들의 얼과 생활양식을 깊이 있게 알기엔 어딘가 2% 부족하다. 이런 사람들에게 민속마을 나들이는 어른들에게는 어릴 적 향수를 떠올리게 하고, 아이들에겐 조상들의 발자취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변의 농촌문화도 살펴보고 다양한 민속마을 문화축제를 즐기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다. 올 가을, 추억행 열차를 타고 민속마을속으로 들어가 보자.


훈훈하고 넉넉한 우리네 인심이 깃들어 있는 하회탈. 안동 하회마을의 하회탈 공연 모습.


조선 성종때 축성한 해미읍성.


조선시대 임경업 장군이 축조한 낙안읍성.


낙안읍성의 한 어르신이 초가에 얹을 짚을 만들고 있다.


청풍문화재단지내의 장독대. 안주인의 정갈한 손맛이 느껴진다.

엄마 품처럼 마을 둘러싼 돌담장 있는 곳, 외암리민속마을

충남 아산시 송악면에 소재한 외암리민속마을은 400년 전 예안이씨 이정 일가가 이주해 마을을 이뤘다.

마을 전체를 둘러싼 5㎞의 돌담장은 낙안읍성과 함께 아름다운 돌담으로 꼽힌다. 디딜 · 연자방아 등 옛 생활도구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추사 김정희 글씨 등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많이 보관돼 있다.

중요민속자료 제195호로 지정된 이참판댁은 충청도 양반집의 멋스러움과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연엽주로 잘 알려져 있다. 현충사와 민속박물관도 가깝다. (041)544-8290

왜구 막아낸 늠름한 성벽의 기상 깃든 곳, 낙안읍성

서민적 친근함이 물씬 풍기는 전남 순천시 낙안면 낙안읍성. 조선 태조 6년 왜구가 침입하자 이 고장 출신 김빈길이 의병을 일으켜 토성을 쌓은 것이 낙안읍성의 시초. 그 뒤 인조 때 군수 임경업이 약 3년에 걸쳐 현재의 석성을 완성했다.

조선시대 객사와 초가 9채, 옛 관아건물 등 중요한 민속자료가 많아 1984년 마을 전체가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됐다.

가까운 곳에 송광사와 선암사를 품고 있는 소백산맥 끝자락에 조계산이 있다. 비룡폭포와 옥수담 등 경관이 수려하다. 가벼운 등산을 즐기기에 좋다. (061)749-3837

신라 천년의 옅은 미소가 머문 곳, 양동민속마을

경북 경주시 강동면에 위치한 양동민속마을. 이곳은 경주의 문화유산 대부분이 신라시대에 조성된 것인데 비해 조선시대의 유교문화를 보여주는 곳이다.

나지막한 설창산을 배경으로 150여채의 고풍스런 가옥과 15개소의 정자 · 비각 · 강학당 등 조선시대의 전통가옥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손씨 대종가로 조선 초기 목조건물의 전형을 보여주는 서백당, 이씨 대종가 별당인 무첨당, 손씨의 파종가인 관가정 등은 문화재와 보물로 지정돼 있다. (054)762-4541

나그네 발걸음도 숙연해지는 곳, 해미읍성

읍성 가운데 원형이 가장 잘 보존돼 있 충남 서산시 해미면의 해미읍성. 왜구 침입에 대비해 조선 성종 때 축성했다.

성곽은 밖으로 석축을 안으로는 흙을 입힌 것이 특징. 둘레 1,800m, 높이 5m의 돌성으로 동 · 남 · 서 3개의 문이 있다. 성 밖 둘레에는 해자를 두고 성곽 밑에 탱자나무를 심어 적들이 성벽에 기어오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탱자성으로도 불렸다.

선조 12년 이순신 장군이 이곳에서 병사를 훈련시키기도 했다. 개심사와 서산마애삼존불 등이 가깝다. (041)660-2540

음양오행의 지리적 조화가 서린 곳, 하회마을

경북 안동시 풍천면의 하회마을은 산이 물을 얼싸안고 물은 산을 휘감은 산태극, 물태극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진왜란 때 영의정을 지낸 서애 류성룡을 배출한 곳으로 더 유명하다.

아름다운 낙동강변의 기암절벽과 송림, 모래사장을 배경으로 사대부집부터 서민들의 집에 이르기까지 300~500년 된 130여 호의 집들이 보존돼 있다.

조선의 유교문화 전통을 잘 간직한 하회마을은 별신굿탈놀이와 하회탈이 유명하다. 초랭이, 양반, 백정탈 등 9개의 하회탈이 국보 제121호로 지정돼 있다. (054)854-3669

한벽루에서 만리풍을 맞는 청풍명월의 운치, 청풍문화재단지

충북 제천시 청풍면의 청풍문화재단지는 1982년부터 3년에 걸쳐 충주댐 건설로 수몰위기에 놓인 43점의 문화재를 옮겨 문화재마을로 꾸몄다. 생활유물 1,600여점이 전시돼 있다.

충주호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팔영루 등의 고풍스런 건물과 열녀비 · 공덕비 등 문화재들이 조화롭게 배치돼 있다. 충주호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한벽루 전망이 일품. 단양팔경도 둘러볼 만하다. (043)647-7003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전시

베스트 작가의 넘버원 판화전

이왈종 · 장욱진 등 14명 작품 한곳에


여리고 고운 색감을 선보이는 이왈종 화백의 종이부조판화.

이왈종 화백을 비롯해 작고한 장욱진 변종하 작가, 조병화 시인, 이대원 김훈 박서보 김종학 오승윤 김원숙 김승연 김익모 사석원 작가 등 14명의 작품을 한 곳에 모은 '베스트 작가의 넘버 원 판화' 전이 개최된다.

파주 예술마을 헤이리에 위치한 갤러리 이비뎀에서 9월 10일 시작된 이번 판화전에 등장하는 작품은 모두 에디션 넘버 원(Edition.No.1). '에디션'은 판화나 사진 등 여러 번 재생될 수 있는 멀티플(multiple) 작품을 제작할 때 기입하는 일련번호이다. 이 가운데 에디션 넘버 원은 제일 처음 찍은 작품이라는 뜻으로 원화로 인정된다.

소박한 일상을 담아낸 故 장욱진 화백의 작품을 비롯해 이왈종 화백의 종이부조 판화, 조병화 시인의 판화, 조각같은 조형미를 선사하는 조각가 이영학 씨의 실크스크린 '새' 연작, 오승윤 화백의 오색찬란한 금강산을 만날 수 있다. 10월 3일까지. (031)948-4559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공연

동 · 서양 공존하는 햄릿 무대

이윤택 연출…9월 21~29일 국립극장


화려하고 부드려운 의상 · 무대가 돋보이는 '햄릿'의 한장면.

불자 연출가 이윤택씨가 연출한 햄릿을 만나보자.

9월 21~29일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공연되는 '2005 셰익스피어 난장' 중 한 작품인 '햄릿'은 1996년 연희단거리패 창단 10주년 기념으로 초연된 이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연희단거리패의 대표 레퍼토리이다.

연희단거리패의 '햄릿'은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세계는 서구의 공연양식으로, 영적이고 불가시적인 세계는 한국 전통의식과 연희양식으로 표현한다. 동서양의 의식과 양식이 공존하는 무대를 창조하는 점에서 이윤택 특유의 독자적 연출 방식을 드러낸다.

거기에 원전 텍스트에 충실하면서도 번역 투의 대사를 걷어냈다. 한국어의 리듬과 어법에 맞는 창조적 번역과정을 거쳐 손질한 주옥같은 대사들은 배우들의 연기에 더욱 빛을 발한다. 연출 뿐 아니라 말과 몸이 어우러지면서 신명과 에너지가 넘치는 연희단거리패 특유의 연기 스타일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02)2280-4115

강지연 기자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19일 12:10 뮤직 퍼레이드
20일 09:05 행복한 미소
21일 14:05 낭만라디오
22일 17:05 무명을 밝히고
23일 07:05 아침저널
24일 22:05 마음으로 듣는 음악
25일 22:05 밤보다 아름다운 음악

Btn 불교TV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19일 11:20 틱낫한 스님의 38년만의 귀향
20일 15:50 텐진팔모 스님의 특별강연회
21일 17:30 선재 스님의 요리법회
22일 08:20 TV법회
23일 15:10 절로 가는 길
24일 21:10 산중대담
25일 11:20 혜거 스님 공생선원 법문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다시듣고 싶은 노래(9월 22일 20:05~21:00) 5060세대들의 입맛에 맞는 추억의 노래, 마음의 노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다시 들어 볼 수 있는 시간. 김병조의 정겨운 입담과 재치로 스트레스를 말끔히 씻어보는 시간. 잔잔한 노래와 선율은 지친 당신의 마음을 감싸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불교텔레비전**: 엄앵란 장미화의 행복충전(9월 24일 17:30~18:30) 연예계의 입담꾼으로 통하는 엄앵란 장미화가 말하는 세상사는 이야기. 불자 연예인 등 각계 인사를 스튜디오에 초청해 삶의 지혜는 물론 생활속 재밌는 해프닝도 소개한다.

게시판



치매노인 수발 자원봉사 진각치매단기보호소(사진)에서는 치매노인 식사 · 목욕보조를 담당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20세 이상 성인 남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모집기간은 9월 30일까지. (02)914-8556

실버취업박람회 희망업체 모집 서울노인종합복지관은 '하이 서울 2005 실버취업박람회' 개최에 맞춰 노인인력을 희망하는 사업자 등록 업체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9월 23일까지. (02)929-7950

청소년 방과 후 교실 공주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방과 후 교실을 개설하고 수화, 영화보기, 다도, 우리노래 배우기, 만화그리기, 목각공예, 서예반 등을 운영한다. (041)858-3900

대체의학 강좌 남원 실상사는 생명살림의 대안적 삶을 찾기 위한 대체의학 강좌를 9월 23일부터 3일간 실상사 내 지리산생명문화교육원에서 연다. (063)636-3776

토요 미술 공개강좌 국립현대미술관은 '대중문화와 현대미술사'란 주제를 가지고 '토요 미술 공개강좌' 무료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좌는 국립현대미술관 소강당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02)2188-6069

20면 상식 퍼즐 정답

동	문	수	학			
화			용	봉	탕	
사	공		품		평	
	영				채	반
	방					사
	송	이	버	섯		광
				등	고	선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스텐 물고기 풍경

스텐 물고기 풍경은 청동과 스텐인레스의 합금으로 만들어져 녹이 슬지 않고 구부러지지 않는다. 장인의 정교한 기술과 정성으로 풍경의 표면 또한 밝고 정교하게 제작돼 한층 고급스러운 이미지다.

특히 처마 밑이나 출입문에 풍경을 달아 두면 한층 더 고풍스런 멋을 연출해 볼 수 있으며 은은한 풍경소리도 감상할 수 있다. 문득 새벽닭 울음소리에 깨우침을 얻은 서산대사처럼 올 가을 풍경소리를 들으며 잠시 선정(禪定)에 들어 봄은 어떨까.

재질: 청동과 스테인레스, 크기: 지름 11cm × 17.5cm 가격: 소-10만원, 대-13만원, 특대-18만원

이영화 어때요?

아름답고도 슬픈 3대에 걸친 사랑이야기

종려나무 숲 감독: 유상욱 출연: 김민종, 김유미, 조은숙 상영시간: 110분 등급: 15세 이상



거제도의 아름다운 풍광과 세대를 아우르는 사랑의 성찰을 보여주는 영화 '종려나무 숲'.

이 영화는 유상욱 감독이 7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을 거제도에서 머물며 탄생시킨 보석 같은 시나리오(원제: 그 남자가 두고 온 섬)를 바탕으로 한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인서와 사랑에 빠지는 화연과 그녀의 어머니이자 과거 이야기의 주인공인 정애, 1인 2역을 맡은 김유미의 연기는 이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특강을 위해 강릉행 버스를 탄 인서는 뒤따라 올라오는 성주의 저돌적 행동에 당황한다. 사실 인서에게는 따로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던 것. 업무 차 조선소에 들렸던 인서는 그곳에서 첫눈에 화연에게 빠져들지만 화연은 도무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 종려나무가 산을 뒤덮고 있는 바닷가 집에서 할머니, 중풍에 걸린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조선소 직원 인서. 그러던 어느 날 힘들어하는 화연을 위로하던 인서는 할머니가 들려주지 않았던 세 여자에 관한 비밀을 듣게 되는데….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딸. 3대에 걸친 사랑의 아픈 추억도 대물림 되는 것일까? 거대하게 넘실대는 거제의 쪽빛 파도를 막을 수 없듯 아름다운 추억과 아픈 추억 모두를 지울 수 없는 당신이라면 영화를 보며 잠시 감정이입에 빠져봄은 어떨까?

노병철 기자

둘이 아닌 하나의 자리 (상)

조성란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가정법회·염불 정진 하며 마음 추스려
생활苦에도 보시 두배하며 열심히 공부
3년간 빚갚고 나니 남편에 '병마' 찾아와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기는 했지만, 1989년 전까지 불교는 내게 그저 부처님오신날이나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찾아가는 마음의 안식처일 뿐이었다.

그런데 89년 봄, 불교와 새롭게 인연을 맺게 되는 행운이 찾아왔다. 그해 봄에는 내 마음 속에 답답함과 왠지 모를 짜증이 가득 찼다. 주위의 환경이 특별히 변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마음속의 불만은 커져만 갔다. 그때는 내 마음상태가 왜 그런지도 모른 채 남편과 아이들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고 자꾸 화가 나서 스스로 불안해지기도 했다. 답답한 마음이 해결이 되지 않은 채 몇 달이 흐른 후 우연히 친구와 함께 어떤 법회에 참가했고, 그 인연으로 불교공부를 시작하게 됐다.

그렇게 공부를 시작해 처음엔 아주 치열하게 공부에 매진했다. 처음 3년 동안은 가정법회를 열었는데, 신도들의 집에 돌아가면서 법회를 열었다. 이때 배운 공부 방법은 경전을 읽고 마음 비우는 것이었는데, 그게 결국 내 마음을 놓치지 않고 들여다보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늘 염불 정진을 끊이지 않고 했다.

사실 불교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 세속적인 기준으로는 별 모자람 없이 어려운 것도 모르고 살았다. 남들이 볼 때는 전혀 어려울 게 없어 보이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집안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일어났다.

처음에 겪은 일은 아주버님의 사업체가 부도가 나 남편이 보증 서준 것과 본인 명의로 대출 받은 돈 등 수천만 원의 빚을 안게 된 것이다. 남편 월급이 차압을 당하네 마네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결국 월급 차압은 당하지 않았지만, 생활하면서 그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는다는 것이 무척 어려웠다.

그러면서 마음이 아주 궁핍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전까지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무얼 하나 사려고 해도 이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갈등하게 되니 마음이 쪼그라드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 다음 달부터 시작한 일이, 매달 절에 내던 보시금을 두 배로 올린 것이다. 내 궁핍한 마음을 닦으려고 한다면 내가 무언가를 크게 버려야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사실 돈을 낼 때는 '이 돈이 이 만큼 큰 돈인데 이걸 내고 무리 없이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들이 올라 왔지만 '내 마음 연습이다' 하고 마음을 다지면서 보시금을 냈다. 그러다 보니 낼 때는 굉장히 큰돈 같은데 그걸 떼서 내도 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됐다.

문득문득 "나는 알뜰하고 착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하고 속상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큰소리로 경을 읽고 마음을 들여다보길 반복했다. 독송을 하다 보니 이 일은 내가 갚아야 할 어떤 업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일로 홧병까지 나면 사람 잃고 병 얻는 것 밖에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3년을 지내고 나니 빚을 다 갚을 수 있었고, 오히려 마음 그릇은 더욱 커진 것 같이 아주 여유로운 마음이 됐다.

그 다음해에는 셋째 아주버님이 간암 판정을 받는 일을 겪었다. 셋째 아주버님 가족은 미국으로 이민을 간 상태였고 잠깐 귀국해 있는 동안 입원을 하게 돼 갈 곳이 마땅히 없는 상태였다. 문안 차 병원에 들렀다가 저희 집이 따뜻하니 와서 계서도 된다고 했더니 1주일 뒤에 짐을 싸서 내려 왔다.



그림 · 문병성

그래서 마지막 한 달을 모셨고, 그러다 우리 집에서 돌아가셨다. 직접 임종을 봐 드리고 장례를 모셔드렸다. 당시는 젊을 때라 힘도 세고 몸과 마음이 굉장히 건강한 편이라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잘했다. 때문에 당신에는 그렇게 힘든 일인 줄도 모르고 큰일을 치러낼 수 있었다.

몇 년 동안 빚을 갚고 셋째 아주버님이 돌아가시고 게다가 큰 아이가 대수술을 받는 일까지 겪으며 정신없이 세월이 흘렀다. 이제 힘든 일은 모두 끝난 것만 같았다.

그러던 93년 어느 봄날, 남편이 병원에 같이 가자면 낮에 집에 왔다. 처음엔 별 것 아닌 줄 알았는데, 밤에 더 많이 아프다고 해서 응급실로 갔다가 충남대학병원에 입원까지 했다. 그곳에서 남편은 셋째 아주버님과 마찬가지로 간암 판정을 받았다. 암이라고는 해도 겉으로는 환자 같아 보이지도 않았고 평상시에도 별로 아픈 적이 없는 사람이라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당시에는 남편이 그렇게 빨리 세상을 뜰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담당 의사가 수술도 잘 됐다고 하고 퇴원 후에도 건강하게 살았는데 1년 쯤 지나고 나니 얼굴색도 안 좋고 매사에 힘들어 보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에게는 부처님이 있다'는 생각이 있었다. 늘 공부할 때면 '이 불법(佛法)이면 금생 성불은 물론이고 그 공부로 인해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젊은 날의 치기였던 것도 같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지는 않았지만 나에게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더 흐르고 나자 의사가 부르더니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일렀다.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 울면서 법사님께 전화했다. 법사님께서는 "나만 믿어라, 내가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살려 주실거다"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 거다"라고만 말씀하셨다. 법사님께서는 "지금껏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서 그것도 몰랐느냐"고 하시면서 "상대방이 죽고 사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것을 공부거리 삼아서 공부를 해봐라"고 당부하셨다.

당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도 밖에 없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다. 마음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마음을 잘 모아서 기도했다. 그 기도 덕분인지 남편은 많이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입원한 지 3주만에 몸을 벗었다.

그렇게 한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 이제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공부의 본질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기도가 어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내 마음가짐을 달라지게 하는 것이었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제51회
3000배 용맹정진

500만 배 성만한 청견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절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일 만 번 염송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감사함의 행복과 건강을 일깨우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인 큰 업장 3가지는 몰록 녹아내리고, 3가지 큰 소원은 즉시 이뤄집니다.

21세기 인류 최고의 수행법이며 심신건강법이고, 가장 확실한 예방의학이며, 가장 완벽한 요가입니다.

- 날 짜 : 9월 24일(토) 저녁 9시 ~ 일요일 오전 7시 (절하는 법 교육: 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기도포(큰수건), 수건 2개(땀 닦을 용도), 두꺼운 면양말 2켤레, 면티 2매, 수련복(하의) 2매, 간단한 간식, 물병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 장 소 : 분당 이매역 하얀마음선원 대법당
- 찾아오시는 길
  ● 전철: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 (분당선: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복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 교육도량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 오시는 길: 5,7호선 군자 전철역 4번 출구. 백악관방향으로 100M 이망스 가구 4층

☎ 문의전화: 02)456-4994, 0035(팩스겸용), http://cafe.daum.net/sorisan

과일의 왕 **두리안**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번 두리안을 대량 수입하게돼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뜻으로 두리안 가격을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두개 6.5KG이상 55,000원
한박스 13KG이상 100,000원

Sale!

후식으로 보이산차 장미차 국화차 중 하나를 보내드립니다.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후레쉬 망고가 입고되었습니다.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나무 묘법 연화경

시대에 맞는 생활불교의 지평을 여는 신 종단으로서 종도(스님) 및 법사, 전국 각 지역 종무원을 모집합니다.

년령, 학력, 출가이력, 경력은 필요치 않습니다.

법사 및 행자는 년령과 남,여 관계없이 일정의 교육을 실시하여 수계함

묘법 연화경으로 각종 예불 및 의식을 무보시로 가르쳐 드립니다.

대한불교 묘법 연화종
총무원장 만오 연해광 합장

- 총무원 : 창원시 중앙동 70-9번지
- 문 의 : 055)263-4984, 018-432-4984

생활철학 강좌 학인 모집 (책임지도)

명리, 성명, 관상, 육효, 풍수지리

- 강 사 : 만오스님(현 창원 전문대학 강의중)
- 대 상 : 스님
- 모집인원 : 20명
- 보 시 : 50만원
- 접 수 : 9월 30일까지
- 강 의 : 10월 1일부터 – 10월 30일까지 (부족한 스님은 날짜와 관계없이 알때까지)
- 문 의 : 055)263-4984, 018-432-4984

정통 철학의 맥을 이어온 학문, 우주의 근본원리를 탐구하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알게되면 부처님의 12인연법은 물론 운명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스님은 신도들의 상담에 필수적인 것이고, 우주의 이치로 실로 정연하여 한치의 착오가 없는 만고 불변의 학문이요, 대도(大道)라 할 수 있다.
즉 철학은 재미로 보는 것이 아니다.

창원시 중앙동 70-9번지 성한빌딩 4층 묘법정사



선선~한 가을에 차한잔의 여유를

아름다운 차박물관 추천 '가을차'

본격적인 가을을 알리는 추분(秋分, 9월 23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여름철 이글거리던 태양도 언제 그랬냐는 듯 기세가 수그러들고, 아침저녁이면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맘때면 따뜻한 차 한 잔이 절로 생각나기 마련이다. 국산 녹차와 다양한 중국차, 퓨전차 등을 선보이며 도심 속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 인사동 아름다운 차박물관(관장 이승애)이 추천하는 차를 음미하며 가을 속으로 빠져보자.

▶말차 호박 밀크티

가을에 제 철 을 맞은 대표적인 옐로 푸드(yellow food) 단호박. 국산 단호박은 지금이 딱 제철이다.

호박에는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는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 성인병 예방에 좋으며 카로틴이 풍부해 저항력을 키워주고 비타민과 무기질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 준다. 섬유질과 비타민C가 풍부해 변비 예방과 피부미용에 효과가 있어 여성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은 채소이기도 하다.

말차 호박 밀크티는 단호박에 말차(抹茶, 가루차)를 더해 끓인 것으로, 차를 우려마실 때 섭취하기 힘든 찻잎 속의 비타민 A와 E, 섬유소를 함께 섭취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이다. 우선 단호박 1개를 삶아 으깬 후 우유와 잘 섞어 체에 한 번 걸러 준다. 거른 액체를 냄비에 담은 후 꿀과 말차를 넣고 조금 더 끓여 잔에 담아내면 된다.





섬유질, 비타민C 풍부 여성 피부미용에 효과

▶들깨차

자양강장제로 널리 알려진 들깨는 필수 지방산과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이 풍부해 예로부터 여름철 소진한 체력을 보충하거나 산후 조리에 많이 쓰였다.

특히 필수 지방산은 피를 맑게 해 혈관의 노화를 방지하고 성인병 예방과 천식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비타민 E · F도 풍부해 여성의 피부 미용과 감기 예방에 좋으며 흰머리카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일반적인 들깨차는 그늘에 말리거나 볶은 들깨를 가루로 빻아 꿀과 함께 타서 마시는 것인데, 아름다운 차박물관의 들깨차는 여기에 우유를 더했다. 들깨를 믹서기에 넣어 간 후 우유, 꿀을 넣고 중탕으로 끓이는 것이다. 해바라기씨 등을 함께 갈아 넣어도 좋을 듯.

들깨 가루 때문에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특징이며 한 끼 식사대용으로도 무난하다.

산후 조리에 많이 쓰이고 식사대용으로도 무난

▶국화차

가을 차의 대명사인 국화차. 중국의 약학서인 <본초강목>에는 '오랫동안 복용하면 혈기에 좋고 쉬 늙지 않는다. 감기와 두통, 현기증에 유효하다' 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국화차는 오랜 세월 약재로 사용돼 왔다. 특히 눈을 밝게 하고 머리를 좋게 하는 국화차는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직장인들과 집중력을 요하는 수험생들 사이에게 적합하다.

10~11월에 만개하는 노란색 감국(甘菊)은 항균, 해열효과가 뛰어나 피부질환 치료에 자주 쓰였으며 두피 염증을 해소하고 머릿결을 좋게 한다.

국화차는 흔히 연한 소금물에 데쳐 말린 국화를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시는데, 말린 국화꽃과 꿀을 버무려 3~4주 정도 밀봉해둔 후 끓는 물에 타서 마시는 것도 별미다. 이때 농약을 뿌려 키웠거나 길가에서 자라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국화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머리 맑게해 집중력 요하는 수험생에 좋아

▶철관음

차인들이 가을철에 즐겨 마시는 차 중의 하나가 철관음(鐵觀音)이다.

많은 발효차 중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철관음은 중국 복건(福建)성 안계(安溪)현 일대에서 생산되는 청차(青茶, 부분발효차)로, 한 청년이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도움으로 만들었다고 해 '철관음' 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향이 강하고 단맛이 진해 '칠포유여향(七泡有餘香, 일곱 번을 우려내도 향이 남아 있다)' 이라고도 한다. 최근에는 중국 안계철관음 외에도 대만의 목책철관음 등도 차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아름다운 차박물관 김은경 실장은 "가을에 접어들 무렵 중국에서 생산된 양질의 철관음이 많이 수입되고 있다"며 "향과 맛이 그윽해 가을에 즐기기 적합하다"고 말한다.

글=여수령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부분 발효차로 강한 향, 단맛이 특징

조선시대 ⑳



조선-유형원 박제가 박지원 등 차인 배출
중국-차 무역 활발, 일본-다가 宗家制 생겨

정조의 개혁운동이 추진되면서 새로운 학풍이 진작되어 역사의 진로를 모색했으니, 철학적인 이론보다 실제 생활과 직결된 일반 백성들의 생활문제가 화두로 등장하는 시기다. 반계 유형원, 초정 박제가, 연암 박지원 등의 저작들이 나와 새로운 문풍을 일으켰다. 특히 자하 신위(申緯)는 시(詩) 서(書) 화(畵)에 선(禪)과 차를 결부시켜 하나로 조화시킨 깊은 경지에 이르렀다. 18세기 후반부는 우리 차문화사에 있어 뚜렷하게 금을 그을 만큼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차인의 출현은 의의가 크다. 나라에서는 모든 의식에 한결같이 다례를 올렸고 개인의 차 생활도 여전했다. 제도나 형식은 간결해지고 문화는 크게 꽃피웠다.

중국도 차 무역에 힘을 기울였고 일본은 다가(茶家)에 종가제(宗家制)가 생겨서 오늘까지 계승되고 있다. 천리휴(千里休) 이후 천종단(千宗旦)에 이르는 삼대의 제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유파를 이루어 전승되어 왔다.

① 영조 41년 수작의궤에는 다모(茶母) 2인과 백대자완(百大磁椀), 백다식 홍다식이 기록되어 있다.

② 백파긍선(1767~1852): 거일의 법통을 잇고 백양산 운문암에서 개당해 선문(禪門) 중흥의 종주(宗主)가 된 차인으로 다계(茶偈)가 전한다.

③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에 중국 차 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④ <중보 삼림경제>에 다탕제품(茶湯諸品)을 쓰고 다른 데서 다관, 다종에 관해 썼다.

⑤ 신위(1769~1847): 조선 문인으로 일찍이 시서화(詩書畵) 삼절로 문재(文才)가 뛰어났다. 거기에 더해 선(禪)에 몰입해 깊은 경지에 이르렀다. 차를 즐겨 다수 100수를 넘게 남겼다.

⑥ 혜장(1772~1811): 대둔사 대강사로 차를 즐겨 다산과 교분을 맺고 그에게 차를 보냈다. 다산이 적지에서 위로를 받고 그를 위해 다시를 많이 남겼다.

⑦ 전다(煎茶)와 점다(點茶) 등의 용어와 기구를 여러 군데 설명했다.

⑧ 마단림의 <문헌통고(文獻通考)>를 참고로 했으며 다사(茶事)가 실려 있다.

⑨ 조학민이 찬술한 책으로 차에 관한 기록이 많은데, 특히 보이차(푸얼차)에 관해 자세하게 실려 있다.

⑩ 이조원이 쓴 책으로 몽산차(蒙山茶)와 선인장차(仙人掌茶)에 관해 썼다.

⑪ 양장거(1775~1849): 청대 문인으로 <귀전쇄기(歸田瑣記)>에서 무이산의 귀한 차 얘기를 싣고 있다.

⑫ 매다옹의 영향을 받은 문인으로 차를 취미삼아 마셨다.

⑬ 대전현상(大典顯常) 스님이 쓴 <다경> 해설서다.

⑭ 전능촌죽전(1777~1835): 문사이자 화가로 취미생활로 차를 즐겨 이름을 얻은 차인이다. 매다옹의 다풍을 계승했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 표는 약(about)

	한 국	중 국	일 본
조선시대	1765 수작의궤 ① 1767 백파긍선(白波亘璇)의 출생 ② 서유구의 출생 ③ @ 유중림 ④ 1769 반계수록 신위의 출생 ⑤ 1772 혜장(惠藏)의 출생 ⑥ 1773 유희 ⑦ 1774 수로왕에게 제사 @ <동국문헌비고> ⑧ 1778 <북학의> 1780 <열하일기>		
청대		1765 <본초강목습유(本草綱目拾遺)> ⑨ 1769 <정와잡기(井蛙雜記)> ⑩ 1773 보스턴 차선(茶船) 사건 1775 양장거(梁章鉅)의 출생 ⑪ @ 무이다가(武夷茶歌) @ 사고전서(四庫全書) 완성	
강호시대			1767 청목목미(青木木米) ⑫ @ 다가(茶家)의 종가제(宗家制, 이에모토) 시작 1774 <다경상설(茶經詳說)> ⑬ 1777 전능촌죽전(田能村竹田) ⑭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믿어야 공덕 있느니라!

제사를 지내는 까닭?

문 사람이 죽으면 살았을 때의 업식에 따라 차원과 갈 곳이 정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과의 도리를 믿는 불자로서 이미 갈 곳이 정해진 영혼에게 천도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도 인과법에 대한 역행이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같이 바쁜 시대에 너무 번잡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답 제사는 반드시 지내야 되겠죠. 그런데 음식을 많이 차려 놓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 된 도리를, 교훈과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거죠. 나는 그래서 재 지내는 신도님들더러 그렇게 음식을 하느라고 돈이 많이 드네 뭐 어쩌네 하고 찜찜거리고 '애들을 데리고 이걸 어떻게 차리나 뭐 어쩌나.' 이렇게 성가시게 마음을 쓰지 마라. 그것은 조상님들도 싫어하시니 웃는 낯으로, 좋은 마음으로 아주 편리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도재를 지내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부모님을 천도시키는데 부모가 전자에 살면서 그 의식과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갔기 때문에 세세생생에 끄달리는 거죠. 그런다면 그게 왜 끄달리느냐? 내 몸이 죽은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몸이 죽은 줄도 모르고 자기가 잘못해서 어떻게 됐다는 것도 모르고, 아주 캄캄합니다. 눈이 뜨이지도 못하고 귀가 뜨이질 못해서, 그 의식만 가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내 몸속에 있는 인과로부터, 수없이 천차만별로 나오는 거기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는 벌써 내 모습과 모든 것이 그전에 살아 있을 때처럼 있는 줄 알고 강을 못 건너갑니다. 예를 들어서 유(有)의 세계에서 무(無)의 세계로 건너가야 할 텐데 건너가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빠져 죽을까 봐, 체가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빠져 죽을까 봐 못 건너갑니다. 셋째, 불바퀴가 돌아가는데, 그 불바퀴 속을 넘어서야만 우리가 해방되는데, 그 불바퀴 속을 넘어서질 못하는 이유는 내 몸이 있는 줄 알고 타 버릴까 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이, 관습이 남아서 돌아가니까 강 주변에서 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언덕을 넘어서야 할 텐데 넘어서지 못하고 그냥 배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천 년이 가도 그만이요 만 년이 가도 그만이다 이겁니다. 한 생각이면 건너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거를 생시에 몰랐기 때문에 죽어서도 그렇게 모른단 얘깁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는 줄 알고 친척이나 아들이나 딸한테로 맴을 도는 거죠, 넘어가질 못하니까. 맴을 돌면서 자기는 산 것처럼 말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있는 소가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작용의 에너지가 광력을 이루듯이 그렇게만 된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모두 이렇게만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천도를 하게 되면 벌써 자기까지도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산 사람 영혼까지도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벌써, 자기가 천도를 하면 좀더 마음이 완화되고 자기가 지금 모든 걸 말기고 돌아가니까 조상들의 마음도 한마음으로 말기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돌아가게 되는 그 마음이 활짝 열리니까 영가들도 마음속에 들어가 본다, 안 들어가 본다가 없이 탁 거기에 안치가 되니까 전부 알겠거든요. 아니까 그때서야 편안한 감을 가지고, 거기서 굴려 나가서 천도가 돼도 거기서 미리 알고 나갔기 때문에 아예 그냥 무와 유의 세상을 잘 알고 천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스님들이 염불할 때도 영가들은 상에 차려 놓은 것만 압니다. 왜냐? 스님네들이 이것을 이렇게 사다가 차려 놨다 하는 것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영가들도 그것만 알고 갑니다. 그러나 천도를 시키는 스님이, 우주 전체를 섭렵하고 좋았을 건데, 왜 사람까지 진화를 해서 병도 들어야 되고 학교 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답 그것도 생각을 가만히 해 보세요. 바람이 있고 흙먼지가 있고 물이 있고, 이건 스스로 자생으로서 그냥 생긴 거죠. 자연의 원리이면서 자연의 이치예요. 그렇게 생겨서 우리가 모아지고 모아지고 하다 보니깐 원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생명체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이날까지 진화돼서 이렇게 인간으로 제일 나중에 됐다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제일 나중에 돼서 살아가면서, 또 살다 보니깐 진화도 되고, 살다 보니깐 물리도 터지고, 살다 보니깐 모든 게 터져서, 지금 보세요. 얼마나 의학이나 과학이나 많이 방대해졌는지.

그러나 우리가 최초에 내가 어디서 온 것인지를 모른다면 모두가 아주 귀한 과학자가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과학자가 아니죠. 남의 생명을 우습게 생각하고 남의 일을 모두 우습게 생각하고 깔보는 유가 많고 아상과 아만이 많아서 돌아보질 못해요. 지금 왜 스님은 이 말을 하시나 이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왜 사람으로 태어났느냐. 이것은 많은 고초를 겪어 온, 곤충으로부터 이렇게 인간까지 올라오면서 수만 년, 아니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세월을 이렇게 오면서 우리가 그 숫자가 없이 얼마나 많은 광년을 거쳐 왔나. 숫자가 없겠지만, 숫자가 지금도 없이 가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곤충이 너무 성하고 악이 너무 득이 많으면 그냥 멸하게 하거든요. 어떻게 돌아가든지 죽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인간이 이렇게 불리가 터지고 이 중세계를 벗어나게 되거든요. 중세계를 벗어난다 하는 건 아까 내가 얘기했죠. 우리가 곤충으로부터 살아온, 인간까지 된 거는 인간도, 즉 말하자면 곤충의 주머니예요, 이게. 곤충의 주머니. 그런데 득의 곤충의 주머니냐, 선의 곤충의 주머니냐 이것에 따라서 곤충의 주머니가 벗어지고 곤충의 주머니를 더 만들고 이러는 거죠. 만약에 그러한 문제가 없었다면 우린 이 산하대지가 전부 새카만, 그냥 뭐라고 그럴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게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또 불에서도 살고, 캄캄한 데도 살고 모두 사는 게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 또 생기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니까 이 공부를 어서어서 해서 벗어나는 데만 노력해라 이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정을 베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살면서 항상 그렇게 베풀면서 정신계의 자기를 꼭 붙잡고 물질계의 자기는 정신계의 자기를 믿고 오직 거기다 맡기고 길을 걸어라 이거죠. 어쩔 수 없잖아요, 이왕지사 태어났으니. 여러분이 태어났으니까 상대도 있고 종교도 있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도 있지 학생이 없다면 뭐가 있겠어요? 그래, 이유를 모두 대면, 이게 말을 하자면 그것이 얼마나 긴 말인지 몰라요. 사람이 왜 태어났느냐. 이 말을 하자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 다 하고 내일까지 해도 못 다 하고 모레까지 해도 못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왔든 인연이 있으니깐 나왔겠죠. 나왔으니깐 나부터 알아야지 내가 없는데 어떻게 상대가 있고 종교가 있느냔 얘기예요. 그러니깐 부처님께서 아주 사대 성인들께서 간략하게 '네 나무는 네 뿌리 믿어야 공덕이 있느니라.' 아주 간략하게, '딴 나무에서 네 나무에다 에너지를 보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네 뿌리에서만이 네 싹을 돕는다.' 이거 간략하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가 지금 절에서 공양 올린다 하는 것도 이게 전부 가르치는 도의 길입니다. 말은 그렇게하면서 그 뜻이 뭔지 몰라서 걱정이죠. 꽃공양 이러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벌어질 때에 꽃만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나무도 생기고 전부 생기고 난 뒤에 그것이 생겨 가지고 진화돼서 자꾸 자꾸 형성돼서 그게 진화됐으니깐 무척 오래 있다가 인간이 나온 거죠. 그 기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걸 벗어나려면 모두가 공해서 공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려야, 한마음으로서 공심으로서 공양을 올려야 공덕이 되지, 공심이 아니고 그냥 갖다가 삐쭉, 이거를 올릴 때는 딴 생각 없어요. 벌써 머리에 떠오르는 게 내 아들 내 남편, 무슨 일 이런 게 생기지, 그냥 꽃 공양을 올린다는 거는 생각지도 않아요. 그냥 갖다 놓으면서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 이게 적응이 됩니까. 이게 공덕으로 적응이 되느냐구요.

이 마음도 그래요. 벌써 쌀을 갖다 놓고 초를 켜고 그럴 때 촛불을 켜는 게, 내 마음의 불을 켜고 나면 내 몸이 타서 깎아지는 듯한 그 애처로운 마음으로서, 공심으로서 공양을 올려야, 부처님께서 공심인데 내가 공심이 아니면 어떻게 맞아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공심으로서 공양을 올릴 때에 촛불을 하나를 켜도 내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돼서 그 촛농이 떨어지는 대로 내 몸이 깎아진다는 것을, 그것을 다 놔 버리면서 그렇게 가는데, 그래서 공양이라고 하는 거죠. 발우공양도 공양이라고 그러죠?

왜 공양이라고 그랬느냐. 스님네들만 앉아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스님네들도 곤충의 바가지예요. 중생들의, 즉 말하자면 주머니들이에요. 주머니가 그 주머니 구녘 뚫린 데로 그것을 넣어요. 주머니 구녘 뚫린 데로 넣는다구요. 거기서들 제가 끔들 모두 먹습니다. 그러고 자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자라느냐. 사람 하는 행동 따라서 의식도 다 거기에 따라서 가거든요. 먹기 싫어도 '주는 대로 먹어!' 그러고선 넣어 준단 말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니까, 살아가니깐 살기 위해서라는 것도 없고 그냥 살았으니깐 살기 위해서 우린 먹는 거죠. 그런데 그게 주머니라는 걸 몰라요, 모두. 곤충의 주머니라는 걸 하나도 납득을 못해요. 그래 그 구녘 뚫린 데다가 넣어 주는데 어떻게 내가 먹는 겁니까? 이 주머니가 먹는 겁니까? 이 주머니 속의 곤충들이 먹는 거지. 그러게 악의 독이 있는 곤충의 주머니냐, 독이 없는 곤충의 주머니냐 여기에 따라서 또 많은 문제가 생기죠. 독이 있는 주머니에서는 독성이 생산이 되는 거고 독이 없는 주머니에서는 독성 있는 데 잡아먹히고 이러더라도 선의가 발생되는 거고 그런 거죠.

우리 인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인간이 아주 적었을 때는 어디 가면, 하다못해 까마귀들이나 벌들, 개미들, 박쥐 그런 것들도 사람만 만났다 하면 금새 와 하고 덤비면 금새 없어졌답니다. 그것도 그 박쥐는 박쥐대로 먹고서는 그래도 뼈다귀는 남기니까. 껍데기는 남기고 그러니깐 뭐 딴 것들이 먹고 이렇게 하지만, 개미라는 것은 뼈다귀 속에까지 들어가서 다 먹어치워요. 이게 곤충의 주머니예요. 이 곤충의 주머니에서 한번 벌어졌다 하면 정말, 그래서 요즘 내가 이렇게 말을 하죠. '정신계에서 정신을 뺏어먹고 사는 거니깐 정신을 뺏기지 않으려면 정신계의 내 주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거요. 정신을 뺏어먹고 정신을 뺏기고 이렇게, 육이 있는 거는 육을 뺏어먹고 죽이고 살지만 사람들은 정신을 뺏기고, 정신을 뺏기곤 그때서는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스러지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옛날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곤충의 주머니를 다 벗어 버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 생각 자체를 그대로 놓고 가야 한다. 그대로 남을 섭섭지 않게 해야 한다. 말을 항상 조심해서 해야 한다. 말, 똑같은 말이라도 말을 성을 내고 하면은 이쪽도 감촉이 좋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거 하면 곤충은 빨리 진화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이 빨리빨리 되려면, 그렇게 해야 둘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공부 하는 분들은 반 이상이 벌써 다 줄고 어떤 분들은 반이 줄고 어떤 분들은 삼분의 이가 줄고, 그냥 요만큼 남고 다 줄어 버리고 없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이것은 누가 일러 줘서 아는 게 아니라 벌써 통하거든요. 감촉으로 다, 다 통해요. 악성은 악성대로 통하고 선의면 선의대로 통하는데 악성은 악성대로 왜 선의로다가 이끄느냐. 독을 빼면 선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득성을 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면 독성이 다 없어지면서 99%가 부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에 이 중세계를 떠나게 된다 이런 거죠.

지금 질문한 학생처럼 왜 태어나게 돼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 얼마나, 지금 아주 학생들도 죽어나는 판국이죠. 세상이 이러니까 세상대로 따라가려니까 얼마나 고초가 많아요. 우리 살 때만 하더라도 펄쩍펄쩍 뛰고 편안하게 살았는데 말이에요. 비록 가난하긴 했지만 말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사람으로 치지 마시고 곤충의 주머니로 치시고 항상 '그 곤충 주머니나 곤충이나 들이 아니고, 우리도 이런데 모두 딴 사람들도 다 들이 아니겠지.' 하고 모두가 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때에, 바로 믿어지는 게 있어야만이, 믿어지는 그 방망이 하나면 온 우주를 때려잡고도 남음이 있어요. 이 방망이요! 주인공이라는 자기 뿌리인 불성 말이에요! 이거면 이 세상을 다 잡고도 남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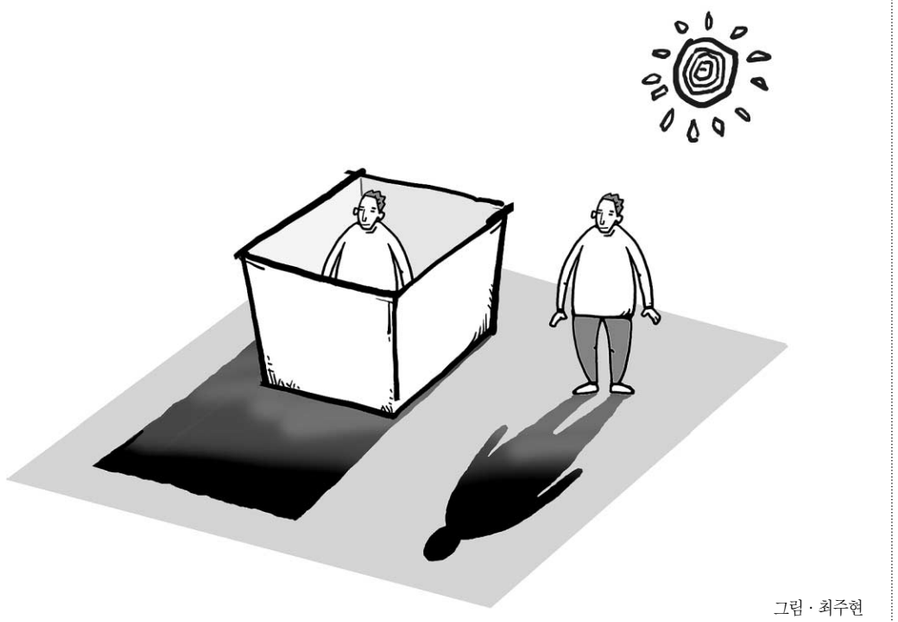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기는 정신계의 자기를 믿고 오직 거기다 맡기고 길을 걸어라

'왜 내가 말하는 거 듣지도 않고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느냐?' 이렇게 하면서 탓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먹을 것도 저희들만 먹고 나는 안 주는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부모가 자식을 해코지 한다 이런 게 없습니다. 부모 자식도, 사는 동안에 부모 자식이지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습니다. 왜냐. 죽으면 사대(四大)는 흩어지고 마음은 저 구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이 도리를 알아야 사대가 무너지면 훨훨 그냥 여여할 텐데, 살아서 여여해야 죽어도 여여한데 그렇지 못하고선 그냥 발버둥일 치고 분기가 나고 그냥 여기 붙어서 분기가 나게 하고 저기 붙어서 분기가 나게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조상입니다. 자기가 과거에 살던 조상, 그것이 바로 영원한 자기 생명의 근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근본은 불성을 말하지만, 영혼이라는 것은 자기가 살던 습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천도를 시키면 활짝 문을 열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게 있죠. 스님마다 다르다는 얘깁니다. 천지를 다 간파하고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다 간파해서 정말 콧구멍 없는 소가 작용을 할 수 있는, 또 콧구멍 타파하여 탁 열고 할 때는 전부 이 세상의 모둠이 떡을 하나로 먹고선 천도가 되니까 이 세상에 나올 때 모두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장관이 되든가, 마음으로서 수천수만을 거느리고서 회사를 경영을 한다든가, 또는 자기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든가, 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든가 하는 결과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상대성 원리의 작용이라는 것이 인연줄에 따라서 나쁘게 악으로 가느냐, 인연줄에 따라서 선으로 가느냐, 양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도시키는 스님네들도 이 도리를 알고, 지내는 사람도 이 도리를 알고 해야만이 삼천대천세계에 이르기까지 공덕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이지 그런 마음으로 천도를 하신다면 세상에 묵은 빚을 갚을 수 있고 햇빚을 쓸 수 있고, 너무나 자기를 밝게 볼 수 있고 밝게 뛸 수 있고 자유스럽게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공덕입니까!

왜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요.

문 올해 대학 시험을 치러야 하는 학생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미생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그대로 있었으면

곤충주머니를 다 벗어버리기 위해선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한다

☞30면으로 계속

자식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정신력을 길러줘야

☞29면에서 계속

아버지로서의 삶이 옳은지요?

문 스님, 제가 지금 나이가 52살입니다. 사실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자기 자신의 생활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애기 낳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나의 생활로 생각되는데, 저의 과거를 생각한다면 과거는 저의 부모로 생각되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게 현재로 생각될 것 같으면 저희 자식이 미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옳은지 안 옳은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식들의 즐거움이 저의 즐거움보다 더 좋은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것도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옳은 건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답 아, 그거야 사실이죠. 사람이 사는 데서, 아버지이니까요! 이 세상에 모든 회사의 중역으로 있는 사람은 중역이기 때문에 직원을 다스려야 한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죠? 또 댁도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기 전하고 아버지가 돼 가지고는 다릅니다.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더러운 것도 볼 수 있고 망나니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너그러움이 있는 거지, 만약에 장가들기 전에 다른 사람들 자식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본인이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자식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머니나 아버지가 돼서 자식들을 사랑하고 내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니라! 그러니 그 마음을, 개개인이 다 곤충에 이르기까지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엔 부처의 마음을 모두 갖춰 가지고 있느니라. 그러나 부처님의 마음은 찰나찰나 나투면서 아니 되시는 게 없기 때문에 하얀 물에다가 모두 비유를 하고 바다에다가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은 그저 내 자식, 내 재산, 요런 것만 아는 것을, 개별적인 어떠한 그릇에서만 얘기고, 부처님께서는 삼라대천세계의 모든 생명들을 다 내가 될 수가 있고 내가 행할 수가 있고 나로 나투면서 이끌어 주시는, 즉 말하자면 보현신, 관세음보살, 일체 보살이 다, 각각의 보살이 다 될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또 각계각층 중생들이 다 될 수가 있으니까 부처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책임을 다 하시라고 이러는 데서,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로 행으로, 또는 무엇을 살 돈을 잘 주거나 옷을 잘 입히거나 잘 먹이거나 이래서 그 사람이 제대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사랑을 하는 것은 정신력을 길러 주는 것이고 보배를 찾게 하는 것이 전 세계, 전 우주를 말겨 주는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물질적인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도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은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사랑이 없고 어떠한 문제가 있거든 그대로 부드럽게 행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하면서 거기다가 다 말기면 서로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남편이다 부인이다 하는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까지 불이 들어오게 돼 있다. 그래서 모든 망하게 하는 나쁜 습성을 고칠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또 자식도 몸을 잡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말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무조건 잘해 줘서 되는 것도 아니다. 단 하나 그 업식 모든 것을 녹여 주면 스스로 밝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인공에 둘 아니게, 너와 나와 둘이 아닌데 거기서만 부드럽게 행하고, 아주 정말 보배스런 인간으로서 자유인이 되게끔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풍족한 사람이 되고, 모 안 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자비하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거기에서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부처를 만들고
스스로 보배를 만들고
스스로 자유인을 만든다!

그래서 뿌리를 싱싱하게 키워 주고 보배를 찾게 해 주는 것이 원칙이죠. 그건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연방 해 보세요. 나가서 뭐 어떻게 하고 그러더라도 절대로 욕하고 때리고, 또 부부지간도 그렇고 다 그래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속에 들은 업보가 바로 그러는 거니까, 의식들이 그러는 거니까, '주인공! 그 뿌리는 나하고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인공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다.' 즉 말하자면 뿌리만이 싹을 푸르게 살게 할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러니 그렇게 해 주고 겉으로는 부드럽게, 진짜로요. 진짜 진실로서 그렇게 해 주고 한다면 정말 고(苦)의 테두리에서 몰락 벗어날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착한 자식이 되고 화목을 가져오고 질서를 문란치 않게 할 수 있고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안 자면서 공부하려면…

문 부처님의 참다운 가르침을 체득하고자 하는 마음은 가득하나 세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은 낮에는 직업전선에 나가야 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 자꾸 잠이 와서 안되고 또 친구들하고 술 한 잔 먹다 보면 잠이 더 오고 그러는데, 잠을 좀 안 자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답 술을 먹으면 정신이 흐려지니까 생각이 올팡갈팡 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에서 술을 먹지 마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그렇게 많이 먹어서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약주로만 드시지 술로 잡숫진 마세요. 부부지간이나 부모자식지간이나 모든 걸 거기다가 '둘 아닌데' 하고 말겨 놓을 수 있고,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세우신다면 바로 이심전심으로 통한단 말입니다.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정말입니다.

어떤 집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아주 앙숙이랍니다. 아예 보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도리에서 '어휴! 아버지 마음도 내 마음과 둘이 아닌데, 내 뿌리하고 아버지 뿌리하고 둘이 아닌데 그저 아버지가 사랑을 베풀게 당신만이 할 수 있다.' 하고 항상 그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딱 껴안고 '이제는 너하고 나하고 둘이 이렇게 살자'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무슨 일을 하는 아들이 그냥 망해 가지고 아주 들어앉아 있는 사람인데 "인제 너도 살아야지." 하고 반을 뚝 떼어서 주더랍니다.

어때요? 이렇게 모두 자비를 베풀게끔 스스로 이렇게 돼야겠죠? 스스로 부처를 만드는 거고, 스스로 보배를 만드는 것이고, 스스로 자유인을 만드는 거지, 어떻게 그냥 입으로 말을 해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것 보세요. 막 그냥 말을 악착같이 하면요, '어휴! 내 저 사람만 만나면 지겨워.' 그러니까 달아나가요. 달아나가게 돼 있다구요. 부부지간이고 부모자식지간이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좋다 좋다 해야 그저 따뜻한 데로 고이죠. 추울 때는 따뜻한 데로 고이고 더운 때는 시원한 데로 고이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불편스럽게 사시지 마시고 편안하고 즐겁게 사세요. 마음이 답답하게 나오거든 '답답하게 하는 것도 너니까 답답지 않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다시 바꿔서 대치해서 즐겁게 사세요. 즐겁지 못하면요, 마음이 즐겁지 못하면 얼굴 빛깔까지도 밝지 못하게 살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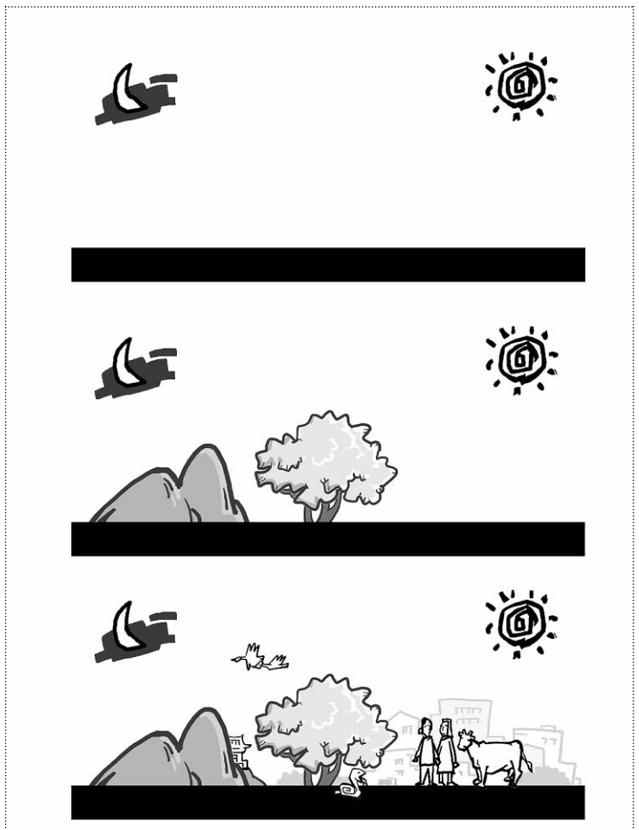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기치유사 수련생 모집

• 개강일자 : 2개월과정(8일완성)
10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4:30
• 수 련 비 : 80만원(2회분납가능)

참고 서적 기치유와 기공수련/기치유학(윤한흥 지음)

수련지도 : 윤한흥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주)명상신문 논설위원

윤·기치유 명상 수련원

기치유는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더라도 쉽게 배울 수 있으며 상기병, 삼차신경통, 간경화, 통풍, 암, 류마티스, 당뇨등 난치, 불치병 외에도 수술 직후의 빠른 회복이나 유아, 애완 동물에도 광범위하게 활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특강
• 개강일자 : 11일(화요일)
주 2회씩 4주 과정(총8회)
낮 반 : 화,수요일 오후 3시~5시
저녁반 : 화,목요일 오후 7시~9시
• 수 련 비 : 30만원
• 강 사 : 윤파로 마인드 컨트롤 32년 경력

문의 www.gichiu.com 02-3482-5032
후원 한국기치유연구회 / (주)명상신문 Energy Healing Center

제4기 불교의식
범음 범패 학인모집



본대학에서는 아래와 같이 불교의식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뜻 있으신 분은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과 정

기초과정(6개월)	도량석, 종성, 조석예불, 사시불공, 상용영반, 요령, 목탁타법
전문과정 (1년)	삼신이운, 각단권공, 사다라니, 대령관욕, 49재, 천도재, 시식, 사물타법, 요잡, 제반의식

2. 모집대상 : 스님 및 불교의식에 뜻이 있는 재가불자
3. 강의일시 : 매주 월-토요일 중 택일 오후 2시부터(주1회 4시간 교육)
4. 제출서류 : 본원 소정양식 수강원서 / 사진 2매
5. 교 수 : 대원스님 (부산 무형문화재 제9호, 사단법인 부산 영산재 보존회 범음 범패 부문 조교)

부산 동래구 명장동 산 54-1 (금불사 부설)
051)522-1948, 051)523-1948, 011-597-8077
영남 범음 범패 교육대학

진각스님 철학교실 수강생 모집



어려울때는 철학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한문을 모르셔도 괜찮고 기초를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쉽게 속성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1. 과목 : 사주, 작명, 궁합, 택일 2. 교육과정 : 기초부터 5개월
3. 모집요강 : 스님, 일반 男·女 4. 교육기간 : 주4회, 1일 1시간씩

부산 연제구 연산 2동 1594-10
卍大韓佛教 부산 송광정사 부설
진각스님 명리 철학 교육대학
부산지하철 시청역 6번출구에 있는 골목 안쪽 50m에 있습니다.
전화 051-867-8438 / 팩스 867-7438

韓·中 秘方針法

● 음양원리 침법 : 우리 인체의 365혈을 단 7혈만 응용하는데 어느 부위가 어떻게 아프던지 침 1-3개만 꽂으면 1분 이내로 효과를 볼 수 있고 간단한 공식이 있기 때문에 5시간만 강습을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신비한 가정 의학이다.
● 사상체질 침법 : 사상체질을 정확히 감정하는 법과 체질에 맞는 음식 궁합과 한약재를 처방하고 간단한 체질공식 침법으로 만병을 고친다.
● 평형 침법 : 중국 인민 장교들에게만 비밀리에 전수 되어온 1침법으로 사병들을 치료하였던 것을 왕문원교수에 의해 세상에 밝혀진 침법.
● 성뇌 개규침법 : 중국 청률 중의대 석학민 교수가 일본 침술 세마나에서 중풍환자 치료시법에서 환자의 마비된 팔과 다리가 즉석에서 펴지는데... 관중의 기립박수를 받은 비법.

황제내경 맥진법과 복진법으로 인체에 모든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는 이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불어 사암도인 침법을 1시간의 강의로 원리를 통달 할 수 있게 강의하여 드림)

■ 강의시간 : 9월 28일 ~ 10월 1일 오후 5시부터 (4일간)
■ 숙식제공 4일간 실무교육 : 보시금 2백만원 (예약전화 외 사절 / 선착순 10명, 예약 선입금)
농협 457109-52-098389 홍점순
■ 찾아 오시는 길 : 공주시에서 청양가는길 13km 오셔서 공수원 4거리 하차(신풍면 쪽) 900m 좌측, 대나무 있는 곳

충남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686번지 천제 불국사 의성 합장
041)855-7114, 016-552-2159

간(肝)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감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땀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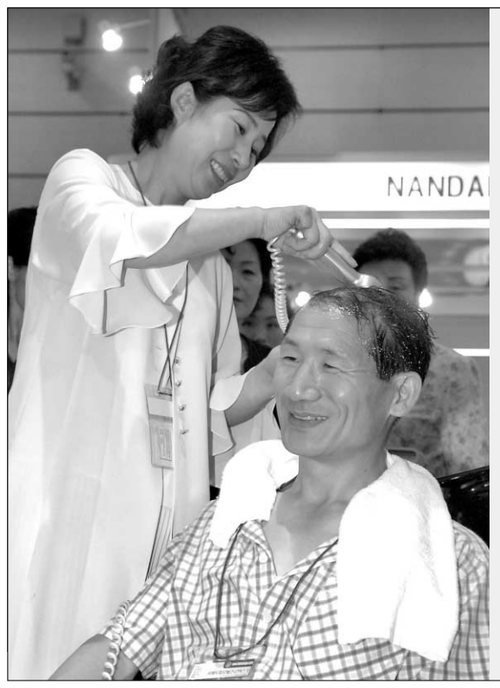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두발 이렇게 보호하세요

2030세대도 이제 탈모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중년 남성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탈모가 스트레스, 잦은 파마와 염색 등으로 인해 젊은층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 대한두피모발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모발손상과 탈모로 고민하는 잠재인구는 약 1천만 명 정도. 최근 열린 '2005 국제두피모발 건강엑스포'를 통해 두피 · 모발 · 탈모의 원인과 치료법을 알아봤다.

윤기가 자르르… 10년은 젊어 보이네



탈모 자가 진단법

- □ 가족 중 모발이 약하거나 숱이 적거나 탈모인 사람이 있다
- □ 갑자기 얼굴에 열이 오를 때가 많다
- □ 두피에 기름기가 많고 뾰루지가 많이 생긴다
- □ 끈끈한 비듬이 많이 생긴다
- □ 머리에 땀이 많이 나고 하루만 안 감아도 기름이 지고 냄새가 심하다
- □ 자주 머리가 가렵고 비듬이 많다
- □ 걱정과 스트레스로 불면증이 있다
- □ 모발이 가늘어 지고 머리카락이 잘 빠진다
- □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다
- □ 평소 젤, 왁스 등의 헤어제품을 많이 사용한다
- □ 짜거나 매운 음식을 즐기는 편이다
- □ 술 담배를 자주 한다
- □ 염색과 파마를 자주 한다
- □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뽑았을 때 10가닥 이상이 뽑힌다

*1~3개:안심 *4~5개: 조심 *6~8개:탈모 의심
*9~11개:탈모 진행 중 *12~14개: 탈모(병원치료 요망)

■샴푸만 잘해도 두발 건강해져요=모발건강을 지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손상모발용 샴푸나 허브, 파슬리, 주니퍼 베리 등의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두피를 청결하게 해주고 모세혈관과 림프선을 자극해 모근을 강화시켜 윤기 있는 모발과 건강한 두피를 유지시켜준다. 샴푸하기 전 3분 정도 빗질을 하면 먼지가 쉽게 제거될 뿐더러 두피를 자극해 모근을 튼튼하게 한다. 샴푸로 거품을 낼 땐 손가락의 지문 부위를 이용해 마사지해 주고, 1분 이상 골고루 헹궈내야 한다. 트리트먼트 샴푸는 1주일에 2~3회 정도가 적당하다.

여행지나 장시간 야외활동을 하기 전날 밤에는 반드시 머리를 감고 트리트먼트 제품으로 마사지해주는 것도 두피 · 두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다. 샴푸 후엔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헤어드라이어를 쓰면 머리카락이 쉽게 손상되기 때문이다. 수건으로 비비며 말리는 것보다 두드리는 것이 좋다.

■두피 · 두발 건강 어떻게 지키나=오이를 잘게 잘라 5분 정도 머리에 문지른다. 이것이 끝나면 브러쉬 등으로 가볍게 두피를 톡톡 자극해 준다. 이를 반복하면 두피의 모공을 열어줘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된다. 이어 약간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충분히 감아 두피와 모발의 피지와 각질이 일어나도록 한 후 샴푸로 피지와 각질을 제거하면 비듬 예방은 물론 머릿결 갈라짐 증상에 효과가 있다.

샴푸 한 후엔 반드시 말린 후 잠자리에 든다. 두피에는 모낭충 외에도 많은 균들이 있는데 이런 균들은 밤에 왕성하게 활동하며 두피가 습하면 번식력이 더욱 강해지기 때문이다. 보통 트리트먼트 제품을 린스처럼 바로 헹궈내는 경우가 많은데 팩을 하면 더 효과적이다. 헤어트리트먼트를 모발 끝 쪽에 골고루 발라 랩으로 감싼 후 그 위에 뜨거운 타월을 15~20분 정도 둘러 감싼다. 그 뒤 따뜻한 물로 헹구면 된다.

샴푸전 빗질로 두피 자극, 마사지하듯 거품 내
계란 노른자, 당근 등으로 머리팩…건강 유지

건성형 두피 타입은 계란 노른자 또는 꿀에 녹차 가루를 섞거나 계란 노른자와 식용유를 1:1로 섞어 모발과 두피에 골고루 바른 다음 랩을 씌운 후 10분 후 헹궈 낸다.

지성형 두피 타입은 당근 두개를 믹서에 갈아 죽 같은 상태로 만든 뒤 젖은 머리나 건조한 머리에 바른다. 10~20분 동안 골고루 마사지한 후 씻어낸다.

중성형 두피 타입은 바나나를 갈아 올리브 오일과 잘 섞은 후 모발 전체에 펴 바른다. 역시 뜨거운 타월로 전체를 감싼 후 헹궈낸다.

■탈모 예방과 치료법=2005 두피모발 건강엑스포를 찾은 박상훈(55)씨. 그는 "자고 일어나면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 대머리 직전에 있다"며 "이번 엑스포에서 탈모에 관한 많은 예방 · 치료법을 알아보기 위해 행사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번 엑스포에 참가한 황성주 털털피부과 원장은 "콩, 참쌀, 우유, 생선, 다시마, 미역 등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도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이와 함께 약물샴푸와 두피 레이저, 두피 마사지, 두피 스케일링으로 이루어진 두피 전문 치료를 병행하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올바른 빗질로도 탈모를 예방할 수 있다. 이황희 대한두피모발학회장은 "돈모(돼지털)로 만든 빗으로 하루 200번 이상 빗질하면 탈모가 진행 중인 사람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고 말한다.

빗질을 할 때는 머릿결을 따라 빗고 가볍게 힘을 주어 두피를 자극하고 플라스틱 빗보다 나무로 만든 빗이나 음이온이 발생하는 빗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탈모의 주요 원인은 유전적인 요소와 남성 호르몬이다. 부모 한 쪽만 탈모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탈모 확률은 50% 이상이다.

또한 여성의 부신에서도 남성 호르몬이 소량 분비되기 때문에 여성에게도 탈모가 나타난다.

그밖에도 스트레스, 파마, 염색, 다이어트, 수면부족 등을 탈모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데, 이것은 2차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글=노병철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도움말=이황희 대한두피모발학회장, 황성주 털털피부과 원장



병자는 마음 평온이 가장 중요

심장질환은 어떤 형이냐에 따라 그 치료법도 달라진다. 티베트의학에는 여러 약초를 재료로 한 처방약들이 많다. 심장병은 우리 몸에서 보내온 하나의 경고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병자는 평상으로 돌아와 평안을 되찾아야 한다.

이제 인생의 절반이 훌쩍 지나버린 반환점에 들어선 것이다. 절반도 채 남지 않는 나머지 반토막 여생을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목을 매고 안달복달 야단들인가!

심장병에는 가벼운 명상이나 요가가 제격이다. 규칙적으로 걷기와 수영 같은 간단한 운동을 하여도 좋다.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분명 차도가 있을 것이다. 소금에 절인 음식과 고지방 식품을 피하고 술과 담배도 멀리해야 한다.

감기와 심장병 못지않게 우리 사회에 흔한 병의 하나는 관절염이다. 관절염의 원인은 시고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식습관에 있다. 그런 음식은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영양소의 정수(精髓)가 피로 변하지 않고 대신 혈장액(血漿液)으로 바뀌어 버린다.

이 혈장액이 우리 몸의 뼈마디로 퍼져 근(筋)골(骨) 신경(神經) 건(腱) 인대(靭帶)를 침범한다. 습하고 차가운 기후도 관절염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 날씨가 습하고 추워지면 뼈마디가 더 뻑뻑해지고 통증은 더 심해진다.

티베트의서에 관절염은 여섯 유형이 있다. 그 증상으로는 모든 관절염에 공통적인 일반 증상이 있고 또 유형마다 각기 다른 특이 증상이 있다. 일반 증상으로는 마치 몸에 열이 있는 듯 오싹오싹 오한이 드는 느낌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근육통이 시작되며 피부가 과민해지고 얼굴에 개기름이 끼며 무력감에 빠지고 곧잘 땀을 자주 흘리게 된다. 그리고서는 모든 뼈마디가 뻑뻑해지고 통증이 따른다.

관절염의 특이 증상으로는 먼저 근(筋)관련 관절염은 티빠 및 베껜과 관련이 있으며 뼈마디가 심하게 부어오르고 검게 변하며 사지가 저리고 심장과 폐의 기능까지도 해칠 수 있다. 심할 경우 비출혈(鼻出血:코피)과 생살을 바르는 듯한 격심한 통증에 시달릴 수 있다.

골(骨)관련 관절염의 특이 증상은 풍병과 관련이 있다. 뼛속까지 저미는 참을 수 없는 아픔목이 타는 갈증 그리고 제대로 먹을 것 다 먹어도 체중이 늘지 않는 증상들이 나타난다.

성미가 급해지며 시끄러운 소리를 싫어하고 건드리면 부서질까봐 만지는 것을 질색으로 무서워한다. 이 관절염은 착용하는 의복과 그 해진 자리 즉 노출 부위와 관련이 깊고 서양의학으로 치면 골관절염과 골다공증에 해당한다.

신경관련 관절염의 특이 증상은 혈액 장애와 관련이 있다. 안색이 몹시 창백해지고 폐와 심장을 해치게 된다. 엉덩이뼈(좌골)의 통증이 심하고 뼈마디 주변 혈관들이 붓고 아프다.

건(腱)과 인대(靭帶)관련 관절염의 증상은 관절염이 매우 오래되어 뼈와 뼈마디가 뒤틀리면서 나타나게 된다. 뼈마디가 뻣뻣하게 굳고 오므라들어 일상 활동에도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하다.

저온 관절염은 룽 및 베껜과 관련이 있다. 염증과 통증이 비교적 가벼운 경도 관절염이다.

검정관절염은 티빠 및 혈장애와 관련이 있다. 티빠 및 혈액장애는 모두 본성이 뜨거운 성질이다. 뼈마디가 붓고 통증이 오는데 현대의학으로 치면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되겠다.

관절염을 치료하려면 먼저 식습관과 생활양식부터 바꿔야 한다. 레몬 라임 포도 오렌지 파인애플 양딸기 까치밥나무열매 검은딸기 까막까치밥나무열매 서양자두와 같이 신맛이 나는 열매와 토마토 감자 대황(장군풀)같은 채소류 그리고 소화하기 어려운 치즈 같은 식품들은 피해야 한다. 짜고 기름기가 많은 음식도 삼가야 한다. 관절염 환자들에게는 그런 음식들이 모두 독과 같이 해가 될 수 있다.

관절염에 가장 좋은 생활습관은 아무래도 습한 곳을 피하고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다. 룽 및 베껜장애 관련 관절염은 사시사철 몸 특히 발과 무릎을 따뜻하게 하고 더운 물로 목욕을 하며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혈액 및 티빠장애 관련 관절염은 햇볕에 오래 있지 말고 너무 뜨거운 곳을 피하고 낮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가벼운 명상 규칙적 운동 심장병에 도움
관절염은 습한 곳 추위 노출 조심해야

■아주대교수 · 한국티베트의학원장

광고

당뇨, 한방으로 잡는다

– 합병증 예방 치료에 효과적 – 초기에 치료하면 대부분 호전



혈당을 효과적으로 잡아주면서 합병증을 예방, 치료해주는 당뇨 한방치료제가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발병한지 3년이내의 초기 당뇨병은 치료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로 인한 각종 합병증에도 좋은 결과를 보였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미래한의원(원장 최선미 (02)512-2075)은 당뇨에 따른 각종 합병증을 예방, 치료해주는 당뇨 한방치료제 제당탕과 제당환(除糖丸)을 환자들에게 투여한 결과 만족할 만한 치료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최선미 원장은 "제당환을 3개월 이상 복용한 환자 9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5%에게서 혈당 정상화와 함께 피곤감, 시력저하, 혈압상승, 성욕감퇴, 손발 저림 등의 합병증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며 "특히 발병한지 3년이내의 환자들에게서는 더 이상 치료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호전된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제당환'을 3개월 이상 복용한 환자 가운데 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95%(83명)가 1개월 이내에 혈당이 현저하게 떨어져 정상혈당을 유지하고, 손발저림, 혈액순환장애, 피곤감, 시력저하 등의 합병증이 사라지거나 감소하는 치료효과를 보였다. 특히 이중에서 발병한지 3년미만의 초기 환자 20명은 혈당이 정상화되고 합병증세가 사라지는 등 더이상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상태가 좋아졌다.

최원장은 "당뇨 환자 대부분이 해당근, 백강잠, 영지 등의 20여가지 한약재로 만든 한약인 제당환을 복용한지 3일뒤부터 혈당이 잡히기 시작, 늦어도 15일 이내에 혈당이 눈에 띄게 떨어져 정상혈당을 찾아 일상 생활에 거의 불편을 느끼지 않을 만큼 호전됐다"며 "특히 초기, 중기 환자들은 일주일만에 정상 혈당을 되찾는 등 증상의 회복속도가 무척 빨랐다"고 설명했다.

최원장은 "합병증 치료에도 좋은 효과를 보여 10년 이상된 당뇨 환자 역시 한달 이내에 혈당이 정상화되고 합병증 증상이 사라지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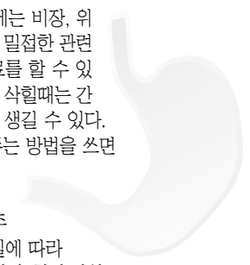
한방에서는 인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수분 성분인 진액을 보충해주고 탁해진 피를 맑게 하며 열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당뇨를 치료한다.

최원장은 "한방 당뇨치료법의 가장 큰 특징은 별다른 부작용 없이 혈당을 안정시켜주면서 증세를 없애주고, 궁극적으로는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인체 스스로 인슐린 분비를 하도록 도와 준다는 점"이라며 "발견 즉시 또는 3년이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누릴수 있다"고 설명했다.

www.storydang.com

급만성 위장질환, 한방으로 다스린다

– 부분 1~3개월만에 증상 개선 효과
– 위장, 대장의 염증 없애주고 뭉친 기운 고르게 펴는 작용



소화불량, 위궤양, 과민성대장증후군 등 급,만성 위장질환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한방 치료법이 선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대부분 스트레스가 원인인 이 위장질환들은 체질과 증상에 따른 한방 치료법으로 1~3개월 만에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서울 진선미 한의원((02)2273-8694) 신기돈 원장은 "스트레스로 인한 과민성대장증상이나 소화불량, 위궤양 등 급,만성 위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약재로 만든 한방환을 복용케 한 결과 대부분 1개월 내에 증상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치료효과를 보였다"며 "스트레스로 인해 긴장해 있는 위장이나 대장에 작용하여 염증을 없애주고 기(氣)를 고르게 하여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작용으로 위장질환을 치료한다"고 말했다.

이 한약은 창출, 후박, 진피, 곽향, 사인, 산사육, 백작약, 등 20여가지 약재를 체질과 증상에 따라 가감해 사용하는데, 만성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십이지장염, 복부팽만, 만성변비등 기타 위장, 대장질환에도 좋은 효과를 보인다.

신원장은 "현대인들의 위장질환은 대부분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음주, 불규칙한 식사 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염증을 없애주고 위장이나 대장의 뭉친 기운을 고르게 하는 한약재를 쓰면 위장질환의 증상을 빠르게 개선시켜 준다."고 설명했다.

위장관계질환은 한방으로 수월하게 치료되는 분야 중의 하나이다. 실제로 30-40%의 위장질환 환자들은 증상은 있으나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할 때 흔히 신경성이라고 치부해 버리기도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소화에는 비장, 위장뿐만 아니라 간장, 심장, 신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속으로 삭힐때는 간의 기가 울결되어 소화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럴 때는 간의 울결된 기를 풀어주는 방법을 쓰면 좋다. 이런 방법 외에 위장내 적체된 비소화물을 내려주거나 위장 기능을 강화시키고, 신음을 보충해 주는 방법을 응용해 볼 수 있다. 체질에 따라 자신에 맞는 섭생과 식이요법을 하면서, 침과 탕약 치료를 병행하면 사람과 증상에 따라 틀리지만 대략 1~ 3개월이면 치료가 가능하다.

본래 사람은 각자의 체질에 맞는 음식들이 따로 정해져 있다. 몸이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인체는 자신과 맞지 않는 음식이 들어오면, 설사나 구토를 통해 이를 빨리 몸 밖으로 내보 낼 수 있다. 그러나 음식을 제대로 가려주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보면 몸은 지치게 되고,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물이 그대로 적체되어 여러 질병을 야기하게 된다. 그러므로 위장관계 질환이 치료를 위해서는 체질에 따른 식이조절이 필요하다.

위장대장 질환을 올바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술은 절대 금물이며 담배 커피 등은 끊는 것이 좋다. 또한 여유롭고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자극적인 음식이나 불규칙적인 생활습관을 바로 잡아야 된다.

圓 大韓佛敎曹溪宗 總務院長 仁谷堂 法長大宗師 宗團葬 寂

證　　明 : 법전

顧　　問 : 도견 범룡 성수 종산 지혜 보성 도원 도천 지종 활안 녹원 원명 이두 정천 천운 동춘 지관 원담 진제 초우 혜정

指導委員 : 지유 고산 월주 능가 송담 월운 정무 법정 도문 밀운 법흥 철웅 봉주 종하 설정 흥교 현호 오현 현해 혜성 성우 능혜 천제 무비 세민 종범 인환 암도 성타 정련 근일 명성 광우 묘엄 진관 상륜 선진규 백창기 이용희 김종서 박윤흔 조홍식 허경만 고 은 주영운 민병천

護　　喪 : 법등

葬儀委員長 : 현고

葬儀副委員長 : 월서 청화 도영 정락

葬儀委員

- 현성 지안 혜총 혜인 무공 무문 정태 정찬 성주 법산 성오 혜자 종걸 벽봉 현봉 도법 수경 지선 원혜 법산 현각 보광 도업 법혜 성본 종호 보각 무관 태연 보정 여연 미산 지원 성정 진원 종수 동진 청학 정산 법선 마근 지명 자광 명섭 도형 법현 성운 고우 무여 적명 인각 현기 명정 현산 함주 정광 원융 현묵 혜국 지환 의정 명진 영진 법웅 종진 성우 철우 지현 혜능 혜남 덕민 통광 우진 종묵 현진 선행 철운 지운 상오 법장 정념 도공 진각 성웅 지성 법타 종상 원정 대성 현문 혜승 평상 명공 종삼 영조 몽산 용주 범여 철안 일면 지만 동광 효림 성직 성월 정휴 도후 도완 정광 진구 장곡 원경 선광 정묵 법보 혜승 법광 장적 무이 종광 향적 선각 종본 정인 이암 원정 상운 지준 도문 설송 법조 원행 일화 현공 의연 진만 일문 무자 보경 보선 월우 중원 광조 법경 보원 혜림 초격 지욱 정문 종열 학담 종훈 지하 지홍 정호 도각 정안 영담 덕문 영배 토진 장윤 성관 자승 정도 수현 본각 도문 운달 흥륜 계호 경륜 정성 강혜원 서혜원 법현 우송 법찬 법안 법광 지운 법룡 동덕 성산 혜해 정화 소림 자인 월송 정진 태구 지명 상덕 성원 태경 현문 법용 불필 혜근 일초 지형 상덕 묘순 명우 지원 재운 자민 일법 명수 광옥 승혜(무순)
- 홍기삼 김병준 윤원호 이상배 이성언 홍승희 김규범 윤천수 김대욱 박광서 이춘호 안동일 김동건 최해조 이석현 문명진 김화남 이연숙 여익구 한이우 조동룡 홍옥진 이송자 김한식 정인악 윤청광 박준영 김진선 정대근 오영교 추병직 이재용 변양균 임동규 최용수 심기섭 황우석 신 명 김중양 김희옥 고광진 남지심 성태용 임완숙 김용표 김재일 오희창 이선희 김인숙 양성홍 송석구 김종규 구자선 김진관 정창현 백영기 김익석 곽결호 성윤갑 성기태 조용길 황창규 이재창 류주형 김광삼 문원경 임창선(무순)
- 총무원 · 교육원 · 포교원 종무원 일동, 법계위원 일동, 계단위원 일동, 고시위원 일동, 초심 · 재심 호계위원 일동, 법규위원 일동, 중앙 · 교구선거관리위원 일동, 소청심사위원 일동, 종립학교관리위원 일동, 교육위원 일동, 교재편찬위원 일동, 역경위원 일동, 행자교육운영위원 일동, 경승 일동, 전국 향승 일동, 수덕사 본말사 주지일동, 전국 비구니회 일동, 중앙승가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 일동,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 일동, 동국대 석림회 일동, 동국대 석림동문회 일동, 전국 각 승가대학 강주 · 강사 및 학인 일동, 조계종 포교사단 일동, 전국 각 종립학교 교직원 및 학생 일동, 군법사 일동, 중앙신도회 회원 일동, 교수불자연합회 회원 일동, 교사불자연합회 회원 일동, 대한불교청년회 회원 일동,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원 일동, 불자교정인연합회 회원 일동, 대불련총동문회 회원 일동,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 회원 일동,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회원 일동,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원 일동,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임직원 일동, 제7교구 신도회 일동, 수덕사 신도회 · 선정회 · 무이회 · 관음회 · 우담바라합창단 · 수덕사를 사랑하는 모임 일동
- 불교신문 · 불교방송 · 불교TV · 현대불교 · 법보신문 · 주간불교 임직원 일동

執行委員長 : 장주 원택 현응 원담 법정 김의정

執行副委員長 : 법안 허운 탁연 정념 심경 현진 현관 화랑 일관 진명 지현 법진 명호근 손안식

都　　監 : 현진 지현 도문 지운 최 연

秉　　法 : 원명 능허

儀　　典 : 무관 수경 성관 삼혜 각만 재현 혜조 정업 정범 지인 철우 명담 전형근 이용권 박종학 함동철 양정술

知　　賓 : 법안 허운 탁연 정념 심경 현관 화랑 일관 진명 법진 태연 보정 여연 미산 지원 성정 진원 종수 동진 청학 정산 법선 봉녕사 · 운문사 · 청암사 · 동학사 승가대학 학인

財　　務 : 혜경 박종현

卍　　帳 : 혜경 장영욱 권상혁

接　　受 : 혜경 단호 일현 동주 김미숙 신종은

弘　　報 : 동출 원철 황찬익 박맹수 조병활 문종남 윤승환

護　　法 : 태진 봉은 법원 관행 탄원 심학 혜오 혜일 각우 황철기

院　　主 : 원경

侍　　者 : 효웅 본해 진광 명정

茶　　角 : 조계사신도회, 봉녕사 · 운문사 · 청암사 · 동학사 승가대학 학인

進　　行 : 만초 주경 김영일 박상희 이세용

運　　柩 : 수암 수덕사

駐　　車 : 서호 김영환

施　　設 : 방광일 정종모

門徒代表 : 지만

恩法上佐 : 지만 도광 정묵 도신 석준 돈성 세준 선본 광운 도묵 보운 우봉 도웅 진광 지욱 우진 명관 명정 명진 보림 도준 진만 진홍 도문 도국 도한 도원 도윤 도철 도성 도경 도운 도봉 도진 도근 혜산

孫　上　佐 : 상인 상원 상국 상준 덕문 청법 덕수

在家弟子 : 도정 도인 도암 도현 도천 일성 성탄

大韓佛敎曹溪宗 總務院長 仁谷堂 法長大宗師 宗團葬 葬儀委員會

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현대불교 호외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9월 12일(음력 8월 9일) 월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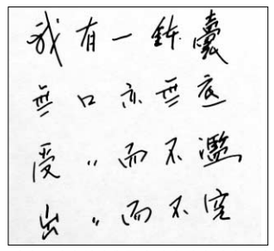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원적

9월 11일 새벽 … 대종사·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15일 조계사서 종단葬 … 법구 기증 따라 다비식 없어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 대행 현고 스님(사진 오른쪽)과 상좌 정묵 스님(왼쪽)이 법장 스님 영정 앞에 대종사 법계를 봉정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법장 스님이 원적에 들기 직전 시자 진광 스님에게 써준 평소의 가르침.

조계종 총무원장 인곡(仁谷)당 법장(法長) 스님이 9월 11일 오전 3시 50분 경 원적에 들었다. 세수 64세, 법랍 45년.

조계종은 11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스님께서 더욱 건강한 몸으로 종단 발전에 진력하고자 신병을 치료하던 중 열반에 드셨다"며 "총무원장스님의 갑작스러운 열반 앞에 애통한 마음을 감출 길 없으며 전 종도와 더불어 깊은 애도를 드린다"고 발표했다.

빈소는 조계사 대웅전을 비롯해 전국 교구 본사별로 설치됐으며 조문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영결식은 15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 인곡당법장대종사종단장(葬)'으로 치러진다.

장례위원장은 총무원장 권한대행 현고, 호상은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 장례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중앙종회 부의장 장주·원택, 해인사 주지 현응,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이 맡았다.

조계종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답화문을 통해 "제31대 총무원 집행부는 스님의 큰 뜻을 계승해 종헌 종법 질서에 따라 총무원장 권한대행 체제를 구축하고, 조속한 시일 내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총무원법에 따라 총무원장 권한대행을 총무부장 현고 스님이 대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계위원장 보성 스님을 비롯한 법계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법장 스님에게 '대종사' 법계를 추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법장 스님은 11일 새벽 입적하기 전 시자 진광 스님 요청에 따라 평소 대중 법문 때 마다 신도들에게 즐겨 말씀했던 "나에게 바랑이 하나 있는데(我有一鉢囊) 입도 없고 밑도 없다(無口亦無底) 답아도 답아도 넘치지 않고(受受而不濫) 주어도 주어도 비지 않는다(出出而不空,)"를 시자스님 노트 뒷장에 친필로 남겼다.

정부는 13일 법장 스님이 재임중 활발한 국내외 활동을 통해 민간 외교에 기여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법장 스님은 1960년 수덕사에서 원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뒤 제방선원에서 안거를 성만했다. 중앙종회의원 4선, 수덕사 주지, 동국학원 이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 한국불교선학연구원 이사장,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왕성한 사회활동을 펼쳤고 종정표창, 교정대상(자비상) 국민훈장(목련장) 등을 받았다.

한편 스님의 법구는 지난 1994년 사후에 각막, 장기, 시신을 기증하기로 서약한 것에 따라 동국대 일산병원에 기증됐다. 따라서 종단장 최초로 다비식 없는 영결식이 거행된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법장 스님 행장

1975. 양산 통도사 극락선원서 안거 성료
1980.~ 중앙종회의원 4선 역임
1981.1.19.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장
1982.3.27. 조계종 사회부장
1984.1.09. 조계종 재무부장
1984.8.02. 조계종 선거관리 위원
1984.8.30. 조계종 재심호계위원
1987.7. 학교법인 동국학원 재단감사
1992.4.22.~2003. 2. 수덕사 주지
1992.4.~2003.5. 충청남도 지방경찰청 경승실장
1994.4. 조계종 개혁회의 의원
1994.11.~ 조계종 법규위원
1998.3. 전국 본사주지연합회 회장
1999.2. 한국방문의 해 추진위원
1999.~2003.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
1994.~ (사)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
1999.1. 한국불교선학연구원 이사장
2003.2.~ 조계종 총무원장, 중앙승가대 이사장,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회장,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장

■수상경력

1982. 7. 9. 조계종 종정표창 수상
2001. 6.20. 교정대상(자비상) 수상
2001.12.27 국민훈장(목련장) 수상

■노무현 대통령 조의 메시지



"남북 화해 기여 자비 실천 큰 교훈"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원적에 들자 외국을 순방중인 노무현 대통령(사진)이 9월 11일 조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노 대통령은 조의메시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대종사의 입적을 애도한다"며 "대종사께서는 한국 불교의 선맥을 정립하고 정법 수호에 앞장서 오셨다"며 원적을 애도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최근 북한을 방문하는 등 남북 화해와 협력에도 크게 기여하셨다"며 "특히 동체대비사상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자비하심을 생활속에서 실천해 오신 것은 중생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다"며 고인의 업적을 기렸다.

■사회 각계각층 조의 및 조화 보내와

열린우리·한나라·민주당 등 애도 논평
천주교 주교회의 "종교 화합 기여" 밝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원적에 들자 사회 각계각층에서 조의를 표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당 등 각 정당은 9월 11일 각각 애도 논평을 냈다. 열린우리당은 논평에서 "법장 스님께서는 부처님의 자비와 은혜를 소외된 사회의 구석구석을 직접 찾아다니시며 행동으로 보여주신 '실천적 불교'의 표상이셨다"며 "특히, 남북한 불교 교류 활성화와 세계 각국과의 불교 교류 등 왕성한 대외 활동으로 한국 불교의 위상과 그 깊이를 세계인과 함께 해오셨다. 인류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자비와 자애로 포용하셨다"고 애도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도 11일 "불교의 발전과 종교간 화합에 크나큰 기여를 하신 스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데 대하여 많은 불자들과 슬픔을 함께한다"며 "법장 스님께서 보여주신 화합과 일치의 정신이 우리 안에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만 불광산 종위회도 12일 "큰스님의 높고도 높은 기개와 엄격하고 근엄한 수행정신, 넓고도 모범적인 사람됨, 보살 외 깨끗한 실천, 불교계가 모두 존경했다"고 애도했다.

남동우 기자



조문 온 스님들이 만장을 쓰고 있다.



빈소가 마련된 조계사 법당에서 독경하는 불자들.

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대종사 원적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일동 모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한 보시행…
장의위, 법장 스님 법구·장기 동국대 병원에 기증
1994년 사후 각막·장기·시신 기증 서약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시신과 장기가 종립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 기증돼 종단장 최초로 다비식 없는 영결식이 거행된다.

법장 대종사 장의위원회(위원장 현고)는 "생전에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을 역임하며 난치병 환자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한 장기기증운동을 이끌었던 법장 스님은 지난 1994년 3월 24일 누구보다 먼저 사후에 각막 및 장기, 시신을 기증하기로 서약했다"며 "이에 따라 문도들과 장의위원회는 수차례 숙의를 거쳐 법장 스님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 스님의 실천행을 완성하는 것이라 의견을 모아 조계종 총무원에 청원함에 따라 총무원 집행부에서는 긴급 종무회의를 개최해 시신기증을 의결했다"고 9월 12일 발표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12일 오후 3시 30분 경 조계사에 안치됐던 법구는 간단한 이운의식을 거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으로 이운됐다. 또 15일 영결식 후 예정돼었던 다비식은 취소됐다.

이와 관련 장의위원회는 "생명운동에 매진해왔던 법장 스님의 법구가 다시 새로운 생명의 싹이 되고, 우리 사회 내에서 보다 광범위한 생명나눔운동으로 활성화되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스님의 깊은 뜻이 널리 알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서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기획실장 법안 스님은 이날 오전 "장례에 들어 온 모든 조의금은 생명나눔실천본부와 승려노후복지기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법장 스님의 법구가 9월 12일 동국대병원으로 이운되기전 조계사 법당앞에서 고불식을 봉행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함께 하는 종단, 신뢰받는 종단’ 만들기 혼신



2004년 12월 착공식을 거행한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스님이 총무원장 당선 이후 가장힘을 쏟았던 불사다.


지난 5월 미국 방문시 법장 스님이 미국 정부 대북 관계자들을 만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청했다.

승가교육 체계개선에 온 힘…승려노후복지 원력커
최근 3개월 北·美·이라크 등 6國 순방 ‘평화 메신저’
대 사회활동 왕성…피해 동남아 불교국 돕기 앞장

각종 제도 개선사업 추진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아니 이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당선자로서의 기쁨은 다하고 숱한 번민과 고뇌만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총무원장이 짊어져야 할 몫이라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종단과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고뇌를 받아들이겠습니다.”

2003년 2월 24일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법장 스님. 스님은 ‘숱한 번민과 고뇌만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다.

스님은 취임 100일을 맞아 제31대 총무원 종책기조 및 중점종책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법장 스님은 ‘함께 하는 종단, 신뢰받는 종단’을 구현하기 위해 4대 종책 기조 아래 31개의 구체적 사업을 제시했다. 4대 종책 기조가 바로 △수행종풍 진작으로 거듭나는 종단 △참여 속에 함께하는 원융종단 △종도와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종단 △미래를 지향하는 효율적인 종단 실현이다.

법장 스님은 4대 종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조계종 최초로 ‘비구니 부장’을 임명했다. 비구니 차별이 엄존하는 현실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하지만 스님은 “비구니 스님이 과반수가 넘고 여성의 역할이 커지는 사회흐름에 따라 비구니 스님을 부장에 임명했다”며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선거공약이었던 ‘비구니부 신설’은 스님 원적으로 향방을 가늠하기가 어려워졌다.

스님은 또 종단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인 승려노후복지를 위해 ‘자비의 보험금 나눔 운동’을 펼쳐 약정금 20억여 원을 확보했다. 10개 교구본사에 실비노양시설 설립을 정부 지원을 받아 진행시켰고, 세납 65세 이상 스님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승려노후복지 대책팀을 구성했다. “스님들의 노후가 보장되지 않으면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종단이 안정될 수 없다”는 지론 때문이다.

종단의 근간을 새롭게 다지기 위해 승가교육제도 개선 사업도 추진했다. ‘승가교육개선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승가교육개선안을 마련한 다음 현대적인 승가교육체계의 단초를 마련했다. “제대로 된 성직자가 되기 위해선 기초교육이 탄탄해야 한다”는 스님의 소신이 짙게 배여 있는 대목이다.

2004년에는 승풍 진작과 종단 위계질서 확립 차원에서 그 동안 끊겼던 대종사 법계 품서를 거행했다. 종지종풍 선양을 위해 종도 도의 국사 다례재를 봉행했을 뿐 아니라 〈조계종사〉 고증 세련을 발간해 종단사 정립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했다.

종단의 실질적인 화합과 중앙과 교구본사 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처음으로 교구별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방의 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한 뒤 종무에 반영토록 하기 위함이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1사찰 1가정 결연 후원 운동을 전개할 때다.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과 국장들이 종로구청 내 소년소녀가장과 결연할 때, 스님은 당신부터 결연한 소년소녀가장에게 대학 진학 시까지 장학금 지원을 약속했다. ‘말’ 보다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불사에 남다른 노력

법장 스님은 총무원장에 당선되기 전부터 ‘행정의 달인’이라고 불리며 각종 ‘불사’에 남다른 능력을 보였다.

총무원장 당선 후 스님이 가장 힘을 쏟아 추진했던 불사는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한국불교 미래를 개척해 나갈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는 공주 마곡사 인근에 3년간 국고 122억원, 자부담 122억원 등 총 244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돼 대지 9천여평 건물 4천여평으로 조성된다.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는 조계종 스님 및 신도, 불교단체, 문화예술단체들의 교육과 연수활동을 개발 · 유치하게 된다. 또 무형의 유산을 문화산업으로 개발할 뿐 아니라 국제간화선 체험센터를 운영, 한국 선불교사상을 내 · 외국인들에게 전파할 예정이다.

스님은 부처님 뜻을 펴기 위해 국내외를 가리지 않았다. 역대 선지식의 인연처였던 금강산 신계사를 복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현지에서 대웅보전 낙성식을 봉행했다. 복원불사는 2007년까지 만세루, 3층 석탑, 요사채 복원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장 스님은 낙성식에서 “소실되었던 신계사를 복원한다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족화합과 통일의 초석을 놓은 것”이라고 복원 의의를 밝혔다.

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남아시아 국민들을 위해 ‘자비의 탁발’로 20여억 원을 모금한 것은 종단 초유의 일로 기록될 만 하다.

이를 바탕으로 2004년 5월 불교국가인 스리랑카에 ‘조계종 마을’을 건립할 수 있었다. 스리랑카 라투나푸라 지역에 건립된 조계종 마을에는 총 2억6천만 원의 ‘자비의 수재성금’이 투입돼 마을회관, 법당, 설법전, 보건소 등이 마련됐다.

조계종은 뿐만 아니라 스리랑카에 고아원과 양로원을 포함한 현대식 종합복지센터를 건립 운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법장 스님은 조계종의 총본산 격인 조계사와 총무원 성역화 사업을 이끌었다. 2004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차 준공식을 완료했으며, 1달 뒤에는 전체 공사를 회향하는 준공식이 열릴 예정이었다. 총본산성역화불사기금 10억여 원도 모금해 향후 성역화 불사의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

2005년 여름에는 박물관 수장고 공사를 완료해 ‘불교중앙박물관’ 개관 기반을 확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 공사 문제로 고초를 겪기도 했다. 공사 입찰부터 법장 스님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관여된 부정과 비리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월간중앙’ 사태 등 원적 전까지 힘든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국내외 사회활동 활발

“부처님은 사람들이 강을 놓고 서로 차지하려고 영토 싸움을 할 때 강이 중요한가 사람이 중요한가 하시며 싸움을 말렸다. 핵 포기는 모든 인류의 희망이지만 이는 성급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포기시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2005년 5월 미국 정부 대북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법장 스님은 생전 ‘1달에 1만㎞’를 다닌 것으로 유명하다. 그만큼 대외 활동이 왕성했다는 증거다. 특히 원적에 들기 전 가장 활발했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 “원적에 드시기 전 미리 다 둘러보고 가시려고 그렇게 바쁘게 다니셨나 보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법장 스님은 원적에 들기 4개월 전인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이라크, 미국, 북한, 대만, 사할린, 일본 등 6곳을 순방했다.

이와 관련 법장 스님의 사형인 설정 스님(前 중앙종회의장)이 “종단 외부 문제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종단 일이나 잘 처리하라고 당부하면 법장 스님은 ‘승속이 따로 없다. 우리 종교계를 대표해 불교계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며 회고했다.

법장 스님의 이라크 방문 시 여러 가지 견해가 상반됐다. 민간 지도층 인사 최초로 방문하는 것이었지만 이라크 자이툰 부대 성격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장 스님은 “나는 순수하게 종교인으로서 이역만리 타국에서 이라크인들의 재건과 평화를 위해 노고가 큰 우리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다. 장병 여러분의 정성을 다한 활동이 곧 부처님의 자비를 널리 펴뜨리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최초로 미국을 방문한 법장 스님이 백악관과 국무성 고위 관리들을 연쇄적으로 만나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6자 회담 재개를 설득한 일은 국가적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법장 스님은 방문 중 미국 고위 관리들을 통해 이러한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디트러니 북핵 대사는 “스님의 말씀과 강렬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서 영광”이라며 “지속적으로 한미동맹의 결속을 다지고 종교 분야의 역할에 대해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8.15 민족통일대축전 남측 명예대표로 방북해 남북간 화합의 마당을 마련한 것 또한 의미 있는 일로 평가받는다. 현직 총무원장으로는 최초로 방북했을 뿐 아니라 안경호 북측대표를 만나 북핵문제를 평화적인 대화로 풀어갈 것과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등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법장 스님은 이외에도 대만을 방문해 포광산쓰싱윈 대사와 만나 한국-대만 불교우호교류 협력방안을 이끌어 냈다. 또 강제 징용된 한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사할린을 방문, 그들의 상처를 위무해 한국불교에 살아있는 자비심을 심었다.

‘함께 하는 종단, 신뢰받는 종단’을 만들기 위해 국내외를 마다하지 않고 바쁜 걸음을 했던 법장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2005년 9월 11일 오전 3시 50분 경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입도 없고 밑도 없는’ 바랑에 담고 원적에 들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빈소에서 각계 인사 추모의 말

9월 11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원적하자 외국을 순방중인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해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이 빈소를 찾는 등 사회 각 계각층에서 추모가 줄을 이었다. 다음은 11일 원적 후부터 12일 오후 3시까지 빈소를 찾은 사회 지도층의 애도의 마음을 정리했다.

나라위해 온몸 실천하신 분

■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법장 스님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이 많았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전해 오셨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법장 스님에 대해 “국가를 위해 좋은 일을 온 몸으로 실천하신 분이라는 것은 불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스님은 비록 입적하셨지만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지켜봐 주시기를 믿는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법장 스님의 뜻을 계승하고 이어받아 평화통일의 염원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관련부처를 통해 앞으로 종단과 관련된 모든 일을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믿고 싶지 않을 정도

■ **전두환 前 대통령**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입적하셔서 무척 서운하다”며 “처음 법장 스님의 입적 소식을 들었을 때는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참담한 기분이었다”고 애도했다.

늘 각별한 보살핌 주셨건만

■ **이해찬 국무총리**

“법장 스님은 존경해오던 종교계 지도자로 평소 국정의 어려움을 상의할 때마다 각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주셨는데 갑자기 입적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애석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비통해 했다.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했는데…

■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

“큰스님께서 생전에 참으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갑작스러운 열반 소식을 듣고 슬픔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열반 소식에 큰 슬픔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큰스님의 수술 소식을 듣고 이번 주에 문안 가겠다고 말씀드렸고 스님께서도 반가워하시며 기다리고 계셨는데 갑작스러운 열반 소식을 듣고 큰 슬픔에 잠겼다”며 “한국불교와 종단 대화합을 위해 애써 오셨던 법장 스님의 평소 원력이셨던 호국정신을 잘 받들어 계승하고, 큰스님께서 극락왕생하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스님 잃고 나니 외로움 느낀다

■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대표**

“법장 스님이 주신 목탁 선물을 핸드폰에 잘 달고 다니면서 늘 자랑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상상도 못했다. 마음속으로 저를 많이 아껴주시던 스님을 잃고 나니 굉장한 외로움을 느낀다”며 사형인 설정 스님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얼마전 뵈었는데 이리 무상할수가

■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정동채 문광부 장관은 “저에게 총무원장 스님께서는 국사를 돌볼 때 항상 차분하게 임하라는 충고와 더불어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따뜻한 위로를 주셨던 분”이라며 총무원장 스님을 회고했다.

정 장관은 “한국불교 중흥기에 크나큰 일을 앞두고 입적해 매우 애석하다. 그러나 스님께서 불교계를 위해 애쓴 것을 국민 모두 알고 있다. 후학들이 스님의 뜻을 잘 이어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입적을 애도했다.

남북 화해협력 뜻 이어야

■ **정동영 통일부 장관**

“종교계 큰 지도자면서, 국민들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법장 스님의 입적이 믿겨지지 않는다. 평소 남북간 종교교류, 화해 협력에 크게 기여해주셨던 큰스님이 안 계신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며 “불교계가 남북 교류와 종교교류를 위해 헌신했던 법장 큰스님의 뜻을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애도했다.

문병 계획했었는데 황망

■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2주전 아침, 저녁을 함께 했고 10일간 남미출장 다녀와 문병을 하려고했는데 황망하다”며 “영결식에 참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온 국민 애도…슬픔 금치 못해

■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사부대중 모두를 위해 노력해주신 법장 스님께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근태 장관은 “신뢰받는 종단을 표명하고 불교를 바르게 세워주신 스님께 온 국민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며 “스님의 뜻을 성취하고 발전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문제 조언해주셔서 빚진 심정

■ **박선숙 환경부 차관**

“법장 스님께서 환경문제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늘 빚진 심정이었다”며 “너무나 허무한 일이라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다”고 설정 스님에게 말했다.

사회통합 노력해온 훌륭한 지도자

■ **이미경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갑자기 입적하시게 돼 너무나 놀랍고 슬프다”며 “법장 스님은 불교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온 훌륭한 지도자”라고 애도했다.

큰 뜻 받들겠다

■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개인적으로 사회활동을 같이했고 공직활동 시작 후에도 청불회장 소임을 맡아 인연이 깊었고 평소 많이 아껴주셔서 의지가 되었는데 비보를 접해 황망하다”며 “종교활동뿐만 아니라 정부 분야까지 관심 가져주신 스님의 큰 뜻을 받들어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역사문화기념관 준공 보셨더라면

■ **이명박 서울시장**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준공을 앞두고 원적하신 것이 안타깝다”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은 불교시설만이 아니라 시민의 시설이니 만큼 조경문제 등 스님 유지를 받들어 시민들과 국가의 중요한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과학자로서의 삶에 길잡이

■ **황우석 서울대 교수**

“강화 전등사에서 총무원장 스님 쾌유 불공을 드리다가 빈소를 찾았다”는 황 박사는 “어제 뵐 때까지만 해도 좋으시더니 너무 큰 충격이다”며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했다.

“어제 저녁 모든 고통과 아픔은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던 큰 스님의 말씀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큰스님은 과학자로 삶에 길잡이가 되어주셨다”면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과학을 꽃피워 달라는 스님의 당부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망하게 가시니 망연자실

■ **백낙청 남북공동행사준비위원회 상임대표**

“법장 스님께서 8 · 15 민족대축전에 참가하셔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황망하게 가시니 망연자실할 뿐이다”고 말했다.

평생 고통 모으러 다닌 인자하고 따뜻했던 수행자

불교 대중화 세계화 앞장선 '원력보살'



수해 지역을 방문한 법장 스님이 직접 비질을 하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사람들이 원장스님 원장스님 하지만 난 그저 고통을 모으러 다니는 나그네일 뿐이지요."

총무원장 소임을 맡은 지 6개월쯤 지난 2003년 여름, 법장 스님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었다.

법장 스님의 45년 수행자 생활은 스님 스스로가 원했듯이 대중과 함께 한 삶이었다. 사람을 좋아했던 성품 그대로 누구에게나 따뜻함을 잃지 않는 인자한 수행자였던 법장 스님. 법장 스님은 덕숭산 가풍을 이은 참선 수행자로서, 종단의 최고 행정 전문가로서 선풍을 진작시키고 불교의 사회화 · 대중화 · 현대화를 이루기 위해 오롯이 대승보살의 실천적 삶을 살아 온 이 시대의 '원력보살'이었다.

법장 스님은 출가 뒤 덕숭산의 정혜사 능인선원과 통도사 극락선원에서 용맹정진을 하며 5안거 동안 화두정진을 했다. 선의 본산인 수덕사 주지를 맡고 나서도 법장 스님의 수행정진은 계속됐다.

매일같이 정진을 거르지 않으며, 새벽예불은 반드시 올리고, 도량청소에 빠지지 않으며, 대중들과 함께 공양하고, 사하촌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다섯 가지 계율을 스스로 정하고 이를 지켰다.

평소 법장 스님은 '신심 · 원력 · 무사심(無私心)'을 수행자가 지녀야 할 기본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후학들에게는 늘 "신심이 없으면 속인과 다를 바가 없으니, 일체의 사심을 버리고 수행에 정진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력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렇게 수행자로서의 면모를 지켜 나가면서 한국 근대 선의 중흥조인 경허 · 만공 · 용성 대선사의 선풍을 진작시키는데도 앞장섰다. 1992년에는 '한국불교선학연구원'을 설립해 선 보급에 나섰으며, 선지종찰인 수덕사의 본래 모습을 되찾겠다는 계획 아래 수덕사 종합 중창불사를 벌였다.

총무원장이 돼서도 선 중흥에 대한 관심은 식지 않았다. 인터넷을 통해 한국 선을 알리고, 외국인을 위한 참선 수행관을 짓겠다는 발원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했으며, 각종 선법회에 참석하는 등 선의 대중화에 앞장섰다.

법장 스님은 수덕사 주지 시절부터 자타가 인정하는 종단의 최고 행정 전문가로도 꼽혔다. 1981년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장을 시작으로 종무행정에 발을 들여놓은 법장 스님은 조계종 사회부장, 재무부장 등을 거치면서 실무능력을 쌓았다.

또 수덕사 주지로 있으면서 정부 및 자치단체 행정에 대해서도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다져진 이론과 실무능력은 총무원장으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 정부 행정을 펼치면서 빛을 발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법장 스님의 진면목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다. 수덕사 주지시절 불우한 아이들을 데려다 키운 것이나, 교도소 재소자 교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나, 생명나눔실천회를 설립하고 장기기증 · 생명살리기 운동에 나선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사람을 소중히 여겨던 스님의 철학은 자연스럽게 인재양성으로 이어졌다. 수덕사 주지 당시 20년을 넘게 전국 선방의 대중공양을 해 온 스님은 총무원장이 돼서도 이를 거르지 않았다. 또 역대 총무원장 중 승가교육에 대해 가장 깊은 관심을 쏟으면서 승가교육체계 확립에 심혈을 기울였을 뿐 아니라 청소년 대학생 등 인재를 키우는데 전력을 다했다. 법장 스님은"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사"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었다.

법장 스님은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과 격의 없이 만나길 좋아했다. 언제 어디서든 자신을 만나러 온 사람은 그냥 돌려보내는 법이 거의 없었다. 2년6개월의 총무원장 재임기간 중에 사람들을 만난 횟수는 역대 총무원장 중 최고다. 숨 돌릴 틈 없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법장 스님은 일반사회 사람들은 물론 신도단체 대표나 신행단체 불자들 대부분을 만났다.

체면과 격식을 차리지 않는 성품이었지만 어른을 공경하는데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깍듯했다. 누구보다 '승려노후복지'를 강조했던 것도 바로 이런 성품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모든 것을 항상 열어 놓고 있어야 한다'는 소신은 총무원장이 돼서도 변함이 없었다. 총무원 출입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감 없이 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로 법장 스님은 언제나 마음을 열어놓으려고 노력했다.

체면 · 격식 따지지 않고 수많은 이들과 열린대화 불우 어린이 꾸준히 도와

이렇게 자상한 성격 때문에 때로는 "총무원장 격에 맞지 않게 작은 일에도 나선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법장 스님은 "모두가 부처님 일인데 크고 작고가 어디에 있겠느냐"고 말했다.

소탈하고 꾸밈없는 성격 역시 이따금씩 '종단 정치'에서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했다. 능란한 정치보다는 원칙과 대화로 풀어나가려는 법장 스님의 스타일은 때로는 '종단 정치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법장 스님은 늘 "나는 정치인이 아니라 수행자"라며 여유를 잃지 않았다.

'눈길을 가는 나그네여, 조심해서 발을 디뎌라. 오늘 네가 가는 그 행적이 뒷사람이 따르는 이정표가 되리니'.

법장 스님이 가장 즐겨 읽던 서산대사의 시구다. 어디에도 걸림이 없었던 자유자재한 수행자였던 춘성 스님과, 평생 일꾼들과 똑같이 일했으면서도 뛰어난 수행력을 보였던 노스님(은사 원담 스님의 은사) 벽초 스님을 사표로 삼았던 법장 스님은 후학들의 이정표가 되기 위해 수행자로서의 길을 걸었다.

고등학교 재학시절, 출가한 사촌형에게서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당당하고 여유로운 수행자의 모습'을 보고 출가를 결심했던 법장 스님. 당당하고 여유로운 수행자로서의 삶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곳곳에 남아있다. 한명우 기자

활발한 복지 · 사회 활동 펼치다



법장 스님은, 인식이 아직 생소했던 10여년전 불교계 장기기증본부인 '생명나눔실천회'를 창립, 이타행에 앞장섰다. 사진은 2004년 3월31일 롯데호텔에서 거행된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창립10주년 법회에 참석한 법장 스님(앞줄 왼쪽).

9월 11일 열반에 든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역대 총무원장 가운데서 가장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했다.

"항상 모든 것을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는 소신으로 스님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유자재한 대화를 펼쳤으며 불교의 대중화, 사회화를 위해 헌신했다.

그래서 상좌스님들은 '늘 말씀보다 행동이 우선하는 분'이었다고 회고한다.

스님은 이미 조계종 총무원장에 선출되기 전부터 조계종 전국본사주지연합회 회장과 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을 비롯해 충남 지방경찰청 경승실장, 한국유권자운동연합 공동대표, WFB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지부 총재, 동국학원 재단이사, 대한불교청년회 부총재 등 교계 안팎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스님은 종단 내적으로도 종단개혁과 정화를 위한 실천정신으로 언제나 선봉에 섰다. 스님은

사형제 폐지운동 앞장 장기기증 문화 싹틔우고 북한동포돕기 자비행

1994년 개혁회의위원, 1999년 법규위원으로서 종단개혁에 일익을 담당했다.

1998년부터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의 친목모임인 전국교구본사주지연합회 회장을 맡으면서 북한산 터널 관통 반대운동, 98년 종단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스님은 1994년 3월 '생명나눔 실천회'를 창립, 불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고통 받는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꺼져가는 생명에게 새 삶을 주는 사회복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뒤에 이름이 바뀐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화장유언 서약을 통한 사업과 어려운 환자 돕기 운동도 펼쳐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복지단체로 성장했다.

불교계 안에서조차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 및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였던 당시 상황에서, 보다 열린 시각과 깨어있는 생각을 가진 스님의 이러한 원력과 실천행은 생명운동의 불길을 지피고 불자들로 하여금 남을 위한 이타행(利他行)을 실천하여 깨달음을 완성하도록 이끌었다. 나아가 생명나눔실천회는 개신교 · 가톨릭의 장기 기증 단체와 연대하여 종교의 벽을 허물고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켰다.

스님은 한국불교의 선맥(禪脈)을 정립하고 정법을 수호하여 인류를 구하고, 부처님의 정법을 역사와 사회에 여법하게 구현하여 청정 · 화합수행의 선풍을 이루고자 1999년 '한국불교선학연구원'을 설립해 선풍진작에도 앞장섰다.

매년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선사상을 연구 · 홍포하고 있는 '한국불교선학연구원'은 부처님의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선(禪)의 이해를 돕고 생활화하기 위해 도심 속 선방(禪房)의 역할도 수행하도 있다.

스님은 1986년부터 홍성교도소 종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정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재소자 교정교화운동을 펼쳐왔다. 2001년 6월에는 스님의 이러한 실천수행이 사회복지 증진과 교정의 사회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교정대상 자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스님은 오갈 데 없는 아이들 17명과 함께 '부처님 밥 같이 먹는 것도 인연'이라며 수덕사에서 돌봐왔고,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장학사업도 펼쳐 많은 인재를 배출했다.

스님은 이밖에도 1994년 사형제도 폐지운동에 앞장섰고, 북한 동포의 식량부족과 기아문제, 탈북자 대책, 국제난민 문제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법장 스님은 "남다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회를 위해 조그만 무엇인가라도 행하고 실천하는 삶,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불교는 인류의 행복을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내가 본 법장 스님

사형 설정 스님과 맡상좌 정묵 스님, 그리고 종무를 받들었던 기획실장 법안 스님은 9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기자회견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법장 스님과의 인연을 회고했다.

신념·소신 뚜렷한 열정가

수덕사 수좌 설정 스님(사형)



▲법장 스님의 출가시절은?

-개인적으로 법장 스님과 나는 은사 원담 스님 문하로 5년차를 두고 출가했다. 젊은 시절부터 사제로 오랜 기간 애틋한 정을 나눴던 관계다. 어린시절 법장 스님은 약하고 말랐었다. 하지만 그렇게 부지런할 수가 없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오셨을 무렵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던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수행에 소홀해질 수 있는데 한번도 예불이나 참선에 빠지는 법이 없었다.

▲법장 스님은 어떤 분이셨나?

-생전의 법장 스님은 나름의 신념과 소신이 뚜렷하신 분이었다. 일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해서 잠은 서너 시간 이상을 주무시지 않았다. 인간관계에서도 남녀노소 부자거나 가난한 이나 누구도 가리지 않고 만나셨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라도 만나는 모습을 지켜보면 저절로 존경심이 날 정도였다. 승속가리지 않고 자신을 만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최선을 다해 대하셨다. 수덕사 주지를 15년 하면서 자기개인통장은 하나도 없었다. 유품정리를 하면서도 남은 건 지인들이 병원비에 보태라고 준 위문금 조금이었을 뿐이다.

▲은사 원담 스님은 알고 계신가?

-방장 원담 스님께는 아직 말씀 못 드렸다. 개인적으로 은사 스님께 당분간 알려드리지 않는

매사에 막힘없이 표리일체

선본사 주지 정묵 스님(맡상좌)



▲법장 스님의 병세는 어땠나?

-은사스님은 14년 전 충남병원에서 심장수술을 하신 적이 있다. 2달 정도 치료를 했는데 완치는 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막혔던 심장의 혈관 2곳을 뚫는 수술이었다.

▲입적 전 남긴 말씀은 없었나?

-입원하실 때부터 마지막 입적 전까지 사제도신 스님하고 같이 모셨다. 수술 전 은사스님은 한라산을 가시고 싶어 하셨다. 종단 소임자들과 재가 종무원, 조계사 식구들과 꼭 한라산을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수술실에서 시자를 통해 쓰시던 물건(수덕사 토굴 방문열쇠 등)들을 저에게 전하셨다. 지금 입고 있는 장삼도 은사스님이 물려주신 옷이다. 24년째 한번도 은사스님을 벗어나 살아온 적이 없는데 오늘 죄인의 심정으로 이런 자리에 서게 됐다.

▲스님과의 인연은?

-은사스님을 처음 뵌 것은 열 살 무렵 친척스님의 손을 잡고 수덕사로 갔을 때다. 따스한 손길로 나를 거두어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은사스님은 제게 엄격한 스승이자 자애로운 어버이셨다. 저 말고도 수많은 이들이 은사스님과의 인연으로 불법을 만났다. 상좌는 약 40명 정도다. 재가유발 상좌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평소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이 있다면?

-일생동안 수덕사의 가풍을 실천해 오신 분이시다. 늘 생사에 연연하지 말고 '마음한번 일어남이 태어남이요 마음한번 사라짐이 죽음이라 순간이 영원과 같음을 알고 최선을 다하라' 당부하셨다. 은사스님의 유지를 따르기 위해 문도들 모두가 신명을 바쳐 스님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이다.

열린 종무행정 틀 다지고 변화 이끌어

기획실장 법안 스님



▲종단 소임자들의 충격이 크지 않나?

-아직도 꿈을 꾸는 듯하다. 실감이 나지 않는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서 조금씩 현실로 느껴진다. 막상 병원에 입원을 하시던 날까지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다. 수술직전에 종단 소임자들에게 따로 말씀을 남기시겠다고 하셨지만, 큰 수술을 앞두고 원장 스님에게 부담을 드릴 것 같아 일부러 뵙지 않았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다.

▲재임 중 기억에 남는 일은?

-취임후 2년 7개월을 재임했던 법장 스님은 수덕사 시절부터 입적 전까지 정말 불꽃같은 시간을 보냈다. 밤낮을 가리지 않았고 종무를 보아오셨다. 31대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종무시스템의 변화도 많았다. 비구니스님이 부장을 맡았고 포교원 교육원에 국장석에 비구니스님들을 중용했다.

입적하시기 전까지 교구본사의 자치권한 확대와 승려노후복지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도입에 많은 신경을 쓰셨고 실제로 상당부분 도입이 되고 있다. 종무 내적으로는 외부 감사 시스템의 도입 등 많은 변화를 이끄셨다.

▲법장 스님의 유지가 있다면?

-늘 관심이 크셨던 분야가 사회복지였다. 그 가운데서도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애정이 컸다. 그렇게 스님의 도움을 받아 자라난 아이들이 많다. 영결식 날 스님의 도움을 받았던 한 아이가 직접 조사를 하겠고 해서 식순에 반영하려고 한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욕심버리고 시비분별 놓으면 곧 부처

경허 · 만공 선사의 가르침



2004년 3월 21일 조계사 법회에서 "부처가 되고 싶다면 모든 생각을 전부 놓아버리고 이 자리에서부터 욕심내고 시비하고, 옳다 그르다 하는 분별심을 놓아야 한다"는 요지의 법문을 한 법장 스님. 현대불교 자료사진

세여청산하자시(世與靑山何者是)
춘광무처불개화(春光無處不開花)
방인약문성우사(傍人若問惺牛事)
석녀심중겁외가(石女心中劫外歌)로다.

화창한 봄날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울 얼어붙은 날씨가 풀리듯 마음의 번민과 고민, 짜증, 슬프고 괴로운 일 모두 법당에 풀어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신나는 삶, 자유로운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법문을 하기 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자리에 오른 것은, 선원장 초청 법회가 아니라 조계사 초하루 법회의 법사로서 이 자리에 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전국에 계신 선원장 스님들께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읊은 게송은 경허 스님이 읊은 시로, '세상과 다뭇 청산이 어느 것이 옳은가? 봄빛 있으니 꽃피지 않는 곳이 없어라. 만일 어떤 사람이 경허의 가풍을 묻는다면 돌계집 마음 밖의 노래라 하리라'는 뜻입니다.

'돌계집 밖의 노래' 이것이 무엇인가를 참구한다면 이 법회와 더불어 선원장 스님들의 법문을 듣는 참뜻을 알게 됩니다.

불법은 삼계에 항상 있고 없지 않건만, 있다고 드러낼 것 없이 여여하게 있는 것입니다. 불법이 쇠해서 어려운 시절 경허 · 만공 선사께서 혜성처럼 나타나 근역선림(槿域禪林)을 중흥케 하고 불법을 크게 떨쳤으니 이분들이 석가세존과 다르지 않고 가섭존자와 다르지 않고 달마대사와 혜가대사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자의 굴 속에 다른 짐승이 살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경허 · 만공 스님이야말로 무소유의 가풍을 선양하신 분들입니다. 격렬한 조사선 가풍과 표리일체의 가풍을 선양하고 걸림없는 무애의 삶으로 일관하신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선원장 초청 법회 또한 제2의 경허와 만공을 길러내는 선불장이라 할 것입니다.

고인(古人)이 이르기를 "법문을 들을 때는 엷은 살얼음을 밟는 것과 같이 하라" 하였으니 이 말은 바로 눈으로 다른 경계에 대해 관여치 말고 잘 생겼다느니 말을 잘 한다느니 옳으니 그르니 법문이 어려우니 쉬우니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한 조각 밝음의 진실한 신심으로써 법문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 이전의 부처님 참뜻 알아야

원래 불법(佛法)은 입을 열면 그르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만 움직여도 곧 어긋나는 것이어서 개구즉착(開口卽錯), 동념즉괴(動念卽乖)라 하였으니 종일 설할지라도 근본에 있어서는 모두 다 마군의 업인 것입니다. 분별심을 가라앉히지 않으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말 이전에 부처님의 참뜻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49년을 설하고 나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를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고양이가 쥐를 잡듯 일념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허공장경>에도 "명상(名相)도 마업(魔業)이요, 문자도 마업이며 부처님의 말씀에 이를지라도 마업이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신심과 원력으로 경허 · 만공 선사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듣고 내가 가진 마음을 뒤집어 생사의 문제를 풀고 아무 걸림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경허 스님은 1849년 전주 자동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일찍이 아버님을 잃고 형은 입산하여 아홉 살에 청계사에 들어가 계허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다 한 유학자로부터 유학을 배워 통달하게 됐습니다. 그 후 은사인 계허 스님이 환속하게 되자 경허 스님에게 계룡산 동학사 만화 스님을 찾아가라 이르셨습니다. 경허 스님은 그곳에서 경전을 탐독해 불경을 남에게 가르치는 강백이 됐습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강의를 하던 중 경허 스님은 문득 환속한 은사 계허 스님이 뵙고 싶어 찾아가던 길에 전염병이 창궐하는 천안 지역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때 스님은 인생무상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동안 생사를 벗어나는 법을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은 생사에 허덕이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생각했습니다.

다시 동학사에 와서 모든 대중에게 "그동안 내가 설한 소리는 모두 허튼소리다. 대중들은 모두 자신의 근기와 인연에 따라 찾아가라"고 말한 뒤 문을 닫고 앉아 정진했습니다.

"사방을 돌아봐도 사람이 없네"

'여사미래(驢事未來) 마사도래(馬事到來)', 즉 나귀의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닥쳐왔다는 공안을 참구하며 밥과 물을 먹지 않고 심지어 졸리면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고, 뾰족한 송곳을 턱 밑에 두고 깜빡 잠이 들면 거기에 찔려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을 하던 어느 날 한 사미가 올라와 "스님, 마을에 내려가니 어느 거사가 '소가 되어도 코뚜레 꿸 구멍이 없는 소가 되어야 하느니라'라고 합니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활연대오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도송을 읊으니, '사고무인(四顧無人)이니 의발수전(衣鉢誰傳)이리오'.

사방을 돌아봐도 사람이 없네. 의발을 누구에게 전하리오.

인도의 성자 간디 선생도 어느 날 대낮에 사거리에서 등불을 들고 사방을 둘러보자 제자들이 "대낮에 무엇 하십니까?"하고 물으니 "사람을 찾고 있다"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경허 스님을 다시 해부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경허 스님은 학문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인물이 못생긴 것도 아니고 주위에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누가 가슴을 치는 것처럼 다가설 수 있어야 진실한 신심과 원력, 자기 삶에 걸림이 없이 살 수 있는 발심자가 될 것입니다.

경허 스님, '악~' 소리 하나로 가르침 전해
만공 스님, 주저함 없이 日 총독 크게 꾸짖어

경허 스님은 다시 걸망을 지고 주장자를 짚고 서산 천장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당시 형님이신 태허 스님이 주지로 계셨고 어머니가 공양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사미가 주지스님에게 "스님, 땟거리가 없습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경허 스님이 직접 탁발을 나갔습니다. 당시는 국가가 절의 논밭을 다 빼앗아 가고 스님네들은 사대문 안 출입도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집앞에서 목탁을 두드리자 주인이 나왔습니다. 주인이 "시주를 하면 그 대가로 나에게 어떤 공덕이 돌아옵니까" 묻자 스님은 "대가를 바라고 시주한 공덕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주인이 다시 "대가가 없다면 누가 시주를 하겠습니까. 썩 물러가요"라고 하자 경허 스님은 "시주를 못 받을망정 어찌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는가"하고 돌아서 왔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이 진사라는 선비가 쌀 한 가마니를 일꾼에게 짊어지게 하고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찾아갔던 집 주인이 바로 서산 지역에서 유명한 유학자였던 것입니다. 이 진사는 경허 스님의 범상치 않은 품격과 언동을 보고 그 학문의 깊이와 덕의 경중을 알아보고 싶어 찾아온 것입니다. 스님은 "그래 그렇다면 저울과 잣대는 가지고 왔습니까?"고 묻자 이 진사가 "그것은 저울과 잣대로 재보지 않고도 머리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때 경허 스님이 '악!'하며 고함을 벽력같이 치고 "방금 내가 지른 소리가 몇 근이나 되겠습니까?"고 물었습니다. 이 진사는 그 자리에서 깊이 사죄하고 하루 만에 경허 스님과 십년지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글과 말이 아닌 선의 가풍입니다. 경허 스님과 이 진사는 밤이 깊도록 정담을 나누었습니다.

"부처와 공자 중 어떤 분이 더 뛰어난 성인입니까?"라는 질문에 경허 스님은 "농사를 짓는 데는 농부가 제일이요, 물고기를 낚는 데는 어부가 제일이요, 시절 따라 사람 따라 인연 따라 어떤 성인에게 어떤 가르침을 얻었느냐에 따라 모든 성인은 다 제일이요 존경할 분입니다. 제각각 제일이라 이르셨으니 이것이 곧 부처님의 너그러운 가르침입니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경허 스님이 이 진사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한 소리 지른 것을 참구해야 합니다. 그 일갈(一喝)에 우주의 만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사가 다 그 속에 있고 극락과 지옥, 옳고 그르고, 기쁘고 슬프고 하는 일체 만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중국의 소동파(蘇東坡)는 학문과 문장에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스님들이 참선하는 모습을 보고는 "시줏밥을 먹고 졸고만 있다."고 자기 딴에는 깨우쳐 주기 위해 절에 찾아갔다가 큰스님의 할을 듣고는 눈이 캄캄해지고 분별심이 끊어졌어요.

소동파는 이 때 문득 깨달아 게송을 남겼습니다.

溪聲便是廣長說(계성변시광장설)이요
山色豈非淸淨身(산색기비청정신)이라.
夜來八萬四千偈(야래팔만사천게)를
後日如何擧似人(후일여하거사인)이리오.

"내가 어제 큰 소리를 한 번 듣고 깨우치고 나니 계곡물 소리가 부처님 말씀 아닌 게 없고 산 빛은 그대로 부처님의 청정법신이로다. 어느 스님은 큰 소리 한 번 질러 팔만사천 법문을 깨우쳐 주었는데, 나는 뒷사람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전할 것인가."

바로 이런 경허 스님의 일화는 석가세존의 생사를 초월한 그 일이나 달마가 생사를 초월한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문장이나 말을 떠나 일체 중생에게 가르침을 전한 것입니다.

이렇듯 분별심이 끊어질 때 진실한 불교를 알 수 있고 참선하는 진실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글과 말로 알려고 하지 말고 사량이나 분별심을 놓아야 합니다.

만공 스님에 관한 일화는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그 뜻을 어떻게 다 전하겠습니까. 다만 진실은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중 만공 스님이 일본인 미나미 총독을 꾸짖은 일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만공 스님께서 마곡사 주지로 계실 때 미나미 총독이 31본산 주지들을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미나미 총독이 "한국 불교는 일본에서 온 것이다. 일본 불교와 조선의 불교를 합병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데라우치 총독의 힘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만공 스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청정본연(淸淨本然)이거늘 운하홀생산하대지(云何忽生山何大地, 청정히 본연하거늘 어찌하여 산하대지가 나왔는고)"라고 크게 일갈을 내지르시고는 "전(前) 총독 데라우치는 우리 조선불교를 망친 사람으로 마땅히 지금 무간지옥에 떨어져 한량없는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이다." 하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날 밤 선학원으로 돌아온 만공 스님에게 만해 한용운 스님이 "스님, 스님의 벽력같은 소리를 듣고 미나미의 간담이 서늘했을 것입니다. 헌데 기왕이면 대성일갈에 그칠 게 아니라 주장자로 한 방 갈겨주지 그랬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이에 만공 스님은 "차나 한 잔 드시게, 이 사람아. 어리석은 곰은 방망이를 쓰지만 큰 사자는 원래 할을 하는 법이네"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말과 글이 아니요, 사무치는 일갈로 유생을 대한 경허 스님이나 칼과 총이 난무하던 일제 치하에서 총독에게 일갈할 수 있었던 만공 스님의 안목이 곧 생사가 없는 이치입니다. 이것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고 가는 것,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모두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생사가 없는 것이요, 저울질 잣대질 하는 마음은 생사윤회를 거듭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밤에 길을 가다보면 어둠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이 생기지요? 하지만 고부지간(姑婦之間)에 싸움이라도 하고난 뒤 갔다고 해 보세요. 어디 두려움이나 걱정이 생길 겨를이 있습니까? 그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경허 스님의 일화를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허 스님이 느닷없이 단청불사를 하기 위해 시주를 받으러 가자며 상좌 만공 스님을 데리고 탁발을 나섰습니다. 마을에서 시주를 받아오는 도중에 경허 스님이 주막에 가서 술을 시켜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만공 스님이 "스님, 이제 그만 하시지요. 얼굴이 벌겋게 되었습니다" 하자 경허 스님이 "주막에 술값을 치르거라"고 했습니다.

"단청불사 시줏돈으로 술값을 치르라는 말씀입니까?" 라는 만공 스님의 물음에 경허 스님은 "내 얼굴색이 술기운으로 벌겋게 되었으니 단청불사는 이미 다 된 것이거늘 달리 무슨 단청불사가 필요한가. 건물에 울긋불긋 단청하는 것은 결국은 모두 부서지고 마는 것, 마음에 단청불사 하는 것이야말로 마음을 바꾸는 불사로 영원한 것이다"고 답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는 것을 간절히 가르치신 일화입니다.

'저울질 잣대질' 하면 생사윤회 못 벗어

경허 · 만공 스님은 근대 한국불교의 중흥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 중에 경허 스님이 환속을 했다, 술을 먹었다, 궤변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시절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경허 스님께서 "사방을 둘러보아도 사람이 없구나! 이 법을 어찌 전할까?" 말했던 것도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법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경허 스님은 저자거리나 주막, 서당에서 전법을 했습니다. 중생에게 즐거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밤낮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행위 속에 담긴 뜻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처가 되고 싶다면 모든 생각을 전부 놓아버리세요. 이 자리에서부터 욕심내고 시비하고 옳다 그르다 분별하는 생각을 놓아야 합니다. 놓지 않으면 평생 병신 노릇을 하고 살 것이라 단언합니다.

(주먹을 쥐어 들어 보이며) 이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이걸 펴지 않으면 병신입니다. 주먹이 펴지지 않으면 병신노릇 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먹을 펴 보이며) 손을 이렇게 펴가지고 오므려지지 않으면 그것 또한 병신입니다. 이 손안에 모든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생사 없는 부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컵을 들며) 물을 마실 때는 손을 오므려야 합니다.

(컵을 내려놓으며) 이 때는 손을 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마음속에 고민이 있다면 모두 저에게 주시고, 대신 '만족'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집에 아무리 금은보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은 무간지옥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마음자리를 깨닫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 법문은 지난해(2004년) 3월 21일, 조계사와 현대불교신문사 공동 주최로 조계사에서 열린 '간화선 중흥을 위한 전국선원장 초청대법회'에서 설해진 법장 스님의 특별법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02)2004-8211~2